발간등록번호 2020 - 기획총괄 - 004호

최종보고서

2020 서울가족사업 효과성 연구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최종보고서

2020 서울가족사업 효과성 연구

서울가족학교 및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재림(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기쁘다(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박지수(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노신애(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김혜지(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요 약

제1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민의 가족생활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사업 중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은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분야의 대표사업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고유의 가족사업

■ 본 연구는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가족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첫 시도

■ 가족사업의 효과성: 특정 가족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의미 (만족도 ≠ 사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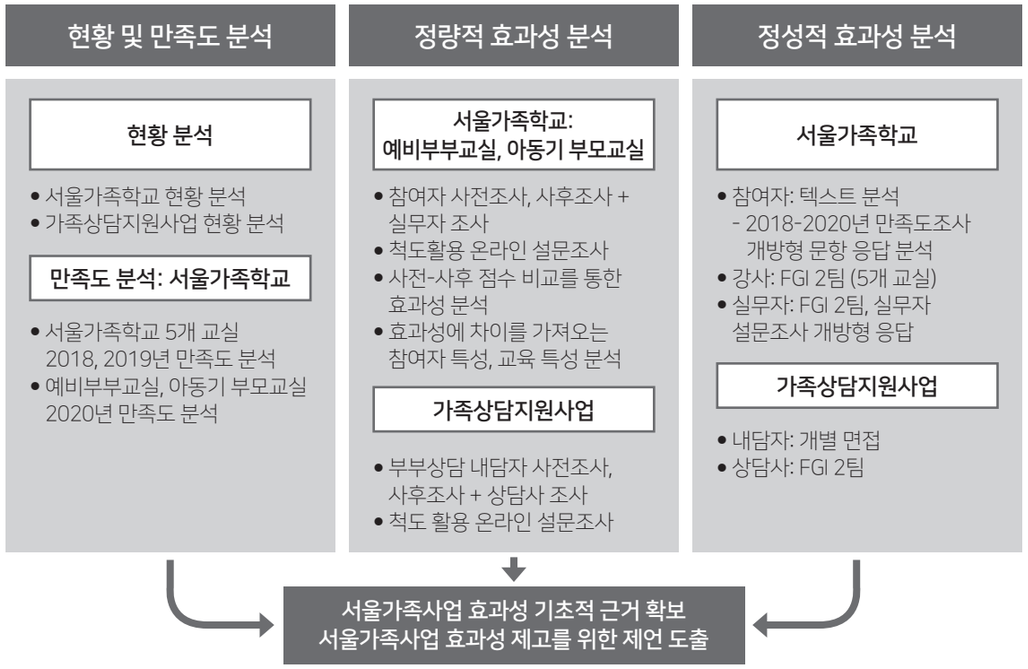
■ 서울가족사업의 효과에 대한 근거(evidence) 부재
- 기존 평가방법: 만족도, 참여자수, 진행회기, 우수후기, 우수가족사업 등

■ 가족사업 효과성 평가의 필요성
- 사업 관련 의사결정의 근거자료: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시민들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료
- 사업효과는 참여자 모집 및 사업 홍보의 기초자료

■ 연구목적
1.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2. 서울가족학교 참여자의 만족도 파악
3.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정량적 효과성 평가
4.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정성적 효과성 평가
5.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 도출

Ⅱ 연구방법

<그림 A> 연구방법 개요



제2부. 서울가족학교 효과성

Ⅰ 서울가족학교 현황

■ 서울가족학교: 서울시 가족교육사업 브랜드

■ 2015년 10개 자치구에서 시작. 2018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실시

■ 2020년 기준 5개 교실: 예비·신혼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패밀리셰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 예산: 시비 100%, 2020년 총 1,208,447,000원 (자치구센터당 약 4,834만원)

■ 차별성: 구조화된 교육과정, 체계적 사업운영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울가족학교 운영

■ 예비·신혼부부교실
- 대상: 예비부부교실은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에 관심이 있는 서울 생활영역권 비혼 커플. 신혼부부교실은 결혼 5년 이내 서울 생활영역권 신혼부부(사실혼 포함)
- 2016년부터 예비부부교실과 신혼부부교실이 통합되어 선택 운영
- 차시(주제) 및 회기수: 2020년 기준 예비부부교실은 건당 6차시 중 4회기 이상 실시. 신혼부부교실은 건당 5차시 중 4회기 이상 실시. 각 회기 120분
- 2020년 비대면 참여자 사용기기: 컴퓨터 63.9%, 스마트폰 20.1%, 태블릿 16% (N = 327)

■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 대규모, 병합형, 참여형 교육 중 선택
- 차시(주제) 및 회기수: 2020년 기준 7개 차시 중 건당 2회기 이상 실시 (코로나19로 전년도에 비해 1회기 단축) + 5차시(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선택. 각 회기 120분
-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56.79%는 과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경험 있음 (N = 280)
- 2020년 비대면 교육 참여 사용기기: 스마트폰 62.59%, 컴퓨터 24.44%, 태블릿 7.41% (N = 251)

■ 패밀리셰프
- 모든 가족이 다 같이 협동해서 요리 만들고 식사하는 가족 공동체 형성
- 차시(주제) 및 회기수: 2016 - 2020년 건당 2회기 이상 실시. 3개 차시(주제) 중 1차시 필수, 2 - 3차시 중 택일. 각 회기 120분, 총 240분
- 프로그램의 성격상 대부분 하루에 실시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등 기관과 연계하여 방문 실시
- 차시(주제) 및 회기수: 8개 차시(주제) 중 건당 1개 선택.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는 체험활동 1회기 추가

Ⅱ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만족도

1. 만족도 연구방법

■ 분석자료
- 2018년, 2019년: 25개 자치구, 5개 교실 만족도. 각 자치구센터에서 조사하여 서울시센터에 제출한 원자료
- 2020년: 연구팀 수집 온라인 만족도조사. 예비부부교실 305명, 아동기 부모교실 258명

■ 조사문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만족도조사. 2020년은 연구팀에서 일부 문항 추가

2. 만족도 분석결과

■ 전체 만족도: 2018년 4.68점, 2019년 4.69점
- 7문항 중 진행시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음
- 5개 교실별 만족도 평균은 비슷한 수준

■ 강사 만족도: 2018년 5개 교실별로 4.57~4.79점. 2019년 5개 교실별로 4.40~4.83점

■ 2020년에는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전반적 만족도, 강사 만족도 모두 감소

Ⅲ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1. 정량적 효과성 연구방법

■ 조사방법: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전)
- 사후(교육 후)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사전- 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효과적이었다고 보는 방식
- 효과성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참여자 특성, 교육 특성 추가 분석
- 교육 특성 파악을 위해 자치구센터 담당자 온라인 설문조사 병행

■ 분석범위: 2020년 예비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 선정이유: 2일 이상 교육. 교육내용이 구조화되어 건 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실

<그림 B>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설문지 구성

단계	사전조사(Pre-Testing)	사후조사(Post-Testing)	교육 특성 조사
조사시점	교육 수강 전	마지막 회기 종료 직후	
조사대상	교육 신청자(자발적 참여)	마지막 회기 참여자(자발적 참여)	자치구센터 담당자
문항 구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커플 특성(예비부부교실의 경우) • 효과성 지표: 사전 · 사후 동일 문항 • 사전 · 사후 매칭	• 모든 참여자 - 만족도(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통 서식) - 참여방법(비대면 사용기기 등) • 사전조사 응답자 - 효과성 지표: 사전 · 사후 동일 문항 - 프로그램 참여 정도(출결, 지각, 조퇴여부 등) - 사전 · 사후 매칭	• 교육 운영 방식 (교육 유형, 회기 구성, 운영방식 등) • 강사만족도 • 개방형 질문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 분석자료: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모두 응답한 경우만 분석 가능
- 예비부부교실: 총 271명. 이 중 커플 74쌍(148명). 17개 자치구에서 21건
- 아동기 부모교실: 총 213명. 14개 자치구에서 17건

■ 평가지표
- 예비부부교실: 결혼생활준비도(연구팀 개발), 커플관계만족도, 관계자신감, 부정적 상호작용, 우울(보조지표)
- 아동기 부모교실: 양육지식(연구팀 개발),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우울(보조지표)

■ 분석방법
- 사전 - 사후 점수 비교: 쌍체 티검증(paird t- tests)
- 참여자 특성, 교육 특성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 혼합 분산분석(mixed ANOVA)

■ 정량적 효과성 분석의 첫 단계 연구라는 의의가 있으나 한계점에 주목할 필요
- 추후검사 없음, 통제집단 없음, 실시의 충실성(fidelity) 정보 부족

2. 예비부부교실 정량적 효과성

■ 예비부부교실의 핵심 교육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결혼생활준비도 향상에서 여성과 남성 참여자 모두에게 큰 효과(여성 d = - .99, 남성 d = - .78)

■ 여성 참여자: 결혼생활준비도 이외에, 관계자신감 향상에 중간 크기의 효과(d = - .49). 관계만족도 향상(d = - .20)과 우울 감소(d = .19)에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

■ 남성 참여자: 결혼생활준비도 이외에, 부정적 상호작용 감소(d = .31)와 우울 감소(d = .27)에 중간보다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

■ 교제기간별 차이: 교제기간이 1- 3년, 3년 이상인 남성참여자는 교육 참여 이후 관계자신감 증가, 우울 감소. 반면,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남성참여자는 관계자신감 감소, 우울 증가

■ 구체적인 결혼계획 유무별 차이: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없는 여성참여자는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있는 여성참여자에 비해 교육 참여 이후 우울 수준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결혼여부별 차이: 기혼인 남성참여자의 파트너와의 부정적 의사소통 수준이 비혼 남성참여자에 비해 교육 이후 큰 폭으로 감소

■ 교육수준별 차이: 대학교(2- 3년제)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 이상인 여성참여자는 교육 이후 부정적 의사소통이 감소한 반면, 대학교(4년제) 졸업인 여성참여자의 경우 교육 이후 부정적 의사소통이 미세하게 증가

■ 심화회기 운영여부별 차이: 심화회기를 실시한 예비부부교실에 참여한 여성의 관계자신감이 심화회기를 진행하지 않은 교육에 참여한 여성의 관계자신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

3. 아동기 부모교실 정량적 효과성

■ 아동기 부모교실의 핵심 교육목표라고 볼 수 있는 양육지식 수준 향상에서 중간 이상의 효과(d = - .72)

■ 양육스트레스 감소에서 중간 효과크기(d = .46), 우울 감소(d = .35)와 양육효능감 증가(d = - .28)에서 상대적으로 작지만 유의미한 효과 발견

■ 자녀 문제행동 수준별 차이: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부모에 비해 교육 후 양육효능감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우울은 더 큰 폭으로 감소

■ 교육 운영형태별 차이: 참여형 부모교실에 참여한 부모의 양육지식이 대규모 또는 병합형에 참여한 부모의 양육지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

■ 비대면 교육 사용기기별 차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집단보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사용한 집단의 교육 이후 양육지식이 더 큰 폭으로 증가

Ⅳ 서울가족학교 정성적 효과성

1. 참여자 관점: 만족도조사 개방형 응답 분석

■ 2018년, 2019년, 2020년 만족도조사 자료 중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 분석

■ 예비부부교실
-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서로에 대한 이해. 결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 대화의 장. 구체적인 지식 및 기술 습득(재무설계, 의사소통 방법)
- 교육희망 주제: 갈등해결법, 섹슈얼리티, 주택, 재테크, 결혼식 준비, 예비배우자 원가족과의 관계, 부모됨

■ 아동기 부모교실
-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아동기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와의 대화 및 소통. 부모 - 자녀 관계의 중요성. 구체적 지식 및 기술 습득(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법, 성교육, 훈육·양육법, 자존감). 참여자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도움받음. 정서적 지지
- 교육희망 주제: 자녀 성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 가족 의사소통 방법

■ 청소년기 부모교실
-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자신과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지식 및 기술 습득(청소년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진로지도, 성교육)
- 교육희망 주제: 자녀와의 의사소통, 자녀 성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 진로지도, 가족상담

■ 패밀리셰프
-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자녀의 재발견. 가족공유시간을 통해 친밀감 향상. 지역사회 이웃과 교류의 장
- 교육희망 주제: 가족여행, 다양한 음식 만들기, 다양한 주제의 만들기, 여러 가지 체험활동,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자신과 아버지 역할 이해.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구체적인 지식 및 기술 습득(애착, 자존감, 훈육법, 의사소통 방법, 놀이법)
- 교육희망 주제: 자녀와의 소통방법, 자녀와의 갈등 해결방법,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 훈육법, 놀이, 자녀 연령별 성교육, 스트레스 해소, 행복 찾기

■ 서울가족학교 공통 개선사항 제안
- 시간: 각 회기 교육시간이 김, 교육 총 회기수 부족, 세부활동 시간 확보, 시간대 다양화
- 교육구성: 참여형 활동시간 및 실습시간 확대, 실생활 적용 및 사례 소개, 강의와 교재내용 일치
- 물리적 교육환경 개선, 예산 증대 등

■ 2020년 비대면 교육 관련 참여자 관점
-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육에 전반적으로 만족
- 개선사항: 사전 오리엔테이션 제공, 참여형 활동시간 확보, 강사와의 상호작용 강화, 회기별 소요시간 개선,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 다시보기 기능 추가 등

2. 강사 및 실무자 관점: FGI 분석

■ 연구방법
- 강사 FGI 2팀: 5개 교실별 2명, 총 10명
- 실무자 FGI 2팀: 9개 자치구센터, 총 9명

■ 서울가족학교 5개 교실의 목표와 효과: 교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교육목표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아서, 강사나 실무자별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다소 차이

■ 서울가족학교 효과의 핵심 요인
- 소통: 참여자- 실무자, 실무자- 강사, 강사-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 강사- 강사. 현장- 매뉴얼의 소통(현장의 목소리를 매뉴얼에 반영)
- 현실성: 지식이 현실로 이어지는 교육. 매뉴얼에 충실하되 현실을 반영한 교육

3. 실무자 관점: 설문조사 개방형 응답 분석

■ 전반적 제안: 교육내용의 시의성 강화, 필수차시 운영 재고, 자치구별 수정 가능성 부여, 교육시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 충족 어려움, 회기별로 다른 강사 선정의 제한점 등

■ 비대면 교육 관련 의견
-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교육 내용 구성 필요
- 교육형식: 운영방식 혼합이 적절, 강의녹화 필요, 컨설팅 방식이 적절
- 교육시간: 각 회기의 소요시간 단축, 예비부부교실 교육 요일 변경
- 참여자 모집: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참가 취소, 기관연계 불가능, 대면 홍보 제한
- 참여자 관리: 실제 참여여부 판단 어려움, 노쇼의 어려움, 수료율 유지 전략 필요
- 온라인 상호작용: 강사- 참여자 상호작용 한계, 사전 라포형성 중요, 실시간 피드백 어려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음성, 스케치북, 채팅) 시도
- 온라인 교육환경: 플랫폼 사용방법 안내의 어려움, 돌발상황 발생, 비디오 사용 여부, 오디오 연결 문제, 시스템 기능 한계로 인한 참여자 확인 어려움, 커플의 교육 참여 장소가 다른 경우의 제약
- 강사: 강사의 온라인 시스템 활용 능력 중요, 여러 회기를 한 명의 강사가 담당하여 연속성 확보
- 온라인 탑재형: 강의수강 독려 어려움, 참여방법 안내의 어려움, 플랫폼 개선

제3부.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Ⅰ 가족상담지원사업 현황

■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존 가족상담사업 보강을 위한 서울시 특화사업

■ 가족구성원 2인 이상이 3회기 이상 참여하여 가족상담을 실시한다는 특징

■ 2016년 이후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확대

■ 상담회기: 5- 15회기 (회기당 50분 이상)

■ 주간상담, 야간상담(의무), 주말상담(권장) 제공

■ 2020년 예산: 자치구센터당 448만원

■ 운영실적: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센터 휴관으로 감소

Ⅱ 가족상담지원사업 정량적 효과성

1. 내담자 상담 전- 후 설문조사

■ 부부상담의 효과성 평가지표: 결혼만족도, 부정적 상호작용, 우울, 부부 의사소통, 결혼불안정성

■ 코로나19로 인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기휴관으로 가족상담이 장기간 중단되었고, 본 연구의 정량적 자료수집도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

■ 사전조사(상담 전) 응답자: 내담자 35명
- 상담을 받으려는 주요 문제의 상태: 조금 심각 88.9%
- 상담에 대한 기대: 상담 후 '약간' 혹은 '매우' 좋은 상태가 될 것 88.9%

■ 사후조사(상담 후) 응답자: 사전조사 참여자 중 10명 응답. 불성실 응답 1사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9명 분석 (여성 66.7%, 남성 33.3%)
- 비대면 상담 33.3%, 대면 상담 55.6%, 대면과 비대면 혼용 상담 11.1%

■ 결혼만족도: 사전조사 점수보다 사후조사 점수가 약간 높은 수준으로 변화

■ 우울, 결혼불안정성: 사전조사보다 사후조사에서 낮은 수준으로 변화

■ 추후 더 큰 표본을 확보하여 통계적 검증 필요

■ 상담 후 상태: 상담을 받기 전보다 '나아졌다' 혹은 '약간 나아졌다' 66.6%

■ 상담 후 부부관계: '매우'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 55.6%

■ 상담 만족도: '만족' 또는 '매우 만족' 66.6%

2. 상담사 설문조사

■ 총 5개의 자치구센터에서 총 10명의 상담사 참여

■ 경력: 전체 상담경력 평균 6년 8개월.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경력 평균 5년 8개월

■ 부부·가족상담(2인 이상): 전체 경력 평균 78.20사례. 건강가정지원센터 경력 평균 75사례

■ 자격: 응답자 전원이 상단 관련 1급 혹은 2급 자격증 소지. 전원 석사학위 소지

Ⅲ 가족상담지원사업 정성적 효과성

1. 내담자 관점 효과성

■ 내담자 1:1 심층면접 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특화상담으로 부부상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내담자 5명

■ 가족상담의 효과성: 가족상담이 효과가 있었고, 상담을 통해 주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지각

■ 효과성의 구체적 내용: 생각이 변화했음. 배우자와의 차이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음.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 상담에 오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도움이 되었음

■ 효과적인 상담에서 상담사 요인: 공감해 주는 상담사. 상담사가 솔직하게 부부모습에 대해 알려주는 것. 깨달음을 주는 상담사. 상담사와 핏이 매우 중요(원하던 스타일의 상담사를 만나 만족스러웠음)

■ 아쉬웠던 부분: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음. 주 호소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 상담사 주도의 활동은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관련 피드백: 회기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 쉽게 다가갈 수 있음.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이 가능해서 만족. 물리적 환경은 좋지 않았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상담 후에도 다른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여 좋음

2. 상담사 관점 효과성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화상담 경험 상담사 FGI 실시 (각 5명씩 2팀, 총 10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의 효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 효과성 10점 만점에 7~10점
- 가족체계론적 관점으로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담의 효과성과 직결됨: 가족문제를 개인의 관점으로 다루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 특화사업에 부부 및 가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회기수 규정은 큰 장점
- 가족상담 전문성 강화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이 다른 복지관이나 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

■ 효과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상담사업 운영 시스템 필요
- 편의상의 상담사
- 내담자 매칭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매칭시스템 필요
- 행정 처리의 정확성 필요
- 내담자로부터 피드백 받는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 필요
- 비대면 가족상담 체계적 구축 필요
- 상담사의 안전 위해 CCTV, 비상벨 확보 및 정기적 점검 필요
- 센터 내 다른 프로그램과 체계적 연계 필요

■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 활용
-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가족상담에 전문성 있는 슈퍼바이저 필요
- 보수교육, 사례회의를 가족체계론적 관점 실시
- 권역별로 중간 컨트롤 기관 혹은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시스템 가능

■ 높은 상담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체계 확립
- 상담사 대부분 석사 이상, 자격증 보유
- 상담사들이 열정, 헌신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

■ 정기적 효과성 연구 및 척도의 다양화
- 상담전후에 사용하는 척도의 다양화 필요
- 사전 - 사후검사를 평소에도 하면 효과성 점검에 도움이 될 것

■ 회기수 및 회기 시간 관련 상담효과 중심의 융통성 필요
- 회기수 및 회기 시간이 부족한 것은 효과성 높이는 데 장애요인
- 부부 및 가족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규정은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장점

■ 전문적으로 가족상담 훈련을 받은 상담사 확대 배치
- 차별점을 부각하기 위해 전문성 필요
- 개인상담 전공자와 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협업 시스템이 필요

■ 가족관점의 센터 운영
- 기관장(센터장)의 방향성에 따라 센터의 특징이 많이 다르다는 것
- 센터의 가족중심 상담사업에 대한 방향성 확립 필요: 가족상담 및 가족을 체계로 보는 관점이 주요 정체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
- 가족상담 전문성이 모호하다 보니 현재는 사설기관으로 가기 위한 경력을 쌓는 중간과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다수

■ 효과성을 저해하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어려움 확인
- 가족상담 매뉴얼에 필요한 정보가 많지만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현실
- 잦은 실무자 교체: 적절한 처우 필요, 과도한 행정일 조정 필요
- 행정처리 중심으로 내담자, 상담사 관리를 하다 보면 상담의 효과에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

■ 상담사 처우 및 상담 유료화
- 현재 상담사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 상담의 효과성에 영향
- 무료 가족상담은 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었으나, 동시에 상담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

■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
- 방음이 안 되는 것은 비밀보장을 기본윤리로 하는 상담환경에 매우 부적절
- CCTV 설치 및 관리: 상담사 및 내담자 보호 위해 필요하지만, 누가 언제 접근 가능한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
- 개인상담 위주로 세팅되어 2인 이상 가족내담자를 위한 공간으로는 협소

■ 다른 기관과의 연계
- 교육청과 연계하여 부모 - 자녀 관계상담. 학회와의 연계

■ 홍보의 필요성

제4부. 정책적 제언

Ⅰ 서울가족학교 효과성 제고방안

1. 효과성 분석의 기반 조성

■ 교실별 핵심 교육목표 설정

■ 교실별 논리모형 개발

■ 성과에서 효과로 패러다임 전환

2. 비대면 교육 업그레이드

■ 비대면 교육의 시간: 소요시간 재고, 실습이나 커플대화 등 활동시간 확보

■ 비대면 교육의 다양성 고려: 운영유형, 사용기기, 교실별 차이

■ 실무자, 강사의 정보교류 채널 제공

3. 교육과정 및 매뉴얼 업그레이드

■ 필수차시 선정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 다양한 교육주제에 대한 요구 고려: 충분한 회기수, 심화과정, 주제순환 시스템

■ 단계형,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예: The Incredible Years)

■ 차시별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편

■ 참여자의 요구, 현장의 목소리 반영

4. 예비부부교실: 외연 확대로 커플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 결혼의향이나 결혼계획을 떠나 친밀한 파트너관계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 확대

■ 진지한 커플소통, 상호탐색의 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 예비부부에 집중하는 기존의 교육내용도 유지

■ 다양한 형태의 결혼 및 파트너십에 관심: 국제결혼, 재혼, 비혼동거 등

■ 부모됨을 선택형 주제로 접근

5. 서울가족학교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 각 교실에 대한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실무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센터, 종사자, 참여자가 함께 성장하는 근로여건 조성

Ⅱ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1. 가족상담의 전문성 강화

■ 가족상담 매뉴얼의 적극적 활용

■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에서 가족체계론적 관점의 적용

■ 가족상담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 채용, 재교육, 수련

■ 가족상담 전문성을 지닌 학회와 연계

■ 물리적 환경 개선

■ 관리자(센터장, 사무국장)의 역할: 가족상담의 전문성 이해를 토대로 체계적 운영

2. 효과성 연구의 체계 확립: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 개발

■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은 효과성 연구의 체계적 확립으로 유지 및 향상 가능

■ 효과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뉴얼화된 가족상담프로그램 필요: 가족상담프로그램 없이 진행된 효과성 연구에서는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

■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이라는 기반을 마련한 후, 효과성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

3. 상담사 처우 개선

■ 상담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상담의 효과를 저해함. 상담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종국에는 경력이 많고 좋은 상담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에 대한 평판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

■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상담사 사례비 개선 필요

4. 상담의 효과성 및 내담자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 실적 수에 대한 압박이나 타 센터와 경쟁 구도를 유발하는 행정처리 위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내담자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시스템 구축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실무자 혹은 상담사는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음. 풀타임 상담사가 고유 업무인 상담을 할 필요

■ 회기수 및 회기 길이에 대한 융통성 필요

■ 권역별로 중간 콘트롤 기관이나 가족상담 전문 슈퍼바이저 제도 운영

5. 비대면 가족상담 지원체계 구축

■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상담이 활성화되었고, 비대면 가족상담의 체계적인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진 현실

■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등의 비대면 가족상담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차원에서 비대면상담 운영체계를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내담자와 상담사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비대면 상담동의 절차,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녹음 및 녹화된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포함

6. 홍보 강화

■ 개인상담과는 다른 가족상담의 특징과 전문성을 홍보할 필요

Ⅱ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 제언

■ 서울가족학교, 가족상담지원사업과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차별적 가족사업 강화

■ 가족사업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관리, 분석: 자치구센터와 현장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 제공
- 사업 운영 및 효과성 데이터 구축, 관리, 분석
-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 개발(예: nFORM)
- 가족사업 데이터의 창고(倉庫)가 아니라 보고(寶庫)로 자리매김

■ 재이용자를 고려한 사업모형 개발
- 심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 기존 교육과정의 다양한 차시(주제) 고루 개설: 매뉴얼 개편 필요
- 상담사업과 교육사업 연계(예: 부부상담 종료 후 커플교육 연계)

■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가 공존하는 사업모형 개발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가족서비스 일정 수준 유지 예상
-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옵션을 이용자가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선택하는 방안
-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창의적으로 혼용하는 방안
- 비대면 사업모형 개발, 비대면 사업매뉴얼 별도 개발
- 가족상담지원사업의 경우 비대면 상담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확충이 우선

CONTENTS

제1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Ⅱ. 연구방법 6

제2부. 서울가족학교 효과성

Ⅰ. 서울가족학교 현황 11
1. 서울가족학교 개괄 13
2. 교실별 운영 및 현황 20
3.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및 교육 특성 (2020년) 33

Ⅱ.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만족도 41
1. 만족도 연구방법 43
2. 만족도 분석결과 45

Ⅲ.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59
1. 정량적 효과성 연구방법 61
2. 예비부부교실 정량적 효과성 72
3. 아동기 부모교실 정량적 효과성 83

Ⅳ. 서울가족학교 정성적 효과성 93
1. 참여자 관점: 만족도조사 개방형 응답분석 95
2. 강사 및 실무자 관점: FGI 분석 118
3. 실무자 관점: 설문조사 개방형 응답 분석 142

제3부.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Ⅰ. 가족상담지원사업 현황 153
1.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내용 155
2.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자격기준 157
3.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실적 159

Ⅱ. 가족상담지원사업 정량적 효과성 161
1. 내담자 상담 전-후 설문조사 163
2. 상담사 설문조사 169

Ⅲ. 가족상담지원사업 정성적 효과성 171
1. 내담자 관점 효과성 173
2. 상담사 관점 효과성 182

제4부. 정책적 제언

Ⅰ. 서울가족학교 효과성 제고방안 209
1. 효과성 분석의 기반 조성 211
2. 비대면 교육 업그레이드 213
3. 교육과정 및 매뉴얼 업그레이드 215
4. 예비부부교실: 외연 확대로 커플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220
5. 서울가족학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222

Ⅱ.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223
1. 가족상담의 전문성 강화 225
2. 효과성 연구의 체계 확립: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 개발 229
3. 상담사 처우 개선 230
4. 상담의 효과성 및 내담자 중심 운영체계 구축 231
5. 비대면 가족상담 지원체계 구축 233
6. 홍보 강화 234

Ⅲ.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제언 235
1.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 등 차별적 가족사업 강화 237
2. 서울가족사업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관리, 분석 239
3. 재이용자를 고려한 사업모형 개발 242
4.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가 공존하는 사업모형 개발 244

참고문헌

참고문헌 247

부록

[부록 1-1] 예비부부교실 사전조사 설문지 253
[부록 1-2] 예비부부교실 사후조사 설문지 258
[부록 1-3] 예비부부교실 실무자 조사 설문지 265
[부록 2-1] 아동기 부모교실 사전조사 설문지 271
[부록 2-2] 아동기 부모교실 사후조사 설문지: 대규모, 병합형 277
[부록 2-3] 아동기 부모교실 사후조사 설문지: 참여형 283
[부록 2-4] 아동기 부모교실 실무자 조사 설문지 289
[부록 3-1]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사전조사 설문지 300
[부록 3-2]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사후조사 설문지 304
[부록 3-3]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조사 설문지 308

표목차

<표 2-1> 서울가족학교 추진과정 ····· 13
<표 2-2>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 ····· 15
<표 2-3> 서울가족학교 연차별 운영실적 ····· 17
<표 2-4> 서울가족학교 비대면 운영 (2020.8.19. 기준) ····· 19
<표 2-5>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지침 ····· 20
<표 2-6>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 21
<표 2-7>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 21
<표 2-8>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회기수별 운영현황 ····· 22
<표 2-9>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 회기수별 운영현황 ····· 22
<표 2-10>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 23
<표 2-11>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 23
<표 2-12>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운영지침 ····· 24
<표 2-13>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유형별 운영현황 ····· 24
<표 2-14>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 25
<표 2-15>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회기수별 운영현황 ····· 26
<표 2-16>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 26
<표 2-17>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운영지침 ····· 27
<표 2-18>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유형별 운영현황 ····· 27
<표 2-19>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 28
<표 2-20>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회기수별 운영현황 ····· 28
<표 2-21>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 29
<표 2-22>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운영지침 ····· 29
<표 2-23>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 30
<표 2-24>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 30
<표 2-25>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지침 ····· 31
<표 2-26>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 31
<표 2-27>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 32
<표 2-28> 2020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특성 (*N* = 381) ····· 33
<표 2-29> 2020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교육참여 특성 (*N* = 327) ····· 34
<표 2-30> 2020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교육 특성 (*N* = 21) ····· 35
<표 2-31> 2020년 예비부부교실 차시(주제)별 도움정도 및 강사만족도 (*N* = 327) ····· 36
<표 2-32>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개인 특성 (*N* = 280) ····· 37
<표 2-33>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자녀 특성 (*N* = 280) ····· 38
<표 2-34>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교육 특성(실무자 응답) (*N* = 17) ····· 39
<표 2-35>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차시(교육주제)별 도움정도 및 강사만족도 (*N* = 284) ····· 40
<표 2-36>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만족도 연구방법 ····· 43
<표 2-37> 2018-2019년 서울가족학교 전체 만족도 ····· 45
<표 2-38> 2018-2020년 예비부부교실 전반적 만족도 ····· 46
<표 2-39> 2018-2019년 예비부부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 46
<표 2-40> 2018-2020년 예비부부교실 강사만족도 ····· 47
<표 2-41> 2018-2019년 신혼부부교실 전반적 만족도 ····· 48
<표 2-42> 2018-2019년 신혼부부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 48
<표 2-43> 2018-2019년 신혼부부교실 강사만족도 ····· 49
<표 2-44> 2018-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전반적 만족도 ····· 50
<표 2-45> 2018-2020년 아동기부모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 51
<표 2-46> 2018-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교육유형별 만족도 ····· 51
<표 2-47> 2018-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회기수별 만족도 ····· 52
<표 2-48> 2018-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강사만족도 ····· 52
<표 2-49>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전반적 만족도 ····· 53
<표 2-50>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 53
<표 2-51>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교육유형별 만족도 ····· 54
<표 2-52>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회기수별 만족도 ····· 54
<표 2-53>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강사만족도 ····· 54
<표 2-54> 2018-2019년 패밀리셰프 전반적 만족도 ····· 55
<표 2-55> 2018-2019년 패밀리셰프 참여계기별 만족도 ····· 55
<표 2-56> 2018-2019년 패밀리셰프 강사만족도 ····· 56
<표 2-57> 2018-2019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전반적 만족도 ····· 56
<표 2-58> 2018-2019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 57
<표 2-59> 2018-2019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강사만족도 ····· 57
<표 2-60> 정량적 효과성 평가 사전-사후조사 참여인원 ····· 64
<표 2-61> 정량적 효과성 평가 사전-사후조사 참여 자치구센터 수 및 교육건수 ····· 64

<표 2-62> 예비부부교실 정량적 효과성 평가 측정도구 ····· 65
<표 2-63> 결혼생활준비도 척도 검증 결과 ····· 66
<표 2-64> 아동기 부모교실 정량적 효과성 평가 측정도구 ····· 69
<표 2-65> 양육지식 척도 검증 결과 ····· 70
<표 2-66> 예비부부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개인 및 커플 특성(*N* = 271) ····· 72
<표 2-67>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사전-사후 점수차이 검증 ····· 73
<표 2-68>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만족도 및 사후-사전 점수차이의 상관계수 ····· 75
<표 2-69>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 사전-사후변화: 교제기간별 차이 ····· 76
<표 2-70>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우울 사전-사후변화: 교제기간별 차이 ····· 77
<표 2-71> 예비부부교실 여성참여자의 우울 사전-사후변화: 구체적인 결혼계획 유무별 차이 ····· 77
<표 2-72>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부정적 의사소통 사전-사후변화: 결혼여부별 차이 ····· 78
<표 2-73> 예비부부교실 여성참여자의 부정적 의사소통 사전-사후변화: 교육수준별 차이 ····· 79
<표 2-74>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 사전-사후변화: 교육수준별 차이 ····· 79
<표 2-75>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결혼생활준비도 사전-사후변화: 강사만족도별 차이 ····· 80
<표 2-76>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 사전-사후변화: 강사만족도별 차이 ····· 81
<표 2-77> 예비부부교실 여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 사전-사후변화: 심화회기 운영여부별 차이 ····· 81
<표 2-78> 아동기 부모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개인 특성 (*N* = 213) ····· 83
<표 2-79> 아동기 부모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자녀 특성 (*N* = 213) ····· 84
<표 2-80>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사전-사후 점수차이 검증 (*N* = 213) ····· 85
<표 2-81>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만족도 및 사후-사후 점수의 상관계수 (*N* = 213) ····· 86
<표 2-82>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효능감 사전-사후변화: 자녀 문제행동 수준별 차이 ····· 87
<표 2-83>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우울 사전-사후변화: 자녀 문제행동 수준별 차이 ····· 88
<표 2-84>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스트레스 사전-사후변화: 교육수준별 차이 ····· 88
<표 2-85>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지식 사전-사후변화: 운형형태별 차이 ····· 89
<표 2-86>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지식 사전-사후변화: 사용기기별 차이 ····· 90
<표 2-87> 아동기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지식 사전-사후변화: 만족도별 차이 ····· 91
<표 2-88>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점 ····· 96
<표 2-89>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 98
<표 2-90>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 100
<표 2-91>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 103
<표 2-92>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 104
<표 2-93>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 106
<표 2-94> 패밀리셰프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 107
<표 2-95> 패밀리셰프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 109
<표 2-96>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 110
<표 2-97>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 112
<표 2-98> 2020년 비대면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온라인 교육에 만족 ····· 113
<표 2-99> 2020년 비대면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온라인 교육에 만족 ····· 114
<표 2-100> 2020년 비대면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 115
<표 2-101> 2020년 비대면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 116
<표 2-102> 서울가족학교 강사 및 실무자 FGI 참여자 특성 ····· 119
<표 2-103> 예비부부교실 실무자조사 개방형 응답: 전반적 내용 ····· 143
<표 2-104> 예비부부교실 실무자조사 개방형 응답: 비대면 교육 관련 ····· 144
<표 2-105> 아동기 부모교실 실무자조사 개방형 응답: 전반적 내용 ····· 146
<표 2-106> 아동기 부모교실 실무자조사 개방형 응답: 비대면 교육 관련 ····· 147
<표 3-1>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 154
<표 3-2>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운영 내용 ····· 156
<표 3-3>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자격기준 ····· 157
<표 3-4>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사 인건비 ····· 158
<표 3-5>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실적 (2018-2019년) ····· 159
<표 3-6> 코로나로 인한 서울지역 자치구센터 휴관조치 현황 ····· 159
<표 3-7>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실적 (2020년 9월말 기준) ····· 160
<표 3-8> 가족상담지원사업 사전-사후조사 응답자의 상담 관련 특성 ····· 165
<표 3-9> 가족상담지원사업 사전-사후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167
<표 3-10> 가족상담지원사업 사전-사후 점수 총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67
<표 3-11> 가족상담지원사업 사전-사후 응답자의 상담 후 상태 및 만족도 ····· 168
<표 3-12> 가족상담지원사업 설문조사 응답 상담사 특성 ····· 170
<표 3-13>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면접 참여자 특성 ····· 173
<표 3-14>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면접 주요 결과 ····· 175
<표 3-15>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FGI 참여자 특성 ····· 183
<표 3-16>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FGI 주요 결과 ····· 18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방법 개요 ····· 2
<그림 2-1> 서울가족학교 추진체계 ····· 14
<그림 2-2> 서울가족학교 교실별 회기수 운영실적 (단위: 회기) ····· 18
<그림 2-3> 서울가족학교 교실별 참여인원 (단위: 명) ····· 18
<그림 2-4> 만족도조사 양식 ····· 44
<그림 2-5>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설문지 구성 ····· 62
<그림 2-6> 서울가족학교 온라인 설문지 화면 예시 ····· 62
<그림 2-7>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분석 자료수집 절차 ····· 63
<그림 2-8>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사전-사후 점수 도식화 ····· 74
<그림 2-9>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사전-사후 점수 도식화 ····· 85
<그림 3-1> 가족상담지원사업 정량적 효과성 설문지 구성 ····· 162
<그림 3-2> 가족상담지원사업 온라인 설문지 화면 예시 ····· 162
<그림 4-1> The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 Building Blocks ····· 218
<그림 4-2> nFORM 매뉴얼 표지 ····· 241

제1부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연구 방법

I.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민의 가족생활 향상을 위해 교육, 상담 등 다양한 가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은 가족교육과 가족상담 분야에서 서울시의 대표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가족체계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고유의 가족사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서울가족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첫 단계 과제라는 의의가 있다.

서울가족학교는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브랜드이다. 2015년부터 연차별로 확대되어 현재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의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서울가족학교는 예비 · 신혼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패밀리셰프의 5개 교실로 구성된다. 한편, 가족상담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존 가족상담사업을 보강하기 위한 부부 및 가족상담 지원 사업이다. 면접상담과 집단상담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면접상담은 내담자 가족별로 5–15회기를 실시한다(회기당 50분 이상). 3회기 이상은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이다.

가족사업의 효과성이란 특정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의미한다. 사업의 목표는 기획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가정건강성 강화라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광범위한 목적하에 각 세부사업은 별도의 목표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가족교육사업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자의 지식, 태도, 행동, 기술 등에서의 변화(Duncan & Goddard, 2017)나 가족문제의 예방이 목표가 될 수 있고, 가족상담사업은 상담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문제의 완화가 목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은 만족도조사 등을 토대로 간접적으로 유추되어 왔다. 그러나 만족도와 효과성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만족도조사를 토대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효과성 평가를 토대로 사업이 당초에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여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 상담 사업 관련 선행연구의 경우에도 현황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김선주, 박정윤, 2013; 박경은, 2015; 송혜림, 정영금, 2008; 정지영 외, 2007; 최연실 외, 2019)이나 요구도 조사(이현아 외, 2017)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 상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있더라고 소규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수선, 2013; 이현아, 2020)가 이루어졌다.

가족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목표를 더 잘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된다. 또한, 사업효과는 사업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시민들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교육이나 상담 사업의 경우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여 도움을 받도록 할 수 있다.

효과성 자료의 확보는 정책, 예방, 임상 등의 분야에서 강조하는 근거기반 사업의 필수요소이다. 근거기반(evidence-based)이란 사업의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 즉 '근거'가 확보되었음을 의미한다. 근거기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사업의 세부내용 문서화(상세한 매뉴얼 개발 등), (2) 엄밀한 정량적 분석으로 효과성 검증(사전-사후-추후검사, 무작위할당을 활용한 통제-실험집단 설계), (3) 효과성 분석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게재, (4) 공신력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 인증 등이 필요하다(Small et al., 2009)[1]. 한편,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이 설계된 대로 실시되었음을 의미하는 충실성(fidelity)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뉴얼에 충실하게 실시되었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매뉴얼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했다면, 효과성이 검증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매뉴얼과 다르게 실시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가족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 과제로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가 수행된 2020년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시기이다. 이로 인해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기간 휴관이 계속되었고, 서울가족학교는 처음으로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었다.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휴관으로 상담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은 본 연구과제의 수행 전반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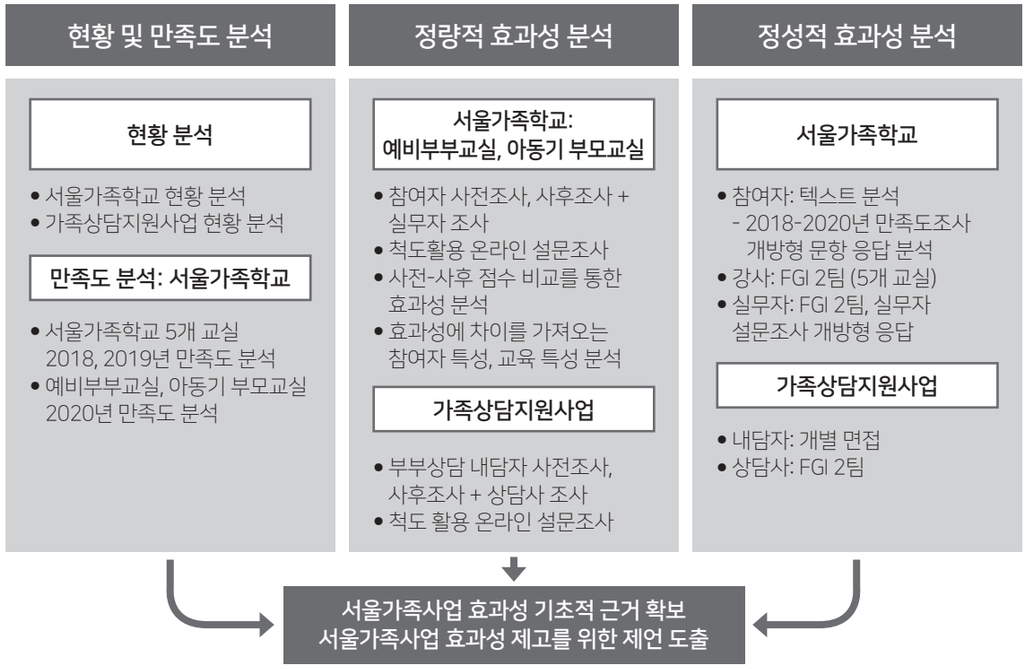
목적 1.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현황을 알아본다.
목적 2. 서울가족학교 참여자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목적 3.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목적 4.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목적 5.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1)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몇몇 교실은 근거기반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강사용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으며, 검증받은 강사풀에서 강사를 선정하는 비율이 높고, 강사교육을 통해 매뉴얼에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가족학교의 효과성 분석은 이루어진 바가 없어, 근거기반 프로그램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가족학교가 근기기반 프로그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과성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교실별로 개별 자치구센터가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회기마다 주제와 강사가 달라서, 프로그램 전체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목표를 찾기 어렵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거나 센터별로 다르다면 효과성 분석에서는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그림 1-1〉과 같이 현황 및 만족도 분석, 정량적 효과성 분석, 정성적 효과성 분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는 각 구성요소의 전반적 연구방법을 소개하며, 보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2부와 3부의 해당 부분에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방법 개요



첫째, 현황 및 만족도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 매뉴얼, 지침 등을 살펴보았다.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만족도조사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2018년과 2019년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합한 25개 자치구센터의 5개 교실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본 연구팀이 분석하였다. 2020년 만족도는 효과성 평가를 위해 본 연구팀이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사후조사의 일환으로 수집한 자료만 분석하였다.

둘째, 정량적 효과성 분석은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기 이전의 상태와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조사(pre-testing)와 사후조사(post-testing)를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교육과 상담이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추후검사(follow-up testing)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종단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집단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사후의 차이가 사업참여의 순수한 효과인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정량적 효과성 분석의 첫 걸음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향후 서울가족사업의 효과성 분석에서는 추후검사와 통제집단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가족학교의 경우에는 효과성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도 함께 분석하였다.

서울가족학교의 정량적 효과성 분석은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두 교실은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구조화되어 있고, 건별 교육내용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하루에 모든 교육이 종료되고 교육과정의 구조화 수준이 낮은 교육에 대해 사전, 사후조사 방식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찾아가는 아버지교실과 패밀리셰프는 정량적 효과성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아동기 부모교실과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량적 효과성 평가의 첫 단계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교실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대상 사전, 사후 조사는 2020년 6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실시하였다. 예비부부교실 사전-사후 조사에는 17개 자치구센터에서 실시한 21건의 교육에 참여한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가 응답하였고, 아동기 부모교실 사전-사후 조사에는 14개 자치구센터에서 실시한 17건의 교육에 참여한 부모가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각 자치구센터의 서울가족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대상 사전, 사후 조사는 2020년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가족상담지원사업의 경우 계속되는 자치구센터의 휴관으로 상담이 거의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량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 원활하지 못했다. 사전조사에는 총 11개의 센터에서 35명의 내담자가 참여하였고, 사후조사까지 완료한 연구참여자는 총 5개의 센터에서 10명이었다. 가

족상담의 효과와 관련된 상담사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조사에 참여한 내담자의 사례를 담당한 상담사를 대상으로도 상담 종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정성적 효과성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서울가족학교는 참여자, 강사, 실무자의 관점을 분석하였고, 가족상담지원사업은 내담자와 상담사의 관점을 살펴보았다.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관점의 정성적 효과성은 2018-2020년 만족도조사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 나타난 주제를 분석하였다. '강사' 및 '실무자' 관점의 정성적 효과성 및 개선방안은 FGI(focus group interviews)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강사 2팀, 실무자 2팀이었으며 참여자는 총 19명이었다. 이외에 정량적 효과성 평가를 위해 실시한 실무자 설문조사의 개방형 응답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가족상담지원사업의 경우, '내담자' 관점의 정성적 효과성은 개별 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참여자는 5명이었다. '상담사' 관점의 정성적 효과성 및 개선방안은 FGI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상담사 참여자는 2팀, 총 10명이었다.

제2부

서울가족학교 효과성

Ⅰ 서울가족학교 현황

Ⅱ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만족도

Ⅲ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Ⅵ 서울가족학교 정성적 효과성

PART I

서울가족학교 현황

1. 서울가족학교 개괄

2. 교실별 운영 및 현황

3.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및 교육 특성(2020년)

1. 서울가족학교 개괄

서울가족학교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서울가족학교의 추진 및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가족학교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서울시는 가족 내 소통 및 공감 증진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서울가족학교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가족학교의 추진과정은 〈표 2-1〉과 같다.

<표 2-1> 서울가족학교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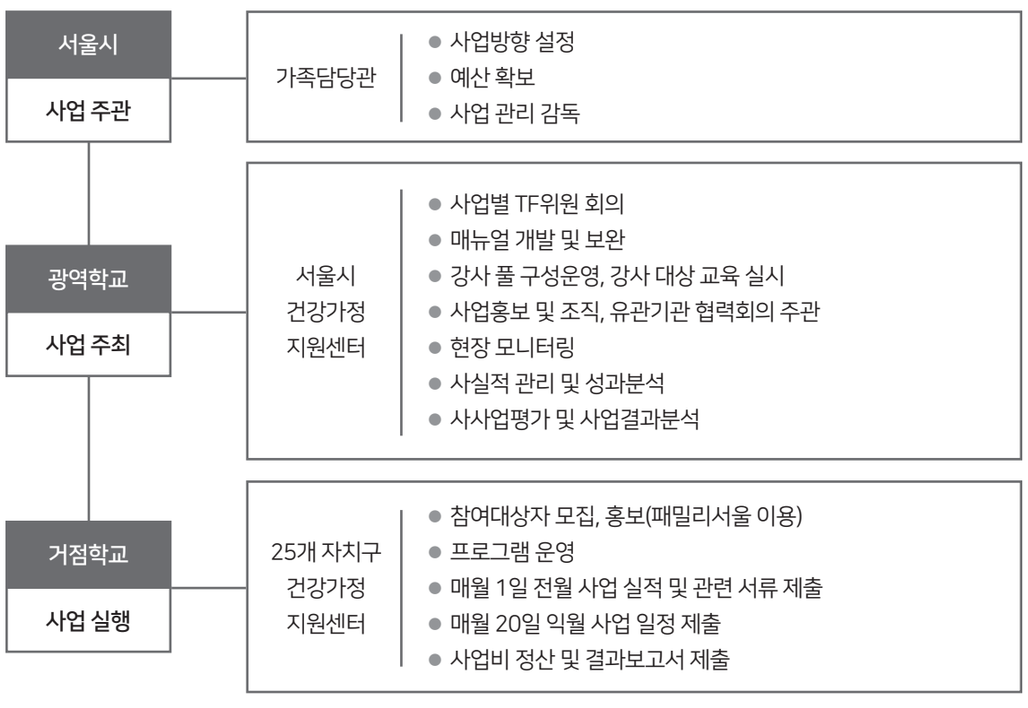
추진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 서울시 민선 6기 공약사항 - 정책공약 8-4-1번(자치구별 1개 이상의 가족학교 운영) - 혁신공약 91번(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드는 패밀리셰프)
예산	시비 100% 2019년 총 1,107,150,000원 (자치구센터당 44,286,000원) 2020년 총 1,208,447,000원 (자치구센터당 48,337,800원)
자치구	2015년 10개(중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2016년 15개(관악구, 성북구, 서초구, 강남구, 영등포구 추가) 2017년 20개(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추가) 2018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실시

세부 교실	2015년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베이비부머 가족교실, 패밀리셰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자치구 특화 가족사업
	2016년	예비·신혼부부교실[1], 중·장년기 가족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패밀리셰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자치구 특화 가족사업(자부담)
	2017년	예비·신혼부부교실[1], 중·장년기 가족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패밀리셰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2018년 이후	예비·신혼부부교실[1],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패밀리셰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출처: 각년도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계획, 2020년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1) 신혼부부교실은 예비부부교실과 통합되어 선택 운영

서울가족학교는 100%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다. 전반적인 사업의 기획, 총괄 및 평가는 광역기관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 실제적인 사업의 운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수행된다. 서울가족학교의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서울가족학교 추진체계



출처: 2020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2) 서울가족학교의 차별성: 구조화된 교육과정, 체계적 사업운영

부모교육이나 커플교육을 실시하는 공공기관은 많지만, 구조화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부모교육이나 커플교육은 개별 강사의 강의안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회성 교육인 경우도 많다. 반면 서울가족학교는 구조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매뉴얼과 기본적인 강의자료가 개발되어 있다. 서울가족학교의 5개 교실별로 전문강사풀이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전반적인 사업 및 교육과정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조화된 교육과정과 체계적 사업운영은 다른 공공기관의 가족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서울 이외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교육 사업과도 차별되는 지점이다.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

사업설명회	자치구센터 담당 실무자 대상 연 1회	
실무자간담회	자치구센터 담당 실무자 대상 연 2회(상하반기)	
강사 수	2020년 기준 총 93명	
강사선발 (2019.11.27. 공고 기준)	절차	- 평가방식: 서류심사, 면접심사, 시범강의 평가 - 소정의 교육과정에 참여해야 최종합격 -2019년부터 강사 1인당 1개 교실만 선택 가능
	자격	다음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자 ①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가족 관련 분야의 강의경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②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성인 대상 가족친화, 가족관계, 기업문화, 성인지, (성)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강의경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관련 분야: 가족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가족상담학, 상담(심리)학, 심리학, (유아)교육학, 가정(족)학, 아동학, 사회학, 법학, 여성학 등 ③ 기타 센터장이 상기 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촉 기간	-위촉기간: 1년 -위촉 1년 후 연장 요건: 강의만족도 평균 4.5점 이상이면서 강사교육(통합교육, 콘텐츠교육, 보수교육 등) 수료

강사교육	-서울가족학교 전체 강사 대상 교실별 콘텐츠 교육 및 통합교육 연 1회 - 통합교육 주제: 건강가정사업의 이해, 가족정책, 성인지교육 -2020년의 경우 총 4일간 실시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 참고 -신규강사 중 희망자에게 실제 교육 참관기회 제공	
강사용 교육자료	- 교실별 강사 매뉴얼 활용 - 교실별 강의자료(ppt) 활용	
참여자용 워크북	- 2020년 현재 예비부부교실만 활용 - 2016-2017년에는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도 워크북을 사용하였으나, 2018년부터 콘텐츠 유형이 다양화(병합형, 참여형)되면서 대규모형에만 활용이 가능한 워크북 사용을 중단 (워크북의 워크시트 출력하여 활용 가능)	
참여자 만족도조사	- 실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공통 만족도조사 양식을 활용하여 각 자치구센터에서 건별로 모든 교육이 종료된 직후에 마지막 회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취합: 매월 1일 자치구센터별로 전월 교실별 만족도조사 평균 및 응답자별 원자료를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	
사업운영 평가	평가 지표	- 정량 및 정성평가 - 평가지표는 외부 평가위원 위촉 및 TF회의, 자치구센터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시상	자치구센터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총점 순위에 따라 최우수상 1개소, 우수상 2개소, 장려상 3개소
참여후기 공모전	-해당년도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별 참여 후기 공모 -구체적인 공모내용은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familyseoul.or.kr/node/9981	

3) 서울가족학교 연차별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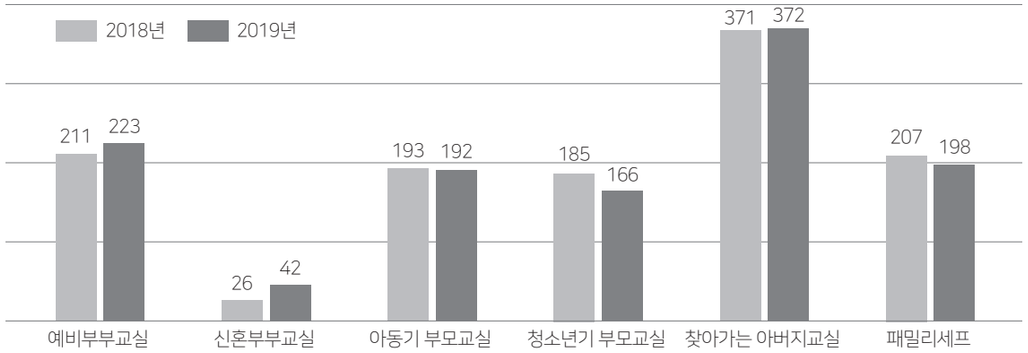
서울가족학교가 서울시의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2018년과 2019년의 연차별 운영실적은 〈표 2-3〉, 〈그림 2-2〉, 〈그림 2-3〉과 같다.

<표 2-3> 서울가족학교 연차별 운영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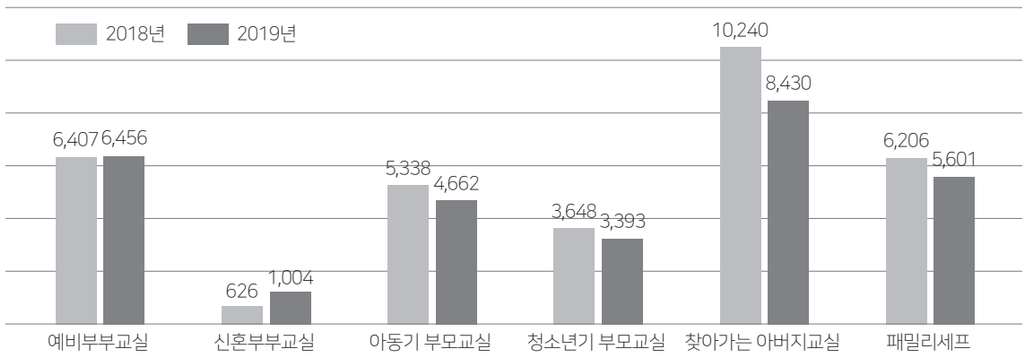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총계
서울가족학교 전체	건	513	509	1,022
	회기	1,193	1,193	2,386
	참여인원	32,465	29,546	62,011
예비부부교실	건	49	50	99
	회기	211	223	434
	참여인원	6,407	6,456	12,863
신혼부부교실	건	6	9	15
	회기	26	42	68
	참여인원	626	1,004	1,630
아동기 부모교실	건	60	59	119
	회기	193	192	385
	참여인원	5,338	4,662	10,000
청소년기 부모교실	건	61	55	116
	회기	185	166	351
	참여인원	3,648	3,393	7,041
패밀리셰프	건	101	97	198
	회기	207	198	405
	참여인원	6,206	5,601	11,807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건	236	239	475
	회기	371	372	743
	참여인원	10,240	8,430	18,670

주) 참여인원: 회기별 참여인원의 합(누적 인원). 예를 들어, 3회기 프로그램에서 각 회기에 20명이 참여했다면 참여인원은 60명이 됨

<그림 2-2> 서울가족학교 교실별 회기수 운영실적 (단위: 회기)



<그림 2-3> 서울가족학교 교실별 참여인원 (단위: 명)



주) 참여인원: 회기별 참여인원의 합(누적 인원). 예를 들어, 3회기 프로그램에서 각 회기에 20명이 참여했다면 참여인원은 60명이 됨

4) 2020년 비대면 서울가족학교 운영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휴관조치가 장기화되었으며, 대면교육이 잠정 연기되었다. 이후 사업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서울가족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는 등 본격적으로 서울가족학교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비대면 서울가족학교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서울가족학교 비대면 운영 (2020.8.19. 기준)

운영사유		-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잠정연기됨에 따른 사업운영 공백의 최소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가족시설 휴관 조치의 장기화 -비대면 사업운영을 통한 안전한 가족서비스 환경 구축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 등 취약위기가족의 서비스지원 필요
운영시간		한 회 강의 90-120분으로 집합프로그램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진행
활용매체		사업의 특성 및 센터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 운영
운영유형	유형 1	콘텐츠 중심교육[1] + 비대면 컨설팅 -학습자는 지정된 온라인 강의 혹은 강사가 준비한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강사는 사전질의(필수)에 대한 응답, 학습 내용 확인 및 피드백 진행 -예비·신혼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기업 등은 컨설팅 선택)에 해당
	유형 2	콘텐츠 중심교육[1] + 비대면 체험활동 -학습자는 지정된 온라인 강의 혹은 강사가 준비한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가족체험활동 및 요리활동 등의 비대면 사후활동을 수행하는 형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어린이집 등), 패밀리셰프에 해당
	유형 3	실시간 쌍방향 교육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와 참여자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여, 강의 및 질의응답,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실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원격교육 환경조성 참고
	유형 4	기타(온라인상담 등) -사업수행기관(센터) 여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상담 및 사례관리의 경우 상담자 혹은 사례관리자가 작성한 기록지로 갈음
[1] 콘텐츠 중심교육 (온라인 강의영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온라인 강의영상을 활용한 교육 - 회당 50-90분 내외의 강의영상 - 예비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각 4강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3강 - 패밀리셰프: 1강

출처: 2020 서울가족학교 및 1인가구지원사업 비대면 사업운영 지침변경 안내(2020.8.19.)

2. 교실별 운영 및 현황

1)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 및 현황

서울가족학교 예비 · 신혼부부교실의 운영지침은 〈표 2-5〉와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기본 2건의 예비 · 신혼부부교실을 실시하는데, 이때 자치구에 따라 예비부부교실과 신혼부부교실을 선택할 수 있다.

<표 2-5> 서울가족학교 예비·신혼부부교실 운영지침

대상	예비부부: 결혼을 앞두거나 관심 있는 서울 생활영역권*인 비혼 커플 신혼부부: 결혼 5년 이내 서울 생활영역권* 신혼부부(사실혼 포함) *서울 생활영역권이란 커플 및 부부 중 한 명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직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내용	- 예비부부교실: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결혼 전 부부로서 준비, 배우자의 역할 및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적극적 갈등대처 방법, 성평등한 관계 인식, 함께 만들어갈 가족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의미 및 미래 지향점 인식 등 학습을 통해 안정된 결혼생활 지원 - 신혼부부교실: 결혼생활의 뿌리가 되는 신혼기의 기초를 확립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현재 원가족 분화,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 서울시의 돌봄/육아 등 가족정책 소개 (출처: 2020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완	예비부부교실: 2013년 개발 - 수정·보완·전문가 감수 5회, 신규 콘텐츠 추가 2회 신혼부부교실: 2014년 개발 - 수정·보완·전문가 감수 2회, 신규 콘텐츠 추가 1회 -2016년부터 예비부부교실과 신혼부부교실이 통합되어 선택 운영
차시(주제) 및 회기수	- 예비부부교실: 건당 6차시(주제) 중 4회기 이상 실시('지금 이 순간' 선택가능) - 신혼부부교실: 건당 5차시(주제) 중 4회기 이상 실시 * 2020년 기준 자료로, 실시 회기수는 2015-2020년 4회기 동일 -각 회기 120분 -대체로 토요일 1일 2회기 씩, 2주간 실시

서울가족학교 예비 · 신혼부부교실의 차시(주제)별 운영현황은 〈표 2-6〉, 〈표 2-7〉과 같다. 먼저 예비부부교실의 경우 2018년까지의 교육과정은 4차시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차시를 필수로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5차시 '성평등한 동행'이 추가되면서 5차시 중 4개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2020년에는 6차시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가 교육과정에 추가되어 6차시 중 4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 추가된 6차시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실시되지 못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차시 이외에 자유주제에 대한 심화회기를 실시하는 자치구센터도 있다.

<표 2-6>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차시 (2020년 기준)		2018[1] (회기)	2019[1] (회기)	2020[2] (회기)
1차시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필수	57	21
2차시	행복한 커플 대화법	필수	56	21
3차시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59	18
4차시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필수	53	19
5차시	성평등한 동행(19년 신규)	미실시	10	5
6차시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20년 신규)	미실시		0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집계한 것임
[2]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실무자 조사에 응답한 21건만 집계한 것임

<표 2-7>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차시 (2020년 기준)		2018[1] (회기)	2019[1] (회기)
1차시	신혼기부부에 대한 이해와 점검	필수	필수
2차시	재무교육: 애(愛)너지 통장	필수	필수
3차시	성교육: 함께 만들어가는 신혼의 성(性)	필수	필수
4차시	신혼부부 갈등과 대화법	필수	필수
5차시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20년 신규)	미실시(2020년 신규)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집계한 것임

서울가족학교 예비 · 신혼부부교실의 실시 회기수는 〈표 2-8〉, 〈표 2-9〉와 같다. 기본 회기구성은 4회기로, 심화회기란 자치구에서 기본 4회기 교육 이외에 추가로 교육을 구성하여 5회기 이상으로 실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2018년 예비부부교실은 4회기로 구성된 경우가 33건(71.7%)으로 가장 많았으며, 5회기 이상은 총 13건(28.3%)이었다. 2019년 예비부부교실에서는 4회기 29건(60.4%) 〉 5회기 14건(29.2%) 〉 6회기 5건(10.4%)이었다. 2020년 본 연구팀에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예비부부교실은 총 21건이었으며, 이 중 4회기는 15건(71.4%), 5회기 이상은 6건(28.6%)이었다.

<표 2-8>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회기수별 운영현황

회기수	2018[1] (*N*= 46건)	2019[1] (*N*= 48건)	2020[2] (*N*= 21건)
	건(%)	건(%)	건(%)
4회기	33(71.7)	29(60.4)	15(71.4)
5회기	9(19.6)	14(29.2)	3(14.3)
6회기	4(8.7)	5(10.4)	3(14.3)
심화회기	건(%)	건(%)	건(%)
운영함	12(26.1)	19(41.3)	6(28.6)
하지 않음	34(73.9)	27(58.7)	15(71.4)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2]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신혼부부교실은 2018년에 실시된 총 6건 중 4회기로 구성된 경우가 4건(66.7%), 5회기 이상이 2건(33.3%)이었다. 2019년 신혼부부교실은 4회기 6건(66.7%), 6회기 2건(33.3%)이었다.

<표 2-9>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 회기수별 운영현황

회기수	2018[1] (*N*= 6건)	2019[1] (*N*= 9건)
	건(%)	건(%)
4회기 (심화 없음)	4(66.7)	6(66.7)
5회기 (심화 있음)	2(33.3)	-
6회기 (심화 있음)	-	3(33.3)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서울가족학교 예비 · 신혼부부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표 2-10〉, 〈표 2-11〉과 같다. 예비부부교실과 신혼부부교실 모두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거나, (예비)배우자의 권유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교육을 알게 된 경로의 경우 부모님, 친구, 지인의 소개 또는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웨딩 관련)에서 정보를 얻어 교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표 2-10>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참여계기	2018[1] (*N*= 1,204)	2019[1] (*N*= 1,250)	2020[2] (*N*= 319)
	명(%)	명(%)	명(%)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 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616(51.2)	635(50.8)	188(58.9)
예비 배우자의 권유에 의해	365(30.3)	379(30.3)	80(25.1)
부모님,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62(13.5)	187(15.0)	39(12.2)
교육비가 무료라서	14(1.2)	16(1.3)	7(2.2)
기타	47(3.9)	33(2.6)	5(1.6)
알게 된 경로	(*N*= 1,200)	(*N*= 1,245)	(*N*= 319)
	명(%)	명(%)	명(%)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476(39.7)	535(43.0)	155(48.6)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71(5.9)	51(4.1)	22(6.9)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웨딩 관련)에서 정보를 얻어서	482(40.2)	512(41.1)	112(35.1)
기타	171(14.2)	147(11.8)	30(9.4)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집계한 것임
[2]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집계한 것임

<표 2-11> 서울가족학교 신혼부부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참여계기	2018[1] (*N*= 130)	2019[1] (*N*= 1,79)
	명(%)	명(%)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76(58.8)	95(53.1)
배우자의 권유에 의해	37(28.5)	57(31.8)
부모님,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1(8.5)	13(7.3)
교육비가 무료라서	5(3.8)	4(2.2)
기타	1(.8)	10(5.6)
알게 된 경로	(*N*= 130)	(*N*= 173)
	명(%)	명(%)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47(36.2)	69(39.9)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13(10.0)	8(4.6)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웨딩 관련)에서 정보를 얻어서	48(36.9)	57(32.9)
기타	147(11.8)	30(9.4)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집계한 것임

2) 아동기 부모교실 운영 및 현황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운영지침은 〈표 2-12〉와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기본 2건의 아동기 부모교실을 운영한다.

<표 2-12>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운영지침

대상	아동기 자녀를 둔 서울 생활영역권인 부모
내용	- 아동기 발달 이해와 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훈육방법에 대해 학습하여 자녀와 함께 부모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기 자녀에 대한 이해와 부모역할, 학습지도, 대화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성평등교육, 디지털기기사용법, 가족구성원 상호 간 이해관계 증진 활동, 서울시 아동정책 소개 등 (출처: 2020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완	- 2015년 개발 - 수정·보완·전문가 감수 2회, 신규 콘텐츠 추가 3회
차시(주제) 및 회기수	- 대규모, 병합형, 참여형 교육 중 선택 -각 회기 120분 - 2016-2019년: 건당 3회기 이상 실시 -2020년: 7개 차시(주제) 중 건당 2회기 이상 실시(코로나19로 1회기 단축) -2020년: 5차시(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선택

아동기 부모교실은 대규모, 병합형, 참여형으로 교육유형이 구분되는데, 유형별 운영 건수 및 인원수는 〈표 2-13〉과 같다. 2018년에는 병합형과 참여형이 각각 20건(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규모는 17건(29.3%)이었다. 2019년에는 대규모 19건(33.3%) 〉 병합형 17건(29.8%) 〉 참여형 14건(24.6%)이었다. 2020년은 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17건의 경우, 병합형 7건(41.2%) 〉 대규모 6건(35.3%) 〉 참여형 4건(23.5%)이었다.

<표 2-13>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유형별 운영현황

구분	2018[1] (*N*= 58건, 1,498명)	2019[1] (*N*= 57건, 1,261)	2020[2] (*N*= 17건, 284)
	건(%)	건(%)	건(%)
대규모	17(29.3)	19(33.3)	6(35.3)
병합형	20(34.5)	17(29.8)	7(41.2)
참여형	20(34.5)	14(24.6)	4(23.5)
기타[3]	1(1.7)	7(12.3)	-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2]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3] 회기별로 교육유형이 다르게 진행된 경우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의 차시(주제)별 운영현황은 〈표 2-14〉와 같다. 2018년까지는 각 유형(대규모, 병합형, 참여형)에서 1차시 또는 1, 2차시는 필수로 실시되었으나, 2019년부터 필수 차시가 없어져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3개의 교육차시를 선택하여 아동기 부모교실을 실시하였다. 2020년의 경우 모든 교육유형에서 공통 5차시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로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3회기로 구성되는 아동기 부모교실 교육을 2회기로 축소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표 2-14>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차시 (2020년 기준)			2018[1] (회기)	2019[1] (회기)	2020[2] (회기)
대규모/병합형	1차시	좋은 부모되기: 현명한 훈육법	40(필수)	17	1
		[온라인] 좋은 부모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3]	-	-	4
	2차시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29	22	5
	3차시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아이	29	12	3
	4차시	맞춤형 학습	22	15	2
참여형	1차시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20(필수)	11	0
	2차시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19(필수)	5	1
	3차시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15	9	1
	4차시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6	8	1
공통	5차시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19년 신규)	미실시	35	17(필수)
	6차시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19년 신규)	미실시	36	10
	심화	우리 가족 이야기(20년 신규)	미실시		0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집계한 것임
[2]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실무자 조사에 응답한 17건만 집계한 것임
[3] 2020년 시센터에서 비대면 시범사업으로 1, 2차시를 병합하여 제작한 동영상임

아동기 부모교실의 회기수 현황은 〈표 2-15〉와 같다. 아동기 부모교실의 기본 회기구성은 3회기이며, 2020년에는 갑작스러운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2회기만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회기 이외에 자치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제를 다룬 회기는 심화회기라고 한다. 2018, 2019년에는 기본 회기구성인 3회기로 실시한 아동기 부모교실이 각각 50건(86.2%), 53건(93.0%)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17건을 기준으로 볼 때, 3회기 9건(52.9%) 〉 2회기 7건(41.2%) 〉 4회기 1건(5.9%)의 순이었다.

<표 2-15>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회기수별 운영현황

회기수	2018[1] (N= 58건, 1,498명)	2019[1] (N= 57건, 1,261)	2020[2] (N= 17건, 284)
	건(%)	건(%)	건(%)
2회기[3]			7(41.2)
3회기	8(13.8)	4(7.0)	9(52.9)
4회기	50(86.2)	53(93.0)	1(5.9)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2]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3]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사업의 경우 2회기로 아동기 부모교실 진행이 가능하게 됨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표 2-16〉과 같다. 참여계기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기타'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아동기 부모교실의 경우 학교, 도서관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계기관을 통해 교육을 알게 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교육을 알게 된 경로를 기타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표 2-16>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참여계기	2018[1] (N= 1,451)	2019[1] (N= 1,234)	2020[2] (N= 224)
	명(%)	명(%)	명(%)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109(76.4)	960(77.8)	177(79.0)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34(2.3)	19(1.5)	6(2.7)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49(10.3)	108(8.8)	16(7.1)
교육비가 무료라서	31(2.1)	21(1.7)	11(4.9)
기타	128(8.8)	126(10.2)	14(6.3)
알게 된 경로	(N= 1,427)	(N= 1,233)	(N= 224)
	명(%)	명(%)	명(%)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320(22.4)	318(25.8)	50(22.3)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59(4.1)	40(3.2)	8(3.6)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서	63(4.4)	100(8.1)	103(46.0)
기타	985(69.0)	775(62.9)	63(28.1)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집계한 것임
[2]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집계한 것임

3) 청소년기 부모교실 운영 및 현황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운영지침은 〈표 2-17〉과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기본 2건의 청소년기 부모교실을 실시한다.

<표 2-17>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운영지침

대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서울 생활영역권인 부모 ※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청소년기 부모교실 운영 확장 단, 초등학교 기관연계 2건 이상 진행 불가
내용	-청소년기 발달을 이해하고 사춘기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 및 진로탐색 방법 교육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의 역사와 현재 모습을 인식하고 가족구성원 상호 간 이해 및 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활동 시간 마련 등 (출처: 2020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완	- 2015년 개발 - 수정·보완·전문가 감수 2회, 신규 콘텐츠 추가 3회
차시(주제) 및 회기수	- 대규모, 병합형, 참여형 교육 중 선택 -각 회기 120분 - 2016-2019년: 건당 3회기 이상 실시 -2020년: 7개 차시(주제) 중 건당 2회기 이상 실시(코로나19로 1회기 단축) -2020년: 5차시(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선택

청소년기 부모교실도 아동기 부모교실과 마찬가지로 교육 참여인원 및 참여활동 정도에 따라 대규모, 병합형, 참여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 운영 건수는 〈표 2-18〉과 같다. 2018년에는 병합형 23건(39.7%) 〉 참여형 19건(32.8%) 〉 대규모 13건(22.4%)이었다. 2019년에는 병합형 20건(37.0%) 〉 대규모 18건(33.3%) 〉 참여형 13건(24.1%)이었다.

<표 2-18>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유형별 운영현황

구분	2018[1]	2019[1]
	건(%) (N= 58)	건(%) (N= 54)
대규모	13(22.4)	18(33.3)
병합형	23(39.7)	20(37.0)
참여형	19(32.8)	13(24.1)
기타[2]	3(5.2)	3(5.6)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2] 회기별로 교육유형이 다르게 진행된 경우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차시(주제)별 운영현황은 〈표 2-19〉와 같다. 2018년까지 각 유형에서 2차시 또는 2, 3차시는 필수로 진행되었으나, 2019년부터 필수차시가 없어져 자치구에서 자유롭게 3개의 교육차시를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2020년의 경우 아동기 부모교실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유형에서 공통 5차시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수차시로 지정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건당 2회기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표 2-19>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차시 (2020년 기준)			2018[1)] (회기)	2019[1)] (회기)
대규모/병합형	1차시	청소년기 제대로 바라보기	16	17
		바람직한 부모 역할: 함께 성장하는 부모 되기	36(필수)	13
	2차시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	35	24
	3차시	자녀 진로의 나침반 되기	24	14
	4차시	청소년에 대한 이해	8	6
참여형	1차시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8	6
	2차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부모자녀 사이의 걸림돌 찾기	19(필수)	7
	3차시	자녀와의 의사소통	19(필수)	9
	4차시	우리 자녀의 진로와 교육 가치관 탐색	11	6
공통	5차시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19년 신규)	미실시	27
	6차시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19년 신규)	미실시	36
	심화	우리 가족 이야기(20년 신규)	미실시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집계한 것임

청소년기 부모교실도 아동기 부모교실과 마찬가지로 기본 회기구성은 3회기이며, 2020년에는 2회기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 회기구성 이외에 추가로 구성된 회기는 심화회기라고 한다.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회기구성을 살펴본 결과 기본 회기구성인 3회기로 진행된 경우가 2018년 51건(87.9%), 2019년 48건(88.9%)으로 가장 많았다.

<표 2-20>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회기수별 운영현황

	2018[1)] (*N*= 58건)	2019[1)] (*N*= 54건)
	건(%)	건(%)
3회기 (심화 없음)	51(87.9)	48(88.9)
4회기 (심화 있음)	7(12.1)	6(11.1)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표 2-21〉과 같다. 참여계기의 경우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기 부모교실을 알게 된 경로를 살펴보면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경우 중 · 고등학교 또는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기관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기타'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2-21> 서울가족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참여계기	2018[1)] (*N*= 1,000)	2019[1)] (*N*= 982)
	명(%)	명(%)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91(69.1)	664(67.6)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16(1.6)	17(1.7)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28(12.8)	165(16.8)
교육비가 무료라서	8(.8)	20(2.0)
기타	157(15.7)	116(11.8)
알게 된 경로	(*N*= 990)	(*N*= 972)
	명(%)	명(%)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268(27.1)	328(33.7)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32(3.2)	39(4.0)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서	86(8.7)	98(10.1)
기타	604(61.0)	507(52.5)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집계한 것임

4) 패밀리셰프 운영 및 현황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의 운영지침은 〈표 2-22〉와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기본 3건의 패밀리셰프를 운영한다.

<표 2-22>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운영지침

대상	요리에 관심 있는 모든 서울 시민
내용	-요리를 매개로 가족 의사소통 코칭, 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여가 증진 -동네 시장 구경, 식사시간 대화 및 중요성, 밥상에서의 매너교육, 자녀마음 이해하기 및 자녀와 함께 하는 요리만들기(체험)로 소통시간 마련 등

내용	-모든 가족이 다 같이 협동해서 요리 만들고 식사하는 가족 공동체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모두 나눠 먹을 수 있는 요리주제를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선정 (출처: 2020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완	- 2015년 개발 - 수정·보완·전문가 감수 2회
차시(주제) 및 회기수	- 2016-2020년 건당 2회기 이상 실시 -3개 차시(주제) 중 1차시 필수, 2~3차시 중 택일 -각 회기 120분, 총 240분 -프로그램의 성격상 대부분 하루에 실시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의 차시(교육주제)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패밀리셰프의 경우 전체 3차시의 교육 컨텐츠 중 1차시가 필수로 진행되며 자치구에 따라 2차시와 3차시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1차시와 2차시를 선택하여 패밀리셰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차시 (2020년 기준)			2018[1] (회기)	2019[1] (회기)
필수	1차시	마을전통시장 장보기	100 (필수)	96 (필수)
선택	2차시	집밥의 고수, 패밀리셰프 되기	99	96
	3차시	함께하는 잔칫날, 아이 친구 초대하기	1	0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집계한 것임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표 2-24〉와 같다. 패밀리셰프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을 알게 된 경로의 경우 '부모님, 친구, 지인의 소개' 또는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 2-24> 서울가족학교 패밀리셰프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참여계기	2018[1] (*N* = 1,382)	2019[1] (*N* = 1,226)
	명(%)	명(%)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834(60.3)	762(62.2)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213(15.4)	199(16.2)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66(12.0)	135(11.0)
교육비가 무료라서	34(2.5)	47(3.8)
기타	135(9.8)	83(6.8)

알게 된 경로	(*N* = 1,392)	(*N* = 1,242)
	명(%)	명(%)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641(46.0))	534(43.0)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66(4.7)	37(3.0)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서	178(12.8)	178(14.3)
기타	507(36.4)	493(39.7)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집계한 것임

5)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 및 현황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지침은 〈표 2-25〉와 같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연간 기본 8건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실시한다.

<표 2-25>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운영지침

대상	- 기업,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동육아, 부모커뮤니티 -기관과 연계하여 방문 실시
내용	-아버지의 자기돌봄과 바람직한 양육태도 및 방법, 민주적 가족만들기, 가족구성원 상호 간 관계증진 활동 등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 인식제고 및 자녀와의 체험공유 교육 (출처: 2020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완	- 2013년 개발 - 수정·보완·전문가 감수 3회 및 신규 콘텐츠 추가 3회
회기수 (2020년 기준)	-8개 차시(주제) 중 건당 1개 선택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는 체험활동 1회기 추가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차시(주제)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총 8개 차시 중 1개를 선택해서 실시된다. 기업, 기관, 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할 경우 1회기로 교육이 진행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진행할 경우 체험활동 1회기가 필수로 포함되어 총 2회기로 진행된다.

<표 2-26>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차시(주제)별 운영현황

차시 (2020년 기준)		2018[1] (회기)	2019[1] (회기)
1차시	아빠의 자기돌봄과 스트레스 관리	22	28

2차시	부모의 네 가지 유형과 아이와의 갈등해소 방법	41	25
3차시	코칭형 아버지되기	31	19
4차시	자녀와의 친밀감과 안정적 애착관계	48	21
5차시	효과적인 훈육: 부모의 도덕성은 자녀 마음의 거울	39	29
6차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양육	36	39
7차시	민주적 가족만들기: 보이지 않는 아빠에서 '라떼파파'로 (19년 신규)	미실시	16
8차시	우리 가족 이야기(20년 신규)	미실시	
체험활동	신체놀이활동, 과자집 만들기, 오감발달 놀이 등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에만 해당	101	99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집계한 것임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 및 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표 2-27〉과 같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자가 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기타'와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가 가장 많았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알게 된 기타 경로로는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을 연계하여 진행하는 기관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2-27> 서울가족학교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계기 및 알게 된 경로

참여계기	2018[1] (*N* = 4,221)	2019[1] (*N* = 3,517)
	명(%)	명(%)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481(58.8)	2,027(57.6)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953(22.6)	851(24.2)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255(6.0)	223(6.3)
교육비가 무료라서	58(1.4)	49(1.4)
기타(어린이집, 유치원, 공동육아 연계 등)	474(11.2)	367(10.4)
알게 된 경로	(*N* = 4,164)	(*N* = 3,479)
	명(%)	명(%)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1,823(43.8)	1,597(45.9)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64(1.5)	65(1.9)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에서 정보를 얻어서	85(2.0)	119(3.4)
기타	2,192(52.6)	1,698(48.8)

[1]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집계한 것임

3.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및 교육 특성 (2020년)

서울가족학교의 참여자 특성 및 교육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팀에서 2020년에 실시한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특성은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의 응답을 살펴보았고, 구체적인 교육 현황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1)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및 교육 특성 (2020년)

2020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성별, 출생년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지난 한 달간 활동,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유사주제 교육 참여경험, 신청 자치구 거주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28〉과 같다. 커플 단위로 참석하는 예비부부교실의 특성상 성별은 비슷했으나, 설문조사 응답자는 여성이 더 많았다. 출생년도는 80년대와 90년대의 비율이 높았고, 평균 31.41세였다. 교육수준은 대졸의 비율이 높았고, 종교는 무교가 절반 이상이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한 경우가 90%에 가까웠고, 소득은 200만원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절반 정도가 중류층이라고 답했고, 비슷한 주제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없는 경우가 거의 90%였다. 교육이 개설된 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80%에 달했다.

<표 2-28> 2020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특성 (*N* = 381)

구분		명(%)
성별	여성	220(57.7)
	남성	161(42.3)
출생년도	1970년대	2(.5)
	1980년대	201(52.8)
	1990년대	178(46.7)
	평균 연령: 만 31.41세 (*SD* = 3.40)	

구분		명(%)
소득 (지난 1년 월평균)	100만원 미만	17(4.5)
	100~200만원 미만	50(13.1)
	200~300만원 미만	168(44.1)
	300~400만원 미만	91(23.9)
	400~500만원 미만	32(8.4)
	500~600만원 미만	15(3.9)

구분		명(%)
교육 수준	고졸 이하	12(3.1)
	전문대졸	35(9.2)
	대졸	272(71.4)
	대학원졸	62(16.3)
종교	무교	213(55.9)
	불교	19(5.0)
	개신교(기독교)	96(25.2)
	천주교	49(12.9)
	기타	4(1.0)
지난 한 달 간 활동	일했음	337(88.5)
	학교에 다녔음	2(.5)
	취업준비	16(4.2)
	육아/가사	2(.5)
	쉬었음(일시휴직, 휴가 포함)	21(5.5)
	기타	3(.8)

구분		명(%)
소득 (지난 1년 월평균)	600~700만원 미만	2(.5)
	700~800만원 미만	-
	800~900만원 미만	1(.3)
	900~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5(1.3)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하	17(4.5)
	중하	87(22.8)
	중	184(48.3)
	중상	86(22.6)
	상	7(1.8)
유사주제 교육 참여경험	있음	41(10.8)
	없음	340(89.2)
신청 자치구 거주여부	예	81(21.3)
	아니오	300(78.7)

주) 본 연구팀이 2020년 6-10월에 실시한 사전조사에 참여한 38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 2020년 전체 자료가 아님

2020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교육참여와 관련된 특성으로 프로그램 참여 회기수와 비대면 교육 사용기기를 살펴본 결과는 〈표 2-29〉와 같다. 예비부부교실은 대체로 4회기로 구성되므로 응답자가 참여한 회기수도 4회기가 가장 많았다. 2-3회기는 결석한 회기가 있는 경우로 보이며, 5회기 이상은 심화회기를 실시한 교육에 참여한 경우이다.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는 컴퓨터 〉 스마트폰 〉 태블릿의 순이었다.

<표 2-29> 2020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교육참여 특성 (*N* = 327)

구분		명(%)
프로그램의 참여 회기수	2회기	14(4.3)
	3회기	10(3.1)
	4회기	229(70.0)
	5회기	62(19.0)
	6회기	12(3.7)

구분		명(%)
비대면 교육 사용기기[1]	컴퓨터	204(63.9)
	태블릿	51(16.0)
	스마트폰	64(20.1)

주) 본 연구팀이 2020년 6-10월에 실시한 사후조사에 참여한 327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 2020년 전체 자료가 아님.
1) 8명 결측

2020년에 본 연구팀이 예비부부교실 21건에 대해 실시한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 특성을 살펴보면 〈표 2-30〉과 같다. 실시방식은 100% 비대면이었으며, 대부분 쌍방향 실시간형이나 일방향 실시간형으로 실시되었다. 회기수는 대부분 4회기였으나, 심화회기를 실시한 경우도 3건 있었다. 강사수는 2-3명의 비율이 높았다.

홍보매체는 자치구센터 홈페이지 〉 인터넷 카페(웨딩 관련) = 자치구센터 SNS 〉 인터넷 카페(지역 관련) 〉 자치구 회원 대상 문자 = 지역 내 유관기관에 홍보 요청의 순으로 활용되었다. 모집에 소요된 기간은 2주 = 4주 〉 3주 〉 8주 〉 6주의 순이었다. 신청자들에게 교육 시작 이전에 100%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하였고, 1주차 종료 후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0% 문자나 전화를 하였다.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에 예치금을 받고 수료 후 돌려준 경우는 28.6%였고,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료증 외에 수료선물을 증정한 경우는 76.2%였다. 교육주제는 1-4차시를 주로 실시하였고, 자치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한 심화회기의 주제는 커플코칭이 많았다.

<표 2-30> 2020년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교육 특성 (*N* = 21)

구분		건(%)
실시방식	대면	-
	비대면	21(100)
	대면, 비대면 혼용	-
비대면 방식 (중복선택)	쌍방향 실시간형	21
	일방향 실시간형	20
	온라인 탑재형	1
	기타	2
회기수	4회기	15(71.4)
	5회기	3(14.3)
	6회기	3(14.3)
강사수	2명	9(42.9)
	3명	9(42.9)
	4명	2(9.5)
	5명	1(4.8)

구분		건(%)
모집 소요 기간	1주	-
	2주	6(28.6)
	3주	4(19.0)
	4주	6(28.6)
	5주	-
	6주	2(9.5)
	7주	-
	8주	3(14.3)
신청자 사전 연락	예	21(100)
	아니오	-
유지 독려 연락	예	21(100)
	아니오	-
예치금 운영 여부	예	6(28.6)
	아니오	15(71.4)

홍보매체 (중복선택)	자치구센터 홈페이지	20
	지역 신문, 지역 TV	8
	인터넷 카페(웨딩 관련)	19
	인터넷 카페(지역 관련)	12
	자치구센터 SNS	19
	자치구 회원 대상 문자	11
	유관기관에 홍보 요청	11
	지역 내 게시판(아파트/대로변/지하철 등)	7
	기타: 센터내 웹진, 패밀리 서울(3)	4

차시(주제)[1]	1.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21
	2. 행복한 커플 대화법	21
	3.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18
	4.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19
	5. 성평등한 동행	5
	6. 너와 나의 인생곡선	-
	매뉴얼 외 자체교육1[1]	4
	매뉴얼 외 자체교육2[1]	2

1) 매뉴얼 외 자체교육 내용: 화상코칭, 1:1 비대면 코칭, 커플코칭(커플당 20분), 교류분석, 커플마사지, 태교, 정리수납, 주거특강

2020년 예비부부교실의 차시(주제)별 도움이 된 정도 및 강사만족도는 〈표 2-31〉과 같다. 차시별로 운영 건수의 차이가 커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자주 실시된 1-4차시를 중심으로 보면, 4차시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의 도움정도와 강사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5차시 '성평등한 동행'은 도움이 된 정도에 비해 강사만족도가 높았는데, 이 차시를 주로 담당하는 특정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2-31> 2020년 예비부부교실 차시(주제)별 도움정도 및 강사만족도 (*N* = 327)

차시(2020년 기준)	운영건수	참여인원	도움정도 (1-5)	강사만족도 (1-5)
	건	명	*M*(*SD*)	*M*(*SD*)
1.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21	321	4.55(.62)	4.50(.60)
2. 행복한 커플 대화법	21	313	4.51(.68)	4.47(.63)
3.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1	18	267	4.33(.75)	4.34(.74)
3.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2 (동일 차시로 2회기 운영한 1건)	1	24	4.73(.47)	4.38(.98)
4.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19	287	4.08(.96)	4.09(.87)
5. 성평등한 동행(+ 섹슈얼리티)[1]	5	61	4.36(.80)	4.56(.55)
기타 주제1(심화 교육 또는 코칭)	4	55	4.13(.86)	4.15(.80)
기타 주제2(심화 교육 또는 코칭)	2	15	4.67(.62)	4.70(.52)
지금 이 순간	4	13	4.54(.66)	4.81(.33)

주) 본 연구팀이 2020년 6-10월에 실시한 사후조사에 참여한 327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 2020년 전체 자료가 아님
1) 공식 차시명은 성평등한 동행이나 현장에서는 섹슈얼리티를 다루는 경우가 많음

2)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및 교육 특성 (2020년)

2020년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출생년도, 연령, 교육수준, 아버지, 어머니의 지난 한 달 간 활동, 가족 월평균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가구유형,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참여경험 유무,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 부모교육 참여경험 유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2〉와 같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 즉 어머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출생년도는 70년대와 80년대의 비율이 높았고, 평균 연령은 만 40.16세였다. 참여자의 교육수준은 절반 정도가 대졸이었고, 참여자 가족의 어머니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28.78%였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대부터 500만원대까지 4개 구간의 응답비율이 비슷했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는 중류층과 중하층의 비율이 높았다.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각각 8.21%였다.

한편, 이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79%였고, 전체 응답자의 42.14%는 과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수강경험이 있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의 부모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70.71%였다. 2020년 비대면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는 스마트폰 〉 컴퓨터 〉 태블릿의 순이었다. 예비부부교실 참여자는 컴퓨터로 참여한 비율이 63.9%가 가장 높았던 반면,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는 스마트폰으로 참여한 비율이 69.59%로 가장 높았던 차이가 있다.

<표 2-32>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개인 특성 (*N* = 280)

구분		명(%)
성별	여성	261(93.21)
	남성	19(6.79)
출생년도	1950년대	1(0.36)
	1960년대	3(1.07)
	1970년대	134(47.86)
	1980년대	138(49.29)
	1990년대	4(1.43)
	평균 연령 만 40.16세 (*SD* = 4.73)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11.43)
	전문대졸	49(17.50)
	대졸	148(52.86)
	대학원졸	51(18.21)

구분		명(%)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2(4.29)
	100-200만원 미만	18(6.43)
	200-300만원 미만	47(16.79)
	300-400만원 미만	53(18.93)
	400-500만원 미만	52(18.57)
	500-600만원 미만	46(16.43)
	600-700만원 미만	21(7.50)
	700-800만원 미만	16(5.71)
	800-900만원 미만	6(2.14)
	900-1000만원 미만	3(1.07)
	1000만원 이상	6(2.14)

지난 한 달 간 활동: 어머니[1]	일했음	80(28.78)
	학교에 다녔음	2(0.72)
	일시 휴직/휴가	16(5.76)
	취업준비	8(2.88)
	육아/가사	169(60.79)
	기타	3(1.08)
지난 한 달 간 활동: 아버지[2]	일했음	226(87.26)
	학교에 다녔음	0(0.00)
	일시 휴직/휴가	12(4.63)
	취업준비	7(2.70)
	육아/가사	12(4.63)
	기타	2(0.77)

주) 본 연구팀이 2020년 6-10월에 실시한 참여자 사전조사에 참여한 280명의 응답만 분석한 것으로 2020년 전체 자료가 아님
1) 남성 한부모 2명을 제외한 27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2) 여성 한부모 21명을 제외한 25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3) 29명 결측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하	24(8.57)
	중하	97(34.64)
	중	126(45.00)
	중상	29(10.36)
	상	4(1.43)
	평균(1-5)	2.61(.84)
	다문화가족	23(8.21)
	한부모가족	23(8.21)
과거 건가센터 이용경험	건가센터 부모교육 참여 경험 있음	118(42.14)
	건가센터 부모교육 이외 이용경험 있음	41(14.64)
	건가센터 이용경험 없음	121(43.21)
건가센터 이외 부모교육 참여 경험	있음	198(70.71)
	없음	82(29.29)
비대면 교육 사용기기[3]	컴퓨터	66(24.44)
	태블릿	20(7.41)
	스마트폰	169(62.59)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자녀 특성으로 자녀수, 첫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는 〈표 2-33〉과 같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첫 자녀의 연령은 평균 만 9.12세였다.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가 60.36%를 차지하였다. 자녀양육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제시하고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제시된 항목이 비교적 골고루 선택되어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한 항목의 수는 3개 〉 2개 〉 4개 〉 7개의 순이었다.

<표 2-33>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자녀 특성 (*N* = 280)

구분		명(%)
자녀수	1명	79(28.21)
	2명	157(56.07)
	3명	34(12.14)
	4명	6(2.14)
	5명	2(0.71)
	6명	1(0.36)
	7명	1(0.36)

구분		명(%)
첫 자녀 연령 평균: 만 9.12세 (*SD* = 4.19)		
첫 자녀 학령	미취학	66(23.57)
	초등학교	169(60.36)
	중학교	27(9.64)
	고등학교	9(3.21)
	대학교 이상	9(3.21)

평균 자녀수: 1.94명 (*SD* = .84)		
자녀양육 어려움 (중복선택)	자녀와의 소통	141
	자녀의 학습	154
	자녀의 생활습관	160
	자녀의 친구관계	112
	자녀의 정서문제	143
	자녀의 성교육	118
	자녀의 디지털기기사용	151
	기타	8
	없음	3

자녀양육 어려움 (선택 갯수)	없음	3(1.07)
	1개	-
	2개	52(18.57)
	3개	63(22.50)
	4개	42(15.00)
	5개	25(8.93)
	6개	12(4.29)
	7개	34(12.14)
	8개	3(1.07)
	평균	3.45(1.96)

주) 본 연구팀이 2020년 6-10월에 실시한 참여자 사전조사에 참여한 280명의 응답만 분석한 것으로 2020년 전체 자료가 아님

본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2020년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17건을 토대로 교육 특성을 살펴보면 〈표 2-34〉와 같다. 실시방식은 100% 비대면이었고, 쌍방향 실시간형으로만 실시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회기수는 주로 3회기 또는 2회기를 실시하였다. 강사수는 1-2명인 경우가 많았고, 유형은 병합형 〉 대규모형 〉 참여형의 순이었다.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가 8건이고 연계하지 않은 경우가 9건으로 비슷했다.

홍보매체는 자치구센터 홈페이지 = 자치구 회원 대상 문자 〉 인터넷 카페(맘카페 등) = 자치구센터 SNS 〉 지역 내 유관기관에 홍보 요청 등의 방법이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모집에 소요된 기간은 3주 〉 2주 = 4주 〉 1주의 순이었다. 신청자들에게 교육 시작 이전에 100% 안내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하였고, 1주차 종료 후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100% 문자나 전화를 하였다.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료증 외에 수료선물을 증정한 경우는 64.71%였다.

<표 2-34>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교육 특성(실무자 응답) (*N* = 17)

구분		명(%)
실시방식	대면	-
	비대면	17(100)
	대면, 비대면 혼용	-
비대면 방식	쌍방향 실시간형만	9(52.94)
	일방향 실시간형만	1(5.88)
	온라인 탑재형만	-
	쌍방향 + 일방향	4(23.53)
	쌍방향 + 탑재형	2(11.76)
	일방향 + 탑재형	1(5.88)

구분		명(%)
홍보매체 (중복선택)	자치구센터 홈페이지	15
	지역 신문, 지역 TV 등 언론	3
	인터넷 카페(맘카페 등)	14
	자치구센터 SNS	14
	센터 회원 대상 문자	15
	유관기관에 홍보 요청	10
	지역 내 게시판	4
	기타: 개방형센터 내 게시판, 패밀리 서울	2

회기수	2회기	7(41.18)
	3회기	9(52.94)
	4회기	1(5.88)
강사수	5회기 이상	-
	1명	7(41.18)
	2명	6(35.29)
	3명	4(23.53)
유형	대규모	6(35.29)
	병합형	7(41.18)
	참여형	4(23.53)
연계기관	연계하지 않았음	9(52.94)
	어린이집, 유치원	-
	초등학교와 연계	1(5.88)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4(23.53)
	기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	3(17.65)

모집 소요 기간	1주	2(11.76)
	2주	4(23.53)
	3주	7(41.18)
	4주	4(23.53)
	5주	-
	6주	-
	7주	-
	8주 이상	-
사전 연락	예	17(100)
	아니오	-
유선독려 연락	예	17(100)
	아니오	-
수료 선물	예	11(64.71)
	아니오	6(35.29)

주) %가 기입되지 않은 항목은 중복응답 문항임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의 차시(주제)별 도움이 된 정도 및 강사만족도는 〈표 2-35〉과 같다. 운영 건수가 차시별로 달라서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차시별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2-35>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차시(교육주제)별 도움정도 및 강사만족도 (*N* = 284)

차시(주제)	운영건수	응답자수	도움정도 (1-5)	강사만족도 (1-5)
	건	명	*M*(*SD*)	*M*(*SD*)
좋은 부모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1]	4	73	4.70(.57)	4.56(.60)
좋은 부모되기: 현명한 훈육법	1	12	4.67(.65)	4.65(.64)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5	81	4.59(.67)	4.60(.54)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3	41	4.71(.68)	4.48(.67)
맞춤형 학습	2	27	4.67(.55)	4.50(.63)
자녀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17	261	4.61(.67)	4.53(.65)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10	167	4.71(.57)	4.62(.58)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1	9	4.33(.87)	4.17(.93)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	-	-	-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1	7	4.57(.79)	4.39(.86)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1	13	4.69(.63)	4.75(.48)
우리 가족 이야기(심화)	-	-	-	-
기타	2	32	4.59(.67)	4.62(.65)
사후활동	3	54	4.52(.67)	4.55(.66)

주) 본 연구팀이 2020년 6-10월에 실시한 사후조사에 참여한 28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 2020년 전체 자료가 아님
1) 2020년 시센터에서 비대면 시범사업으로 1, 2차시를 병합하여 제작한 동영상임

II PART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만족도

1. 만족도 연구방법

2. 만족도 분석결과

1. 만족도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가족학교의 효과성 분석에 방점을 두지만, 만족도가 지금까지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함께 분석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가족학교의 교실별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표 2-36〉과 같다. 2018년과 2019년 만족도는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5개 교실의 건별 만족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본 연구팀에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020년 만족도는 본 연구팀에서 실시한 정량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사후조사에 기존 만족도조사 문항을 포함하여 수집하였다. 따라서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의 만족도만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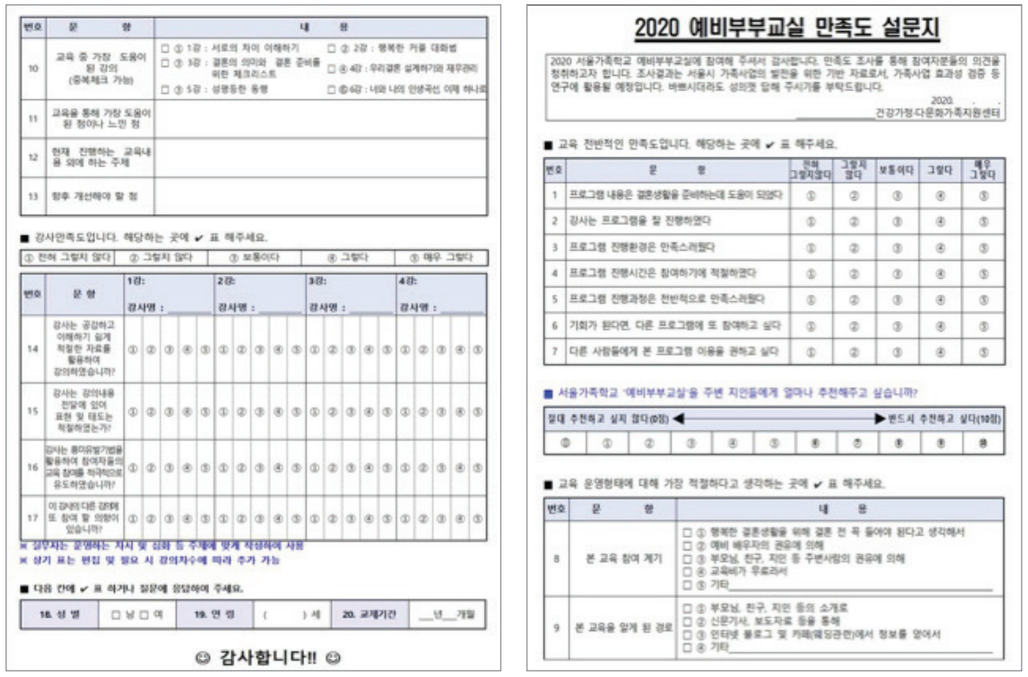
<표 2-36>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만족도 연구방법

분석자료	2018-2019년	25개 자치구, 5개 교실 만족도 - 각 자치구센터에서 대면(종이) 조사하여 시센터에 제출한 참여자별 응답 원자료
	2020년	연구팀 수집 예비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온라인 만족도조사 응답 자료 - 예비부부교실: 16개 자치구센터에서 실시한 총 19건의 교육에 참여한 305명의 응답 - 아동기 부모교실: 13개 자치구센터에서 실시한 총 16건의 교육에 참여한 258명의 응답
조사문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통문항: 전반적 만족도, 추천의향, 참여계기, 알게 된 경로, 가장 도움이 된 주제, 강사만족도 등 - 2018-2019년: 응답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보 없음 - 2020년: 일부 문항 추가, 응답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각 자치구센터에서 건별로 모든 교육이 종료된 직후에 마지막 회기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분석방법	- 2018-2019년: 연구팀이 분석가능한 형태로 코딩하여 기술통계 분석 - 2020년: 온라인조사 자료 통계분석	

기존 만족도조사의 양식은 〈그림 2-4〉와 같으며, 2020년에는 본 연구팀에서 일부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만족도 4번 문항은 '진행시간'의 적절성을 질문하는데, 진행시간은 요일, 시간대, 소요시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다의적인 표현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요일, 시간대, 소요시간을 분리한 만족도 문항을 추가하였다. 연구팀에서 추가한 문항은 〈부록〉의 사후조사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4> 만족도조사 양식



번호	문 항	내 용
10	교육 중 가장 도움이 된 강의 (중복체크 가능)	□ ① 1강 :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 ② 2강 : 행복한 커플 대화법 □ ③ 3강 :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 ④ 4강 : 우리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 ⑤ 5강 : 성평등한 동행 □ ⑥ 6강 : 내와 나의 인생곡선 이해 하나로
11	교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	
12	현재 진행하는 교육내용 외에 하는 주제	
13	향후 개선해야 할 점	

■ 강사만족도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번호	문 항	1강: 강사명 :					2강: 강사명 :					3강: 강사명 :					4강: 강사명 :				
14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강사는 강의내용 전달에 있어 표현 및 태도는 적절하였는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강사는 롤플레잉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7	이 강의에 다른 강의에 또 참여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강무자는 운영하는 지시 및 심화 등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
※ 상기 표는 편집 및 필요 시 강의차수에 따라 추가 가능

■ 다음 간에 ✔ 표 하거나 질문에 응답해 주세요.

18. 성 별	□ 남 □ 여	19. 연 령	( ) 세	20. 교제기간	___년___개월

☺ 감사합니다!! ☺

2020 예비부부교실 만족도 설문지

2020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 가족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가족사업 효과성 검증 등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 .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교육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내용은 결혼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얼마나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0점) ◀										▶ 반드시 추천하고 싶다(10점)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교육 운영형태에 대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번호	문 항	내 용
8	본 교육 참여 계기	□ 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 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 ② 예비 배우자의 권유에 의해 □ ③ 부모님,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 ④ 교육비가 무료라서 □ ⑤ 기타_____
9	본 교육을 알게 된 경로	□ ①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 ②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 ③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해당관련)에서 정보를 알아서 □ ④ 기타_____

주) 연구팀이 2020년 추가한 문항은 <부록>의 참여자 사후조사 설문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2. 만족도 분석결과

5개 교실의 전체 만족도 자료가 취합되어 있는 2018년과 2019년의 전체 만족도는 〈표 2-37〉과 같다. 2018년과 2019년의 전체 평균은 4.68점과 4.69점으로 유사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문항별 점수의 편차도 크지 않았으나, 진행시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

<표 2-37> 2018-2019년 서울가족학교 전체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9,614)	2019 (*N* = 8,607)
프로그램 내용은 결혼생활을 준비하는데(실제 가족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4.65(.52)	4.67(.52)[2]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73(.48)	4.75(.47)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68(.53)[1]	4.69(.53)[2]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4.61(.60)[1]	4.61(.62)[2]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69(.51)	4.71(.50)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4.69(.54)	4.71(.55)[2]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4.69(.54)[1]	4.71(.54)
전체 만족도 평균	4.68(.45)	4.69(.45)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3명 결측임. 2) 1명 결측임

1) 예비부부교실 만족도

2018–2020년 예비부부교실의 마지막 회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조사의 결과는 〈표 2–38〉과 같다. 만족도 7문항의 전체 평균은 2018년에 4.68점, 2019년에 4.69점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2020년의 만족도는 평균 4.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8–2019년 모두 진행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본 연구팀에서 추가한 진행시간 관련 문항을 보면, 총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3.9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38> 2018-2020년 예비부부교실 전반적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1,213)	2019 (*N* = 1,274)	2020 (*N* = 305)
	M(*SD*)	*M*(*SD*)	*M*(*SD*)
1. 프로그램 내용은 결혼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67(.50)	4.68(.50)	4.35(.65)
2.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71(.49)	4.73(.48)	4.34(.68)
3.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67(.52)	4.68(.54)	4.07(.88)
4.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4.54(.67)	4.53(.71)	3.97(.99)
1) 프로그램이 운영된 요일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1]	-	-	4.25(.75)
2) 프로그램이 운영된 시간대는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1]	-	-	4.15(.79)
3) 프로그램의 총 소요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1]	-	-	3.92(1.01)
5.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68(.51)	4.70(.51)	4.25(.69)
6.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4.72(52)	4.74(.49)	4.42(.68)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4.74(.56)[2]	4.78(.45)	4.42(.68)
1-7번 평균	4.68(.43)	4.69(.43)	4.26(.59)
추천의향(1-10)	-	-	8.57(1.53) (*N* = 327)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이며,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1) 1-7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통문항이며, 1)-3)번은 연구팀 추가조사 문항임
2) 1명 결측

예비부부교실 참여계기별로 참여자의 만족도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표 2-39〉와 같다.

<표 2-39> 2018-2019년 예비부부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1,195)		2019 (*N* = 1,250)		2020[1] (*N* = 268)	
	명	*M*(*SD*)	명	*M*(*SD*)	명	*M*(*SD*)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 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612	4.70(.40)	635	4.71(.42)	158	4.26(.59)
예비 배우자의 권유에 의해	362	4.66(.42)	379	4.67(.43)	66	4.26(.62)
부모님,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62	4.66(.48)	187	4.63(.46)	33	4.27(.64)
교육비가 무료라서	14	4.63(.45)	16	4.66(.40)	6	4.07(.35)
기타	45	4.51(.49)	33	4.70(.39)	5	4.09(.68)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이며, 기존 7문항의 평균임

예비부부교실 강사만족도는 〈표 2-40〉과 같다. 4개 문항(5점 만점)을 사용하여 회기별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강사만족도 4문항의 전체 평균은 2018년 4.71점, 2019년 4.72점으로 비슷하였고, 갑작스럽게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2020년에는 4.36점이었다.

<표 2-40> 2018-2020년 예비부부교실 강사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1,218)	2019 (*N* = 1,274)	2020[1] (*N* = 305)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4.74(.40)	4.76(.40)	4.40(.58)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강의내용 전달에 적절하였습니까?	4.77(.38)	4.77(.39)	4.42(.56)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4.71(.43)	4.73(.43)	4.34(.60)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4.64(.53)	4.69(.48)	4.30(.66)
4문항 평균	4.71(.41)	4.74(.40)	4.36(.57)

주) 회기별로 측정된 각 응답자의 문항별 강사만족도의 평균임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2) 신혼부부교실 만족도

신혼부부교실의 전반적 만족도는 〈표 2-41〉과 같다. 7문항의 평균은 2018년 4.55점, 2019년 4.52점이었다. 예비부부교실과 마찬가지로 진행시간 항목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았다.

<표 2-41> 2018-2019년 신혼부부교실 전반적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131)	2019 (*N* = 181)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4.53(.54)	4.51(.60)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62(.55)	4.62(.62)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52(.60)[1]	4.48(.72)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4.44(.74)	4.35(.83)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50(.57)	4.51(.69)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4.60(.56)	4.59(.65)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4.66(.57)	4.56(.70)
7문항 평균	4.55(.49)	4.52(.56)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1명 결측

신혼부부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평균은 〈표 2-42〉와 같다. 2018년 신혼부부교실 참여자 중 참여계기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 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라고 응답한 참여자 집단의 만족도가 4.61점으로 가장 높았다.

<표 2-42> 2018-2019년 신혼부부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130)		2019 (*N* = 179)	
	명	*M*(*SD*)	명	*M*(*SD*)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 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76	4.61(.45)	95	4.49(.56)
예비 배우자의 권유에 의해	37	4.45(.47)	57	4.53(.59)
부모님,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1	4.49(.59)	13	4.62(.47)
교육비가 무료라서	5	4.46(.91)	4	4.71(.33)
기타	1	4.57(.00)	10	4.40(.59)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신혼부부교실 강사만족도는 〈표 2-43〉과 같다. 4개 문항의 평균은 2018년 4.64점, 2019년 4.60점이었다.

<표 2-43> 2018-2019년 신혼부부교실 강사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134)	2019 (*N* = 185)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4.67(.44)	4.64(.48)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강의내용 전달에 적절하였습니까?	4.70(.41)	4.64(.50)
강사는 흥미유발 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4.63(.48)	4.59(.52)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4.57(.56)	4.54(.58)
4문항 평균	4.64(.44)	4.60(.50)

주) 회기별로 측정된 각 응답자의 문항별 강사만족도의 평균임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3) 아동기 부모교실 만족도

아동기 부모교실의 만족도는 〈표 2-44〉와 같다. 만족도 7문항의 평균은 2018년 4.71점, 2019년 4.65점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실시된 2020년에 본 연구팀에서 수집한 자료만 분석한 결과는 4.47점으로 나타났다. 예비 · 신혼부부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행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2020년 자료를 토대로 보면 아동기 부모교실의 경우에는 시간대와 총 소요시간 두 가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44> 2018-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전반적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1,498)	2019 (*N* = 1,261)	2020 (*N* = 258)
1.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4.67(.49)	4.62(.52)	4.47(.66)
2.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76(.44)	4.70(.49)	4.51(.61)
3.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70(.50)	4.67(.53)	4.34(.75)
4.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4.67(.53)	4.60(.58)	4.26(.78)[3]
1) 프로그램이 운영된 요일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1]	-	-	4.27(.77)
2) 프로그램이 운영된 시간대는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1]	-	-	4.13(.92)
3) 프로그램의 총 소요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1]	-	-	4.15(.88)
5.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72(.47)	4.67(.50)	4.48(.61)
6.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4.75(.46)	4.67(.62)[2]	4.60(.60)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4.72(.48)	4.64(.62)	4.56(.65)
1-7번 평균	4.71(.41)	4.65(.46)	4.47(.54)
추천의향(1-10)	-	-	9.22(1.33) (*N* = 271)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이며,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1) 1-7번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통문항이며, 1)-3)번은 연구팀 추가조사 문항임 2) 1명 결측 있음
3) 일부 사후조사에서 실수로 4번 문항이 누락되었음. 이에 따라 4번 문항은 87명 결측 있음

교육 참여계기별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은 〈표 2-45〉와 같다.

<표 2-45> 2018-2020년 아동기부모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구분	2018 (*N* = 1,451)		2019 (*N* = 1,234)		2020[1] (*N* = 224)	
	명	*M*(*SD*)	명	*M*(*SD*)	명	*M*(*SD*)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109	4.72(.41)	960	4.67(.44)	177	4.53(.48)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34	4.71(.35)	19	4.71(.37)	6	4.42(.47)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49	4.69(.43)	108	4.53(.56)	16	4.45(.54)
교육비가 무료라서	31	4.76(.38)	21	4.62(.49)	11	4.18(.63)
기타(기관 연계 등)	128	4.68(.44)	126	4.62(.46)	14	4.29(.61)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아동기 부모교실의 교육유형(대규모, 병합형, 참여형)별 만족도는 〈표 2-46〉과 같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근소하나마 참여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2020년의 경우 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17건을 기준으로 볼 때, 병합형(4.53점) 〉 참여형(4.45점) 〉 대규모(4.43점)의 순이었다.

<표 2-46> 2018-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교육유형별 만족도

구분	2018 만족도 (*N* = 58건, 1,498명)			2019 만족도 (*N* = 57건, 1,261)			2020 만족도[1] (*N* = 17건, 284)		
	건(%)	명(%)	*M*(*SD*)	건(%)	명(%)	*M*(*SD*)	건(%)	명(%)	*M*(*SD*)
대규모	17(29.3)	614(40.5)	4.72(.41)	19(33.3)	513(38.5)	4.64(.46)	6(35.3)	117(41.2)	4.43(.55)
병합형	20(34.5)	532(35.1)	4.68(.43)	17(29.8)	339(25.5)	4.69(.44)	7(41.2)	118(41.6)	4.53(.50)
참여형	20(34.5)	307(20.3)	4.75(.40)	14(24.6)	288(21.6)	4.70(.43)	4(23.5)	49(17.30	4.45(.60)
기타[2]	1(1.7)	63(4.2)	4.76(.40)	7(12.3)	191(14.4)	4.56(.49)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2) 회기별로 교육유형이 다르게 진행된 경우

아동기 부모교실의 회기수별 만족도는 〈표 2-47〉과 같다. 2018년, 2019년 모두 4회기로 구성된 경우에 비해 3회기로 구성된 경우에 건별 만족도 평균이 높았다. 비대면 전환으로 2회기 실시를 가능하도록 한 2020년의 경우, 2회기를 실시한 경우보다는 3회기를 실시한 경우에 만족도가 높았다.

<표 2-47> 2018-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회기수별 만족도

회기수	2018 (*N*= 58건, 1,498명)			2019 (*N*= 57건, 1,261)			2020 [1] (*N*= 17건, 284)		
	건(%)	명(%)	*M*(*SD*)	건(%)	명(%)	*M*(*SD*)	건(%)	명(%)	*M*(*SD*)
2회기[2]	-	-	-	-	-	-	7 (41.2)	116 (40.85)	4.45 (.57)
3회기	8 (13.8)	192 (12.7)	4.76 (.39)	4 (7.0)	94 (7.1)	4.71 (.40)	9 (52.9)	156 (54.93)	4.49 (.53)
4회기	50 (86.2)	1,324 (87.3)	4.71 (.42)	53 (93.0)	1,237 (92.9)	4.65 (.46)	1 (5.9)	12 (4.23)	4.50 (.46)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2)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사업의 경우 2회기로 아동기 부모교실 진행이 가능하게 됨

아동기 부모교실의 강사만족도는 〈표 2-48〉과 같다. 4문항의 평균은 2018년 4.75점, 2019년 4.71이었다. 비대면으로 전환된 2020년의 경우 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17건을 토대로 보았을 때, 강사만족도의 평균은 4.57로 나타났다.

<표 2-48> 2018-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강사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1,498)	2019 (*N*= 1,329)	2020[1] (*N*= 267)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4.77(.40)	4.71(.46)	4.57(.60)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강의내용 전달에 적절하였습니까?	4.77(.40)	4.72(.45)	4.57(.59)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4.74(.43)	4.71(.47)	4.56(.60)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4.72(.46)	4.69(.49)	4.56(.65)
4문항 평균	4.75(.40)	4.71(.44)	4.57(.59)

주) 강사만족도는 회기별로 측정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문항별로 각 응답자의 강사만족도 평균(문항별 전체 응답을 더하여 회기수로 나눈 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음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만족도조사에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것임

4) 청소년기 부모교실 만족도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만족도는 〈표 2-49〉와 같다. 7개 문항의 평균은 2018년 4.66점, 2019년 4.71점이었다.

<표 2-49>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전반적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1,030)	2019 (*N*= 1,009)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4.63(.52)	4.67(.51)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73(.46)	4.77(.44)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68(.52)	4.71(.49)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4.58(.65)	4.65(.56)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68(.50)	4.72(.48)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4.66(.59)	4.75(.48)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4.66(.57)	4.73(.48)
7문항 평균	4.66(.46)	4.71(.41)

주) 2018-2019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만족도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교육 참여계기별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만족도 평균은 〈표 2-50〉과 같다.

<표 2-50>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구분	2018 (*N*= 1,000)		2019 (*N*= 982)	
	명	*M*(*SD*)	명	*M*(*SD*)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691	4.68(.45)	664	4.73(.39)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16	4.63(.43)	17	4.41(.55)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28	4.73(.39)	165	4.71(.41)
교육비가 무료라서	8	4.48(.64)	20	4.71(.42)
기타	157	4.55(.55)	116	4.64(.46)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교육유형별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만족도 평균은 〈표 2-51〉과 같다. 2019년에는 매우 적게 실시된 기타를 제외하고는 참여형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향후 유형별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표 2-51>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교육유형별 만족도

회기수	2018			2019		
	건(%) (*N*= 58)	명(%) (*N*= 1,033)	만족도 (*N*= 1,030)	건(%) (*N*= 54)	명(%) (*N*= 1,039)	만족도 (*N*= 1,009)
대규모	13(22.4)	359(34.8)	4.62(.49)	18(33.3)	404(38.9)	4.71(.41)
병합형	23(39.7)	374(36.2)	4.69(.41)	20(37.0)	387(37.2)	4.69(.43)
참여형	19(32.8)	257(24.9)	4.66(.50)	13(24.1)	213(20.5)	4.74(.38)
기타[1]	3(5.2)	43(4.2)	4.78(.36)	3(5.6)	35(3.4)	4.84(.27)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1) 회기별로 교육유형이 다르게 진행된 경우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회기수별로 참여자의 만족도 평균은 〈표 2-52〉와 같다. 2019년에는 심화회기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향후 심화회기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표 2-52>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회기수별 만족도

회기수	2018			2019		
	건(%) (*N*= 58)	명(%) (*N*= 1,033)	만족도 (*N*= 1,030)	건(%) (*N*= 54)	명(%) (*N*= 1,039)	만족도 (*N*= 1,009)
3회기 (심화 없음)	7(12.1)	140(13.6)	4.68(.40)	6(11.1)	133(12.8)	4.69(.42)
4회기 (심화 있음)	51(87.9)	893(86.4)	4.66(.47)	48(88.9)	906(87.2)	4.72(.41)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강사만족도는 〈표 2-53〉과 같다. 강사만족도 4개 문항의 평균은 2018년 4.75점, 2019년 4.76점이었다.

<표 2-53> 2018-2019년 청소년기 부모교실 강사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1,032)	2019 (*N*= 1,017)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4.77(.41)	4.78(.40)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강의내용 전달에 적절하였습니까?	4.78(.41)	4.77(.42)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4.76(.44)	4.77(.42)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4.70(.54)	4.74(.48)
4문항 평균	4.75(.42)	4.76(.41)

주) 강사만족도는 회기별로 측정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문항별로 각 응답자의 강사만족도 평균(문항별 전체 응답을 더하여 회기수로 나눈 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음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5) 패밀리셰프 만족도

패밀리셰프 참여자의 만족도는 〈표 2-54〉와 같다. 7문항의 평균은 2018년 4.74점, 2019년 4.76점이었다. 패밀리셰프의 만족도 평균이 다른 교실에 비해 근소하게 높으나, 진행시간과 함께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문항에 비해 미세하게 낮았다.

<표 2-54> 2018-2019년 패밀리셰프 전반적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1,434)	2019 (*N*= 1,288)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4.69(.51)	4.73(.51)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78(.45)	4.82(.42)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72(.52)	4.76(.51)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4.69(.55)	4.69(.60)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76(.46)	4.77(.48)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4.77(.47)	4.80(.45)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4.76(.50)	4.78(.49)
7문항 평균	4.74(.40)	4.76(.41)

주) 2018-2019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만족도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패밀리셰프의 참여계기별 만족도는 〈표 2-55〉와 같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참여자 집단의 만족도가 각각 4.79점, 4.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5> 2018-2019년 패밀리셰프 참여계기별 만족도

참여계기	2018 (*N*= 1,381)		2019 (*N*= 1,226)	
	명	*M*(*SD*)	명	*M*(*SD*)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834	4.79(.36)	762	4.80(.36)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213	4.64(.45)	199	4.69(.47)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165	4.67(.44)	135	4.72(.43)
교육비가 무료라서	34	4.59(.53)	47	4.69(.46)
기타	135	4.68(.46)	83	4.73(.45)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패밀리셰프의 강사만족도는 〈표 2-56〉과 같다. 강사만족도 4문항의 평균은 2018년 4.79점, 2019년 4.83점이었다. 다른 교실에 비해 패밀리셰프의 강사만족도가 미세하게 높았다.

<표 2-56> 2018-2019년 패밀리셰프 강사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1,404)	2019 (*N* = 1,280)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4.80(.47)	4.83(.40)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강의내용 전달에 적절하였습니까?	4.81(.445	4.85(.38)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4.79(.49)	4.84(.41)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4.77(.53)	4.81(.45)
4문항 평균	4.79(.46)	4.83(.38)

주) 강사만족도는 회기별로 측정되었으며, 여기에서는 문항별로 각 응답자의 강사만족도 평균(문항별 전체 응답을 더하여 회기수로 나눈 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음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6)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만족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자의 만족도는 〈표 2-57〉과 같다. 7개 문항의 평균은 2018년 4.66점, 2019년 4.69점이었다. 역시 진행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57> 2018-2019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전반적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4,308)	2019 (*N* = 3,594)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4.64(.54)	4.67(.53)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4.72(.50)	4.75(.48)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4.66(.55)	4.69(.53)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4.60(.60)	4.63(.62)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4.67(.53)	4.71(.50)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4.65(.58)	4.67(.5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4.66(.56)	4.69(.55)
7문항 평균	4.66(.48)	4.69(.46)

주) 2018-2019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만족도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참여계기별 만족도는 〈표 2-58〉과 같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참여자 집단의 만족도가 각각 4.69점, 4.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8> 2018-2019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참여계기별 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4,221)		2019 (*N* = 3,516)	
	명	*M*(*SD*)	명	*M*(*SD*)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481	4.69(.47)	2,027	4.74(.42)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953	4.62(.48)	851	4.62(.48)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255	4.61(.49)	223	4.59(.54)
교육비가 무료라서	58	4.59(.48)	49	4.65(.55)
기타	474	4.61(.48)	366	4.62(.55)

주) 2018-2019년은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강사만족도는 〈표 2-59〉와 같다. 4개 문항의 평균은 2018년 4.71점, 2019년 4.73점이었다.

<표 2-59> 2018-2019년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강사만족도

구분 (응답범위: 1-5)	2018 (*N* = 4,239)	2019 (*N* = 3,578)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4.72(.48)	4.73(.49)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강의내용 전달에 적절하였습니까?	4.75(.46)	4.75(.48)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4.72(.49)	4.75(.49)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4.66(.57)	4.68(.57)
4문항 평균	4.71(.46)	4.73(.47)

주) 2018-2019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만족도조사 문항을 사용하여 시센터에서 취합한 만족도조사 자료를 본 연구팀이 분석한 것임

PART III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1. 정량적 효과성 연구방법

2. 예비부부교실 정량적 효과성

3. 아동기 부모교실 정량적 효과성

1. 정량적 효과성 연구방법

1) 분석범위

본 연구에서는 서울가족학교의 정량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첫 단계로 2020년에 실시된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서울가족학교의 5개 교실 중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루에 모든 교육이 종료되는 교실이 아닌 2일 이상 실시된 교실을 선택하였다. 예비부부교실은 4회기(480분)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2주간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회기수가 많다.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2019년까지 기본적으로 3회기(360분)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2-3회기가 실시되었다. 반면 패밀리셰프와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경우 1회기 또는 2회기로 구성되며, 모든 교육이 대체로 하루에 실시된다. 따라서 사전-사후 비교방식의 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정량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동일한 효과성 지표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교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예비부부교실은 총 6차시(주제) 중 4개를 선택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건별 교육내용의 유사성이 가장 높다. 특히 2020년에 추가된 6차시는 비대면 교육 전환으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1-5차시 중 4개 이상의 주제가 실시되었다.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총 7차시(주제)중 2-3개를 선택하여 예비부부교실 다음으로 건별 유사성이 높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효과성 분석의 첫 단계로서, 구성이 유사한 아동기 부모교실과 청소년기 부모교실 중 아동기 부모교실을 선택하였다. 한편,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총 8차시(주제) 중 1개를 선택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건별로 교육내용의 유사성이 가장 낮다. 패밀리셰프의 경우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여러 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교육내용이 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성 지표를 적용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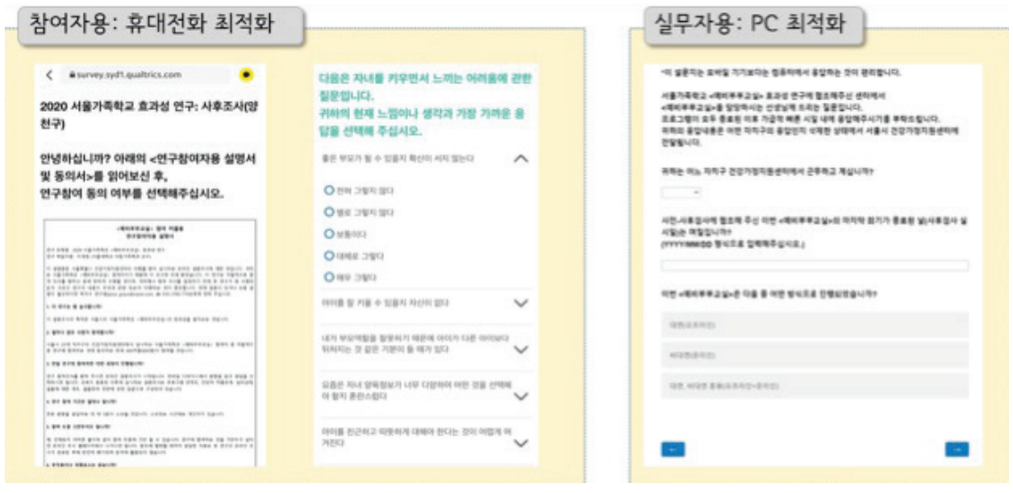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의 정량적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로 나누어 총 2회 실시했으며,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1회 실시하였다.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조사의 구성은 〈그림 2-5〉와 같다.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인 Qualtrics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 화면예시는 〈그림 2-6〉과 같다.

<그림 2-5>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설문지 구성

※ 예비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공통

단계	사전조사 (Pre-Testing)	사후조사 (Post-Testing)	교육 특성 조사
조사시점	교육 수강 전	마지막 회기 종료 직후	
조사대상	교육 신청자 (자발적 참여)	마지막 회기 참여자 (자발적 참여)	자치구 센터 담당자
문항 구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커플 특성 (예비부부교실의 경우) - **효과성 지표**: 사전, 사후 동일 문항 - 사전-사후 매칭	모든 참여자 - 만족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통 서식) - 참여방법 (비대면 사용기기 등) 사전조사 응답자 - **효과성 지표**: 사전, 사후 동일 문항 - 프로그램 참여 정도 (출결, 지각·조퇴여부 등) - 사전-사후 매칭	- 교육 운영 방식 (교육 유형, 회기 구성, 운영 방식 등) - 강사만족도 - 개방형 질문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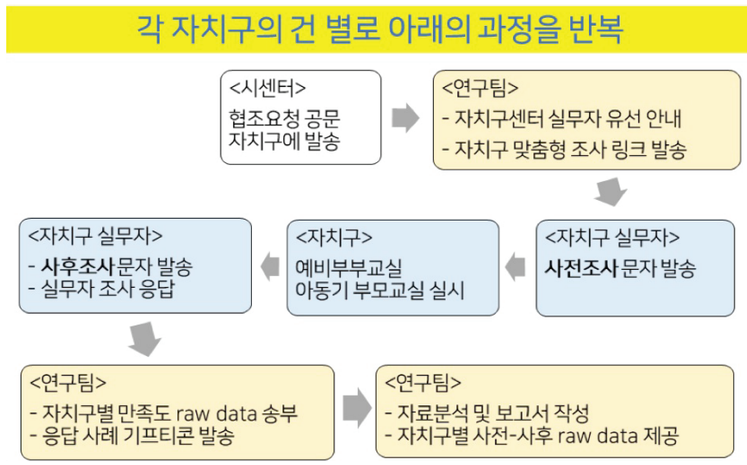
<그림 2-6> 서울가족학교 온라인 설문지 화면 예시



자료수집 절차는 〈그림 2-7〉과 같다. 참여자 모집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25개 자치구센터에 연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연구에 협조한 자치구센터의 담당 실무자를 통해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 신청자(사전조사)와 마지막 회기 참여자(사후조사)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 모집안내 문자를 발송하였다.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 신청자와 교육 참여자 중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휴대전화 문자로 받은 설문링크를 클릭하면 온라인 설문이 시작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6월 22일부터 2020년 10월 7일이었다. 이상과 같은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예비부부교실 IRB No. 2006/003-012, 아동기 부모교실 IRB No. 2006/002-011).

<그림 2-7>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분석 자료수집 절차



3) 조사 인원 및 건수

본 연구의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인원은 〈표 2-60〉과 같다. 예비부부교실 사전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381명이었으며 사후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327명이었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모두 참여한 경우만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271명이었다. 아동기 부모교실의 경우 사전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280명이었으며, 사후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284명이었다. 효과성 분석 대상인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모두 응답한 경우는 213명이었다.

<표 2-60> 정량적 효과성 평가 사전-사후조사 참여인원 (단위: 명)

	사전조사	사후조사	효과성 분석 (사전+사후 모두 응답)
예비부부교실	381	327	271 (커플 74쌍, 148명)
아동기 부모교실	280	284	213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분석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에 협조한 자치구센터의 수, 교육건수, 건별 평균 응답자수는 〈표 2-61〉과 같다.

<표 2-61> 정량적 효과성 평가 사전-사후조사 참여 자치구센터 수 및 교육건수

	자치구 및 교육건수	사전조사	사전+사후
예비부부교실	17개 자치구, 21건 (4개 자치구에서 2건)	평균 18명/건 (7-44명)	평균 13명/건 (1-32명)
아동기 부모교실	14개 자치구, 17건 (3개 자치구에서 2건)	평균 16명/건 (4-37명)	평균 12명/건 (2-30명)

4) 효과성 평가지표 및 측정도구

서울가족학교는 각 교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교육목표와 이러한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효과성 평가지표가 문서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연구팀에서 교육 매뉴얼, 강의자료 등을 토대로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의 교육목표를 측정가능한 형태로 설정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 교육목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효과성 평가지표를 선정하였다.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 모두 전체 차시(교육주제) 중 일부를 각 자치구센터에서 선택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차시(교육주제)에 국한된 평가지표보다는 교육의 전반적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1) 예비부부교실 효과성 평가지표

예비부부교실의 정량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결혼생활준비도, 커플관계만족도, 관계자신감, 부정적 상호작용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우울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는 보조적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평가지표의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62〉와 같다.

<표 2-62> 예비부부교실 정량적 효과성 평가 측정도구

효과성 지표	척도 출처 및 문항수	크론바하 알파	
		여성[1)] (*N* = 160)	남성[1)] (*N* = 111)
결혼생활준비도	이현숙(2003) 결혼준비도 척도 22문항 수정 + 연구팀 개발 9문항 = 총 31문항(1-5점) 척도 타당화를 거쳐 분석에 사용	사전: .918 사후: .930	사전: .874 사후: .916
커플관계만족도	Hendrick et al.(1998) 척도 7문항 중 6문항 사용2)(1-5점)	사전: .899 사후: .836	사전: .847 사후: .839
관계자신감	Stanley et al.(1994) 척도 4문항(1-5점)	사전: .888 사후: .909	사전: .873 사후: .905
부정적 상호작용	Stanley et al.(2004) 척도 5문항(1-5점)	사전: .830 사후: .827	사전: .853 사후: .869
우울(보조지표)	Kessler et al.(2002)의 척도 6문항(1-5점)	사전: .905 사후: .915	사전: .918 사후: .941

1) 사전조사, 사후조사 모두 응답자
2) 커플관계만족도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 중 일부 사후조사에서 실수로 7번 문항이 누락되었음. 이에 따라 전체 7문항 중 6문항을 분석에 활용함

예비부부교실의 정량적 효과성 지표로 활용한 척도 중 결혼생활준비도는 이현숙(2003)의 결혼준비도 척도를 수정한 22문항과 연구팀이 개발한 9문항을 포함하여 총 31문항으로 새롭게 구성한 척도이다. 비교적 회기수가 적은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실제 커플의 역동, 행동에서의 변화보다 지식, 경험여부 등에서의 변화가 교육목표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기존의 결혼준비도 척도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활용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결혼생활준비도 척도는 예비부부교실의 교육주제를 골고루 담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문항수를 주제별로 비슷하게 하였다. 결혼생활준비도 척도는 크게 '~를 알고 있다'와 같이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과 '~를 의논했다'와 같이 경험여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결혼생활준비도 척도 검증 결과는 〈표 2-63〉과 같다. 전반적으로 개별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개별 항목을 제거하는 것이 크론바하 알파값을 향상시키지 않았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으로 간주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조사 결과, 일부 문항에서 전체 평균과의 상관계수와 탐색적 요인분석의 1요인 고정시 요인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항목 삭제시 크론바하 알파값이 미세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된 문항이 성별로 달랐고, 사후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사용한 31문항을 1개 요인으로 취급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에 대한 치밀한 검증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2-63> 결혼생활준비도 척도 검증 결과

사전조사								
문항	여성 (*N* = 220)				남성 (*N* = 161)			
	M(*SD*)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계수	문항삭제시 크론바하 알파 (*n* = 210)	1요인 요인 부하량[1)]	*M*(*SD*)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계수	문항삭제시 크론바하 알파 (*n* = 154)	1요인 요인 부하량[1)]
1	4.16(.68)	.37***	.914	.34	4.12(.73)	.46***	.875	.50
2	4.06(.67)	.41***	.913	.37	4.11(.66)	.38***	.877	.43
3	3.99.(83)	.46***	.913	.41	3.99(.73)	.43***	.876	.43
4	3.97(.60)	.49***	.912	.52	4.02(.63)	.42***	.876	.46
5	3.97(.66)	.48***	.913	.48	4.07(.60)	.41***	.876	.47
6	4.10(.71)	.36***	.914	.35	4.08(.70)	.46***	.876	.44
7	3.97(.80)	.39***	.913	.39	3.86(.79)	.27***	.879	.25
8	3.55(.90)	.60***	.911	.62	3.88(.70)	.53***	.875	.53
9	3.64(.88)	.58***	.911	.59	3.88(.67)	.60***	.874	.62
10	3.66(.85)	.60***	.911	.57	4.06(.80)	.59***	.873	.61
11	3.99(.82)	.57***	.911	.55	4.13(.72)	.52***	.875	.53
12	3.57(1.23)	.60***	.911	.57	3.70(1.03)	.51***	.875	.48
13	2.37(1.17)	.55***	.912	.47	2.74(1.15)	.42***	.875	.44
14	2.67(1.18)	.61***	.911	.55	3.07(1.07)	.48***	.875	.44
15	3.70(1.03)	.45***	.913	.40	3.86(.85)	.48***	.875	.46
16	3.92(1.03)	.48***	.913	.41	3.81(.86)	.44***	.875	.48
17	3.56(1.07)	.53***	.912	.49	3.61(.87)	.39***	.877	.37
18	3.40(1.22)	.24***	.917	.16	3.02(1.15)	.47***	.876	.41
19	3.69(1.02)	.38***	.914	.31	4.09(.86)	.31***	.879	.29
20	4.10(.81)	.24***	.915	.18	4.07(.74)	.31***	.879	.27
21	3.12(1.19)	.66***	.910	.62	3.29(1.13)	.65***	.871	.59
22	3.06(1.14)	.68***	.909	.64	3.34(1.14)	.65***	.871	.59
23	3.37(1.20)	.70***	.909	.68	3.68(1.06)	.62***	.872	.54
24	2.85(1.27)	.68***	.909	.65	3.27(1.22)	.57***	.874	.48
25	3.18(1.19)	.73***	.908	.74	3.35(1.00)	.48***	.876	.38
26	3.99(1.07)	.61***	.911	.58	4.16(.85)	.46***	.875	.44
27	3.09(1.17)	.70***	.909	.67	3.45(.93)	.51***	.874	.44
28	3.35(1.21)	.65***	.909	.66	3.49(1.10)	.44***	.876	.37
29[2),3)]	3.29(1.29)	.66***	.909	.65	3.49(1.14)	.48***	.876	.41
30[2),3)]	3.06(1.15)	.69***	.909	.70	3.25(1.03)	.51***	.874	.45
31	3.16(1.33)	.45***	.914	.36	3.63(1.13)	.30***	.881	.20
α	.914				.879			

사후조사								
문항	여성 (*N* = 160)				남성 (*N* = 111)			
	M(*SD*)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계수	문항삭제시 크론바하 알파 (*n* = 154)	1요인 요인 부하량[1)]	*M*(*SD*)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계수	문항삭제시 크론바하 알파 (*n* = 106)	1요인 요인 부하량[1)]
1	4.25(.68)	.410***	.930	.38	4.32(.66)	.390**	.915	.39
2	4.22(.64)	.394***	.930	.35	4.25(.55)	.347**	.916	.35
3	4.23(.69)	.467***	.929	.43	4.27(.75)	.496**	.914	.47
4	4.17(.55)	.461***	.929	.44	4.18(.59)	.540**	.914	.51
5	4.22(.63)	.543***	.928	.54	4.17(.67)	.393**	.916	.37
6	4.20(.60)	.526***	.928	.54	4.09(.71)	.492**	.914	.48
7	4.13(.70)	.438***	.929	.41	4.11(.73)	.514**	.914	.50
8	4.00(.75)	.616***	.928	.61	4.31(.67)	.538**	.914	.54
9	4.02(.76)	.669***	.927	.67	4.14(.67)	.586**	.913	.58

10	4.00(.78)	.659***	.927	.67	4.30(.65)	.541**	.914	.54
11	4.22(.66)	.659***	.927	.66	4.14(.72)	.608**	.912	.61
12	4.07(.83)	.453***	.930	.42	3.93(.94)	.506**	.914	.50
13	3.57(.99)	.418***	.930	.37	3.68(.83)	.399**	.916	.38
14	3.66(.90)	.536***	.928	.50	3.85(.92)	.578**	.913	.56
15	4.09(.80)	.470***	.929	.48	4.24(.75)	.343**	.915	.38
16	4.30(.73)	.441***	.929	.40	4.17(.76)	.422**	.914	.44
17	4.04(.66)	.370***	.930	.36	4.01(.71)	.546**	.914	.53
18	4.31(.75)	.498***	.929	.46	4.13(.79)	.542**	.913	.57
19	4.17(.77)	.497***	.929	.46	4.32(.73)	.551**	.913	.53
20	4.38(.68)	.421***	.929	.41	4.33(.62)	.493**	.914	.51
21	3.76(.99)	.684***	.926	.69	3.79(.93)	.637**	.912	.65
22	3.70(.97)	.739***	.925	.74	3.80(.89)	.659**	.911	.66
23	4.06(.89)	.630***	.927	.61	4.11(.85)	.722**	.910	.73
24	3.76(1.04)	.692***	.926	.67	3.77(.99)	.649**	.912	.61
25	3.92(.92)	.699***	.926	.70	3.98(.94)	.623**	.912	.58
26	4.35(.82)	.643***	.927	.63	4.49(64)	.527**	.914	.52
27	3.91(.95)	.731***	.926	.73	3.99(.86)	.710**	.911	.68
28	4.09(.98)	.670***	.927	.65	4.01(1.00)	.566**	.913	.49
29[2),3)]	3.96(1.01)	.631***	.927	.60	3.83(1.03)	.487**	.915	.41
30[2),3)]	3.74(.96)	.650***	.927	.62	3.68(1.06)	.534**	.914	.47
31	3.96(1.06)	.713***	.926	.69	3.95(1.05	.488**	.915	.43
α	.930[2)]				.916[3)]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임(주축요인 분석) ** $p<.01$. *** $p<.001$.
2)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여자 10명의 응답을 제외한 21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3)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남자 7명의 응답을 제외한 15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4)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여자 6명의 응답을 제외한 15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5)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남자 5명의 응답을 제외한 106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2) 아동기 부모교실 효과성 평가지표

아동기 부모교실의 정량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을 평가지표로 활용하였다. 우울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알아보는 보조적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 각 평가지표의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64〉와 같다.

<표 2-64> 아동기 부모교실 정량적 효과성 평가 측정도구

효과성 지표	척도 출처 및 문항수	크론바하 알파 (N = 213)[1)]
양육지식	연구팀 개발 20문항(1-5점) 척도 타당화를 거쳐 분석에 사용	사전조사 .920 사후조사 .929
양육스트레스	김기현,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8문항(1-5점)	사전조사 .825 사후조사 .876
양육효능감	최형석, 정옥분(2001) 척도 11문항(1-5점)	사전조사 .909 사후조사 .920
우울(보조지표)	Kessler et al.(2002)의 척도 6문항(1-5점)	사전조사 .920 사후조사 .916

1) 사전조사, 사후조사 모두 응답자

아동기 부모교실의 정량적 효과성 지표로 활용한 척도 중 양육지식 척도는 본 연구팀에서 개발하였다.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2-3회기로 회기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 부모의 행동변화나 자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양육지식 수준의 변화를 교육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양육지식을 측정하는 척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팀에서 아동기 부모교실의 교육내용을 참고로 개발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양육지식 척도는 아동기 부모교실의 교육주제를 골고루 담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문항수를 주제별로 비슷하게 하였다.

양육지식 척도 20문항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2-65〉와 같다. 전반적으로 개별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계수가 중간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개별 문항을 삭제했을 때 크론바하 알파값이 증가하지 않았고, 1요인으로 가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을 때 개별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적절하였다. 그러나 사전조사에서 3번 문항('나는 내 성장기 경험이 나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의 경우 전체 평균과의 상관계수, 1요인 요인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후조사에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어, 최종 분석에서 3번 문항도 포함하였다. 3번 문항에서 '성장기 경험'이라는 표현이 다의적일 가능성이 있어 추후 이 척도를 활용할 때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표 2-65> 양육지식 척도 검증 결과

문항	사전조사 (*N* = 280)			
	M(*SD*)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관계	문항 삭제시 크론바하 알파	1요인 요인 부하량[1)]
1	3.53(.83)	.61***	.927	.59
2	3.79(.76)	.58***	.928	.55
3	4.01(.74)	.34***	.932	.29
4	3.38(.86)	.73***	.925	.72
5	3.39(.93)	.69***	.926	.68
6	3.94(.76)	.67***	.926	.66
7	3.85(.79)	.69***	.926	.68
8	3.23(.91)	.75***	.924	.75
9	3.28(.93)	.75***	.924	.74
10	3.57(.87)	.71***	.925	.70
11	3.32(.96)	.56***	.929	.52
12	3.16(.90)	.75***	.924	.74
13	3.42(.86)	.69***	.926	.67
14	3.09(.92)	.70***	.925	.68
15	3.91(.90)	.62***	.927	.59
16	3.08(1.00)	.66***	.926	.63
17	2.99(.91)	.71***	.925	.67
18	2.62(.93)	.64***	.927	.59
19	3.44(1.04)	.65***	.927	.61
20	2.65(.98)	.61***	.928	.57
α	.930			

문항	사후조사 (*N* = 213)			
	M(*SD*)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관계	문항 삭제시 크론바하 알파	1요인 요인 부하량[1)]
1	3.69(.73)	.58***	.926	.57
2	4.00(.70)	.54***	.927	.52
3	4.08(.64)	.48***	.928	.43
4	3.61(.77)	.67***	.925	.64
5	3.68(.79)	.75***	.923	.73
6	4.00(.68)	.69***	.924	.67
7	3.89(.70)	.61***	.926	.58
8	3.53(.79)	.67***	.925	.65
9	3.59(.83)	.75***	.923	.76
10	3.82(.71)	.74***	.923	.74
11	3.57(.86)	.68***	.925	.65
12	3.47(.80)	.79***	.922	.78
13	3.57(.78)	.73***	.923	.72
14	3.35(.82)	.68***	.925	.66
15	4.10(.71)	.54***	.927	.49
16	3.54(.85)	.62***	.926	.57
17	3.57(.78)	.68***	.925	.65
18	3.29(.86)	.61***	.926	.56
19	4.00(.75)	.65***	.925	.60
20	3.49(.93)	.59***	.927	.53
α	.929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임(주축요인 분석) ***$p < .001$.

4) 분석방법

2020 서울가족학교 정량적 효과성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결혼생활준비도, 양육지식)의 척도 타당화를 위해 문항별 기술통계 분석, 문항과 전체 평균의 상관분석, 내적 일관성 계수인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 특성, 커플 특성(예비부부교실), 자녀 특성(아동기 부모교실), 교육 특성, 각 평가지표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평가지표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일관성 계수인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값을 점검하였다.

다음으로 정량적 효과성 검증을 위해 교실별로 사전-사후점수를 비교하는 쌍체 티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였다. 효과성 검증을 위한 분석자료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모두 참여한 응답자의 자료만 사용하였다. 전체 집단의 효과성 검증에 이어서 참여자 특성과 교육 특성별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혼합 분산분석(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예비부부교실의 경우 남성과 여성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예비부부교실은 커플 단위 교육이었기 때문에, 사전-사후 조사에서 커플이 참여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커플의 응답은 티검증이나 분산분석의 가정인 관찰의 독립성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상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방법은 서울가족학교의 정량적 효과성 분석의 첫 시도라는 의의가 있으나 중요한 한계가 있다. 첫째,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예비부부교실이나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통제집단을 활용하지 못했다. 둘째, 교육의 효과가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이후에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추후검사(follow-up testing)를 하지 못했다. 셋째, 효과성 분석의 가정인 실시의 충실성(fidelity; 교육 매뉴얼과 실제 교육의 일치도) 정보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예비부부교실 정량적 효과성

1) 예비부부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및 교육 특성

2020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의 정량적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전, 사후 온라인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참여자의 개인 및 커플 특성은 다음 〈표 2-66〉과 같다.

<표 2-66> 예비부부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개인 및 커플 특성(*N* = 271)

구분		명(%)
성별	여성	160(59.0)
	남성	111(41.0)
출생년도	1970년대	2(.7)
	1980년대	143(52.8)
	1990년대	126(46.5)
평균 연령 만 31.37세 (SD = 3.45)		
교육수준	고졸 이하	9(3.3)
	전문대졸	22(8.1)
	대졸	200(73.8)
	대학원졸	40(14.8)
주관적 사회 경제적 지위	하	12(4.4)
	중하	63(23.2)
	중	131(48.3)
	중상	59(21.8)
	상	6(2.2)
결혼여부	비혼	228(84.1)
	기혼	43(15.9)
교제기간 [1] : 평균 35.37개월 (*SD* = 29.47)		

구분		명(%)
지난 한 달 간 활동	일했음	240(88.6)
	학교에 다녔음	-
	취업준비	12(4.4)
	육아/가사	2(0.7)
	쉬었음(일시휴직, 휴가 포함)	15(5.5)
	기타	2(0.7)
소득 (지난 1년 월평균)	100만원 미만	11(4.1)
	100~200만원 미만	39(14.4)
	200~300만원 미만	123(45.4)
	300~400만원 미만	61(22.5)
	400~500만원 미만	19(7.0)
	500~600만원 미만	12(4.4)
	600~700만원 미만	1(0.4)
	700~800만원 미만	-
	800~900만원 미만	-
	900~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5(1.8)
현 파트너와 결혼의향(1-5)[2] : 평균 4.86 (*SD* = .38)		
구체적 결혼 계획 유무[2]	있음	188(82.5)
	없음	40(17.5)

1) 28명 결측 있음
2) 기혼자를 제외한 22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2) 예비부부교실 참여 전-후 차이

예비부부교실의 효과성을 결혼생활준비도, 관계자신감, 커플관계만족도, 커플의 부정적 상호작용, 우울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를 쌍체 티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2-67〉과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8〉과 같다.

본 연구팀에서 선정한 효과성지표의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유의하였다. 효과크기인 Cohen의 d[2]값을 통해 보면, 예비부부교실의 핵심 효과성 지표인 결혼생활준비도의 *d* 값이 매우 커서 강한 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의 효과크기는 결혼생활준비도 〉 관계자신감 〉 커플관계만족도 〉 우울의 순이었고, 남성의 효과크기는 결혼생활준비도 〉 부정적 의사소통 〉 우울의 순이었다. 그러나, 여성참여자의 부정적 의사소통, 남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과 커플관계만족도의 사전-사후 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효과크기도 작았다.

종합하면, 예비부부교실은 핵심 교육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결혼생활준비도 향상에서 여성과 남성 참여자 모두에게 강한 효과가 있었고,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가 더 강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관계자신감 향상에도 중간 크기의 효과가 있었고, 커플관계만족도 향상과 우울 감소에도 작은 크기이지만 효과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생활준비도 이외에 부정적 상호작용과 우울 감소에서 중간보다는 작은 크기이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표 2-67>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사전-사후 점수차이 검증

구분	문항수	점수 범위	여성(*N* = 160)			
			사전	사후	paired *t*	Cohen's *d*
			M(*SD*)	*M*(*SD*)		
결혼생활준비도	31	1-5	3.57(.56)	4.04(.47)	-12.484***	-.99
관계자신감	4	1-5	4.00(.71)	4.29(.63)	-6.165***	-.49
커플관계만족도	6	1-5	4.18(.68)	4.28(.57)	-2.514*	-.20
부정적 의사소통	5	1-5	2.26(.91)	2.30(.90)	-.722	-.06
우울	6	1-5	2.06(.91)	1.95(.86)	2.35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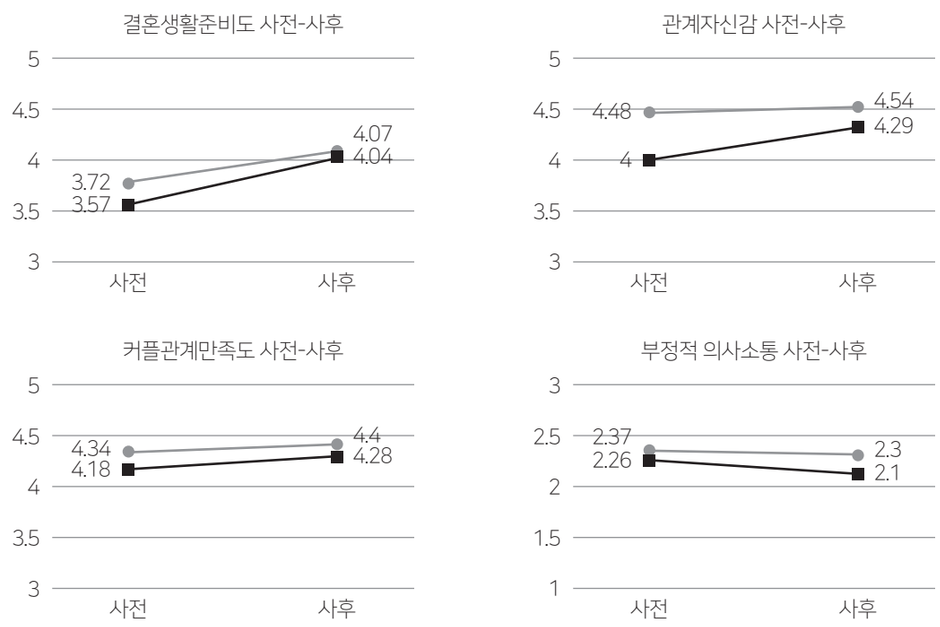
2) 효과크기 .8 내외는 큰(large) 효과크기, .5 내외는 중간(medium) 효과크기, .2 내외는 작은(small) 효과크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Cohen, 1988).

구분	문항수	점수 범위	남성(*N* = 111)			
			사전	사후	paired *t*	Cohen's *d*
			M(*SD*)	*M*(*SD*)		
결혼생활준비도	31	1-5	3.72(.42)	4.07(.43)	-8.172***	-.78
관계자신감	4	1-5	4.48(.57)	4.54(.57)	-.922	-.09
커플관계만족도	6	1-5	4.34(.58)	4.40(.55)	-1.341	-.13
부정적 의사소통	5	1-5	2.37(.96)	2.10(.89)	3.254**	.31
우울	6	1-5	1.86(.87)	1.71(.83)	2.868**	.27

구분	문항수	점수 범위	전체(*N* = 271)			
			사전	사후	paired *t*	Cohen's *d*
			M(*SD*)	*M*(*SD*)		
결혼생활준비도	31	1-5	3.63(.51)	4.05(.45)	-14.763***	-.90
관계자신감	4	1-5	4.19(.70	4.39(.62)	-5.193***	-.32
커플관계만족도	6	1-5	4.25(.64)	4.33(.57)	-2.771***	-.17
부정적 의사소통	5	1-5	2.30(.93)	2.22(.90)	1.615	.10
우울	6	1-5	1.98(.90)	1.86(.85)	3.625***	.22

주) 전체응답자에는 커플 74쌍이 포함되어 t-test의 관찰의 독립성 가정을 부분적으로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8>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사전-사후 점수 도식화



한편, 예비부부교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본 연구팀이 설정한 효과성 평가지표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68〉과 같다. 예비부부교실의 핵심 교육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결혼생활준비도의 변화량과 전반적인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여성과 남성 모두 .24로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만족도 점수와 결혼생활준비도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지만, 만족도가 높다고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비부부교실의 부차적인 교육목표라고 볼 수 있는 관계자신감, 커플관계만족도의 변화량과 만족도 사이에는 더 낮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표 2-68>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만족도 및 사후-사전 점수차이의 상관계수

	만족도	결혼생활 준비도 변화량	관계 자신감 변화량	커플관계 만족도 변화량	부정적 의사소통 변화량	우울 변화량
만족도	-	.24*	.12	.22*	-.02	-.11
결혼생활준비도 변화량	.24**	-	.48***	.38***	-.24*	-.19
관계자신감 변화량	.15	.37***	-	.47***	-.26**	-.26**
커플관계만족도 변화량	.17*	.21**	.37***	-	-.27**	-.32**
부정적 의사소통 변화량	-.12	-.04	-.19*	-.19*	-	.36***
우울 변화량	-.02	.07	-.22**	-.13	.31***	-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좌측 하단은 여성(N = 160), 우측 상단은 남성(N = 111)임. 변화량 = 사후점수 - 사전점수. * p < .05. ** p < .01. *** p < .001.

3) 참여자 및 교육 특성에 따른 효과성 차이

예비부부교실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효과성 지표에서의 변화가 참여자 특성이나 교육 특성에 따라 다른지 혼합 분산분석(mixed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참여자의 개인 및 커플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교제기간, 구체적 결혼계획 유무, 결혼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특성으로는 차시(교육주제) 구성, 심화회기 여부, 사용기기, 집단크기, 전반적 만족도, 강사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예비부부교실 전–후 변화의 집단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만 제시하였다.

(1) 교제기간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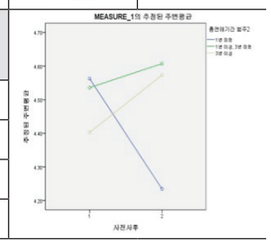
교제기간은 남성참여자의 경우에만 예비부부교실 전–후 변화의 폭에 차이를 가져왔다.

① 교제기간에 따른 남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 사전-사후 차이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사전–사후 관계자신감 점수에서 교제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69〉와 같이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남성참여자의 사전 관계자신감은 교제기간이 1–3년, 3년 이상인 남성참여자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예비부부교실 참여 이후에는 교제기간이 1–3년, 3년 이상인 남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은 증가한 반면,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남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은 감소하였다.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남성참여자의 경우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미래의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결혼생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관계자신감이 감소한 반면, 교제기간이 1년 이상인 남성참여자는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향후 커플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표 2-69>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 사전-사후변화:교제기간별 차이 (*N* = 92)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교제기간	2	.696	.348	.723
	오차1	89	42.832	.481.492	
개체 내	사전-사후	1	.032	.032	.164
	교제기간 × 사전-사후	2	1.450	.725	3.717*
	오차2	89	17.358	.195	
기술통계		1년 미만 (*n* = 16)	1-3년 (*n* = 35)	3년 이상 (*n* = 41)	
사전 관계 자신감	평균	4.563	4.536	4.402	
	표준편차	.727	.470	.602	
사후 관계 자신감	평균	4.234	4.607	4.573	
	표준편차	.829	.516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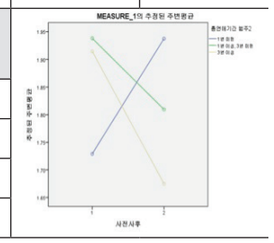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② 교제기간에 따른 남성참여자의 우울 사전-사후 차이

관계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후 우울의 변화에서 교제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70〉과 같이 교제기간이 1–3년, 3년 이상인 남성참여자는 예비부부교실 이후 우울 수준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교육 이전에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교제기간 1년 미만의 남성참여자 집단은 교육 이후 우울 수준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교제기간이 1년 미만인 남성참여자의 경우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미래의 부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결혼생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우울 수준에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2-70>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우울 사전-사후변화:교제기간별 차이 (*N* = 92)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교제기간	2	.236	.118	.081
	오차1	89	129.541	1.456	
개체 내	사전-사후	1	.111	.111	.837
	교제기간 × 사전-사후	2	1.158	.579	4.369*
	오차2	89	11.795	.133	
기술통계		1년 미만 (*n* = 16)	1-3년 (*n* = 35)	3년 이상 (*n* = 41)	
사전 우울	평균	1.729	1.938	1.915	
	표준편차	.809	.899	.953	
사후 우울	평균	1.938	1.810	1.675	
	표준편차	.990	.819	.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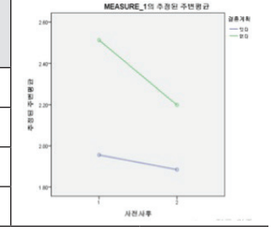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2) 구체적인 결혼계획 유무에 따른 차이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유무별로 여성참여자의 예비부부교실 전–후 우울점수의 변화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71〉과 같이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없는 여성참여자의 경우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있는 여성참여자에 비해 교육 이전의 우울 수준이 높았으나, 예비부부교실 참여 이후 우울 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없는 여성참여자의 경우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파트너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파트너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울의 감소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표 2-71> 예비부부교실 여성참여자의 우울 사전-사후변화:구체적인 결혼계획 유무별 차이 (*N* = 132)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구체적인 결혼계획 유무	1	7.908	7.908	5.526*
	오차1	130	186.026	1.431	
개체 내	사전-사후	1	1.546	1.546	11.060**
	구체적인 결혼계획 유무 × 사전-사후	1	.618	.618	4.422*
	오차2	130	18.174	.140	
기술통계		결혼계획 있음 (*n* = 106)	결혼계획 없음 (*n* = 26)		
사전 우울	평균	1.956	2.513		
	표준편차	.865	1.145		
사후 우울	평균	1.885	2.199		
	표준편차	.798	1.019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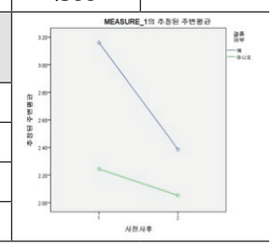
(3)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

예비부부교실에는 이미 결혼한 커플도 적지 않게 참여하기 때문에 결혼여부별로 교육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남성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부정적 의사소통의 변화에서 결혼여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72〉와 같이 기혼인 남성참여자의 교육 이전 부정적 의사소통 수준은 비혼 남성참여자 보다 높았으나, 교육 이후 비혼 남성참여자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예비부부교실에서 다루고 있는 대화법 등이 기혼 남성참여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표 2-72>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부정적 의사소통 사전-사후변화:결혼여부별 차이 (*N* = 111)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결혼상태	1	10.149	10.149	8.176**
	오차1	1	135.298	1.241	
개체 내	사전-사후	1	6.040	6.040	16.497***
	결혼상태 × 사전-사후	1	2.195	2.195	5.994*
	오차2	109	39.911	.366	

기술통계		기혼 (*n* = 15)	비혼 (*n* = 96)
사전 부정적 의사소통	평균	3.160	2.243
	표준편차	1.205	.857
사후 부정적 의사소통	평균	2.387	2.052
	표준편차	.890	.883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 $p < .01$. *** $p < .001$.

(4)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참여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예비부부교실의 교육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육수준별로 여성참여자의 부정적 의사소통 수준과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의 사전-사후 차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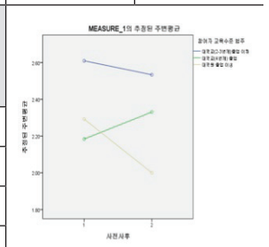
① 교육수준별 여성참여자의 부정적 상호작용 사전-사후변화

예비부부교실 여성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부정적 의사소통의 변화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73〉과 같이 대학교(2-3년제)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 이상인 여성참여자의 경우 예비부부교실 참여 이후 부정적 의사소통이 감소한 반면, 대학교(4년제) 졸업인 여성참여자의 경우 참여 이후 부정적 의사소통이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교(4년제) 졸업인 여성참여자의 경우 교육을 통해 결혼생활에 대해 파트너와 대화하면서 오히려 부정적 의사소통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대화법 교육여부에 따른 차이나 종단적 변화를 추가로 분석할 필요를 시사한다.

<표 2-73> 예비부부교실 여성참여자의 부정적 의사소통 사전-사후변화:교육수준별 차이 (*N* = 160)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교육수준	2	4.613	2.306	1.774
	오차1	157	204.087	1.300	
개체 내	사전-사후	1	.359	.359	.814
	교육수준 × 사전-사후	2	2.220	1.110	3.492*
	오차2	157	49.909	.318	

기술통계		전문대 졸업 이하 (*n* = 21)	4년제 졸업 (*n* = 113)	대학원 졸업 이상 (*n* = 26)
사전 부정적 의사소통	평균	2.610	2.184	2.292
	표준편차	.703	.914	.992
사후 부정적 의사소통	평균	2.533	2.331	2.000
	표준편차	.882	.905	.862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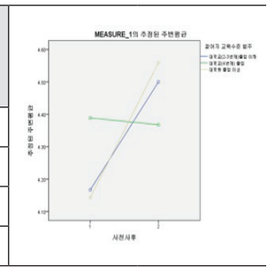
② 교육수준별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 사전-사후변화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커플관계만족도의 변화에서 교육수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74〉와 같이 대학교(4년제) 졸업인 남성참여자의 사전 커플관계만족도는 예비부부교실 참여 이전에는 대학교(2-3년제)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 이상 남성참여자 보다 높았으나,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반면 대학교(2-3년제)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는 예비부부교실 참여 이후 증가하였다.

<표 2-74>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 사전-사후변화:교육수준별 차이 (*N* = 111)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교육수준	2	.049	.024	.048
	오차1	108	54.972	.509	
개체 내	사전-사후	1	1.452	1.452	11.824**
	교육수준 × 사전-사후	2	1.548	.774	6.301**
	오차2	108	14.097	.131	

기술통계		전문대 졸업 이하 (n = 10)	4년제 졸업 (n = 87)	대학원 졸업 이상 (n = 14)
사전 커플관계 만족도	평균	4.167	4.389	4.143
	표준편차	.509	.511	.905
사후 커플관계 만족도	평균	4.500	4.368	4.560
	표준편차	.401	.588	.356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1

(5) 강사만족도에 따른 차이

강사만족도는 남성참여자의 경우에만 예비부부교실 전–후 변화의 폭에 차이를 가져왔다. 남성참여자의 경우 예비부부교실의 효과에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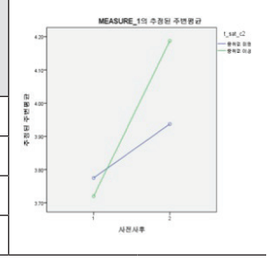
① 강사만족도에 따른 남성참여자의 결혼생활준비도 사전-사후 차이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가 보고한 강사만족도와 사전–사후 결혼생활준비도 점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사만족도에 따라 결혼생활준비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2–75〉와 같이 예비부부교실 교육을 진행한 강사만족도 수준이 중앙값 이상인 남성참여자의 결혼생활준비도는 강사만족도 수준이 중앙값 미만인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준비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75>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결혼생활준비도 사전-사후변화:강사만족도별 차이 (N = 107)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강사만족도	1	.508	.508	1.920
	오차1	105	27.761	.264	
개체 내	사전-사후	1	5.302	5,302	67.972***
	강사만족도 × 사전-사후	1	1.242	1.242	15.917***
	오차2	105	8.191	.078	

기술통계		강사만족도 중앙값 미만 (n = 51)	강사만족도 중앙값 이상 (n = 56)
사전 결혼생활 준비도	평균	3.775	3.720
	표준편차	.356	.445
사후 결혼생활 준비도	평균	3.937	4.187
	표준편차	.409	.434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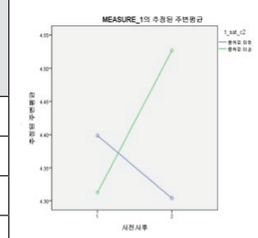
② 강사만족도에 따른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 사전-사후 차이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커플관계만족도의 변화에서 강사만족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2–76〉과 같이 강사만족도 수준이 중앙값 이상인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는 예비부부교실 참여 이후 증가하였으나, 강사만족도가 중앙값 미만인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는 예비부부교실 이후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표 2-76> 예비부부교실 남성참여자의 커플관계만족도 사전-사후변화:강사만족도별 차이 (N = 107)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강사만족도	1	.249	.249	.492
	오차1	105	53.174	.502	
개체 내	사전-사후	1	.191	.191	1.517
	강사만족도 × 사전-사후	1	1.275	1.275	10.145**
	오차2	105	13.194	.126	

기술통계		강사만족도 중앙값 미만 (n = 51)	강사만족도 중앙값 이상 (n = 56)
사전 커플관계 만족도	평균	4.399	4.313
	표준편차	.523	.626
사후 커플관계 만족도	평균	4.304	4.527
	표준편차	.581	.509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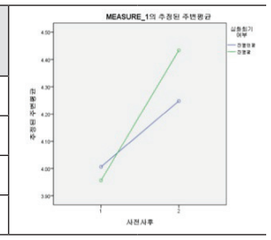
(6) 심화회기 운영여부에 따른 차이

예비부부교실의 심화회기 운영여부에 따라 여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의 변화의 폭에서 차이가 있었다. 〈표 2–77〉과 같이 심화회기를 실시한 예비부부교실에 참여한 여성의 관계자신감이 심화회기를 진행하지 않은 예비부부교실에 참여한 여성의 관계자신감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예비부부교실의 기본교육 이외에 별도의 심화회기 운영여부가 여성참여자의 교육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2-77> 예비부부교실 여성참여자의 관계자신감 사전-사후변화:심화회기 운영여부별 차이 (N = 160)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심화회기 진행여부	1	.247	.247	.340
	오차1	158	114.511	.725	
개체 내	사전-사후	1	6.940	6.940	39.399***
	심화회기 진행여부 × 사전-사후	1	.745	.745	4.229*
	오차2	158	27.832	.176	

기술통계		심화회기 진행함 (n = 34)	심화회기 진행 안 함 (n = 126)
사전 관계 자신감	평균	3.956	4.006
	표준편차	.777	.695
사후 관계 자신감	평균	4.434	4.248
	표준편차	.565	.641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 $p < .001$.

3. 아동기 부모교실 정량적 효과성

1) 아동기 부모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및 교육 특성

2020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의 정량적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전, 사후 온라인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참여자의 개인 및 자녀 특성은 〈표 2-78〉, 〈표 2-79〉와 같다.

<표 2-78> 아동기 부모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개인 특성 (N = 213)

구분		명(%)
성별	여성	197(92.49)
	남성	16(7.51)
출생년도	1950년대	1(0.47)
	1960년대	1(0.47)
	1970년대	100(46.95)
	1980년대	107(50.23)
	1990년대	4(1.88)
	평균 연령(세)	39.82(4.73)
교육수준	고졸 이하	27(12.68)
	전문대졸	39(18.31)
	대졸	109(51.17)
	대학원졸	38(17.84)
지난 한 달 간 활동: 어머니[1]	일했음	55(26.07)
	학교에 다녔음	1(0.47)
	일시 휴직/휴가	11(5.21)
	취업준비	5(2.37)
	육아/가사	136(64.45)
	기타	3(1.42)

구분		명(%)
가족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8(3.76)
	100-200만원 미만	14(6.57)
	200-300만원 미만	38(17.84)
	300-400만원 미만	47(22.07)
	400-500만원 미만	40(18.78)
	500-600만원 미만	32(15.02)
	600-700만원 미만	15(7.04)
	700-800만원 미만	10(4.69)
	800-900만원 미만	3(1.41)
	900-1000만원 미만	2(0.94)
	1000만원 이상	4(1.88)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	17(7.98)
	중하	75(35.21)
	중	99(46.48)
	중상	20(9.39)
	상	2(0.94)
	평균(1-5)	2.60(.80)
다문화가정		19(8.92)

지난 한 달 간 활동: 아버지[2]	일했음	174(87.00)
	일시 휴직/휴가	10(5.00)
	취업준비	6(3.00)
	육아/가사	9(4.50)
	기타	1(0.50)

한부모가정		15(7.04)
과거 건가센터 프로그램 참여경험[3]	있음	84(71.19)
	없음	34(28.81)
건가센터 이외 부모교육 참여경험	있음	152(71.36)
	없음	61(28.64)

1) 남성 한부모 2명을 제외한 21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2) 여성 한부모 13명을 제외한 2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3) 과거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118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표 2-79> 아동기 부모교실 설문조사 응답자 자녀 특성 (*N* = 213)

구분		명(%)
자녀수	1명	58(27.23)
	2명	124(58.22)
	3명	24(11.27)
	4명	4(1.88)
	5명	1(0.47)
	6명	1(0.47)
	7명	1(0.47)
	평균(명)	1.93(.83)
자녀양육 어려움(중복선택)	자녀와의 소통	111
	자녀의 학습	122
	자녀의 생활습관	132
	자녀의 친구관계	65
	자녀의 정서문제	109
	자녀의 성교육	90
	자녀의 디지털기기 사용	119
	기타	7
	없음	3

구분		명(%)
첫 자녀 연령 평균: 만 8.85세(*SD* = 4.02)		
첫 자녀 학령	미취학	58(27.23)
	초등학교	124(58.22)
	중학교	17(7.98)
	고등학교	8(3.76)
	대학교 이상	6(2.82)
자녀양육 어려움(선택 갯수)	없음	3(1.41)
	1개	28(13.15)
	2개	36(16.90)
	3개	54(25.35)
	4개	34(15.96)
	5개	21(9.86)
	6개	10(4.69)
	7개	24(11.27)
	8개	3(1.41)
	평균	3.54(1.92)

2)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 전-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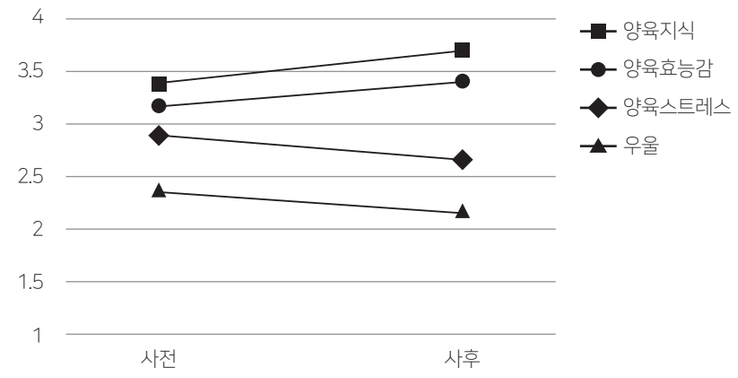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우울 수준에서 교육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2-80〉과 같다. 부모교실 참여 이전에 비해 참여 이후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9〉와 같다. 효과크기 Cohen's *d* 값[3]을 살펴보면, 양육지식 〉 양육스트레스 〉 우울 〉 양육효능감의 순이었다. 아동기 부모교실의 핵심 교육목표라고 볼 수 있는 양육지식 수준 향상에서는 비교적 큰 효과가 있었고, 양육스트레스 감소에서도 중간에 가까운 크기의 효과가 발견되었다. 우울 감소와 양육효능감 증가에서도 중간 크기와 작은 크기 사이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표 2-80>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사전-사후 점수차이 검증 (*N* = 213)

구분	문항수	점수 범위	사전	사후	paired *t*	Cohen's *d*
			M(*SD*)	*M*(*SD*)		
양육지식	20	1-5	3.38(.55)	3.69(.51)	-10.48***	-.72
양육효능감	11	1-5	3.24(.79)	3.44(.76)	-4.05***	-.28
양육스트레스	8	1-5	2.92(.65)	2.65(.71)	6.74***	.46
우울	6	1-5	2.42(.87)	2.19(.79)	5.13***	.35
우울	6	1-5	2.06(.91)	1.95(.86)	2.354*	.19

***p > .001.

<그림 2-9>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사전-사후 점수 도식화



3) 효과크기 .8 내외는 큰(large) 효과크기, .5 내외는 중간(medium) 효과크기, .2 내외는 작은(small) 효과크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Cohen, 1988).

아동기 부모교실의 전반적 만족도 및 강사만족도와 교육 전–후의 변화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81〉과 같다. 전반적 만족도와 사전–사후 양육지식 변화량의 상관계수는 .18로 상관의 강도가 약한 수준이었다.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만족도와 교육효과를 별도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2-81>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만족도 및 사후-사후 점수의 상관계수 (*N* = 213)

	양육지식 변화량	양육효능감 변화량	양육스트레스 변화량	우울 변화량
만족도	.18**	-.00	-.16	-.04

*주) 변화량 = 사후점수 - 사전점수 ** $p < .005$.

3) 참여자 및 교육 특성에 따른 효과성 차이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특성, 자녀 특성, 교육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에서 차이가 있는지 혼합 분산분석(mixed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석하였으며, 자녀 특성으로는 첫째 자녀의 취학여부, 자녀의 문제행동, 자녀양육 어려움을 분석하였으며, 교육 특성으로는 비대면 방식, 유형, 사용기기, 회기수, 과거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강사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아동기 부모교실 전–후 변화의 집단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만 제시하였다.

(1) 자녀 문제행동[4] 수준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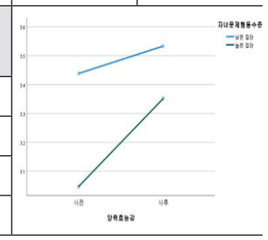
① 자녀 문제행동 수준별 양육효능감 사전-사후변화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별로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부모가 보고한 양육효능감의 사전–사후 변화의 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부모는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부모에 비해 교육 이전, 이후의 양육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표 2–82〉와 같이,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별 사전–사후 변화를 살펴보면,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낮은 부모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즉,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에게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를 통한 양육효능감 향상 효과가 더 컸다고 컸다.

<표 2-82>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효능감 사전-사후변화:자녀 문제행동 수준별 차이 (*N* = 213)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효과검증	자녀 문제행동 수준	1	8.749	8.749	9.695**
	오차1	211	190.397	.902	
개체 내 효과검증	사전-사후	1	4.276	4.276	16.410***
	자녀 문제행동 수준 × 사전-사후	1	1.177	1.177	4.519*
	오차2	211	54.982	.261	

기술통계		중앙값 미만 (*n* = 105)	중앙값 이상 (*n* = 108)
사전 양육 효능감	평균	3.44	3.05
	표준편차	.771	.766
사후 양육 효능감	평균	3.53	3.35
	표준편차	.721	.789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 $p > .01$. *** $p > .001$.

② 자녀 문제행동 수준별 우울 사전-사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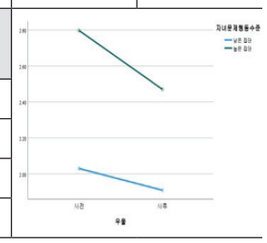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에 따라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부모의 사전–사후 우울 점수의 변화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83〉과 같이,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교육 이전, 이후의 우울 점수가 모두 높았다. 그러나 사전–사후 우울 점수의 변화폭을 살펴보면,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우울 수준에서도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아동기 부모교실의 효과가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4) 자녀의 문제행동은 자녀의 강점난점 척도(Goodman, 1997) 25문항 중 난점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사용하여 사전조사에서 측정하였다. 20문항은 정서증상, 또래문제, 행동문제, 과잉행동/부주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응답범주는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2점 '매우 그렇다'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문항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835였다.

<표 2-83>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우울 사전-사후변화:자녀 문제행동 수준별 차이 (*N* = 213)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효과검증	자녀 문제행동 수준	1	47.005	47.005	48.618***
	오차1	211	203.999	.967	
개체 내 효과검증	사전-사후	1	5.338	5.338	26.580***
	자녀 문제행동 수준 × 사전-사후	1	1.135	1.135	5.654*
	오차2	211	42.373	.201	

기술통계		중앙값 미만 (*n* = 105)	중앙값 이상 (*n* = 108)
사전 양육 효능감	평균	2.030	2.798
	표준편차	.772	.799
사후 양육 효능감	평균	1.909	2.471
	표준편차	.728	.755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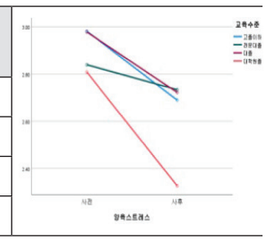
(2)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부모의 교육수준별로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84〉와 같이, 대학원을 졸업한 부모 집단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교육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문대졸인 집단의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교육수준의 각 집단별 표본크기가 크지 않아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효과성 지표 중 유독 양육스트레스의 감소 효과만 발견된 이유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아동발달 관련 개념 등 지식전달이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부모교실을 통해 얻은 지식을 내면화하고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을 다른 각도에서 인지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 감소 폭이 더 컸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84>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스트레스 사전-사후변화:교육수준별 차이 (*N* = 213)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효과검증	교육수준별	3	14.666	1.555	2.096
	오차1	209	155.082	.742	
개체 내 효과검증	사전-사후	1	6.581	6.581	38.440***
	교육수준별 × 사전-사후	3	1.409	.470	2.742*
	오차2	209	35.783	.171	

기술통계		고졸 이하 (*n*=27)	전문대졸 (*n*=39)	대졸 (*n*=108)	대학원졸 (*n*=38)
사전 양육 스트레스	평균	2.981	2.840	2.978	2.809
	표준편차	.687	.638	.620	.712
사후 양육 스트레스	평균	2.690	2.734	2.722	2.326
	표준편차	.813	.703	.675	.691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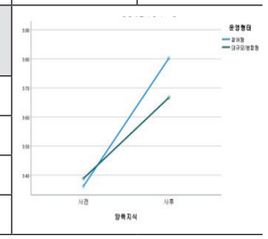
(3) 교육 운영형태에 따른 차이

아동기 부모교실의 운영형태에 따라 참여 부모의 양육지식 변화의 폭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2-85〉와 같이, 참여형으로 운영된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집단의 양육지식이 대규모 또는 병합형으로 운영된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집단의 양육지식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방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대규모, 병합형 교육보다 활동이 포함된 참여형 교육이 부모의 양육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2-85>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지식 사전-사후변화:운영형태별 차이 (*N* = 213)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효과검증	운영형태별	1	.189	.189	.402
	오차1	211	99.225	.470	
개체 내 효과검증	사전-사후	1	8.252	8.252	90.985***
	운영형태별 × 사전-사후	1	.420	.420	4.626*
	오차2	211	19.138	.091	

기술통계		참여형 (*n* = 39)	대규모/병합형 (*n* = 174)
사전 양육지식	평균	3.362	3.388
	표준편차	,627	.535
사후 양육지식	평균	3.803	3.667
	표준편차	.495	.507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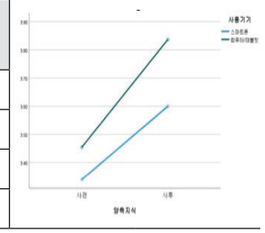
(4) 비대면 교육 사용기기[5]에 따른 차이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가 컴퓨터 또는 태블릿인지 스마트폰인지에 따라 양육지식의 사전–사후 변화의 폭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86〉과 같이, 스마트폰을 사용한 집단보다 컴퓨터나 태블릿을 사용한 집단의 교육 이후 양육지식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 비해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비대면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교육에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부피가 작아 이동성이 좋고 장소의 제약이 적은 스마트폰으로 참여할 경우,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이동하면서 교육에 참여했거나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에 참여했기 때문에 양육지식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다. 향후 비대면 교육 운영에서 관심을 둘 부분이다.

<표 2-86>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지식 사전-사후변화:사용기기별 차이(*N* = 205)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효과검증	사용기기별	1	2.913	2.913	6.388*
	오차1	203	92.587	.456	
개체 내 효과검증	사전-사후	1	9.743	9.743	112.449***
	사용기기별 × 사전-사후	1	.349	.349	4.030*
	오차2	203	17.589	.087	

기술통계		스마트폰 (*n* = 132)	컴퓨터/태블릿 (*n* = 73)
사전 양육지식	평균	3.339	3.454
	표준편차	.582	.484
사후 양육지식	평균	3.600	3.837
	표준편차	.534	.399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5. *** *p* > .001.

(5) 교육만족도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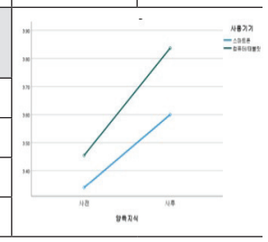
전반적 만족도 수준에 따라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부모의 프로그램 전–후 양육지식의 변화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표 2–87〉과 같이,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 이후 양육지식의 증가폭이 더 컸다.

5) 2020년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가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별 빈도는 <표 2-32>와 같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예비부부교실(<표 2-29> 참고)과는 달리, 아동기 부모교실은 스마트폰으로 참여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87> 아동기부모교실 참여자의 양육지식 사전-사후변화:만족도별 차이(*N* = 213)

혼합 분산분석		*df*	*SS*	*MS*	*F*
개체 간 효과검증	프로그램 만족도별	1	1.212	1.212	2.605
	오차1	211	98.202	.465	
개체 내 효과검증	사전-사후	1	10.109	10.109	112.606***
	프로그램 만족도별 × 사전-사후	1	.615	.615	6.855**
	오차2	211	19.942	.090	

기술통계		만족도 중앙값 미만 (*n* = 106)	만족도 중앙값 이상 (*n* = 107)
사전 양육지식	평균	3.368	3.399
	표준편차	.536	.569
사후 양육지식	평균	3.600	3.782
	표준편차	.467	.530



주) *df* = 자유도, *SS* = 제Ⅲ유형 제곱합, *MS* = 평균제곱. ** *p* > .01. *** *p* > .001.

PART IV

서울가족학교 정성적 효과성

1. 참여자 관점 : 만족도조사 개방형 응답분석

2. 강사 및 실무자 관점 : FGI 분석

이 절에서는 정성적 방법으로 서울가족학교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자, 강사, 실무자의 관점을 분석하였다. '참여자' 관점의 정성적 효과는 2018년, 2019년, 2020년의 기존 만족도조사 중 개방형문항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강사' 및 '실무자' 관점의 정성적 효과는 강사 10명, 실무자 9명을 참여자로 하여 4팀의 FGI(focus group interviews)를 실시하여 주제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실무자 관점은, 정량적 효과성 분석에서 교육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개방형 응답을 살펴보았다.

1. 참여자 관점[6]: 만족도조사 개방형 응답분석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관점에 대한 정성적 분석은 2018년, 2019년, 2020년의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의 문항 중 개방형 질문인 (1) 교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 (2) 현재 진행하는 교육내용 외에 진행하였으면 하는 주제, (3)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의 응답을 활용하였다. 2018년과 2019년은 25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서울가족학교 5개 교실(예비부부교실, 아동기 부모교실, 청소년기 부모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패밀리셰프) 참여자의 응답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2020년은 본 연구팀이 실시한 온라인 사후조사에 응답한 참여자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즉, 2018년과 2019년은 서울가족학교 사업으로 실시된 모든 교육에서 취합한 응답을 분석한 것이며, 2020년은 6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17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예비부부교실 21건과 14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아동기 부모교실 17건의 참여자 응답만을 분석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분석 방법은 각 교실마다 문항별로 모든 개방형 응답을 취합한 후 자료에서 떠오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개방형 응답의 내용 중 주제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6) 참여자 관점의 효과성은 만족도조사 개방형문항에 대한 응답 이외에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우수후기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2018년 우수후기 사례집 http://familyseoul.or.kr/node/10024
2019년 우수후기 사례집 http://familyseoul.or.kr/node/10023

1)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2018-2020년

(1)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예비부부교실 만족도조사에서 교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에 대해 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대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결혼생활과 관련된 여러 주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넷째, 재무설계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재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다섯째, 커플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88〉과 같다.

<표 2-88>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점

	개방형 응답 내용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지지를 약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솔직히 상대방을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그런 와중에 1회 첫 시간에 만난 *** 강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와닿아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되짚어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과 방법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2018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단점이고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2019년)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빈 공간이 듬성듬성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무엇을 보충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서로의 성격을 좀 더 면밀히 알게 되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결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	"외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결혼인데 교육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2018년) "포괄적 의미보다 세밀한 의미의 결혼을 알게 되었다" (2018년) "결혼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구체적으로 행복한 결혼에 대해 접근해나가는 법을 스스로 설정 가능" (2019년)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며 서로 맞춰주는 결혼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19년)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모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야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대화의 장	"결혼생활시 직면할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2018년) "서로 숨기거나 그동안 안 보였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껄끄러운 주제도 편하게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느낌" (2018년) "오랫동안 알아 왔지만, 교육을 통해 그간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많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서로에게 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2019년) "결혼 전 피했던 대화주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점" (2020년) "서로를 알아가고, 현실감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0년)
구체적인 지식 및 기술 습득	**■ 재무설계** "돈과 지출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도를 그린 느낌이어서 좋았음" (2018년) "사랑 외에 행복해지려면 재무관리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2018년) "재무관리의 구체적 방법 제시가 너무 도움 됐습니다" (2019년) "재무관리의 현실을 알게 되어 좀 더 신중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당장의 경제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계획을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의사소통 방법** "부부에게 서로 말하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게 됨" (2018년) "의사소통 방법 교육을 통해 앞으로 부부생활에서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오는 갈등 상황을 배워서 좋았다" (2019년) "서로 간의 공격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2019년) "나 전달법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2) 교육희망 주제

예비부부교실에서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 싸울 때 해결 잘하는 방법, 싸우고 나서 건강하게 화해하는 방법 등 '갈등해결법'이 있었다. 둘째, 부부 성생활, 성관계 팁, 스킨십, 몸의 대화가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등 '섹슈얼리티'가 있었다. 셋째, 부동산 계약, 전세자금 대출 소개, 주택 마련 노하우, 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 등 '주택' 관련 내용이 있었다. 넷째, 자산관리 방법, 투자관련 재테크, 재무관리 재테크 심화과정 등 '재테크'가 있었다. 다섯째, 작은 결혼식, 구청 연계 작은 결혼식 업체, 상세한 결혼식 준비 등 '결혼식 준비'가 있었다. 여섯째, 예비 친인척과 잘 지내는 법, 각자의 가족을 대하는 방법, 상대방의 가족을 만날 때 주의사항 등 '예비 배우자 원가족과의 관계'가 있었다. 일곱째, 건강한 부모 되는 법, 예비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육아상식, 자녀 계획 및 육아과정, 출산 교육 등 '부모됨'이 있었다.

(3) 개선사항 제안

예비부부교실에서 향후 개선할 점에 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소요시간, 교육 시간대와 같은 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교육시간과 관련하여 하루에 듣는 강의 시간이 길다는 내용과 각 주제를 충분히 다루기에는 교육의 총 회기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즉, 한 회기의 교육시간은 길지만 전체 실시되는 회기수는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주말 오전 등 다양한 시간대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활동에서 커플 간 대화를 더 길게 할 수 있는 참여형 활동 시간 확보와 관련된 의견이 있었다. 셋째, 강의 내용 및 질과 관련하여 강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특히 재무교육과 관련하여 결혼생활과 관련성이 낮으며, 강의의 질적 측면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넷째, 강의와 교재 내용의 불일치로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강의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89〉와 같다.

<표 2-89>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개방형 응답 내용
시간	**■각 회기 교육시간이 김** "시간이 너무 길어요. 2~3시간 주 1회 4번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회기를 늘려서 진행해요. 한 번에 너무 길고, 집중하는 데 무리가 있어요" (2018년) "총 강의 시간이 긴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 (2019년)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번에 4~5시간은 좀 힘들었어요. 3주 동안 2시간 반 정도는 어떨까요?" (2020년)
	■교육 총 회기수 부족 "주제별 시간 배정: 일부 주제는 시간이 부족하여 내용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 (2018년) "2주차는 조금 더 긴 시간을 잡고 깊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하루 4시간 혹은 3시간을 하되 4주 코스 식으로 하면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년) "수업 내용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료도 괜찮으니 강의를 더 길게 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수업을 또 듣고 싶습니다" (2019년) "내용에 비해 시간이 짧아서 강사님들이 전달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기를 늘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시간대 다양화 "시간대를 다양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금요일 저녁+토 오전 등)" (2018년) "○○(타지역)에서 왔는데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해 교육시간을 늦추면 좋을 것 같음" (2018년) "오전 10시 시작이 아닌 오후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기가 좀 힘들었어요" (2019년) "교육시간을 오전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황금주말을 활용하고 싶은 직장인 마음)" (2019년) "주말 말고 평일에 했으면 합니다" (2020년)
교육 프로그램 구성	**■참여형 활동시간 확대** "조별 활동(교류)이 부족했으므로 서로 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2018년) "시간 안배가 잘 되어서 설명이 아니라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1회기는 실습이 너무 많음, 3~4회기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 (2019년) "중간중간에 적용할 수 있는 대화시간이 아예 좀 더 길면 좋겠습니다" (2019년) "커플 간 이야기할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주셨으면 해요" (2020년) "해당 교실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2020년)
강의의 질	**■강의 내용 및 강사** "앞부분 내용이 좀 겹치고 지루함(1, 2, 3강)" (2018년) "강사의 강의 방식이나 강의 흐름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겉핥기에 강의 내용을 늘여 놓는 느낌으로 실제 결혼을 앞둔 커플의 마음과 상황, 대화 가운데 문제해결과 소통방식 등 정말 알고 싶던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한 느낌이다" (2019년)
	■재무교육 "재무 쪽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tip을 더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2018년) "재무에 대한 내용이 많이 궁금했는데 구체적이지 않았다" (2018년) "재무설계 교육이 너무 막연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아쉬웠음. 2주 차에 진행된 재무관리 부분은 정말 불만족스러웠음. 돈에 대해 정의적인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인 현실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수강생의 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강사님의 일방적인 강의로 진행되었음. 예금만 안전하다는 등 강사님의 주관을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강의는 듣는 내내 불편했음" (2019년) "재정 관리 수업은 재무관리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그 관리 과정에서의 의사 공유나 갈등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부부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에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인데 굳이 복리 단리 장기 단기 등의 설명은 과도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2019년) "재무 파트가 좀 더 결혼에 관해 적합한 주제였으면 함" (2019년) "재무 파트는 교재의 표나 데이터 등을 활용하기보다 설명 위주로 진행되어서 지식을 얻었다는 느낌이 부족합니다" (2020년) "재무관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해줘서 누구든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
강의와 교재 내용의 불일치	"교재의 내용이 궁금하고, 알차다고 생각해서 배우고 싶다. 그런데 2일차(3,4회기) 강사님들 전반적으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신 얘기를 주로 하시고, 교재 내용은 하지 않았다. 교재에 충실하도록 개선해야 함" (2018년) "강의자료(ppt)와 수업 내용을 일치시켜야 함(뜬금없는 주제 얘기로 넘어가지 않도록)" (2018년) "교재와 ppt의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집중이 덜 됩니다" (2019년) "강의자료가 좋아서 수업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실제로 많이 활용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2020년) "교재에 강사님들의 ppt 내용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 (2020년) "10년도 더 지나 보이는 자료들과 PPT는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2018-2020년

(1)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아동기 부모교실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을 통해 자녀의 유형, 자녀 세대 문화 이해 등을 토대로 아동기 자녀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자녀와의 기존 대화 및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올바른 소통 방법을 습득하여 대화 및 소통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넷째, 기존 훈육법을 점검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올바른 훈육 및 양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섯째,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 사용 지도법을 습득하여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섯째, 자녀 성교육에 대한 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성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응답은 2019년부터 실시된 신규 교육인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 차시와 관련된 응답이었다. 일곱째, 2020년 응답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0〉과 같다.

<표 2-90>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개방형 응답 내용
아동기 자녀에 대한 이해	"이번 교육 너무 좋았어요. 나와 아이의 유형에 대해 알게 되어 아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아이들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본질적인 문제에 다가가고 개선의 방향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2019년) "내가 아이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우물 안 개구리였음" (2019년) "아동기의 특징에 대해 한 번 더 인지할 수 있었고 내가 자라 온 환경과 달라진 우리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2020년) "동전 양면처럼 아이들의 다른 점도 있다는 것 이해하기" (2020년)
자녀와의 대화 및 소통	"지금까지의 대화방식이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었겠구나 하고 깊은 반성, 전반적으로 질문 방식을 바꾸어서 대화하기" (2018년) "좋은 부모는 아이와의 시간을 많이 쓰는 거로 생각했으나 격려와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됨" (2018년) "나 전달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이해를 요구하는 대화를 하니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줄어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9년) "아이를 대할 때 일방적이 아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서 소통하게 되었음" (2019년) "아이와 대화할 때 제 말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 "공감해주기 부드럽게 말하기가 잘 안됐는데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	"바쁜 일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자녀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됨" (2018년) "잊고 있던 아이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음" (2018년)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야겠다. 울타리를 잘 만들어야겠다" (2019년) "아이를 향한 믿음과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를 위해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2019년) "아이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교육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2020년)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고인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0년)
구체적 지식 및 기술 습득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법** "스마트폰 문제로 고민과 걱정이 늘 많았는데 해결방법의 갈피를 잡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2019년) "아이의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를 강압적으로 해왔는데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음" (2019년) "스마트폰 습관 들이기 등의 아이를 양육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됨" (2020년)
	■성교육 "성교육이라 내용이 무거울 것 같았는데 아이와 부모와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알려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2019년) "성교육에 대한 소극적 사고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교육해줄 수 있겠다는 점" (2019년) "아동기에 대한 성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는데 아이들에 눈높이에 맞추어 접근할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성교육에 관한 내용은 아직 당면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아이랑 풀어가야 할지 하는 생각과 아이와 긴장하지 않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훈육·양육법 "아이에게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밤에 늘 자책하며 악순환을 계속하면서도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몰랐는데 구체적인 행동 개념이 있어 실천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 적절했습니다" (2018년)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와 대화할 때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 다시 한번 떠올라 한 번 더 참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한다" (2018년)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말과 행동으로 훈육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는데 해결됐어요" (2019년) "훈육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강사님들의 설명이 너무 잘 이해되었습니다" (2020년)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부모의 자존감도 키워서 아이의 마음도 이해하고 감정도 공감하면서 아이들의 자율성과 일관성 있는 지지와 격려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2018년) "자존감 키우기가 꼭 칭찬이 아닌 아이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2019년) "자존감이 중요한지는 알지만, 실행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었는데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잡고 노력해보려 한다" (2020년)

참여자의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도움 받음	"개별 질문을 사전에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2020년) "강의를 듣고 생각나는 질문을 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2020년) "질의응답 세심하게 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했음" (2020년) "온라인 후 비대면 상담형 강의 너무 좋았고 수업 들으면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20년)
정서적 지지	"나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는 공감과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내용으로 현실감이 있어서 힘이 되었습니다" (2020년) "지금은 모두 힘든 예외적인 시기 인정하자는 말씀에 나만 힘든 시기가 아니라고 인정하니 육아하는 데 마음이 편해졌다" (2020년)

(2) 교육희망 주제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현재 진행하는 교육 내용 외에 원하는 주제로는 성교육, 대화법,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에 관한 응답이 나타났다. 첫째, 아빠들을 위한 성교육, 실질적 성범죄 대응, 사이버 성폭력, 사춘기 성교육 등 '자녀 성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2018년에는 성교육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2019년에는 성교육 심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사용과 자녀와의 관계, 게임조절 관련 교육, 게임 중독 대처하는 방법 등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가 있었다. 2018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2019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에 관한 심화교육 또는 해당 주제를 진행하지 않은 센터에서 실시되기를 원한다는 응답이었다. 셋째,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아이 대화법, 사춘기 자녀 대화법, 가족 간 아름다운 대화법 등 '가족 의사소통 방법'이 있었다. 주로 기존 대화법 회기의 심화교육에 대한 요구였다.

(3) 개선사항 제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교육 소요시간과 관련하여 각 회기의 교육시간이 길어 집중력이 감소한다는 의견, 내용에 비해 교육 총 회기수가 짧게 구성되어 교육진행이 촉박하고 풍부한 내용 전달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직장인 부모, 전업 부모, 아버지 참여 등을 위하여 주말, 저녁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둘째, 더욱 구체적이고 실생활과 밀착된 교육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 강의실 자리, 교육 환경, 센터 위치 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1〉과 같다.

<표 2-91>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개방형 응답 내용
시간	**■각 회기 교육시간이 김** "교육을 계속하니 집중력이 떨어짐, 시간 조정이 필요함" (2018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자녀들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2018년) "강의 시간이 조금 길었음" (2019년) "시간을 분산하여 1시간씩 해주세요" (2020년) "한 차시에 2시간은 긴듯합니다. 쪼개서 2차시로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2020년)
	■교육 총 회기수 부족 "교육시간이 생각보다 짧았던 것 같아서 늘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18년) "너무 촉박한 스케줄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 집중도가 떨어짐, 마지막 교육 집중력 부족하게 됨" (2018년) "시간이 너무 부족했음. 5회차 이상 교육이 필요함" (2019년) "수업 회차를 조금 더 늘려서 여유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음" (2020년) "아이들과의 소통문제는 조금 더 회차가 길어서 더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시간대 다양화 "교육시간이 점심시간이라서 직장인은 계획 세우기 힘들었음" (2018년) "부모교육 시간이 평일 오전도 좋지만,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해서 아빠들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학교에서 하는 만큼 학교 행사와 시간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음" (2019년) "아이들 방과 후 시간(09:30~12:30)에 맞추어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2019년) "직장을 다니다 보니 업무 중에 강의를 듣는다는 게 쉽지는 않네요. 주말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하는 직장맘의 바램입니다" (2020년) "시간대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이들 재우는 시간과 맞물려서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2020년)
교육내용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성교육에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강의가 듣고 싶습니다" (2018년) "주제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습니다" (2018년) "성교육은 학년별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6학년은 너무 보편적이어서요" (2019년) "사실적인 내용의 교육이 주가 되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는)" (2019년) "책 한 권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이라 실망스러웠다" (2020년) "학년별 세분화해서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물리적 교육 환경	"교육환경 협소, 교육 장소가 큰 길과 멀었다" (2018년) "강의실 환경이 너무 건조해서 3회기 모두 눈이 뻑뻑해 힘들었어요" (2018년) "교육 환경(자리 배석 불편) 의자 등" (2018년) "앞 좌석의 의자가 더 높아서 뒷좌석에서 잘 안 보임" (2019년)

3)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2018-2019년

(1)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청소년기 부모교실에서 교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부모로서의 자세, 태도, 부모의 중요성 등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자녀의 특성, 성향, 심리, 환경, 성 등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청소년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하여 기존 대화법 및 소통을 점검하고 청소년기 자녀와의 대화 기술을 익히고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넷째,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녀의 진로를 이해하고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의 방향성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 등 진로지도의 중요한 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다섯째, 성교육에 관한 지식 습득과 관련하여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 필요성, 방향성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 방식, 실제 사례 제시 및 실생활에 실천 가능한 교육내용 등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2〉와 같다.

<표 2-92>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개방형 응답 내용
자신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단단해진 거 같습니다" (2019년)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 채우는 계기가 되어 기쁨" (2019년)
	■부모역할에 대한 이해 "아이의 시기별로 부모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 (2018년) "아이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부모가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2018년)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인생의 밑거름이 되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2019년) "부모의 정서가 안정되고, 독립된 자아 인식을 형성해야 부모도 아이도 서로 각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2019년)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이해	"청소년기, 사춘기는 이해하기 힘든 시기이므로 인내심, 이해, 공감이 필요" (2018년) "청소년기의 이해 교육을 통해 아이를 좀 더 이해해야겠다는 생각과 희망적인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9년) "사춘기는 과정일 뿐 고쳐야 할 병이 아니라는 것" (2019년) "우리 아이만 이상한 거 같았고 미친 사람 같아 보였는데 그게 정상이며 당연한 거라 말해서 마음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2019년) "핸드폰 관련 내용과 아이가 미친 것처럼 하는 행동, 말 등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게 된 점" (2019년)
구체적인 지식 및 기술 습득	**■청소년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아이에게 먼저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할 거 같다. 항상 아이에게 나무라기만 했던 점 고쳐야겠다" (2018년) "나의 대화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을 하면서 바람직하게 개선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떠오르게 되었음" (2018년) "사춘기 때 자녀의 소통 관계에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8년) "아이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된 점" (2019년)
	■진로지도 "직업이 아니라 꿈을 향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2018년) "아이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바꾸고 믿어주자" (2018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자녀 교육의 방향에 대한 안내" (2018년) "자녀의 진로를 위해 칭찬, 격려 중요하다는 것" (2019년)
	■성교육 "성교육을 미리 해야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2019년) "자녀 성교육의 기초는 평소 자기결정권을 다루는 훈련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사실" (2019년) "자녀 성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2019년) "성이라고 했을 때의 생각에 대한 걸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2019년)

(2) 교육희망 주제

청소년기 부모교실에서 현재 진행하는 교육 내용 외에 원하는 주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춘기 자녀와의 구체적인 대화법, 올바르면서 단호한 대화법, 소통하는 대화법, 대화법 심화과정, 성이 다른 자녀와의 소통, 청소년기 자녀와의 소통 등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이 있었다. 둘째, 사춘기 성교육, 청소년기 성교육, 가정에서의 성교육 방법 및 범위 등 '자녀 성교육 방법'이 있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 스마트폰 심각성, 게임중독, 영상 기기에 대한 부모교육 등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넷째, 진로 탐색 및 이해, 진로설정에 따른 입시나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 진로교육 심화과정, 고등학교 진학 등 진로교육, 4차산업과 구체적인 진로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대화법, 성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 진로교

육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응답은 해당 주제에 대한 심화교육 또는 해당 주제를 실시하지 않은 센터에서 이와 같은 주제가 실시되길 원한다는 응답이었다. 다섯째, 집단상담, 부부상담, 상황에 맞는 심리상담 사례 및 구체적 상담 등 '가족상담'과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3) 개선사항 제안

청소년기 부모교실에서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시간과 관련하여 소요시간, 시간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각 주제의 교육 총 회기수가 다소 짧다고 하였다. 또한, 오전 시간, 저녁 시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둘째, 교육구성과 관련하여 실제 사례, 실생활 적용법 등에 관한 내용과 대화 및 소통과 관련된 실습시간 확보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셋째, 강의실 온도, 음향 시스템, 크기 등 물리적 교육환경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3〉과 같다.

<표 2-93> 청소년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개방형 응답 내용
시간	**■교육 총 회기수 부족** "강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차시를 늘려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2시간의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짐,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풍성한 강의를 준비해주었으면 좋겠음" (2019년) "강의 시간이 짧아요. 한 주제로 2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
	■시간대 다양화 "월요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들에게는 좀 힘들다" (2018년) "방학보다는 아이들 학기 중에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수업시간이 아이들이 등교한 오전 시간대였으면 좋겠음" (2018년) "시간대가 저녁이어도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강의 일정이 주말에도 있으면 좋겠어요" (2018년)
	■실생활 적용 및 실제 사례 소개 "심층적으로 세세하게 자녀와의 대화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화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2018년) "자녀 성교육 시간을 3시간으로 배정해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실제적인 교육내용이 궁금하고 질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실질적 사례, 적용하는 방법(대화법) 알려주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2019년) "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점이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더욱 좋겠다" (2019년)
교육구성	**■실습시간 확보** "강사와 참여자 서로 대화하며 실제적 역할놀이 실험" (2018년) "소통 관련 실습을 해보고 싶다" (2018년) "강의 시간 조절하여 활동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다" (2019년)
물리적 교육 환경	"교육 장소의 협소성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음" (2018년) "음향 시스템" (2018년) "의자가 불편함(메모할 수 있는 의자가 필요)" (2019년)

4) 패밀리셰프 참여자 응답: 2018-2019년

(1)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패밀리셰프 교육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해 다수의 참여자가 요리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자녀, 가족 그리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첫째, 자녀가 주체가 되는 자녀 중심의 활동을 통해 자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어 만족한다고 하였다. 둘째,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를 넓히는 가족 공유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향상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셋째, 가족 내의 소통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이웃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이웃을 알게 되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외에 강사만족도에 관한 응답이 나타났다. "강사님이 많은 준비를 하신 것이 프로그램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메인 요리뿐 아니라 요리 전 자세한 설명과 요리 후 사진까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친절한 강사님 프로그램도 너무 재미있게 가족 모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4〉과 같다.

<표 2-94> 패밀리셰프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개방형 응답 내용
자녀의 재발견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요리 활동을 할 수 있어 즐거웠고 아이들과 협동함으로 아이들 자존감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아이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데 평소에 엄마가 앞서서 너무 해준 것 같다. 아이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겠다" (2018년) "같이 장 보고 같이 요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 기회에 같이 장 보면서 장난꾸러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강사님 얘기를 귀담아듣고 같이 움직이려 하는 모습 기특하네요" (2019년) "아이들이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기다려주면 끝까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 (2019년)

가족공유 시간을 통해 친밀감 향상	"오랜만에 가족끼리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어 함께 있음이 중요한 걸 느꼈다" (2018년) "함께 요리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데 왜 평소에는 잘 안되는지와 왜 요리는 엄마만의 차지가 되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음" (2018년) "평일은 직장생활로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게 아이와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2019년) "가족과의 대화가 없어지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과의 소통이 있었고 아이와 함께 무엇인가 한다는 게 좋았다" (2019년)
지역사회 이웃과 교류의 장	"아이들 친구 만들고 부모들도 이웃들도 친해져서 좋아요" (2018년) "친구, 동생, 가족들과 장 보며 가격 비교도 해보고 함께 음식 만들어 먹는 추억까지 생겨서 뜻깊었습니다" (2018년) "인사만 하고 지냈던 이웃과 함께하니 뜻깊은 교육이었습니다" (2019년)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이 아이에게 큰 공부가 되었어요" (2019년)

(2) 교육희망 주제

패밀리셰프에서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로는 다양한 음식 만들기, 체험활동, 가족놀이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다. 첫째, 여행, 1박 2일 역사여행, 글램핑,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등 '가족여행'에 관한 주제가 있었다. 둘째, 교육에서 만든 요리 외의 비빔밥, 주먹밥, 한과, 쿠키, 케이크 등 '다양한 음식 만들기'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셋째, 도자기, 원목 재료 만들기, 조형물, 목공예,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비누와 샴푸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만들기 활동'이 있었다. 넷째, 농촌체험, 문화체험, 과학체험, 생태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 주제가 있었다. 다섯째, 아이들과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족놀이, 가족 협동게임 등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3) 개선사항 제안

패밀리셰프에서 개선할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강의의 특성상 강의의 시간이 길다는 의견과 장보기, 요리 시간 등 교육의 세부 프로그램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요리 재료 구입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였다. 셋째, 교육장소와 시장까지 이동시 어려움, 요리재료 결제, 장보기 환경 등에서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였다. 넷째, 참여인원보다 협소한 공간, 아이에게 높은 책상 높이 등 물리적 교육환경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5〉과 같다.

<표 2-95> 패밀리셰프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개방형 응답 내용
시간	■각 회기 교육시간이 김 "전체적인 교육시간이 길다" (2018년)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에 따른 어수선함" (2018년) "시간이 좀 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함께해서 시간 조금만 짧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세부활동 시간 확보 "햇반을 돌리느라고 만드는 시간이 초과할 뻔했다. 요리 선정 시 좀 더 고려해주시면 완벽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만들기 시간을 덜 촉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시장보기 시간이 촉박하네요" (2019년) "시간이 많이 모자람. 많은 양보다 한가지로 정해서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2019년)
예산	"물가 대비 예산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2018년) "더 많은 준비재료로 요리할 수 있도록 상품권을 많이 배부" (2018년)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다양한 메뉴를 활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교육 프로그램 구성	"구청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센터로 가는 이동 경로가 너무 멀어요" (2018년) "장 볼 때 한 분이 결제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했던 것 같네요" (2018년) "구매 시(장보기) 공동구매는 약간 혼란스러워 개별적으로 구매했으면 좋겠다" (2019년) "장보기 활동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차라리 미리 사고 나머지는(사기 쉬운 용품)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019년)
물리적 교육환경	"요리 활동이라 개수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없어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2018년) "조리도구가 부족해서 요리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음" (2018년) "장소에 비해 참여 인원이 많아서 복잡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하기에 테이블이 높았어요" (2019년) "장소가 작아서 많은 가족이 참여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좋은 프로그램이라 더 많은 가족에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5)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참여자 응답: 2018-2019년

(1)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에서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아버지 역할의 필요성, 중요성 등 아버지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둘째,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셋째, 애착관계, 단계별 애착 형성법, 애착의 중요성 등 애착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넷째, 자존감에 대한 이해, 자녀의 자존감 향상 방법, 자존감의 중요성 등 자존감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다섯째, 올바르고 효율적인 훈육법을 배움으로써 훈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여섯째, 공감, 소통, 대화법 등 자녀와의 의사소통법을 배움으로써 소통 및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와의 현재 소통 및 대화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일곱째, 실생활 놀이법, 새로운 놀이법, 간단한 놀이법 등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방법을 배워 놀이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였으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관리 및 해소법과 자녀 코칭에 대하여 배우고 다른 아버지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6〉와 같다.

<표 2-96>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참여자 응답: 도움이 되었거나 느낀 점

	개방형 응답 내용
자신과 아버지 역할의 이해	"주변에 신경 쓰느라 잊고 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2018년)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나의 스트레스, 현재 감정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 (2019년)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좀 더 나은 아버지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음" (2019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맞벌이라는 이유로 잘 못 놀아줬는데 앞으로는 잘 놀아줘야겠어요" (2018년) "자녀와 이런 시간이 평소 부족한데 좋았어요" (2018년) "아이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2019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19년)
구체적인 지식 및 기술 습득	**■애착**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양보다는 질이라는 것을 알게 됨" (2018년) "다시 한번 아이와의 애착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8년) "애착형성을 위한 생각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배워 좋았습니다" (2019년) "애착관계 형성에 잘못된 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음" (2019년)
	■자존감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음" (2018년)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부모의 바른 교육법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음" (2018년) "아이에게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부모의 자존감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배웠음" (2019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존감 상승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진심 어린 격려의 한 마디가 모여 자존감이 강한 아이가 되길 바란다" (2019년)
	■훈육법 "현 훈육의 점검 및 더욱 올바른 훈육을 배울 수 있었음" (2018년) "관심이 지나쳐 아이의 인성 형성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체벌 훈육에 대한 심각성 및 오해를 알 수 있었음" (2019년) "아이와의 갈등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와 현재 나의 훈육관을 반성 및 생각하게 되었다" (2019년)
	■의사소통 방법 "아이한테 소리만 지르고 했는데 먼저 소통, 들어주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걸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아이와 대화를 풀어가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2019년)
	■놀이법 "아이와 행복하게 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놀아주는 것이 아닌, 같이 노는 것" (2018년) "놀이교육을 통해 아이와 함께할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늘어났음" (2018년) "자녀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놀이를 알게 됨(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음" (2019년)

(2) 교육희망 주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에서 현재 실시하는 교육내용 외에 희망하는 주제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법, 비폭력 대화, 아이 성향별 대처 및 대화, 청소년기 자녀 대화법, 소극적인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 등 '자녀와의 소통방법'이 있었다. 둘째, 자녀와 갈등이 생길 경우 해결방법,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 관한 다양한 사례 등 '자녀와의 갈등 해결방법'과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셋째, 스마트폰 중독 예방, 미디어 관련 가이드 등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가 있었다. 넷째, 자녀 성장 과정에 따른 올바른 훈육방법 및 대처방안, 실제 좋은 훈육을 하는 사례에 대한 동영상 제시, 연령별 육아 훈육방법, 형제자매 간의 훈육방법 등 '훈육법'이 있었다. 훈육법에 대한 심화교육 또는 해당 주제를 진행하지 않은 센터에서 실시되길 원한다는 응답이었다. 다

셋째, 신체놀이, 아이 발달을 위한 놀이 교실, 쉽고 즐거운 놀이법, 집에서 함께 하기 좋은 놀이, 아이의 놀이문화를 알 수 있는 교육과정 등 '놀이'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놀이에 대한 심화교육 또는 해당 주제를 진행하지 않은 센터에서 실시되길 원한다는 응답이었다. 여섯째, 어린이용 성교육, 유아기 성교육, 사춘기 자녀 성교육 등 '자녀 연령별 성교육'이 있었다. 일곱째,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양육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발산방법 등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여덟째, 행복한 가정 만들기, 가족의 행복, 부부 사이의 행복, 나의 행복 등 '행복 찾기'와 관련된 주제가 있었다.

(3) 개선사항 제안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에서 개선할 점으로 언급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각 회기의 강의 시간이 다소 길다는 의견과 내용에 비해 전체 교육 총 회기수가 부족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오전, 늦은 오후 등 다양한 시간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둘째,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과 토론 시간 등 참여형 활동 시간 확보에 관한 의견이 있었다. 셋째, 공간 협소, 좌석 확보 등 교육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7〉와 같다.

<표 2-97>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개방형 응답 내용
시간	**■각 회기 교육시간이 김** "강의 시간이 다소 길었습니다" (2018년) "업무 중 참여하기에 2시간은 좀 긴 것 같아요" (2019년) "90분의 강의가 길게 느껴짐, 1시간 강의였으면 좋겠음" (2019년)
	■교육 총 회기수 부족 "많은 걸 알고 싶지만, 교육시간과 질문시간이 아쉬움" (2018년) "너무 좋은 주제와 강사인데 시간이 짧았어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음" (2019년) "교육시간이 더 길고, 더 디테일한 교육, 실습이 필요할 것 같음" (2019년) **■시간대 다양화** "퇴근 시간을 고려해 교육시간이 다양해졌으면 함" (2018년) "시간을 오전에 하였으면 좋겠음" (2019년) "늦은 시간대에 진행하여 많은 부모가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
교육 프로그램 구성	**■참여형 활동 시간 확대** "이론 교육시간을 줄이고 놀이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일방적인 강좌를 듣기보다는 서로 교류하고 고민을 속 시원히 터놓고 조언을 구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2018년) "아이들과 같이 놀이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합니다" (2019년) "실제 토론을 통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을 제공하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듯함" (2019년)
물리적 교육 환경	"공간이 울려서 소리전달이 떨어짐" (2018년) "어린이집 공간 협소로 기상 좋을 때 야외활동" (2019년) "앉아있기 힘들어요. 의자가 필요" (2019년) "강의 장소의 불편함이 있어 개선 필요" (2019년)

6) 2020년 비대면 교육 관련 참여자 응답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이 직접 수집한 2020년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의 만족도조사의 개방형 응답 중에서 비대면 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별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교육에 만족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모두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원하는 공간과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점에 만족했다고 하였다.

<표 2-98> 2020년 비대면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온라인 교육에 만족

	예비부부교실 개방형 응답 내용
온라인 교육 전반적 만족	"온라인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비대면 교육임에도 준비를 훌륭하게 해주시어 차후 다른 강좌가 있으면 참여의사가 있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되었는데 듣고 싶은 시간과 장소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특히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의 응답에서 온라인 교육에 만족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첫째, 온라인 교육 특성상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교육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직장인 부모에게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교육 참여자가 실시간으로 질문 등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였다. 셋째, 앞으로도 비대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강의 수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99〉와 같다.

<표 2-99> 2020년 비대면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온라인 교육에 만족

	아동기 부모교실 개방형 응답 내용
온라인 교육 전반적 만족	"온라인 강의라 불편이 있겠다 싶었는데 예상과 다른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 일방향 실시간)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화상수업 좋아요" (쌍방향 실시간)
시공간의 제약이 없음	"온라인 프로그램 많이 해주세요. 아이들과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이번 온라인 교육 워킹맘 워킹대디에게 너무 좋았어요" (쌍방향 실시간) "아기가 잠자거나 하는 틈에 이어폰 끼고 공부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온라인 탑재 + 사후활동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쭉 해주세요. 워킹맘 너무 좋아요" (일방향 실시간)
온라인 상호작용에 만족	"온라인이지만 서로 질문도 하고 유익했다" (쌍방향 실시간) "이런 온라인 회의 참여는 처음이었는데 신기하고 바로바로 답해 주셔서 좋았다" (온라인 탑재 +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지속 희망	"주중에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나마 수업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쌍방향 실시간 + 일방향 실시간) "처음 접해본 비대면 교육이었지만 소통에 무리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비대면 교육을 추천합니다" (쌍방향 실시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정제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일방향 실시간) "온라인 강의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일방향 실시간)

(2) 비대면 교육 개선사항 제안

예비부부교실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온라인 교육 특성상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장시간 집중하기 힘들었다고 하였다. 둘째,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사전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용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다. 셋째, 교수법과 관련하여, 참여형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강의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시간과 관련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회기의 강의가 다소 길게 느껴진다는 의견과 각 회기의 소요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섯째, 온라인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음향에 문제가 있거나 연결이 끊기는 등 불안정한 온라인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나타났다. 여섯째, 대면 교육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100〉과 같다.

<표 2-100> 2020년 비대면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예비부부교실 개방형 응답 내용
온라인 교육의 제한점	"온라인이라 좀 밀착되는 느낌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 집중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강의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음"
진행방식	**■사전 오리엔테이션 필요** "예비부부교실을 운영 및 진행하는 담당자의 오리엔테이션(강사가 본격적으로 교육하기 전)이 없어서 교육 진행 개요 이해가 부족"
	■사용 프로그램 개선 "툴 및 앱을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Teams, Zoom)"
교육구성	**■참여형 활동 시간 확보** "재무버킷리스트 등등 교재를 보니 각자 작성해보는 페이지가 많던데 온라인 진행이라 그런지 해볼 시간이 마련되지 않아 아쉬웠어요" "비대면 교육이다 보니 일방적 강의만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상대방과 의견도 나누고 정해보는 시간도 그때 가졌으면 더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아쉬워요" "비대면으로 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자극, 흥미가 있어야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회기별 소요시간	**■각 회기의 소요시간 충분히 확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경우, 진행시간을 여유 있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진행 시 강의마다 적절한 시간 배분"
	■각 회기의 소요시간 단축 "온라인이다 보니 한 시간 수업을 여러 교시 들으니 조금 힘들기도 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에 다소 긴 시간으로 다가왔어요" "비대면의 경우 시간을 조금 단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교육환경	**■온라인 교육환경 개선** "마이크와 인터넷 연결만 잘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온라인 강의 중 가끔 소리가 작아집니다" "진행 시 음악 소리가 너무 큼" "온라인 강의 시 연결 불안정" "비대면 교육일 경우, 원활한 운영 필요(ex. 채팅, 모니터링)" "온라인으로 강의다 보니 채팅방이 자주 끊김"
대면교육 선호	"비대면보다 대면 수업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면보다는 대면 강의 추천" "오프라인 확대" "대면강의 희망합니다" "대면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 "다음 번엔 오프라인으로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강을 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들은 비대면 교육의 제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온라인 교육 특성상 집중력, 현장감 등에 대한 제한점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온라인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강사와의 상호작용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온라인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현재 사용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또한, 비디오 사용 여부의 경우 개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비디오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거나, 이에 대한 일관적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실시간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온라인 연결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수업에서 잡음이 들리는 등 교육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하였다. 사용 플랫폼 활용방법 안내 및 문제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다섯째, 온라인 탑재형 플랫폼의 기능이 불편하고 오류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 수강기간 및 횟수와 관련하여 교육의 수강기간이 짧다는 의견과 교육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곱째, 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101〉과 같다.

<표 2-101> 2020년 비대면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응답: 개선사항 제안

	아동기 부모교실 개방형 응답 내용
온라인 교육의 제한점	"비대면이다 보니 채팅을 하면서 강의를 듣다 보니 채팅창이 자꾸 보여 강의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줌 수업이라서 현장감이 좀 떨어져서 아쉬웠어요"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시 2시간 이상의 강의는 ppt만 띄워지고 음성으로 들으니 잘 집중이 안 되었어요" (쌍방향 실시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온전히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탑재+ 사후활동 일방향 실시간)
온라인 상호작용	**■강사와의 상호작용 강화**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할 상황이 많을 거 같은데 강사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쌍방향 실시간)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 유용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강사님과의 100% 소통했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냥 녹화해서 영상 올리는 게 강의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일방향 실시간)
온라인 진행방식	**■사용 프로그램 제안** "네이버밴드 라이브방송이 채팅하며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쌍방향 실시간) "강의 동영상도 카카오티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 탑재 + 사후활동 쌍방향 실시간) **■비디오 사용 여부** "저녁시간이라 아이들과 가족들 저녁식사와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디오를 끄고 수업을 듣고, 필요하면 켜고 좀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 일방향 실시간) "비디오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쌍방향 실시간) "화상을 켜고 끄고 비일관성"(쌍방향 실시간)
실시간 교육환경	**■인터넷의 안정성 문제 개선** "온라인 수업이라 간혹 끊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쌍방향 실시간) "실시간 강의 시 30초에서 1분 정도 끊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탑재 + 사후활동 일방향 실시간)
	■볼륨 및 잡음 문제 개선 "사전 음향 체크"(온라인 탑재 + 사후활동 쌍방향 실시간) "볼륨이 작은 강의는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쌍방향 실시간) "강의 도중 잡음이 많이 들리는 건 개선 부탁드려요" (쌍방향 실시간) "Zoom 이용 시, 음소거가 원활하지 못한 점에서 메인 호스트 강사님 외에 회의실 공간을 관리할 공용호스트 추가설정을 권합니다" (쌍방향 실시간)
	■사용 플랫폼 활용방법 안내 및 문제 개선 "참여방법을 좀 자세히 부탁드려요" (온라인 탑재+사후활동 쌍방향 실시간) "음소거가 안되어있거나 채팅방 활용을 할 때 화면에서 벗어나니 작동하느라 정신없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환경이 조금 개선되면 좋을듯해요"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탑재형 교육환경	**■온라인 탑재형 플랫폼 개선** "비대면 교육 시 진도율 체크가 이상해서 같은 동영상을 너무 여러 번 봤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진도율 에러로 계속 봐야 하는 것이 조금 짜증 났습니다" (온라인 탑재 + 사후활동 일방향 실시간)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이 끊어서 보기가 안 되어서 1회 강의를 몇 번을 봐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온라인 탑재 + 사후활동 일방향 실시간)
수강 기간 및 횟수	**■다시보기 기능 추가** "강의 시간대가 아이들 온라인 수업 시간대라 수업 참여에 어려운 점이 있어 재방본이라도 있으면 다시 보고 싶어요"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이어서 좋았던 점도 있지만, 아이를 케어하면서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어서 수강생들한테는 놓친 부분에 대해 다시 보기 기능이 있었으면 한다" (쌍방향 실시간 + 일방향 실시간)
	■온라인 탑재형 수강기간 확대 "수강 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온라인 탑재 + 사후활동 일방향 실시간)
대면교육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이 꼭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탑재 + 사후활동 쌍방향 실시간) "코로나가 빨리 끝나 대면교육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쌍방향 실시간)

2. 강사 및 실무자 관점: FGI 분석

1) FGI 연구방법

서울가족학교 강사와 실무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효과성, 교육효과 달성에서 중요한 요인, 교육효과 제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s)를 실시하였다. 강사는 서울가족학교의 커리큘럼을 현장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자는 각 자치구센터에서 서울가족학교 사업을 계획 · 운영 ·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서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FGI는 2020년 7월과 8월에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는 총 19명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FGI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팀별로 2시간~2시간 15분이 소요되었다. FGI는 참여자 모집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았으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강사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았다. FGI는 연구책임자가 진행하였고,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주제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FGI 참여자의 특성은 〈표 2-102〉와 같다. 강사 참여자는 총 10명이었으며, 팀별로 서울가족학교 5개 교실의 강사가 1명씩 참여하였다. 실무자 참여자는 총 9명이었으며, 9개 자치구센터에서 서울가족학교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1명씩 참여하였다.

<표 2-102> 서울가족학교 강사 및 실무자 FGI 참여자 특성

FGI 팀	ID	담당 교실	서울가족학교 강의경력
강사 1팀	강사1	청소년기 부모교실	5년
	강사2	패밀리셰프	6년
	강사3	아동기 부모교실	6년
	강사4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4년
	강사5	예비부부교실	2년
강사 2팀	강사6	예비부부교실	6년
	강사7	청소년기 부모교실	5년
	강사8	아동기 부모교실	5년
	강사9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7년
	강사10	패밀리셰프	4년

FGI 팀	ID	서울가족학교 강의경력
실무자 1팀	A구	2년
	B구	4년
	C구	3년
	D구	4년
	E구	2년
실무자 2팀	F구	2년
	G구	2년
	H구	2년
	I구	3년

2) 서울가족학교의 목표와 효과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침에 각 교실의 주요 내용[7]이 정리되어 있고, 강사용 매뉴얼에 각 차시(주제)별 교육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나, 각 교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교육목표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강사와 실무자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각 교실의 교육목표를 먼저 질문하였다. 이어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즉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지침과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었으나, 각 교실을 아우르는 교육목표에 대해 강사나 실무자별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1) 예비부부교실의 교육 목표와 효과

강사와 실무자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예비부부교실의 목표와 관련된 키워드는 건강한 결혼생활 지원, 결혼에 대한 현실 인식, 두려움 해소, 갈등 대처 등으로 나타났다.

7) 2부 1장 서울가족학교 현황 참고

예비 · 신혼부부 교실의 목표는 이들이 연애를 하고 이런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핑크빛 연애에 대한 연속 선상이라고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결혼은 현실이다."라고 해서 현실 인식시키고 그 다음에 해보지 않은,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우리 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좀 화두를 주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한 번 이야기 나눔으로 인해서 실제 결혼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갈등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나눠봄으로 인해서 실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갈등을 좀 줄이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전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커플이 서로에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친해져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을 마련해준다고 할까요. (강사5)

특별히 저희 구에서는 예비부부교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 부부로서의 준비를 지원해 드리고 이를 통해서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F구)

예비부부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준비교육을 실시하여서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가정 기반을 다지는 걸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요. (G구)

예비부부교실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효과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강사와 실무자는 공통적으로 예비부부교실이 참여 커플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결혼생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결혼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 초창기에 비해 예비부부교실 신청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결혼 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아무래도 결혼 전에 조기개입을 하다 보니 다른 5개 교실에 비해서 가장 효과성이 높다고 실무자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략) 왜냐하면 일단 아동, 청소년기나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같은 경우는 이미 가정을 꾸린 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뭔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부부 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약간 백지 같은 상태에서 교육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참여자분들도 받아들이기 쉬우시고 빠르게 흡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G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될지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걱정들이 많으셔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여율도 높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혼생활을 할 건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예비부부교실에서 잘 마련이 되는 거 같아서 거기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A구)

처음 진행했을 때랑, 연차 지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참여자가 모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혼 전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예비부부분들이 지금은 느끼고 계시는 거 같아요. 사실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아니면 꼭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런 문의전화가 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교육에 효과성이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D구)

(2) 아동·청소년기 부모교실의 교육 목표와 효과

강사 및 실무자 관점에서 파악한 아동기 부모교실과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키워드는 자녀발달 및 부모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및 부모역할, 부모와 자녀의 소통 등이었다.

아동기 교육에서 부모님들의 교육목표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유아기 때까지 몸으로 부모역할 하느라 너무 바쁘셨고. 이제 아동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이제 사회구성원으로서 아이가 공적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학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럼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처신해야 되는 부모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애 다루듯이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 자라나야 하니까,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 부모가 어떤 부모역할을 보여줬는지와 되게 많이 관련이 있고. (강사3)

청소년기 이해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세부주제가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시면서 한 가지 문제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발달상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그것을 알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교육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강사7)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교육의 목표는 그러니까 청소년기 아이들이 주체적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부모가 어렸을 때 훈육자나 보육자 역할이 아니라 상담자나 격려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역할의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럼 현재 갖추고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이해의 지식이 있는가. 디지털 기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바람직한 부모역할이라는 것이 무슨 태도냐.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소통 방법을 쓰고 있느냐에. 그래서 그런 부분,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알려드리는 게 총체적으로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그 6개 콘텐츠 안에 녹아 들어 있거든요. (강사1)

아동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부모역할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I구)

아동기,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소통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얼마나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목적으로 설정해두고 있고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B구)

실무자와 강사는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아동 ·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효과성으로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긍정적인 변화, 자녀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이 언급되었다.

저희 교육을 되게 자주 들어주시는 어머니들 몇 분이 계셔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이 교육을 접하기 전과 접한 후의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느껴진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은 가족학교 교육이 단타성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지방 밟으면 다 기억이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본인이 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은 조금 뇌리에 박혀 계신가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에게 조금 윽박질렀다면, 교육 후에 조금 더 아이의 입장을 생각한 대화를 의식해서 하게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B구)

이거(부모교실)를 듣고 자녀분들한테 왜 어떻게 말을 해야될지 특히 대화중심적으로 많이 실천을 가정에서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좀 아이와 대화의 진전이 있었다. 이런 후기를 많이 공통적으로 남겨 주셨어서. 아동기, 청소년기에 대한 효과성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부모랑 자녀와 조금 교감하는 그런 거가 많이 효과적이었지 않았나, 이거를 좀 느꼈었고. (A구)

교육을 했을 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내 아이가 이상한 줄 알았더니 다른 집도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정상이네." 이렇게 자기 자녀의 발달에 격차, 이제 아이들이 발달과정에서 보여지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나만 그런가?"하고 걱정하셨던 부분들도 공유하고 안심되는 부분이 우선 아동기에선 제일 부모님들께 반응이 좋고. 또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강사3)

(3) 패밀리셰프의 교육 목표와 효과

강사와 실무자 관점에서 이해한 패밀리셰프의 목표는 가족 내 친밀감과 유대감 증진, 소통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더불어 패밀리셰프의 목표로 자녀의 주도성 지원, 마을공동체 형성, 가족친화적인 지역문화 형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친구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리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되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어머님께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어서, "아, 안 돼. 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항상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옆에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주고. 그로 인해서 또 아이의 중심이 될 가족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패밀리셰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10)

저 같은 경우는 목표로 잡는 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인데, 일단 아이하고 같이 왔을 때 아이와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사2)

패밀리셰프 같은 경우는 내 가족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과의 소통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친화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I구)

패밀리셰프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매개체로 하여 가족간 친밀감과 유대감, 그리고 의사소통 향상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구)

패밀리셰프 목표 중에, 내용 중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 말고 또 마을공동체 요런 부분도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다른 가족들과 활동하는 게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교육내용 자체에서는,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목표가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A구)

패밀리셰프의 효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체험, 자녀에 대한 이해도 향상, 자녀의 강점 파악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자녀가 요리과정을 주도하는 모습을 관찰함으로써, 자녀의 자율성을 지원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점은 패밀리셰프의 고유한 효과로 보인다.

주관식이나 후기를 봤을 때도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는 답변들이 되게 많았고 "우리 아이의 몰랐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좋았다"라는 답변이 되게 많았습니다. (중략)
자녀와 함께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 패밀리셰프인 거잖아요. (중략) 평소에 요리는 이제 엄마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던 자신이라고 했대요. 어떤 어머니 한 분이, 그리고 '아이들이 칼을 잡고 불을 잡는 거 아직은 위험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패밀리셰프를 통해서 아이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칼질을 하고 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아이의 모습을 몰랐구나, 너무 가둬서만 생각을 했구나,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교실에 비해서 패밀리셰프는 조금 다른 성향, 다른 효과성을 가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B구)

요리가 매개지만 "처음에 요리만 하러 왔다가 아이를 바라보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들을 얘기 많이 해주

셔서 사실 요리만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패밀리셰프가 가족 친밀감, 가족 친화활동, 자녀의 주도성을 인정해주고 의사결정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이런 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강사2)

(4)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교육 목표와 효과

강사와 실무자 관점에서 본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목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부부 공동육아의 중요성 인식, 아버지역할의 중요성 인식, 바람직한 아버지역할, 일-가정생활의 균형, 가족친화적인 문화 형성 등 다양하였다.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아버지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이해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자각시켜드리는 것,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교육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아버지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그러면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은 어떻게 봐야되는가'라는 어떤 관점을 좀 잡아드리는데 좀 교육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강사9)

일하고 가정에서 균형이 있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될 지라는 것과 부부가 함께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아빠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가 제일 핵심으로 잡는 거는 아빠가 먼저 행복하고 행복해야지만 양육을 할 수도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는 그 행복에 대한 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4)

남성 양육자들의 양육참여를 좀 독려하여서 가정에서 이제 육아역할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G구)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차원으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도 가족친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구)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경우, 자녀와의 놀이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일회성으로 교육이 진행되며 어린이집, 기업 등에서 구성원들을 일괄적으로 모집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아버지들의 교육동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아버지교실은 더욱 다른 교실에 비해서 회기가 더 적잖아요. 정말 한 시간? 이렇게 딱 듣고 가시는 게 많고, 대부분 어린이집, 기업, 학교와 연계를 하다보니까 좀, 기계적으로 참여하시는 아버님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항상 아버지교실을 시작하기 전에 강사님이 아버님들께 질문을 드리는 게 "본인이 자의로 왔다" 손들어 보시라 하시면 거의 없으시고, 거의 아내가 보내서 왔거나, 회사에서 참여하라 해서 하러 왔다 이런 게 대부분이시더라구요. (중략)
효과성이 제일 의심되는 게 아버지교실?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 놀이법 할 때는 만족도가 좋고 실제로 놀이법을 알게 되어 좋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긴 했었어요. (B구)

어린이집 진행 같은 경우는 조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업 진행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효과에 대해서 좀 효과가 미비하다고 실무자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략)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행을 할 때 그 기업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직원교육으로 필수, 강제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 수요 자체도 높지 않고. 그리고 업무를 하시다가 교육을 듣다 보니 잘 집중도 못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자발적인 측면에서 좀 그게 낮다보니 좀 교육 효과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G구)

3) 서울가족학교 효과의 핵심 요인 1: 소통

서울가족학교 강사와 실무자 FGI를 분석한 결과, 서울가족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인은 '소통'과 '이론 기반 현실성'의 두 가지 대주제로 수렴되었다. 먼저 소통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제는 (1) 참여자-실무자 소통, (2) 실무자-강사 소통, (3) 강사-참여자 소통, (4) 참여자-참여자 소통, (5) 강사-강사 소통, (6) 현장-매뉴얼 소통이었다.

(1) 참여자-실무자 소통

강사와 실무자는 서울가족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교실에 참여하는 참여자와 자치구센터 실무자 사이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육참여 동기, 교육주제와 관련된 궁금증 등에 대하여 실무자가 사전에 참여자의 요구를 파악할 때 더욱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각 자치구센터에서는 이렇게 파악한 요구를 기반으로 기존의 교육과 함께 추가적으로 심화회기를 운영하는 등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이번 비대면 같은 경우 아니더라도, 대면 사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든요. 참석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사전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부부 교실 같은 경우에 총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부분, 각 주제마다 어떤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F구)

신청을 받을 때 교육 주제별로, 뭐 저희가 1에서 4회기를 하니까 주제별로 가장 기대되는 교육은 무엇인지, 아니면 또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 사전에 구글 설문지로 접수를 받아서 강사님들께 전달드리고 있고요. (H구)

1회기 DISC 성격 차이 이해하기, 2회기 대화법, 3회기 체크리스트, 4회기 재무관리를 먼저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참여자분들이 희망하시는 심화교육 내용을 하나씩 덧붙여서, 죽음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재무관리 심화편이라던가, 심화교육을 운영을 했었고요. (H구)

한편,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교육의 경우 실무자가 실제 교육의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과 주로 소통하며 기관이 원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거나 실무자가 임의로 교육주제를 선택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의 경우 기관 입장에서 신청하는 교육주제와 실제 참여자인 아버지가 원하는 교육 주제가 다른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에서 대부분 연계해서 할 때, 학교 담당 선생님이 "작년에 우리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이거 해보자." 이렇게 해서 찜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인 학교는 부모님들에게 수요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듣고 싶은지? 이랬을 경우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치구에서 직접 하거나 아니면 학교랑 연계를 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완전히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왜냐면 공짜로 해주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부모교육은 해야겠고 하는데, 건가에서 와서 강사까지 섭외해주지, 뭐 간식 나눠주지, 뭐 몇 회기 이상 참석하면 선물 주지, 이러니까 굉장히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자치구 선생님께서 직접 선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강사와 협의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케이스가 있긴 한데. (강사8)

원에서 원장님이 미리 요구조사를 해서 어떤 것들이 궁금한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도, 아빠들이 궁금한 경우보다 엄마들이 궁금한 걸 써서 내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깐 아빠들은 그 얘기보다는 딴 얘기를 하고 싶은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중략) 요구조사를 할 때 아빠들이 원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나오지 않으면, 그거에서 또 어느 정도의 gap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강사는 그 질문을 중점적으로 주제와 연결해서 준비해가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또 아주 다른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이렇더라고요. (중략) 요구조사가 됐을 때 그것이 아버지들이 원하는 주제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확인돼야만, 수요자와 강사가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일치를 통해서 뭔가 좀 효과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강사9)

(2) 실무자-강사 소통

실무자는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확인한 참여자의 교육 참여계기, 주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참여자 특성(커플의 교제기간, 자녀 연령대, 이전 교육 경험 등)과 같은 정보를 강사와 공유함으로써 참여자의 욕구가 교육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사들 역시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해 참여자에 대한 사전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이처럼 실무자와 강사는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소통할 때 교육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아서 이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것 때문에 계기로 오시게 되셨는지 미리 실무자분들이 준비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효과성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난 경우가 있어요. (중략) 계속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고, "이러 이랬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린다." 그럼 사실 저도 준비해가는 게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뭐 효과성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만족도도 좋았고, 그분들은 또 있으면 계속 참여하게 되시는 그런 경우를 봤었습니다. (강사7)

강의 전에 이번에 모객된 분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 연령은 초등, 아동기는 1학년에서 6학년은 너무 범주가 넓잖아요. 1학년과 6학년은 정말, 6학년은 거의 청소년기고, 1학년은 아동기를 지금 막 넘어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례도 다르고, 욕구도 다 부모님들이 다르실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이번에 모객된 아이들의 연령대가 몇 학년은 몇 명이고, 5–6학년은 몇 명인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전에 자치구에서 어떤 교육을 들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주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의 준비하기나 아니면 이제 그 구성을 하기에 되게 용이하죠. (강사8)

자녀의 연령하고 참가동기 질문을 미리 받으셔서 저희한테 파일로 보내주셔서. 강의의 주제가 참가하신 분의 동기에 따라서 다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세 가지 주제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마음에 들어서 오신 경우에도 이 질문들이 이 세 차시 안에 다 녹아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훨씬 높게 나왔던 것 같고요. (강사3)

성평등 관련해서는 성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링크를 통해서 주시는 강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가자분들에게 사전에 물어서 성평등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까지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지, 그 수위를 조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F구)

저희는 예비부부교실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나이, 연애를 몇 년이나 하셨는지나 사전질의들, 어떤 부분에서 궁금해 하는지 이런 거를 전달을 해서 강의 안에 조금 녹여주셨으면 한다는 요청을 드리는 편입니다. (E구)

한편 실무자와 강사 간의 소통은 교육이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될 때 특히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외부기관이랑 연계를 하면 그쪽에서도 약간 원하는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게 약간 있고 해서, 실무자가 그 사이에서 많이 조율을 하고, 또 연계기관에서 원하는 건 어떤 건지를 강사님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도 프로그램 만족도나 이런 효과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A구)

(3) 강사-참여자 소통

강사와 참여자 간의 소통은 FGI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이다. 실무자 FGI에서는 강사가 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라포를 형성할 때, 참여자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때, 교육이 효과적이었다는 언급이 많았다. 특히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강사가 참여자와 라포를 잘 형성하는 것이 전반적인 교육 분위기 형성과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나머지 다른 교실의 경우 강사가 교육시간,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참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참여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자 노력할 때 교육이 효과적이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특성상,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어머님들에 비해서 좀 경직되어있다는 분위기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강사님께서 특별히 더 에너지가 넘치시거나 유쾌하시거나, 또 질문을 일부로라도 시켜서 대답을 말하게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버님들 긴장 풀어드리고 조별활동을 통해서 서로 말하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풀리게 되면 본인이 갖고 있던 어려움을 그제서야 얘기하시는 단계로 수순을 밟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구)

> 아버님들이 교육을 들을 때 약간 태도가... 약간 '너 얘기해봐' 이런 식이 좀 있어서 초반에 참여자들이랑 얼마나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긴장을 푸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H구)

>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시간, 2시간 교육이지만 이제 참여자분들과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예비 ·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은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부부 한 명씩 한 명씩 다가가서 그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잘 되시는 강사님들은 만족도가 평균 이상으로 항상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I구)

> 단순히 그냥 교육내용만 전달하시는 분들보다는 확실히 참여자랑 상호작용하고 참여자들끼리도 상호작용하게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참여자분들도 그냥 교육만 듣는 것보다 본인이 궁금한 게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내용을 좀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하고 가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으셨어요. (H구)

> 2시간을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강사님에게 달려가세요.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이 경우에서 빨리 집에 가려고 하시는 강사님도 있고, 짧게 짧게 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강사님도 있으시고, 어떻게든 이 어머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보이는 그런 강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고통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풀어서 어머님의 마음을, 또 상황을 개선해줄 수 있는지가 (강사) 역량의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빨리 빨리 말씀해줄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F구)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서울가족학교 역시 대부분 비대면으로 운영되면서 비대면 교육유형(쌍방향 실시간형, 일방향 실시간형, 온라인 탑재형) 뿐만 아니라 채팅, 비디오 사용 여부 등 비대면 교육운영 방식이 강사와 참여자 간의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 개인적으로는 일단 일방향 실시간형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이거에 대한 참여자 반응도 체크하기 어렵고, 만족도도 전체적으로 대면교육에 비해서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일방향 실시간형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느꼈고요. (I구)

> 쌍방향 실시간형이랑 온라인 탑재형을 활용해가지고 아동기, 청소년기 진행을 해봤는데요. 쌍방향 실시간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켜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여서, 반응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질의응답이 어느 정도 오가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도 약간 평가할 수 있었어요. (G구)

> 네이버 밴드랑 Zoom으로 진행했었는데 처음에 밴드로 했을 때 진짜 만족도 너무 안 좋고, 얼굴 보고 할 때는 참여자 반응도 볼 수 있고 강사님이 어느 정도 반응도 이끌어줄 수 있는데 네이버 밴드는 강사님 얼굴만 보이고 참여자분들 댓글만 남기는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강의에 대해서 지루하다 싶으면 거기서 딱 집중도 딱 끊어버리시는거에요. (C구)

> 대면 상황에서는 정말 강의를 잘 하셨던 분이라고 믿고 초빙을 했는데, 막상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상황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Zoom을 활용을 못하면 강의력이 아무리 좋아도 상황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영상 재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오셔야지 버벅거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면 확실히 참여자분들도 되게 힘들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F구)

아버지교실은 저녁에 진행하면 아빠들은 거의 오디오만 켜놓으세요. 비디오는 다 중지하시고요. 그래서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정작 그분이 듣고 계실지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 듣고 계시나요?' 이렇게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교육을 진행했을 때, 한 두 분 정도만 화면에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나마 그 얼굴도 눈 있는 데까지만 보이시고 아래쪽은 안 보여주신다거나, 거의 그런 식이어서. (강사9)

비대면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매체에 대한 강사, 실무자, 참여자 모두의 숙련도는 교육효과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실무자가 참여자에게 비대면 교육 참여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참여자-강사의 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언급이 있었다. 또한 강사의 기술적인 숙련도 역시 비대면 교육에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사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참여자와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성공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담당자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셨는지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우선 교육의 방식이랑 참가자가 해야 될 역할을 얼마나 자세히 안내했는가. 예를 들면 비디오를 켜시고 하는 게 좋다, 질문하시는 걸 통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안내한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에서의 참여도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났었고요. (강사3)

참여방법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드리거나, 문자, 워크북 보낼 때 같이 끼어서 보내드리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했고, 중간에라도 참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해결을 도와드려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드렸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동시에 있는 거여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을 걱정을 생각했었는데, 강사님들의 프로그램 시스템 숙련도에 따라서 한 분 한 분 조금 상호작용이 많이 돼서 생각보다 걱정을 덜 수가 있었어요. (E구)

(비대면 교육은) 아무래도 강의가 조금 밋밋해지고 역시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들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저도 친한 강사들이 한 두 명씩 뭐 어떤 걸 더 써보면 좋을까 해서 사실은 비디오를 켜지 않더라도 이들의 참여를 요구,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다른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패들렛이라던지. 이분들이 채팅을 이용하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작업한 것들을 약간 포스트잇처럼, 온라인상의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붙여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부모로서 대응하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도 공부해서 어, 적용해보기도 하고. (강사8)

쌍방으로 하다 보니까 채팅창을 열어놓고도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했고요. (중략) 소통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해도 하시는 커플들만 채팅에 올리고 발표하세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를 다 돌아가면서 이제 열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시는 분만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할 때 A4 용지나 이런 것에서 매직 같은 거로 차이점 같은 거 테스트하면 표현을 해서 카메라에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 골든벨 하는 느낌?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뭔가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참여하시는 거를 느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카메라에 가까이 오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강사5)

Zoom으로 진행을 할 때는 투표기능을 활용해서 '요즘 자녀의 고민' 이런 식으로 흥미를 유발하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불편해 하지 않으시게. 사전투표 이런 것들 진행하기도 하고. 이거는 활동형 수업을 할 때 가족역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용했던 건데. 카톡 플러스 채널을 하나 이제 QR 코드를 화면에 하나 올려 드리고 자녀하고 함께한 활동이라던지, 가족역동에서 가족지도를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원 핸드폰으로 받고. 왜냐하면 Zoom을 이용해서 하면 채팅창에다가 그런 정보를 올리시는 게 사진을 올리시는 게 쉽지 않으시니까. 카톡 플러스 채널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 본적도 있는데. 어쨌든 기술적인 요소를 저희들이 패들렛이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를 배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사3)

(4) 참여자-참여자 소통

서울가족학교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도 FGI에서 언급되었다. 예비 · 신혼부부교실의 경우, 커플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성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비대면 교육환경에서는 커플이 한 장소에서 같이 참여하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따라 교육의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언급이 있었다.

부모교실의 경우,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 간의 소통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모두 나타났다. 참여자 간 나눔, 토론 등의 소통이 긍정적인 이유는 참여자끼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이유는 참여자 간 소통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이 같은 지역사회, 같은 학교라는 공통점 때문에 오히려 참여자에게 자녀의 문제 등 사생활을 노출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비부부교실은) 실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사실은 (커플이 서로에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친해져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을 마련해준다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한 번 해주면서 상대방, 다른 커플들도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말문을 좀 틔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저는 좀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강사5)

비대면 (교육)하면서 조금 느낀 게 커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듣는 커플분들도 계시지만, 따로 듣는 커플분

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았는데, 이제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옆에 같이 있다보니까, 즉석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우리는 이게 문제였어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듣는 경우에는 언젠가 나중에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니까 조금 강의를 들었던 게 와전될 수도 있는 거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B구)

제 강사 소개 이외에는 먼저 소개도 같이 일단 그룹별로 4명이나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부터 라포부터 서로 나누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제가 주제를 드리고 흘러가면서 나눠서 발표하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강사4)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상호작용. (중략) 팀별로 그룹별로 오프라인일 때, 그룹별로 서로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고,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교감하시면서 본인의 불안감을 좀 낮추고. 그래서 해야 될 방향성을 부모님들이 이 기회에 기준을 좀 잡고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1)

참여자랑 참여자끼리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부모교육은 되게 그거에 대해서 폐쇄적이더라고요. 참여자분들이. 예비부부는 그나마 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동네고 같은 학교다 보니까 더더욱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기가 어려워하셔 가지고. 강사님하고 1:1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선호하시고요. (I구)

(5) 강사-강사 소통

회기별로 강사가 다를 경우 전후 강사가 서로 소통하여 강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강사 네트워킹을 통해 강의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교수법을 모색하는 등 강사와 강사 간 소통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강사와 강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특히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효과적인 비대면 교육 방법에 경험공유 등 강사 간의 소통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셰프의 경우 올해부터 그런 정보공유가 활발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1회기만 맡고, 다음에 다른 강사가 하시는 경우라도, 저는 사실은 제가 주제넘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강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요. 물론 실무자도 연락해주시겠지만, 실무자가 강의에서 파악하는 것과 강사가 수강자랑 역동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강사가 제일 정확하게 잘 알잖아요. (중략)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야지만 중복되어서 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액션플랜을 내드렸는데, 사실 그걸 다음에 후속에서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해봤더니 어떤 게 어려웠고, 이건 현실적이지 않았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강사들끼리 좀 서로 그게 어떤 면에서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서로 연동을 해야지 결국엔 수강자들한테 도움이 되더라구요. (강사8)

집단지성이라고, 강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의논하고, "난 이렇게 써봤더니 이런 게 좀 효과적이었고, 이런 건 너무 많이 써서 부모들이 징글징글해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서로 쓰지 않는 것을 좀 이게 의견을 좀 내보고 이래야 하는데, 저희끼리의 어떤 논의과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강사8)

비대면이 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다 공유를 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막막하고 다 처음이거든요. 기존에는 내가 있던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패밀리셰프 같은 경우는 단톡방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강사10)

(6) 현장-매뉴얼의 소통: 현장의 목소리를 매뉴얼에 반영

'소통'이라는 대주제의 마지막으로는 참여자, 강사, 실무자의 의견이 교육 매뉴얼 및 사업운영 매뉴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현장–매뉴얼 소통'이라고 명명하였다. 교육 콘텐츠와 참여자의 욕구, 자치구센터의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클 경우 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기존의 교육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 처음에 가족학교에 참여했을 때, '아, 그래. 여기에 있는 (교육) 목표를 그대로 가지고 가되,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플러스해야지'였는데, 지금 한 2~3년 전부터 '실제 이게 현장의 이 변화, 이런 걸 받아들여서 강사 매뉴얼을 짠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계속 들었어요. (중략) 근데 우리가 강사가 되어서 실제 현장에 가다 보면, 그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서 말하는 요구와 현장의 변화가 정말 동떨어질 때가 많아요. (강사7)

성인지 감수성이나 미디어가 이렇게 추세고 알아야되는 거라서 자꾸 추가되고 그런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한 번 재정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수강자들이 젊은 층이니까 굉장히 이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도 있고 그들의 니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모으실 수 있으면 모으셔가지고 콘텐츠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들이 신청할 때 조금 더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되면 자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5)

(아동기 부모교실이) 2016년에 나온 건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수정되진 않았어요. 차시가 추가된 적은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던지, 디지털 미디어 기기 같은 이런 것에서 차시가 늘어난 적은 있지만, 기존 차시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바뀌고 그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강사8)

패밀리셰프 목표 중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 말고 또 마을공동체 요런 부분도 조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다른 가족들과 활동하는 게 비해서 많이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교육내용 자체에서는.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목표가 안에 들어있으면,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내용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2)

교육 매뉴얼 개발 및 보완과 관련해서, 참여자와 기관의 재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이나 패밀리셰프는 개인 단위 재참여율이 높은 편이며,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이나 아동기 부모교실은 기관 단위 재참여율이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재참여자와 재참여 기관의 경우 동일한 차시(주제)의 교육을 중복수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참여자의 교육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기 어려우며, 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 및 기관의 재참여를 고려하여 심화교육을 마련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발 및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참여자가 올 때랑 기존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올 때랑 참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패밀리셰프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수할 때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어떤 곳은 선착순으로 받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아버지 우선 참여. 아버지가 참여하시는 가정 우선으로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 6년 됐잖아요. 그러면 6년 동안 다시 만나는 가정도 있어요, 매년. (중략)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가정 10가정이 진행될 때랑 신규가정 한 6가정에 기존가정 4가정이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참여하실 때 갖는 기대감은 전혀 다른 거죠. 신규 가정은 "요리 프로그램인 줄 알고 왔는데 이런 것도 하다니 너무 놀라워. 그래서 새로운 것까지 알게 됐었어요.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라면. 기존에 참여하셨던 가정들은 "앞에 이런 친화 활동이나 대화법이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나는 그냥 빨리 요리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막 하다 말고 "요리 언제 해요?" 하고. (강사2)

몇 년을 아버지교실을 진행해보면, 아버지교실을 신청하는 그 기관들이 대체로 전 회에 신청한 기관이 또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 정보를 갖게 된 어린이집은 이걸 잘 활용하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얘들 3년 이상씩 다니게 되니까, 그 지난해 오신 아버지가 또 오시고, 강사도 또 같은 강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자가,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자주 바뀌는 편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전 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 연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원에서도 작년에 반응이 좋았던 주제를 똑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강사가 똑같은 강사가 갔는데, 가서 보면 작년에 만났던 분에 대한 기억이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요. 이랬을 때, '아 이거 올해는 좀 다른 걸 하는 것이...' 물론 1년 전에 들은 거라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다른 주제를 다루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강사9)

서울가족학교 사업은 참여자의 욕구, 사회적 이슈 등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매뉴얼에 추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와 같이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교육 콘텐츠가 추가되었는데, 신규 콘텐츠가 강사의 전문영역이 아닐 경우 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강사교육 등 전문성을 함께 고려해야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아동기 교육은 좀 트렌드가 있어요. 처음 아동기 부모교실이 생겼을 때는 이제 부모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도 많았고, 대화법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모교육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어떤 특정 이슈들을 다루기를, 성은 지금 기본교육으로 무조건 들어가 있고, 게임이나 이런 부분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쪽 걱정은, 저희들은 부모교육에서 대화법이나, 자녀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이해나 청소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부모교육 강사가 되었지, 게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서 많이 알고 있던 강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달 받은 내용을 토대로 2시간 교육을 하는 게 물론 다들 무리는 없으시겠지만… 매뉴얼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사3)

강사들이 사실 성을 배우거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를 본격적으로 배워서 이걸 스타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쪽으로 전공분야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콘텐츠를 소화하게 되면, 소화력이 강사마다, 퀄리티가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피드백도 있더라고요. "이런 보편적이고 어디서나 들을 법한 이야기는 시간 아까워. 이런 거였으면 참여도 안 했어." 하시는 피드백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려면 서울시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강사들도 고민해야 되는 몫이 있지만. 그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강사1)

교육 매뉴얼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매뉴얼에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되는 서울가족학교 각 교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는 현장의 상황에 맞게 사업운영 매뉴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는 기존에 평균적으로 한 강의당 120분 진행되는 것이 크게 참여자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조금 길다는 의견들이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구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셔서. 비대면의 사업을 기준으로 새로운 매뉴얼이 신설이 되거나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사업진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A구)

패밀리셰프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시간이 일단 길잖아요. 총 4시간을 진행을 해야되는데, 대면으로 했을 때는 장을 보러 가거나 직접 낯선 환경에서 씻고 이런 환경들, 상황들이 조금 재밌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는데, 이번에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만족도를 4점을 못 넘었어요. 저희가 패밀리셰프를 하면서 4점을 못 넘은 건 처음인데 이게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다고

그러시는 거에요. 비대면에 맞춰서 조금 변경을 해줘야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B구)

놀이 활동, 신체놀이 활동은 이 화면을 열어 가지고 아빠랑 아이랑 이걸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체놀이 활동은 대체로 아빠가 1:1에 활동도 있지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10명이면, 아빠 10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 좀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친해지고 요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아빠랑 아이랑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어린이집이라는 공간에 아이들이 갔을 때, 약간 몸에 긴장을 한다거나 뭔가 집중을 한다는 게 가능한데, 집에서는 아이들이 그런 긴장이나 집중력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신체놀이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제 경험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강사9)

4시간 안에는 시장 보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비대면이라서 시장을 봐주는 역할을 담당 선생님들이 다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시간을 진행해야 하니까 처음보다 시간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처음에는 줄여서 처음에 3시간을 해야 딱 맞았는데 그래도 서울시센터에서 4시간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하셔서 고민이 깊었어요. (강사2)

올해는 어떻게 보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한 환경인데, 센터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수강자들이 몇 명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평가에서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나 센터 입장에서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몇 명보다 더 중요한 건 소수 인원이라도 그분들의 변화를 잘 끌어낼 수 있는, 양적으로 20명, 30명, 5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만 참석했다 할지라도 (중략) 그분들의 삶의 내면과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의 기준도 바뀌면 좋지 않겠나. (중략)
강사나 또는 실무자나 또는 센터에 대한 평가를 유예를 시킨다거나 그런 정책을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도입을 해주셔서, 과도기는 이렇게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시기에 나타나는 완충, 약간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강사와 실무자와 센터와 서울시 전체를 돕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사9)

4) 서울가족학교 효과의 핵심 요인 2: 현실성

서울가족학교 강사 및 실무자를 참여자로 실시한 FGI 분석 결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적인 또 다른 요인은 '현실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1) 지식이 현실로 이어지는 교육, (2) 매뉴얼에 충실하되 현실을 반영한 교육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1) 지식이 현실로 이어지는 교육

서울가족학교의 강사와 실무자는 공통적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식전달을 기본으로 하되, 실제 가족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일 때 효과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FGI 참여한 강사와 실무자들은 회기수가 적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서울가족학교의 특성상 교육 매뉴얼이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실천방안이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매뉴얼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실천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동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를, 훈련을 목표로 하는 교육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를 유도하는 건 각 강사의 재량이 되는 것 같고요. (강사3)

수강자분들께서도 기질이 다양하시잖아요. 지식을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감성적으로 자극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위로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욕구와 니즈가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니즈를 채워드리기 위해서는 지식도 전달해 드려야 되고, 기술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것도 정서가 이 모든 게 관장하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면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시지 않나라는 저의 주관적 진술입니다. (강사1)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그런 목표만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실천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목표를 세울 것인지를 보통 1차시에 저희가 훈육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반드시 넣는데. 예를 들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사랑하고 싶어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가 자녀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예를 들어, 자녀가 부를 때 설거지하고 있다가 고무장갑을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시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교육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일상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교육에서 계속 고민, 다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사3)

제가 몇 가지 부모교실을 진행하고 실무자로서 느끼는 바는 그런 공감대보다는 뭔가 참여자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던지,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는, 구체적으로 뭔가 참여자분들한테 육아행동을 알려주시고 코칭을 해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교육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략)
보통 아동기, 청소년기는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교육을 제가 실무자로서 듣고 나면은 물론 들으면서 '아, 부모님들이 이런 점은 공감되고 되게 약간 위로를 받으셨겠다'하는 점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부모님들이 양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코칭이라던지. 이런 게 없는 경우를 조금 저는 많이 겪었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사전에 강사님과 논의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하고 있어요. (G구)

이론적인 강의를 좀 하시고 거기에 실습을 중간중간에 넣으시거나, 레크리에이션을 중간중간에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더 효과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실제 사례나 자신이 상담했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주는 게 참여자분들도 되게 공감을 하고 거기에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실습 같은 걸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실사례 같은 것도 넣어달라고 강사님께 항상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I구)

(2) 매뉴얼에 충실하되 현실을 반영한 교육

강사용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매뉴얼을 충실하게 따를 경우 평균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매뉴얼에 충실하되 참여자의 현실적인 욕구도 적절히 반영할 때 더 높은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예방적 교육 분야에서, 프로그램이 설계된 대로 실시된 정도, 즉 교육 매뉴얼을 따르는 정도를 의미하는 충실성(fidelity)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충실성과 동시에 지역사회나 참여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에 설계된 교육내용, 즉 교육 매뉴얼을 적절히 수정 · 보완한 적응적 프로그램(adaptative program)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실무자 FGI에서는 교육 매뉴얼에 따른 표준 교육안을 충실히 따랐을 때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평균 수준으로 확보되는 반면, 표준 교육안을 거의 따르지 않았을 때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교육 매뉴얼을 중심으로 강사의 개인적인 경험 또는 상담사례를 추가하거나, 교육내용과 관련된 실습 등을 추가했을 때, 심화회기를 실시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매뉴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족학교라는 전체 틀이 있고 그 안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장 평이하게, 그니까 매뉴얼대로만 하면 그래도 만족도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사례라던가 아니면 참여자한테 상호작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본인 콘텐츠를 추가하시면 그게 조금 가산점이 되어서 더 나오는 거 같거든요. (H구)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일단 매뉴얼 상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80%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80%에서 70% 정도? 나머지 20-30%는 본인 얘기랑 본인 이론을 좀 섞어서 하시는 편이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매뉴얼을 거의 10%, 20% 거의 활용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만족도가 잘 안 나오고 참여자분들, 저도 이거 듣고 '이게 부모교육인가?' 싶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강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도 섭외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구)

한편, 교육 매뉴얼과 현장의 참여자들이 원하는 욕구 사이에 간극이 있을 경우 강사 재량으로 매뉴얼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프로그램이 설계된 대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관점, 즉 교육 매뉴얼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실성(fidelity) 관점은, 매뉴얼 자체가 엄격한 방식으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가정한다. 서울가족학교도 교실별로 표준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어 교육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FGI 결과, 서울가족학교의 매뉴얼 자체가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표준 교육안이 현장에서 만나는 참여자들의 욕구와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매뉴얼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2시간 분량이긴 하지만, 사실은 2시간을 내리 수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강사가 계속 떠드는 수업을 요즘에 하지는 않잖아요. 참여형이라고 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수강생들의 참여를 어찌되었든 독려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하다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은 굳이, 뭔가 강사가 막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자들이 만든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그들이 직접, '아, 이것이 그것이었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부분이, 모두 다 그 안에 답은 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뉴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쨌든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정은, 개인별 수정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사8)

제가 각 자치구마다 나갈 때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예비부부교실) 재테크 교육이 아니라 재무설계 교육이라는 걸 조금 강조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인 재무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면, 이들의 니즈는 일단 빨리 돈 벌고 집 마련하고 대출빚 어떻게 갚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이 강의를 듣고 나서 하나도 안 와 닿으면 만족도를 굉장히 아래로 깔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금 이 콘텐츠와 현실적인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갭이 조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강사5)

예를 들면, "애기는 어떻게 나와요?"라던지. "엄마는 어떻게 임신했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응답해야 할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결국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우리 아이가 자위했을 때는 내가 어

떻게 행동을 해야되나 이런 내용,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강사3)

6차시 중에서 저희 아동기 강사들, 친한 강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맞춤형 학습이라는 차시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가장 만족도가 떨어지는 차시에요. 왜냐하면 이제 학습은 결국은 공부에 관한 건데, 이게 지역별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표준안에 있는 것들은 정말 학습에 아주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공부란 무엇인가부터 해서, 학습유형이라든지. (중략) 저희는 사교육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정서가, 학습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강조하는데. 예를 들면, ○○(지역명) 쪽에 어떤 학교라든지, 이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듣다가 다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공부법을 알려달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도 하고. (강사8)

어머님들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나 아이랑 요리하러 왔는데 갑자기 왜 마을공동체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느냐"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내가 요리만 하러 왔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좋다." 개인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라서, 어느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이렇게 녹여서 이야기만 할 수 있지 이 이슈를 시센터에서 원하시는 만큼 해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강사2)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매뉴얼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의견, 강사 재위촉을 위해 요구되는 강사만족도 점수를 얻기 위해 매뉴얼에 충실하지 않더라도 참여자가 당장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저는 한 1, 2년 전부터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지금 저희가 올해 저희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전통시장을 못 가고 있는데 전통시장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원래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치구에 이런 이런 전통시장들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같이 가서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곳에 가서 장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사2)

저희는 만족도가 4.5를 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재계약이 안 되고 있어요. 만족도가 아무래도 가장 영향을 미치다보니까, 그걸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선, 똑같은 걸로 가져가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였죠. (강사7)

교육 매뉴얼과 참여자 욕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방법으로 질의응답이나 코칭기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비대면 교육의 경우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질의응답에 시간을 더 할애하거나, 심화회기로 참여자별 1:1 전화코칭(15–30분)이나 소규모 대면 집단상담 등을 시도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가족학교에서 한 온라인 탑재형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라서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콘텐츠 자체도 잘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이제 원하는 시간하고 장소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다, 이 장점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후활동도 1:1 코칭,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자분들 맞춤형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만족도도 높고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I구)

한 1/3, 반 정도는 이론, 뭐 아니면 태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 방법적인 걸 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모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좀 집어넣고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만족도가 훨씬,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본인들이 궁금했던 걸, 어쨌건 듣고 나가니까. 왜냐면 부모님들은 당장 어떤 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셔서. 그래서 좀 비대면 교육을 그렇게 하는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고요. (강사7)

(2020년) 상반기에 예비부부교실 시범운영을 했었고 그때 추가 콘텐츠로 커플별로 커플코칭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커플별로 최대 15분 정도 강사님이랑 했었을 때, 확실히 교육을 그냥 듣는 것보다, 비대면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나가다보니까. 그냥 단순히 강의 듣는 것보다는 강사님에게 직접 본인들, 본인 얘기했었을 때 조금 더 좋았다, 되게 긍정적인 평이 많았고. 이후로도 이렇게 비대면 교육이 되면 그렇게 커플코칭이라던가 양육코칭 형식으로 진행을 해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고. (H구)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방적인 비대면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코칭과 관련해서는 교육 매뉴얼에 충실한 시도인가, 기존의 교육내용과의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의 고민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코칭을 실시해본 결과, 교육주제와 벗어난 개인적인 고민 등에 대한 참여자들의 질문을 통제할 수 없어 기본교육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칭의 주제를 기본 교육주제로 제한해야 아이디어도 제기되었다.

저희도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서울시 콘텐츠 활용을 하고 사후활동으로 1:1 전화코칭을 진행했었고요. 이제 1:1로 전화코칭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기 부모교실을 총 3가지 주제를 활용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강사를 선택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많고 하는 강사를 중간에, 제가 이제 강사님하고 참여자분들을 이어주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고. (F구)

저희는 (예비부부교실) 커플코칭 접수 받았을 때, 주차별로 1주차에는 1, 2회기 주제에 관련된 커플 코칭 후속 문제를 받았고, 2주차에는 3, 4회기 관련된 문제를 따로 받아서 그 주차별 고민을 받았습니다. (H구)

시범사업으로 청소년기 진행하고, 사후활동으로 전화코칭, 1:1 전화코칭을 진행하였는데요. 콘텐츠로 들으셨던 주제인 성교육 관련해서 전화코칭을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안내 드렸고, 누차 안내를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15분을 진행을 하였어요. 근데 그동안 성교육 얘기보다는 본인 가족 얘기, 그리고 자녀양육에 좀 어려운 거를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셨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콘텐츠와 연계되어서 (전화코팅을) 한 패키지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G구)

3. 실무자 관점: 설문조사 개방형 응답 분석

정성적 분석의 마지막으로, 본 연구팀에서 실시한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중 개방형 응답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020년 6월 말에서 10월 초에 실시한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의 문항 중 개방형 질문인 (1) 효과성이나 만족도와 관련한 의견 (2)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향후 센터의 비대면 교육에 참고할 만한 의견 (3)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에는 17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예비부부교실 21건, 14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아동기 부모교실 17건을 담당한 실무자가 응답하였다. 각 교실별로 모든 개방형 응답을 취합한 후 자료에서 떠오르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도출하였고, 주제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1) 예비부부교실 실무자 개방형 응답

(1) 전반적 내용

예비부부교실의 효과성이나 만족도와 관련하여 언급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비부부교실이 전반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실무자들에게는 효과보다는 만족도가 중요한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만족도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특히,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났다. 교육내용의 경우, 재무설계 차시가 참여자의 요구와 교육 내용의 간극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사의 경우,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 및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커플 개별 코칭과 관련하여, 강사가 각 커플의 이야기를 듣고 코칭해주는 것이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103〉과 같다.

<표 2-103> 예비부부교실 실무자조사 개방형 응답: 전반적 내용

	예비부부교실 개방형 응답 내용
예비부부 교실의 효과성	"결혼 전 관계를 점검하는 데 유용하고 서로의 관계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은 거 같습니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 내용** "4강 재무설계의 경우, 참여자들의 요구도와 교재 내용이 동떨어져 교육운영 시 항상 만족도조사에 아쉬움이 나타나는 내용임. 이에 교육내용개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임(참여자 중 "교과서 같은 이야기라서 자신과 맞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나타남)" **■강사 역량** "강사의 역량에 따라 예비부부교실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결정된다고 생각됨" **■커플 개별 코칭** "예비부부교실의 경우 커플들을 개별적으로 코칭해주는 게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면 강의의 경우 쉬는 시간이나 각 커플에게 주어지는 대화시간에 강사가 돌아다니며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드백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커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2) 비대면 교육 관련 내용

2020년에 예비부부교실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비대면 교육의 고려사항에 관하여 언급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교육 내용 및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비대면 교육은 단순히 대면 교육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 맞게 교육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 요일 및 시간의 경우, 주말 외 평일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각 회기의 소요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면교육을 기대한 신청자들 중 비대면 전환으로 인하여 참가 취소가 많았으며, 예비부부라는 표적집단의 특성으로 홍보나 참여자 발굴에서 제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수업 신청 후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참가자 확정이 어렵다고 하였다.

셋째, 온라인 상호작용과 관련한 응답이 나타났다. 강사와의 상호작용의 경우, 예비부부교실은 소통이 중요한 특성이 있으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강사와 참여커플이 충분히 상호작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소통방식의 경우, 비대면 상호작용 내에서도 음성, 스케치북, 채팅창 사용 등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시도하였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실무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이 많았고, 커플이 각각 교육을 듣는 장소가 달라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자가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이 상호작용에 도움이 됨, 오디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참여자의 음성참여가 어려웠음, 강사의 능숙한 시스템 사용능력이 필요함, 시스템 기능의 한계로 인하여 참여자 확인이 어려웠음 등의 내용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104〉와 같다.

<표 2-104> 예비부부교실 실무자조사 개방형 응답: 비대면 교육 관련

	예비부부교실 개방형 응답 내용
비대면 교육 내용 및 시간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교육내용 필요** "비대면 교육에는 대면 교육과 다른 교육내용 및 방법이 필요합니다. 대면 교육과 동일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강사님들에 따라 비대면 교육 시에는 비대면 교육에 맞는 교육으로 진행한 차시의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참여자 만족도를 보입니다" **■교육 요일 변경 및 각 회기의 소요시간 단축** "차년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 시, 기존의 토요일 2주 2회기씩 운영되는 교육이 아닌, 평일 2주(혹은 4주) 1회기씩 쪼개어 운영하면 참여자들의 선택 폭이 확대될 수 있어 보임(ex. 저녁 시간대 예비부부 소모임 교육형식)" "비대면 진행 시, 120분 강의 시간이 다소 길게 느껴집니다. 참여자의 집중도가 대면 상황보다 낮은 상황에서 120분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자 모집의 어려움	**■대면에서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참가 취소**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른 참여자 취소로 대체 인원 추가모집"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어 체험부스를 기대한 기존접수자들이 대거 취소하거나 새로 모집할 때 유인동기가 부족했음" **■예비부부 대상자의 특수성** "예비부부를 모집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음" "부모교실에 비해 온라인 예비부부교실의 참여자 발굴이 어려움" "서울가족학교라는 사업 자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주 대상자들의 온라인 소통매체(카페, 커뮤니티 등)에 홍보를 하려해도 광고성글로 차단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가 확정이 어려움** "노쇼(no show) 어려움" "비대면 당일 들어오지 않는 한 참가확정이 어렵다"
온라인 상호 작용의 어려움과 소통 시도	**■강사와의 상호작용 한계** "강사와 참여자들 간의 쌍방향 소통을 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음" "오프라인 교육에서 소통에 대한 장점이 있던 예비부부교실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니 강사와 참여자 간의 소통이 서로의 노력이 없으면 정말 어려움. 강사의 역량 및 노력에 따라 소통이 진행되고, 예비부부들의 참여도, 효과성,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생각됨" "예비부부관계에 있는 내밀한 감정적 어려움이나 소통의 어려움은 비대면을 통해 다뤄지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대면 강의 진행 시 커플들에게 대화시간을 주고 강사가 돌아다니며 한 커플씩 해당 주제에 관한 내용을 봐주고 피드백 해주는데 그걸 전혀 할 수 없고, 사정상 따로 떨어져 듣는 커플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실시간 피드백 어려움 "대면으로 교육 시 참여자의 반응을 살피고 바로 피드백이 가능하나, 비대면 교육의 경우 실시간으로 교육을 진행하여도 실시간 커플에 대해 실시간 피드백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다양한 방식의 소통(음성, 스케치북, 채팅) 시도** "비대면 진행시 소통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활용해보았습니다. 음소거 해제 후 실시간 대화의 경우는 잡음이 많이 들어가 어려움이 있었으며, 스케치북을 통한 소통은 표현이 자유롭고(글, 그림 등),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간단한 소통은 채팅창으로 진행하였으며 참여도도 좋았습니다"
온라인 교육환경	**■돌발상황 발생** "대면교육은 교육장소로 오기만 하면 체험 부스 안내나 워크북 배포, 교육 종료 시까지 착석 등이 무리 없이 이루어진 반면 비대면 교육은 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 안내, 워크북 우편발송, 교육 중 접속종료 등 실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많았음" **■커플의 교육 참여 장소가 달라 함께 참여하는 데 한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각자 다른 공간에서 듣는 커플이 있어 함께 참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비디오 사용 여부** "비대면 진행시 참여자들이 카메라를 켜야 상호작용이 원활함" **■오디오 연결 문제** "PC로 듣는 참여자들은 오디오 연결이 안 돼서 음성으로 대답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강사의 시스템 활용 능력** "시스템 활용을 강사도 잘 하였으면 좋겠다" **■시스템 기능 한계로 인한 참여자 확인의 어려움** "참여자 확인이 쉽지 않음.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사용자가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호스트 쪽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2) 아동기 부모교실 실무자 개방형 응답

(1) 전반적 내용

아동기 부모교실의 효과성이나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언급된 내용은 〈표 2-105〉와 같다. 우선, 교육내용 및 차시(주제)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 및 매뉴얼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차시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내용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기존의 매뉴얼 내용을

유지하되, 자치구별 재량을 발휘할 여지를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참여자의 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다양해서 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회기마다 다른 강사를 섭외하는 것보다 한 명의 강사가 여러 회기를 담당하여 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참여자의 집중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2-105> 아동기 부모교실 실무자조사 개방형 응답: 전반적 내용

	아동기 부모교실 개방형 응답 내용
교육내용 및 차시구성	**■수요가 높은 주제** "아동기 부모의 교육 수요가 높은 '자녀 성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법' 주제 구성으로 참여자들의 관심도가 높았음" **■교육내용의 시의성 강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만 시의성 있는 주제는 가급적 다루지 않거나 우회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함(성인지 교육 진행 시 논란이 되었던 책 소개)" "각 주제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 및 보완 필요. 특히 4차시인 맞춤형 교육과 같은 주제는 비대면 강의의 일상화와 같이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을 다뤄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6차시인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지도 내용은 코로나 상황에서 자녀와 갈등하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여 심도 있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 **■필수차시 운영 재고** "매 건 필수 차시(5차시) 운영으로 교육주제를 다양화하여 진행하기 어려움. 개선방안으로 전체 건수 중 필수로 1회 이상 포함 등으로 변경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함" **■자치구별 수정 가능성** "가족학교라는 매뉴얼 안에서 여러 자치구들이 동일한 교육을 제공함에서 오는 획일성 등이 앞으로 비대면 교육 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은 동의하나, 자치구별로 참여자의 입장에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게 어느 정도 범위의 강의 변형이나 추가구성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	"맞벌이 부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녁 시간대로 잡으면 퇴근시간과 저녁시간이 겹쳐 불편한 점이 생기고, 낮 시간대로 운영하면 맞벌이 부부의 참여가 어렵다. 또한 진행시간이 짧아도 길어도 다들 길게 느껴진다고 하신다" "진행시간 부분을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강사 관련	**■여러 회기를 한 명의 강사가 담당하여 교육 일관성 확보** "3회기를 한 분의 강사님으로 진행하여, 교육이 연속적이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2) 비대면 교육 관련 내용

아동기 부모교실을 2020년에 비대면으로 실시하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웠던 점이나 비대면 교육에 참고할 만한 점으로 언급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대면 교육방식의 경우, 쌍방향 실시간형과 온라인 탑재형 등을 혼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다시 보기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고려하여 강의녹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구체적인 질문이나 고민을 가진 참여자를 고려하여 컨설팅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비대면 교육 참여도 및 상호작용 관련해서는 온라인상의 상호작용은 대면교육에서의 상호작용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교육 시작 이전에 라포를 형성하거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등으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셋째,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한 응답도 많았다. 오디오 설정을 하지 못한 참여자가 음성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등의 돌발상황이 있었고, 실무자 입장에서 플랫폼 사용방법 안내의 어려움도 겪었다고 하였다.

넷째, 비대면 교육 참여자 모집 관련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아동기 부모교실은 초등학교 등 기관과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0년에는 기관연계가 어려웠고, 대면홍보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예외적으로 키트를 활용하여 신청인원이 계획된 예산보다 많았던 경우도 있었다. 다섯째, 비대면 교육 참여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접속만으로는 참여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 기념품 등 수료율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여섯째, 비대면 교육 강사 관련해서는 강사의 온라인 시스템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예비부부교실과 마찬가지로 언급되었다. 이외에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여러 회기를 한 명의 강사가 담당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온라인 탑재형 강의를 활용한 아동기 부모교실과 관련해서는 강의를 수강하도록 독려하기 어려움, 참여방법을 상세하기 안내하기 어려움, 플랫폼 개선이 필요함 등의 응답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실시간 온라인 강의의 시간대 문제, 만족도 조사 문항 수정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표 2-106〉과 같다.

<표 2-106> 아동기 부모교실 실무자조사 개방형 응답: 비대면 교육 관련

	아동기 부모교실 개방형 응답 내용
비대면 교육형식	**■운영방식 혼합이 적절** "사전제작 콘텐츠 3강, 실시간 강의 1강(학습), 실시간 컨설팅을 혼합하여 진행하였더니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참여자별로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음" **■강의녹화 필요** "자녀 성교육과 디지털기기 강의의 재수강을 원하는 분이 있어, 녹화강의의 필요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컨설팅 방식이 적절** "이번 기회를 통해 참여자가 직접 참여하는 '컨설팅' 형식의 강의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비대면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교육 참여도 및 상호작용	"참여자 개인별 참여 의지와 적극도에 따라 참여도의 차이가 큼" "대면 진행에 비해 모집된 참여자 특성에 따라 강의 분위기가 크게 좌우됨" **■온라인 상호작용의 한계** "생각보다 얼굴을 보이시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였고, 대면 교육에 비해 원활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음" "참여 교육을 할 경우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고 채팅으로만 소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참여 교육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비대면으로 실시하면서 참여자 간의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의 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줌의 방 나누기 기능을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전 라포형성 중요** "참여자들과 단톡방 등을 활용한 사전 라포형성이 잘 되어있으면 확실히 수업 집중도 및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음"
온라인 교육 환경	**■오디오 설정** "처음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한지라 사전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시간에는 음향조절에 시간이 소요됐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 피드백을 주신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음" **■플랫폼 사용방법 안내의 어려움** "부모연령이 높다보니 줌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음"
비대면 교육 참여자 모집	"비대면으로 처음 진행한 사업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인원모집이 수월하지 않았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으로의 진행이 늦춰져 아동기 및 청소년기 부모교실을 전부 하반기에 진행하게 되다 보니 참여자 모집이 어려움" **■기관연계 불가능** "코로나로 인해 학교 연계 불가" "연계기관도 코로나로 인한 휴관기관이어서, 참여자모집이 어려웠음" "코로나로 인해 아동 기관(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과의 연계가 어려워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대면 홍보 제한** "현재 대면홍보가 어려워 아쉬움이 남았음" **■예외: 예산제약으로 신청자를 모두 받지 못함** "모집 어려움은 없었으나 키트 예산이 정해져 있어 인원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아쉬웠음"

비대면 교육 참여자 관리	**■실질적 교육참여 여부 판단 어려움**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참가자분들의 출석의 유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접속은 하셨지만 비디오를 공유하시지 않으신 참가자분들이 계셔 강의를 듣고 계신지의 유무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노쇼(no-show)의 어려움** "사전 교육신청자 대비 당일 온라인 교육 참여인원 하락으로, 대상자 참여 독려를 위한 적극적 관리 유지의 어려움이 있었음" **■수료율 유지 전략 필요** "비대면 사업의 특성상 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 그에 보상할 수 있는 강화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수료기념품, 수료증 등)" "참여율을 독려하기 위한 강화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교육 강사	**■강사의 온라인 시스템 활용 능력 중요** "비대면 강의 진행시(특히 쌍방향의 경우) 강사의 비대면 프로그램 활용능력 및 능숙도가 강의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침. 이에 대해 강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자주 활용되는 시스코 웹엑스, 줌, 구르미 비즈와 같은 프로그램 등의 활용법에 관한 교육 개설 혹은 시센터 권고사항으로 내려주었으면 함" **■여러 회기를 한 명의 강사가 담당하여 연속성 확보** "비대면 강의 진행 시 현장보다 질의응답이 원활할 수 없어 강의가 끝난 후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을 수집했고, 강사님께 그날 전달한 후 다음 강의 시작 시간에 질문에 대한 응답을 드려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음. 확실히 비대면 강의에서는 한 강사님이 연달아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듦"
온라인 탑재형 비대면 교육 관련 의견	**■온라인 탑재형 강의수강 독려 어려움** "실시간 강의를 제시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수강기간이 주어진 녹화형 강의를 수강하도록 독려하는 것 역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참여자의 연령대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방법 안내의 어려움** "제작 콘텐츠 활용 시 플랫폼의 접근성이 낮아(별도 가입이 필요하고, 강의 수강까지 접속단계가 있는 점) 신청 후 수강안내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웠음" **■온라인 탑재형 플랫폼 개선** "재생하셨으나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 반복적으로 요청해야하는 부분이 생겨 이수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교육포털 재생율 관련 에러가 보완된다면 너무나 좋은 교육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콘텐츠가 활용하기 좋게 잘 제작되었으나, 사전 콘텐츠를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의 단점이 많아, 수강자들의 수료를 독려하기 어려운 점"
기타	"저학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오전시간에 자녀의 온라인 학습시간과 겹쳐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음" "비대면 상황에서 강의가 아무리 좋더라도 전부 5점을 주는 참여자는 매우 찾아보기가 드물다. 그만큼 비대면 상황에 맞는 만족도 검사 문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제3부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Ⅰ 가족상담지원사업 현황

Ⅱ 가족상담지원사업 정량적 효과성

Ⅲ 가족상담지원사업 정성적 효과성

PART I

가족상담지원사업 현황

1.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내용

2.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자격기준

3.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실적

I. 가족상담지원사업 현황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가족상담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는 〈표 3-1〉에 나타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 변화 및 가족해체 현상에 대한 예방 · 대응책이 요구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문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가족갈등을 해결, 부부 · 가족의 성장 및 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

<표 3-1>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근거

구 분	내 용
추진배경	■가족갈등 초기에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홍보 증가로 인해 상담에 대한 관심 및 요구도가 증가함 ■서울시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대기 및 지체의 정도가 높음 ■부부·가족의 성장을 돕고, 가족 간 소통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상담지원이 필요
추진근거	■건강가정기본법 -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조례 - 제11조 설치 및 기능(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정문제상담 전개) ■건강가정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가족상담 영역, 공통사업)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매년 사업계획(가족상담 특화사업)

출처: 최연실 외(2019). 2019 서울가족사업 활성화 연구보고서 I: 서울지역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내용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은 2016년 이후 서울시 자치구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확대되었으며, 사업의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존 가족상담사업을 보강하는 것이다. 자세한 운영 내용은 〈표 3-2〉에 나타나 있다. 특별히 2인 이상이 3회기 이상 참여하는 가족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며, 가족문제를 겪는 내담자에게 가족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주간상담 뿐 아니라, 야간상담(의무)과 주말상담(권장)의 활성화를 통해 내담자의 상담시간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부부, 가족 문제 영역에서 가족상담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증명되어 왔다. 아동의 경우,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례에서 부모훈련을 중심으로 한 가족치료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며(Chamberlain & Rosicky, 1995; Kazdin & Weisz, 1998), 청소년 비행, 약물남용, 문제행동 등에는 기능적 가족치료(functional family therapy)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urtis, Ronan, & Borduin, 2004; Sexton & Turner, 2010). 이러한 가족중심 접근이 아동기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개인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고 드러났다(McCart, Priester, Davis, & Azen, 2006). 아동문제 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가족치료(부부치료)의 개입이 효과적이다. 우울증의 경우에도 부부치료개입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Barbato & D'Avanzo, 2008; Whisman, Johnson, Be, & Li, 2012), 최근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심리교육을 바탕으로 한 가족치료가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와 같은 중증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Lobban et al., 2013).

이와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족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2인 이상이 3회기 이상 참여하는 규정을 둠으로 가족중심의 개입을 장려하는 것은 가족상담의 효과성 향상과 직결되는 본질적인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중심 개입을 장려하는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 동등하게 연간 800만원을 지원한다.

<표 3-2>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운영 내용

구 분				내 용
수행기관				자치구 25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가족(부부, 한부모)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 프로그램, 슈퍼비전 등
예산[1]				2019년 총 201,500,000원 (자치구센터당 약 800만원) 2020년 총 112,000,000원 (자치구센터당 448만원)
사업 운영 방식				■상담회기 : 5회기 ~ 15회기(부부 및 가족구성원 2인 이상 3회기 이상 참여) ■상담사 사례비 : 부부·가족상담 1만 원 ~ 1만 5천 원(회기 당) 찾아가는 상담 교통비 5천 원 ■상담운영 시간 : 주·야간(의무), 주말(권장) 상담 운영 ■자치구 특화상담 : 자치구 특성에 맞는 가족문제 해결, 관계 향상을 위한 상담(면접상담, 집단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면접 상담	2인 이상의 부부 및 가족상담	■부부 및 가족문제 해결, 관계 향상을 위한 면접상담 ■부부 및 가족구성원 2인 이상이 3회기 이상 반드시 참석 ■부부 및 가족상담(재혼가족 포함) 내담자의 상담시간 편의성 제공
		집단 상담 (선택)	전문 상담사의 집단상담	■가족 갈등이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전체 3회기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부부 및 가족구성원 2인 이상 집단이 3회기 이상 반드시 참석 ■예)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부부자조집단상담예) 이혼위기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슈퍼비전	전문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진행		■자치구별 슈퍼비전 실시(권역별 연계 실시 가능)
기대효과				■갈등해결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 및 건강성 회복 ■가족상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출처: 최연실 외(2019). 2019 서울가족사업 활성화 연구보고서 I: 서울지역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 출처: 각년도 가족상담지원사업 계획보고

2.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자격기준

가족상담의 효과성을 위해서 상담사 자격기준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상담사 자격기준은 2018년에 개정되었다. 2018년 개정된 상담사 자격기준은 〈표 3-3〉에 나타나 있다. 이는 실제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가족상담 매뉴얼[8](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에 나타나 있는 자격기준으로 가족상담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인력의 질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자격기준에도 나타나 있듯이, 가족상담사는 가족상담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고, 관련 학회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족상담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격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가족상담사가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표 3-3>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자격기준

구 분		내 용
2018년 기준	가족상담 전문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1.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2.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
	전공학과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학부): (아동)가족학과, 가족복지학과, 심리학과 등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 (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가족상담 관련 전문 학회 기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 1)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3)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간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 명시) 4) 사단법인

출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20). 2020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지침.

8) 가족상담 매뉴얼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의 방향을 공유할 필요, 위기상황 인력관리 등 다양한 상담관련 업무에 매뉴얼의 필요 요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가족상담 매뉴얼에는 가족상담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한 가족상담 운영규정, 가족상담 인력관리, 상담실 운영, 실적관리와 가족상담 서비스 관리를 위한 가족상담 업무수행 절차, 가족상담 수행 시 고려사항, 가족상담 유형별 고려사항, 상담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 서식의 단계별 사용 시기 및 방법 등 가족상담과 관련된 전반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표 3-4〉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사의 인건비이다. 각 센터에서 상담사에게 주어지는 사례비는 최저 무료상담(자원봉사)에서 최고 3만원까지로 나타났다. 가족상담지원사업의 경우 최저 주간 1만원에서 야간 1만 2천원, 최고 주간 1만 7천원에서 야간 1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3-4>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사 인건비

(단위: 원)

구 분	주간			야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기본사업비 상담사업	0	30,000	9,663	0	30,000	10,273
가족상담 지원사업	10,000	17,000	14,757	12,000	19,000	16,193

출처: 최연실 외(2019). 2019 서울가족사업 활성화 연구보고서 I: 서울지역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3.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실적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2018년, 2019년 연차별 운영실적은 〈표 3-5〉에 나타나 있다. 이는 2014년에 777가족(8,211명), 2015년에 1,296가족(11,048명), 2016년에 2,484가족(14,339명), 2017년에 1,785가족(17,901명)이 참여하였음을 고려해 볼 때(최연실 외, 2019),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2020년도의 운영실적은 아직 최종적으로 집계되지 않았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체 센터에서 장기간 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0년 9월 말 기준 집계를 보면 운영 실적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표 3-6〉, 〈표 3-7〉 참조). 여러 자치구센터에서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므로, 비대면상담의 증가 추세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3-5>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실적 (2018-2019년)

구분	2018	2019
회기수	10,465	11,837
사례수(가족수)	1,544	1,780
실인원	3,062	3,591
연인원	19,278	21,621

*실인원: 해당 상담사례에 한 회기라도 참여한 인원의 합 (상담사례별 인원의 합, 실제 인원)
*연인원: 상담회기별 참여인원의 합(누적 인원)
출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20). 2020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지침.

<표 3-6> 코로나로 인한 서울지역 자치구센터 휴관조치 현황

휴관조치 운영재개	기간	비고
1차 휴관조치	2020.2.25. ~ 3.9.	2주 휴관
2차 휴관조치	2020.3.10. ~ 3.22.	2주 연장
3차 휴관조치	2020.3.23. ~ 4.5.	2주 연장
4차 휴관조치	2020.4.6. ~ 5.6.	약 4주 연장
1차 운영재개	2020.5.7.	생활 속 거리두기 하에 단계적 운영재개

5차 휴관조치	2020.5.29. ~ 6.14.	2주(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6차 휴관조치	2020.6.15. ~ 7.19.	약 5주 연장(수도권 방역강화 연장)
2차 운영재개	2020.7.2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 단계적 운영재개
7차 휴관조치	2020.8.16. ~ 8.29.	2주(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차 휴관연장	2020.8.30. ~ 10.11.	7주 연장(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3차 운영재개	2020.10.12.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격하

<표 3-7>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실적 (2020년 9월말 기준)

	실가족	실인원	실시횟수	연인원
면접상담	564	1,174	2,871	5,074
집단상담	39	79	21	190
누계	603	1,253	2,892	5,264

II
PART

가족상담지원사업 정량적 효과성

1. 내담자 상담 전-후 설문조사

2. 상담사 설문조사

II. 가족상담지원사업 정량적 효과성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정량적 방법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내담자와 상담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지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그림 3-1〉과 〈그림 3-2〉에 나타나 있다. 평가도구 사용의 일관성을 위하여 부부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화상담 내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3-1> 가족상담지원사업 정량적 효과성 설문지 구성

단계	사전조사(Pre-Testing)	사후조사(Post-Testing)	상담 특성 조사
조사시점	상담 첫 회기	상담 종결 직후	
조사대상	내담자 부부(자발적 참여)	내담자 부부(자발적 참여)	상담사
문항 구성	- 개인 및 커플 특성 - 사례 특성 (상담사유, 문제 심각성, 상담에 대한 기대도 등) - 대면/비대면 상담 여부 - 효과성 지표: 사전, 사후 동일 문항 - 사전-사후 매칭	- 상담의 주관적 효과 (문제의 현상태, 상담 후 변화 정도 등) - 상담 만족도 - 효과성 지표: 사전, 사후 동일 문항 - 사전-사후 매칭 - 내담자-상담사 매칭 (자치구, 상담 종결일)	- 사례 특성 (총 회기수, 부부 회기수 등) - 상담사 특성 (자격증, 슈퍼비전, 전공, 최종 학위, 경력 등) - 내담자-상담사 매칭 (자치구, 상담 종결일)

<그림 3-2> 가족상담지원사업 온라인 설문지 화면 예시

1. 내담자 상담 전-후 설문조사

1) 연구절차 및 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상담(특화상담)을 받기 원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물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내담자에게 사전조사 및 사후조사의 설문 링크를 보내는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문항들에 응답하기 앞서 연구설명문 및 동의서를 포함하였으며, 동의할 경우에만 문항들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부부관계 및 심리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결혼만족도, 부정적 상호작용, 우울, 부부의사소통, 결혼불안정성 척도이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동일한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각 척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결혼만족도

부부내담자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chumm 등(1986)의 결혼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귀하는 남편(아내)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고, 사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2) 부정적 상호작용

부정적 상호작용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tanley 등(2004)의 부정적 상호작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 험담하며 과거에 받은 상처를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아내)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남편(아내)은 내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등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상호작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고, 사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0로 나타났다.

(3) 우울

연구참여자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Kessler 등(2002)의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등의 여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1점)'에서 '항상 그랬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고, 사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4) 부부의사소통

부부의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ienvenu(1970)의 부부 의사소통 척도를 사용하였다. '배우자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다',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나와 배우자는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한다' 등의 15문항을 사용하였고,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였다.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역코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의사소통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고, 사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5) 결혼불안정성

결혼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ooth 등(1983)의 결혼불안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귀하는 귀하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십니까?',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십니까?' 등의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62로 나타났고, 사후검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

사전조사에는 총 11개의 센터에서 35명의 내담자가 참여하였고, 사후조사까지 완료한 연구참여자는 총 5개의 센터에서 10명이었다. 수집된 10명의 자료 중 1명의 자료는 불성실 응답으로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내담자 9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문제의 상태, 상담 참여의 경위, 상담에 대한 기대, 상담을 찾게 된 배우자와의 문제에 대한 정보는 〈표 3-8〉에 나타나 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상담이 33.3%였으며, 대면으로 이루어진 상담이 55.6%,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혼용 상담이 11.1%였다.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려는 주요 문제의 상태는 대부분(88.9%) 조금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상담에 찾아오게 된 경위로는 44.4%가 스스로 결정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4.4%는 배우자의 권유라고 응답하였고, 11.1%는 주변 권유라고 응답하였다. 88.9%의 참여자가 상담을 받고 난 후에 약간 혹은 매우 좋은 상태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11.1%는 상담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3-8> 가족상담지원사업 사전-사후조사 응답자의 상담 관련 특성 (*N* = 9)

변인	구분	명(%)
귀하가 참여한 상담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습니까?	비대면(온라인)	3(33.3)
	대면(오프라인)	5(55.6)
	대면, 비대면 혼용(오프라인+온라인)	1(11.1)
귀하가 상담을 받으려는 주요 문제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통	1(11.1)
	조금 심각하다	8(88.9)
	매우 심각하다	-
	잘 모르겠다	-

귀하가 상담에 찾아오시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결정함	4(44.4)
	배우자의 권유	4(44.4)
	주변 권유	1(11.1)
	다른 기관에서 권유	-
상담을 받고 난 후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다	-
	약간 좋은 상태가 될 것 같다	5(55.6)
	매우 좋은 상태가 될 것 같다	3(33.3)
	잘 모르겠다	1(11.1)
상담을 찾게 된 배우자와의 문제(중복응답 가능)	일상생활(습관) 차이 갈등	5(55.6)
	의사소통 문제	5(55.6)
	성격 차이	6(66.7)
	가치관 차이	6(66.7)
	종교갈등	-
	별거	-
	재혼	-
	배우자 외도	1(11.1)
	본인 외도	-
	배우자 의심	-
	배우자 폭력	4(44.4)
	중독	-
	가출/행방불명	1(11.1)
	법률문제	-
	경제문제	4(44.4)
	부부성생활	2(22.2)
	출산/낙태/난임/입양	-
	기타	1(11.1)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3-9〉에 나타나 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자면, 여성 6명, 남성 3명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6.67세(SD = 9.58, 최솟값 = 30, 최댓값 = 55)로 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6년(SD = 4.66, 최솟값 = 2, 최댓값 = 17)으로 나타났으며, 66.6%가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9> 가족상담지원사업 사전-사후조사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9)

변인	구분	명(%)
성별	여성	6(66.7)
	남성	3(33.3)
연령(세) M = 36.67; SD = 9.58	최소값	30
	최대값	55
결혼지속기간(년)	M(SD)	6(4.66)
	최소값	2
	최대값	17
자녀유무	없음	3(33.3)
	있음	6(66.7)
자녀수	0명	3(33.3)
	1명	3(33.3)
	2명	1(11.1)
	3명	2(22.2)

변인	구분	명(%)
월평균 소득(지난 1년)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2(22.2)
	200-300만원 미만	5(55.6)
	300-400만원 미만	-
	400-500만원 미만	-
	500-600만원 미만	1(11.1)
	600-700만원 미만	-
	700-800만원 미만	-
	800-900만원 미만	-
	900-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1(11.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연구에 사용된 각 척도(결혼만족도, 부정적 상호작용, 우울, 부부의사소통, 결혼불안정성)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점수 총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3-10〉에 나타나 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결혼만족도의 경우 사전조사 점수보다 상담 후 진행된 사후조사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결혼불안정성의 점수는 사전조사 때보다 사후조사 때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하여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추후에 더 많은 응답자를 확보하여 통계적 검증이 필요하다.

<표 3-10> 가족상담지원사업 사전-사후 점수 총점의 평균 및 표준편차 (N = 9)

효과성 지표	사전점수(총점) $M(SD)$	사후점수(총점) $M(SD)$
결혼만족도	8.78(3.35)	9.00(4.42)
부정적상호작용	16.33(5.39)	16.56(4.77)
우울	18.11(6.66)	16.89(5.04)
부부의사소통	45.00(11.31)	43.89(11.81)
결혼불안정성	15.33(2.92)	12.67(3.87)

내담자의 상담 후 상태 및 만족도와 관련된 결과는 〈표 3-11〉에 나타나 있다. 상담을 받기 전 보다 나아졌다 혹은 약간 나아졌다고 응답한 내담자는 66.6%로 나타났고, 상담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매우 혹은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한 내담자는 55.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받은 상담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 내담자는 66.6%로 나타났다.

<표 3-11> 가족상담지원사업 사전-사후 응답자의 상담 후 상태 및 만족도 (*N* = 9)

변인	구분	명(%)
귀하가 상담을 받으신 문제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담을 받기 전보다 나아졌다	3(33.3)
	상담을 받기 전보다 약간 나아졌다	3(33.3)
	상담을 받기 전과 비슷하다	3(33.3)
	상담을 받기 전보다 약간 나빠졌다	-
	상담을 받기 전보다 나빠졌다	-
상담기간 동안 귀하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3(33.3)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2(22.2)
	변화가 없다	2(22.2)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1(11.1)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1(11.1)
귀하는 이번에 받으신 상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11.1)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2(22.2)
	만족한다	2(22.2)
		4(44.4)

2. 상담사 설문조사

1) 연구절차 및 방법

상담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상담사의 변인도 있으므로(Sprenkle, 2002) 상담사의 특징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 희망하는 내담자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담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동의하는 경우 참여하였다. 상담이 종결된 후 1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상담사 설문조사는 자격증 소지 여부, 학회활동 여부, 상담경력, 최종학위 등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결과

총 5개의 센터에서 10명의 상담사가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가 상담사로 활동한 경력은 평균 6년 8개월로 나타났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한 경력은 평균 5년 8개월로 나타났다. 이 상담사들이 지금까지 부부 및 가족상담(2인 이상)을 진행한 사례 수는 평균 78.20 사례(*SD* = 84.10, 최솟값 = 2, 최댓값 = 300)로 나타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한 부부 및 가족상담은 평균 75.00 사례(*SD* = 84.13, 최솟값 = 5, 최댓값 = 300, 결측값 = 1)로 나타났다. 상담사의 최종학위는 10명 모두 석사로 나타났다.

상담사에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표 3-12〉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상담사들이

1급 혹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활동하는 학회로는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이었다.

<표 3-12> 가족상담지원사업 설문조사 응답 상담사 특성 (*N*= 10)

구분		명(%)
상담 관련 자격증 유무	자격증 없음	-
	2급 자격증	8(80)
	1급 전문가 자격증	2(20)
상담사 자격증 취득 학회(1급)[1]	한국가족치료학회	-
	한국가족관계학회	-
	한국상담학회	1(10)
	한국상담심리학회	0(0)
	기타[2]	2(20)

구분		명(%)
상담사 자격증 취득 학회(2급)[1]	한국가족치료학회	1(10)
	한국가족관계학회	2(20)
	한국상담학회	3(30)
	한국상담심리학회	1(10)
	기타[3]	1(10)
주요 활동 학회[1]	한국가족치료학회	2(20)
	한국가족관계학회	1(10)
	한국상담학회	7(70)
	한국상담심리학회	3(30)
	기타[4]	2(20)

1) 복수응답 가능
2) 1급 상담사 자격증 취득 기타 학회: 국제이마고부부치료사, 한국기독교NLP협회
3) 2급 상담사 자격증 취득 기타 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4) 주요 활동 기타학회: 한국가족상담협회 한국부부가족연구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PART III

가족상담지원사업 정성적 효과성

1. 내담자 관점 효과성

2. 상담사 관점 효과성

1. 내담자 관점 효과성

1) 연구절차 및 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특화상담으로 부부상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내담자 중 면접에 참여하는데 동의하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다. 내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집단면접이 아닌 1:1 면접으로 진행되었고, 부부상담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면접에 참여하기 원하는 경우 부부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대면면접, 온라인면접, 전화면접 중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었다.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약 30분~50분 동안 진행되었다. 반구조화 면접은 면접자가 면접에서 진행될 질문을 미리 준비하나, 엄격하게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구조화된 면접에서 벗어나, 피면접자에게 대답을 하면서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응답을 이끌어 낸다(Longhurst, 2003). 질문을 통해서 주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엄격한 구조화에서 벗어나 피면접자로 하여금 좀 더 다채롭게 주제를 탐색하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문헌고찰과 연구회의를 통하여 면접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였고, 반구조화 면접에서 사용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에서 효과적이었던 면(주 호소문제가 해결된 이유), ② 상담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던 치료기법과 치료자의 태도(상담사 변인), ③ 이런 점이 있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 내담자 면접에 참여한 내담자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3-13>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면접 참여자 특성

	성별	연령	상담 받은 시기	회기수	주 호소문제	비고
1	남	42	2020년 6월 경 ~ 8월 경	5	아내의 잦은 화 표출	종결 후 면접
2	남	33	2020년 초 ~ 6월 경(코로나로 인해 중간에 휴관)	10	임신 관련 스트레스, 대화방식	종결 후 면접

3	남	40	2020년 6월 경 ~ 현재 (코로나로 인해 중단)	4	잦은 다툼, 사이가 안 좋음, 가치관 차이	사례 진행 중, 4의 남편
4	여	35				사례 진행 중, 3의 아내
5	남	41	2020년 6월 경 ~ 현재 (코로나로 인해 중단)	8	성격 차이, 잦은 다툼	사례 진행 중

면접 전에 연구참여 동의서 및 정보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면접진행은 공동연구원 1인이 담당하였다. 면접내용은 녹음되었으며, 전사본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전사본은 중심주제 분석법의 6단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주제 분석법은 면접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1단계에서 먼저 연구자가 면접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단계에서 면접 자료를 토대로 초기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초기 코딩 작업에서는 의미 단위의 내용들을 탐색하였다. 3단계에서는 초기 코딩 작업에서 도출된 내용 중 유사한 내용은 하나로 묶어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주제가 다른 주제와 체계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주제에 벗어나는 내용 없다는 것을 검증한 뒤 연결되는 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명명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 6단계에서는 도출된 범주를 통합해서 기술하는 서술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연구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지원사업을 이용한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의 내용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4>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면접 주요 결과

주제	내용
(1) 가족상담의 효과성	■ 모든 내담자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 상담 통해 주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 - 상담 이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됨 - 효과적인 변화라고 느꼈던 게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해결해야 할 점들을 배우고 나니 상담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시작하는 느낌이 듦
(2) 효과성의 구체적 내용	■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점 - 관점이 변함 - 배우자를 더욱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김: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됨 - 상담에서 부부 양쪽 입장이 다 다뤄지면서 배우자를 더욱 이해하게 됨 ■ 배우자와의 차이 등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 - 심리검사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차이를 이해함 ■ 모르던 것 혹은 못 하던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 - 공감하는 방법을 배움 - 대화하는 기술을 배움 -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됨 -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표현하는 법을 배움 - 과제가 도움이 됨 ■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 ■ 상담에 오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도움이 됨 ■ 상담매뉴얼이 있다면 그 절차를 잘 따르면 효과적일 듯
(3) 효과적인 상담에서 상담사 요인	■ 공감해 주는 상담사: 공감을 통해 위로를 얻음 - 상담사의 경청이 매우 중요 - 참견식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 - 내담자가 어떤지 분석해주는 것보다 공감하는 상담사 ■ 상담사가 솔직하게 부부모습에 대해 알려주는 것 - 상담사의 직언이 터닝포인트가 됨 ■ 깨달음을 주는 상담사 -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끄집어내주는 역할 - 임팩트 있는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것 중요: 깨달음을 적게 주는 상담은 효과적이지 않음 ■상담사와 핏이 매우 중요: 원하던 스타일의 상담사를 만나 만족스러웠음

(4) 아쉬웠던 부분	■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음 -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거라 생각(집단상담):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 보고 싶었음 ■ 주 호소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더 효과적 ■ 상담사 주도의 활동은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음 - 맞지 않는 대화법을 배운 것은 효과적이지 않았음: 효과적이지 않은 배움은 삶에 적용하지 않게 됨 - 마인드컨트롤에 대해 배운 건 효과적이지 않음
(5)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관련 피드백	■ 회기수 관련하여 보통 10회기 치료계획으로 시작.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나옴 - 10회기는 부족함: 끝나고 불안해서 사설상담 이용. 상담 후 자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해 상실감 생김 - 10회기 적정하나 상담시간이 50분인 것은 너무 짧음 - 10회기가 길다고 느껴짐: 짧아도 임팩트가 있으면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만 10회기를 하는 건 김. 회기수보다는 내용이 중요 - 10회기 무료라는 게 부담 없이 상담갈 수 있는 마음의 편안함을 제공 ■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 쉽게 다가갈 수 있음: 사설센터는 부담스러움 -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매우 고마움 ■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이 가능해서 만족 ■ 물리적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주차 안 됨, 냉방 약함, 외진 곳, 교통 불편),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환경보다 상담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음. 공공기관이라 기대 높지 않음 ■ 상담의 효과성 향상하기 위해 센터에 바라는 점 -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음: 온라인상담 더 활용 가능 - 잘 맞는 상담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므로, 선택권이 있으면 좋겠음 - 주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직장인들은 스케줄 맞추기 힘든 측면이 있음 - 추가적으로 상담이 더 가능한 시스템 필요 - 자원봉사자 상담사보다 센터에 소속된 분이 상담을 하셔야 내담자가 더 안정을 느낄 수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담 후에도 필요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음

다음에서는 내담자 면접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상담의 효과성(상담이 효과적이었는가?)

모든 내담자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은 가족상담이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내담자들이 전반적으로 상담을 통해 주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였으며, 상담 이후에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경험한 효과적인 변화는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해결해야 할 점들을 배우고 나니 상담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시작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덜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비슷한, 서로 조금 조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내담자 4)

> 일단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둘다. 예전 같으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만이 증폭되었다면은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요. (내담자 2)

> 효과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게 상담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숙제같은 거를 내주셨다고 해야하나? (내담자 2)

(2) 효과성의 구체적 내용

우선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은 자신들의 생각 및 관점이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배우자를 더욱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상담에서 나만의 혹은 배우자만의 입장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입장을 다루다 보니 배우자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더욱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모르는 것이나 못 하던 것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공감하는 방법, 대화를 나누는 방법,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이며, 상담에 오면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매뉴얼이 있다면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도 상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음... 그러니까 저랑 와이프랑 말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어요. 와이프는 공감과 이해를 원했고 저는 정보전달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해결방법을 딱 알아갔다기 보다는, 아 이렇게 해야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점을 이제 알았고... (내담자 2)

> 항상 상담 말미에는 저희한테 뭘 제시해 줬었어요. 뭐 이번 한주동안은 어떻게 해주세요. 와이프한테 좋은 말만 해주세요. 와이프의 장점 10가지만 적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서로 소원하고 잊었던 것을 서로서로 생각하게 만드는 숙제들을 내주셔서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내담자 2)

> 열심히 얘기 들어주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제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와이프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내담자 1)

대화 기술을 많이 좀 배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와이프가 이런 일 때문에 많이 화가 났었어요 하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00씨라면 어떻게 앞으로 얘기를 해야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못했던 답변들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 저는 그 전에는 진짜? 나도 힘들어라고 저도 힘들단 식으로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와이프가 힘들어 이러면 제가 아 그랬구나 우리 00이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방식이 제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죠. (내담자 2)

남편이 MBTI를 처음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유형이 아닌 거예요. 아니어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담자 4)

그냥 주관적으로 "당신 둘은 서로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심리검사 자료)를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담자 3)

어렸을 때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힘들었던 장면을 생각하는 거였나.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는 참 살아온 환경이 다름을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다르게 살아왔는데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똑같겠냐 그런 거를 약간 깨달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담자 4)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런 거를 제 자신이 파악할 수 있게끔 상담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위에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좋게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호전이 되었죠. (내담자 5)

뭐 그냥 그런 매뉴얼 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절차와 매뉴얼을 따라가면은 다 효과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담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을 수 있을텐데. 매뉴얼을 따라가면은 일단은 약간은 효과적이지 않은가. (내담자 5)

(3) 효과적인 상담에서 상담사 요인

내담자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상담사의 태도 및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상담사의 공감이라고 볼 수 있다.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면서 참견식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감을 받으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기본태도로 공감이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지만, 상담개입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부부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상담사가 부드럽게 직언을 해준 것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깨달음을 주는 상담사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끄집어내주고, 강렬한 효과가 있는 말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상담사와 내담자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핏(fit)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원하던 스타일의 상담사를 만나게 되면 상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얘기하는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하고 했는데, 좀 그런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경청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기 쉬웠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니까 들어주는 거... 섣불리 저희한테, 저희 와이프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참견하지 않는 것도 좋았구요. (내담자 2)

그러니까 저희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에 보면은 저희 부부관계에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려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고 "아 그랬군요." 이러고 개입이라고 하기보다는 들어주려고 하시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담자 2)

와이프 말로는 상담사분이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남편은 와이프 분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게 조금 생각하는, 뭐 이제 자기 생각의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내담자 1)

딱 들으면은 저의 어리석음을 딱 깨우쳐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깨닫게 되면서 뭔가 눈물도 나고 저절로 '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조금 시원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내담자 4)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딱 얘기해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내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그런 거 자체에서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내담자 5)

(4) 아쉬웠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었겠다 싶은 주제에 대해서는, 내담자들이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경우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담 초기에 어린 시절 탐색을 한다거나 심리검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 정작 다뤄야하는 주 호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점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내담자에게 잘 맞지 않는 활동을 상담사 주도로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리서치 같은 거에 대해 대답해가지고 뭐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마인드컨트롤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배우긴 했지만 그게 어떤 요인으로 해가지고 와이프가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내담자 1)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해야겠지만 저희 둘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좀 그런 것도 했으면 우리는 이런 게 문제인데, 저 사람들은 저런 게 문제일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요. 굳이 같은 센터가 아니더라도 시설끼리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내담자 2)

스승님은 미국에서 배우셨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거의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똑같이. "아 그랬구나"하면서 그렇게 따라 하는 그런 대화법이었어요. 그런 거를 2회차 정도 했어요.... 좀 약간 어색하고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아 그랬구나. 자기는 뭐 때문에 그랬구나" 뭐 이렇게 하니까 잘 쓰는 말투도 아니고 하니까. 좀 웃기고 약간. (내담자 4)

지금 현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가 안되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싸우나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어떤 점에서 갈등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 얘기라던지 그런 성격분석이라던지 그런 것도 좋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싸우니까 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풀어내는 시간이 아직까진 없었던 것 같아요. (내담자 4)

(5)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 관련 피드백

내담자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에 대부분 만족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회기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보통 10회기 정도를 계획하고 시작하였는데, 10회기가 부족하다고 한 내담자도 있었고, 적정하다고 한 내담자도 있었고, 오히려 길다고 느끼는 내담자도 있었다.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것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히 상담에 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사설센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곳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가족상담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하였다. 물리적인 환경은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환경보다는 상담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상담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센터에 바라는 점으로는 대기시간 단축, 온라인 상담 활용, 상담사에 대한 선택권, 추가적인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센터 소속의 상담사가 상담하는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세터에 가족상담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 상담 끝나고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원하는 시간대에 상담이 가능한 것은 매우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고 하였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회사생활 하니까 그 시간에 계속 개인적인 입장을 얘기하면은, 시간을 계속 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상담 시간은 짧아요. (내담자 5)

네네. 그리고 사설을 가게 되도 사실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설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다가가기가. (내담자 5)

조용하게 저희만 단독으로 상담할 수 있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상담해서 집중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내담자 1)

와이프랑 상담 끝나고 사설 상담도 받아보기도 하고 왜냐면 조금 불안한 거예요. 상담하거나 얘기할 공간이 없을까봐. 그래서 사설 상담도 이용하기도 했었고 저 같은 입장에서도 상담할 때는 제가 와이프한테 어떻게 말해야하고 이런걸 잘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내담자 2)

저는 좀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는 대기시간이 두 세달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두달 세달이라는 시간은 사실 너무 길어요... 그리고 지금 상담을 많이 알아보면서 알게된 건데 굳이 대면상담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앱이라던가 줌이라던가 이런 채팅 상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거리적 제약도 없어지고. (내담자 2)

10번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하고 조금 안 맞는 상담사인 것 같은데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낭비, 시간낭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담사를 어차피 랜덤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선택권이라던지 아니면 조금 더 다양하게 상담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하고. (내담자 3)

보통 요새는 맞벌이 많이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맞벌이인데 주간이 좀 더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담자 4)

그 상담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봉사활동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봉사활동으로 운영하시니까 무료로 가능한건지. 그냥 뭐 제안할거라기보다는 좀 전문적이시긴 한데 약간 소속감이 좀 일 자체에 대해서는 프로신데 센터에 소속된 분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센터에 소속된 분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안정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내담자 4)

저희가 사실 어디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지만 마음이 아플 때 잘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세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담자 3)

다행이 전화해봤을 때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데였습니다. 저희가 시간대가 맞은거죠. 다른 시간은 다 차있었거든요. (내담자 1)

2. 상담사 관점 효과성

1) 연구절차 및 방법

서울지역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사 중 가족상담지원사업을 경험했던 상담사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수요자인 내담자를 직접 만나는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으로, 가족상담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얻고자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은 특정 주제, 경험, 현상 등에 대하여 소규모 그룹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자료를 얻는 질적연구방법이다(Basch, 1987).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상담경력이 본 연구의 주제를 논의하기에 충분한 상담사 중 자발적으로 면접참여에 동의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담사 초점집단면접 역시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되었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초점집단면접은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각 면접에 참여자 5인, 공동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이 참여하여 총 10명의 상담사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면접 전에 연구참여동의서 및 정보처리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면접진행은 공동연구원 1인이 담당하였다. 문헌고찰과 연구회의를 통하여 초점집단면접의 질문 내용을 사전에 작성하였고, 본 초점집단면접에서 면접에서는 사용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효과적인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 ② 가족상담지원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효과적인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 ③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더 효과적인 가족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④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센터, 서울시 차원으로 더 필요한 노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울시의 가족상담사업은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지.

초점집단면접의 모든 내용은 Zoom을 통하여 녹화되었으며 현장에서 면접내용을 연구보조원이 요약, 정리하였고, 녹화된 자료로 전사본을 작성하였다. 자료분석은 내담자 면접자료 분석과 마찬가지로 중심주제 분석법을 사용하였다(Braun & Clarke, 2006).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센터에서 활동하는 상담사 가운데 활동 기관의 상담사업 특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면접에 동의한 상담사 10인이 선정되었고 상담사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15>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FGI 참여자 특성

FGI 팀	ID	건가센터 상담경력	상담경력	주로 활동하는 학회	자격증 소지 여부
1	1	5년	7년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학회	미술치료 자격증
	2	5년	9년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
	3	3년	6년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없음
	4	2년	4년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없음
	5	4년	4년	한국상담학회	없음
2	6	4년	4년	한국상담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
	7	6년	15년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2급, 한국상담학회 2급
	8	3년	8년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9	3년	7년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
	10	6년	6년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 2급

2) 연구결과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10명의 가족상담사들은 총 8개의 센터에서 상담한 경험이 있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표 3-16>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FGI 주요 결과

주제	내용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의 효과성	■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효과성 정도와 관련하여 1~10까지에서 7~10점의 점수를 주었음 ■ 어떤 면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 가족체계론적 관점으로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담의 효과성과 직결됨: 가족문제를 개인의 관점으로 다루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음 - 전문성을 가진 가족상담사가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명감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함 - 특화사업에 부부 및 가족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회기수 규정은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큰 장점 ■ 가족상담 전문성 강화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이 다른 복지관이나 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임(가족을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이 가족상담 효과성에 중요)
(2) 효과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상담사업 운영 시스템 필요	■ 편의상의 상담사-내담자 매칭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매칭시스템 정립 필요 - 상담사를 오픈하고 전문성에 따라서 상담사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구축되면 상담 효과성 더 높일 수 있음 ■ 행정 처리의 정확성 필요 - 월 단위로 하는 행정처리 때문에 내담자 사례 관리가 잘 안될 때가 있음(예: 한 사례를 중간에 나누어 처리) - 상담 전후의 변화를 보아야 하기에 행정처리의 연속성 중요 ■ 내담자로부터 피드백 받는 시스템 체계적으로 운영 필요 - 사후피드백 뿐 아니라 추후피드백도 필요(1~2개월 후) - 익명의 피드백 제공 가능한 시스템 필요 ■ 내담자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 있음 - 내담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 필요(예: 예약확인 문자 등) -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 확장 필요: 특히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에서 필요 ■ 비대면 서비스 체계적 구축 필요 - 비대면 상담에 대한 매뉴얼 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면, 전화, 온라인상담 파트 필요: 각 유형별 시스템 및 운영방법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내담자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융통성 있는 스케쥴, 짧은 대기시간)이 되면,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상담사의 안전 위해 CCTV, 비상벨 확보 필요: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 점검 시스템 필요 ■ 센터 내 다른 프로그램과 체계적 연계 필요: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능 - 가족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센터 내 프로그램 연계 시스템 체계적으로 필요
(3)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의 활용	■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가족상담에 전문성 있는 슈퍼바이저 필요: 특히 특화상담의 슈퍼비전은 가족전문가가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공개 슈퍼비전을 통해 다른 관점들을 배워나갈 수 있음. 특히, 개인상담 배경과 가족상담 배경의 차이가 드러남 ■ 보수교육을 통해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결국엔 상담의 효과성 높일 수 있음. 동시에 운영에 있어 융통성 발휘 필요: 시센터에서 각 센터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및 워크숍 제공 필요 - 여러 센터가 연계하면 더욱 다양한 교육 제공받을 수 있음 - 단발성 워크숍이 아닌 시리즈로 체계적 교육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 상담에 매우 도움이 되고 깊이 있는 학습 가능 - 상담사의 필요를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 - 보수교육 강사 퀄리티 중요: 가족상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 - 온라인으로 하면 더욱 많은 인원이 듣는 것도 가능 ■ 사례회의도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권역별로 중간 컨트롤 기관 혹은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시스템 가능 - 지역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 관리시스템 구축(고위험군 사례의 처리, 사례 적절성 관리, 연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관리 등과 관련한 대처가 수월)
(4) 높은 상담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체계 확립	■ 상담사 대부분 석사 이상, 자격증 보유 ■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임: 개인상담 사설센터에서 부부상담을 받았던 내담자들이 가족체계론적 관점으로 상담이 효과가 있었다고 피드백 제공: 가족상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상담 효과성과도 직결 ■ 상담사들이 열정, 헌신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 사설센터의 장사꾼 같은 느낌이 없다는 내담자 피드백 - 사명감과 열정 없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어려움(처우 문제)
(5) 정기적 효과성 연구 및 척도의 다양화	■ 상담전후에 사용하는 척도의 다양화 필요 - 상담매뉴얼에 좋은 척도 많으나 사용되지 않음 - 부부 및 가족 관련된 심리검사도구들 더 활용할 필요 ■ 사전-사후검사 진행: 연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면 효과성 점검에 도움이 됨
(6) 회기수 및 회기 시간 관련 상담효과 중심의 융통성 필요	■ 회기수 및 회기 시간이 부족한 것은 효과성 높이는 데에 방해 - 가족상담은 내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50분으로 부족: 90분 정도 필요 - 회기수 더 바라는 내담자 많으나 구조적으로 제공할 수 없음 - 추가 회기수에 대한 상담비 유료화 등의 방안으로 상담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 필요 ■ 특화사업에 부부 및 가족이 반드시 와야 하는 회기수 규정은 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우 큰 장점

(7) 전문적으로 가족상담 훈련을 받은 상담사 확대 배치	■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해 전문성 필요 - 2인 이상을 필수로 하는 특화사업은 이러한 차별점을 더욱 강화시킴: 특화사업은 가족상담사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맡을 필요가 있음 - 개인상담사들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2인 이상을 만나야 하는 가족상담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 많음: 가족치료 전문가가 좀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함 -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에 대한 기준 강화 필요 ■ 개인상담 전공자와 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 - 개인상담 전공자에게 가족상담 관련 재교육 필요
(8) 가족관점의 센터 운영	■ 센터의 가족중심 상담사업에 대한 방향성 확립 필요: 가족상담 및 가족을 체계로 보는 관점이 주요 정체성이 될 필요가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특징을 지닌 공공기관 - 개인상담도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으나, 센터의 자체적 방향성을 가족상담 전문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기관장(센터장)이 수립하는 상담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가족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 ■ 정체성 확립 필요: 가족상담 전문성이 모호하다 보니 현재는 다른 사설기관 가기 위한 경력을 쌓는 중간과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 - 경험 많은 상담사의 이직으로 상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침 ■ 기관장(센터장)의 방향성에 따라 센터의 특징이 많이 다름: 중앙에서 방향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점 때문에 신뢰성이 생기는데,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9) 효과성을 저해하는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어려움	■ 가족상담 매뉴얼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가 많지만 현장에서 잘 적용되지 않음 ■ 잦은 실무자 교체: 적절한 처우 필요, 과도한 행정일 조정 필요 - 센터에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 상담사 관리하는 실무자들이 다른 사업을 돕느라 바쁠 때도 있음 ■ 행정처리 중심으로 내담자, 상담사 관리를 하다 보면 상담의 효과에 신경을 많이 못 씀
(10) 상담사 처우 및 상담유료화	■ 현재 상담사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 상담의 효과성에 영향 - 상담사 처우가 좋지 않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련 받는 곳 혹은 봉사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음: 전문성 부각이 어려워짐 - 경력 및 연차에 따라 처우가 달라져야 경력 있는 상담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 상담효과성에 영향 ■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족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었다는 기여가 있으나, 동시에 상담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음 - 과하지 않은 선에서 유료화 고려 필요 - 내담자에게 무료상담에 대한 편견이 있음 - 추가 회기를 유료화하여 제공할 필요 있음

(11)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	■ 난방 등 기본적인 시설 부족한 경우 있음 ■ 방음이 안 되는 것은 비밀보장을 기본윤리로 하는 상담환경에 매우 부적절 ■ CCTV 설치 및 관리: 상담사 및 내담자 보호 위해 필요하지만, 누가 언제 접근 가능한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해야 함 ■ 장소가 협소함: 개인상담 위주로 세팅되어 2인 이상 가족내담자를 위한 공간으로는 협소함
(12) 다른 기관과의 연계	■ 교육청과 연계하여 부모-자녀 관계상담 사례들 받을 수 있음: 가족상담 전문성이 발휘되면 상담효과 높임 ■ 학회와의 연계 - 보수교육을 학회와 연계해서 동영상 강의 활용도 가능 - 학회 교육시간 인정, 학회 활동 활성화 등: 센터의 비용을 줄이면서도 질 좋은 교육, 가족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가능
(13) 홍보의 필요성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홍보 -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이 다르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 있음 — 가족상담만의 강점을 홍보 (가족 단위로 상담 받을 때 더 효과적) -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은 가족상담에 전문성이 있는데 그 전문성이 잘 드러나지 않음 - 홍보의 퀄리티도 중요: 세련되게 만들고, 홍보의 전략과 목표가 분명해야 함

다음에서는 상담사 초점집단면접의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이 효과가 있는가?

상담사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효과가 1~10 중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두 7~10 사이의 수치를 말하였다. 어떤 면이 가장 본질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련하여서 가족체계론적 관점으로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담의 효과성과 직결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문제를 개인의 관점으로 다루게 되면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개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종국에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게 되는데, 가족의 문제를 가족의 관점으로 보고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와 역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갈등수준이 낮아지고 가족문제의 해결도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상담지원사업에서 부부 및 가족이 반드시 와야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가족중심 서비스 제공 독려에 매우 유용하고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가족상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여타 복지관이나 공공기관 혹은 사설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을 체계로 바라보고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하였다.

저는 만약 점수를 준다고 하면 9점에서 10점. 효과성에서 보면. 보통 유료에서 (받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유료 상담소에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주로 "약간 장사꾼 같은 느낌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전화 받아서 "너무 무미건조한 이야기를 하더라"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여러 번 듣고, 건가지는 조금 더 정 있게 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상담사 4)

저는 건가에서 제공하는 가족 상담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평점을 주잖면 한 8에서 9점인데요... 일단 가족이나 부부가 동시에 와가지고 한 공간에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아주 뭐 많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처음으로 와서 이런 것들 자기 부부 문제들을 하고. 그분들 둘이 동시에 오셔서 의사소통하는 것, 상호작용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 부모 환경에서 배우거나 경험한 것이 워낙에 없다 보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건드려줘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담사 5)

내담자분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주제로 한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한. 그러다 보니까 왜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안가셨어요? 왜 다른 데서 서비스 안 받으세요? 제가 여쭤봤을 때 물론 자기들끼리의 정한 규칙은 있나 봐요. 예를 들면 "누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아이만 문제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가고" 이런 규칙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아이만 문제인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모두 서로 상호작용으로 주고받는 것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 모든 문제들의 이슈를 한 곳에서 전문가에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하고. 이 지점이 건가에서 가진 핵심 방향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담사 1)

저 같은 경우도 경험이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다른 건가에서 10회기를 받으셨대요. 그런데 뭐라 해야 하나 솔루션 중심으로 받으셔서 "그때는 잠깐 좋았는데 효과가 그 뒤에는 없었다" 하시면서 체계론적으로 접근하고 가계도 분석을 좀 하고 이랬던 작업이 처음 해보셨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공부하신 분이 부부나 가족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담사 9)

건가상담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족 상담 전문가에게 가족상담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 다른 복지관이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곳과의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사 1)

(2) 효과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상담사업 운영 시스템 필요

상담사들은 가족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체계적인 상담사업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선 편의상의 상담사–내담자 매칭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매칭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담사의 전문성을 오프하고 전문성에 따라 상담사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해지면, 해당 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높지 않은 상담사가 시간상 매칭이 되어 상담을 제공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담사례를 시작부터 종결까지 꾸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행정 처리에 더욱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월, 분기, 혹은 연단위로 하는 행정처리 혹은 예산명목 때문에 행정처리 상 한 사례를 중간에 나누어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상담 전후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남기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사례관리의 연속성이 지켜지는 행정 처리를 위한 정확한 체계가 요구된다. 이 외에도, 내담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상담사 입장에서 내담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이 긴장되기도 하지만, 상담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인데, 현재는 내담자로부터 직접 종이를 받다 보니 솔직한 피드백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하였다. 몇몇 센터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며, 전체적으로 내담자로부터 피드백을 중앙에서 한꺼번에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는 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사후피드백 뿐 아니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진행하는 추후피드백도 상담효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상담사 선생님들이 요일이 다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수요일에 하겠다고 하면 그 요일하고 맞는 분하고 매칭해주니까 전문성과 관련해서 매칭된다고 볼 수 없어요. (상담사 7)

"상담사하고 내담자는 절대 컨택이 안돼"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담자가) 나는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 그러려면 좀 전문적으로 저희를 조금 더 케어해주시고 양성해주시고 센터에 오래 머물고 양질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사 10)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상담인데 몇 월 이후에는 종결이 되니까.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로. 특화가 더 이상 아니니까 그 상담이 종결되고 신규로 다시 잡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정확도를 떨어트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내담자의 기록을 상담이 쭉 어떻게 돼있었는지 기록을 한눈에 보고 싶어도 이게 한 내담자로 엮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서울시의 행정을 위한 것이지 진짜 사례가 종결된 것이 아니니까. 그런 뭔가 시스템에 입력할 때 방식들이 바뀌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사 1)

상담회기 끝날 때 효과성이나 만족도를... 상담을 열심히 해준 상담사가 앞에 있는데 사전–사후 검사하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나쁘다고 쓰겠어요. 저는 사실 고민을 해요. (상담사 6)

이달에 다 끝나신 분은 그 다음 달에 메일로 어떻게 상담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묻는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상담사 8)

또한 가족상담사업이 좀 더 내담자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병원이나 사설센터와 같이 예약확인문자를 보내는 등의 내담자를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면 상담사례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또한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의 확장도 언급하였다.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 서비스는 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 부부상담이나 가족상담의 경우 2인 이상이

오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에 수요가 많으므로, 확장될 필요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대면 서비스의 체계적 구축이 요구된다고도 하였다. 가족상담사업에서 대면, 전화, 온라인상담 파트가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대면 가족상담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법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다.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았고, 상담사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방법도 개인적으로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대면 가족상담서비스의 운영 방안을 확장하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장되면 상담스케줄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내담자가 응급하다고 느끼거나 필요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상담사의 안전 위해 CCTV, 비상벨 확보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한 환경에서의 상담은 효과적인 상담의 기본적인 요소일 수 있다. CCTV와 비상벨을 확보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각 방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며, 잘 작동되는지 정기적 점검 시스템 필요하다. 또한 CCTV가 내담자의 정보보호 이슈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CCTV 자료 접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다른 프로그램과 체계적 연계에 대한 의견도 나타났다. 내담자의 문제의 정도나 상황이 각자 다를 수 있는데, 상담 후에 서울가족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상담에서 얻은 효과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될 수 있는 과정이 좀 더 체계적인 절차로 확립되는 것이 중요다고 하였다.

> 사실 조금 다른 의료센터에서 말하는 고객관리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살짝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그런 기관들에서는 병원 예약처럼 오기 전에 예약문자가 날아온다든지 잊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적인 게 조금 더 체계화되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 (상담사 1)

> 시간이 너무 안 맞고 특히 부부나 가족은 저녁이나 주말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이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막 3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응급상황, 이혼할 것 같다. 외도가 있어서 정말 지금 너무 힘들다 이래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야간상담이나 주말상담이 건가에서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나 가족을 계속하려면. (상담사 9)

> 명절 뒤에 진짜 전화 진짜 많이 오거든요... 급한 대로 줌을 해보거나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무언가 매뉴얼 같은 것이나 지침이나 아니면 뭔가 예를 들어 상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영상통화를 하게 되면 상담사의 번호 노출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면 아이디 기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겨야 하는데. (상담사 1)

> 하나의 건가 안에서 대면상담이 있고, 전화상담이 있고. 이런 것처럼 온라인 상담 파트가 하나 생겨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잘 준비해서 어느 한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저희가 이런 다같이 멘탈이 나가는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해서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사 1)

> 최근에도 거기 물론 강북 삼성병원에서도 정신과 선생님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지만. 정신과 선생님들은 옆에 도망갈 수 있는 작은 방이 다 있대요. 진료실 옆에. 그래서 약간 낌새 이상하면 바로 방으로 도망가시나 봐요. 그게 경찰을 부르거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것보다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건가에서는 그만큼 시스템은 좀 안되더라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상담사의 안전. 지금 물론 벨이 있고 이렇긴 하지만 정말 제가 눌렀을 때 벨이 누르면 누가 올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상담사 1)

> 결혼 예비학교 하시는 예비 커플들이 나중에 광고를 해주니까 그렇게 연결되어서 초반에 신혼기 갈등 있으면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 나이 드시고 노년기나 중년기 부부가 왔다면 그런 광고효과나 결혼예비학교 효과로 젊은 커플들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사 6)

(3)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의 활용

상담사들은 슈퍼비전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상담사례에 대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담사의 역량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가족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슈퍼바이저가 가족상담을 주로 하는 특화상담에는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사들의 배경은 매우 다양하다. 심리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개인상담을 주전공한 상담사도 있고, 가족학 분야에서 가족상담을 주전공으로 한 상담사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이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가족상담사례를 대하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효과적인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데 방해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가족상담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접근한다는 데 있어 개인상담과 차이가 크다. 따라서 주로 1:1로 내담자를 만나왔던 개인상담을 주전공으로 한 상담사들이 2인 이상과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족상담 전문성을 가진 슈퍼바이저에게 슈퍼비전을 받으며 체계론적 관점을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다른 개인상담 관점과 가족상담 관점들을 공개슈퍼비전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대립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변화를 위해서 역할분담 등의 방식으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담사들은 보수교육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상담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장점 중 하나가 꾸준히 보수교육을 받으며 상담사 역량을 유

지 및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교육을 받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상담사라는 직업 자체가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수교육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더 효율적인 보수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안도 첨언하였다. 단발성 워크숍이 아닌 시리즈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상담에 도움도 되고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여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상담사의 필요를 바탕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 센터에서 다양한 보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울 때에는 여러 센터가 연계하면 더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고,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된 것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더 많은 인원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또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례회의에서 가족체계론적 관점이 꾸준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족상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으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중간 컨트롤 기관 혹은 슈퍼바이저를 두는 것도 제안하였다. 지역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고위험군 사례의 처리, 사례 적절성 관리, 연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관리 등과 관련한 대처가 수월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각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담당하는 것 보다 센터 간의 연계 혹은 조율이 필요한 경우 유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개 슈퍼비전도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 [웃음]. 저의 상담사례가 공개적으로 오픈된다는 조금 그런 부담스러운 점도 있지만. 반대로 제가 참여자로서 들을 때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 아 저런 때는 저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 점을 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담사 3)

특화사업인데 슈퍼비전을 개인상담이 오시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혼란함을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특히나 발표하신 분이 특화사업에 대한 사례로 슈퍼비전을 받을 때는 가족전문가 슈퍼비전을 하시는 교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사 3)

3번 이상씩 오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화사업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가족이나 이런 베이스 없는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상담사 9)

공개 슈퍼비전 자리였는데 "선생님이 상담 받는 것을 다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선생님은 왜 핵심 감정을 짚지 않았죠. 그 사람의 무의식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가진 이론과 제가 하는 상담 방향에서는 핵심감정은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론 안에서는 핵심감정을 다루지 않았으면 당신은 상담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신 거예요... 다른 슈퍼바이저분이 가족치료사여서 뭐라고 하셨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바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선생님은 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것은 다른 영역의 이야기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그 깊이만큼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사 1)

다른 건가에서 어떤 교육이 있다고 홍보를 하긴 해요.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체 서울시 건가에서 좀 같이 시스템 해서... 어느 건가에서 뭐를 하니까 상담사들이 시간이 되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건가에만 사례회의나 뭐 보수교육 두 번 참석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전체에서 내가 두 번 이상 이렇게 골라서 갈 수 있게 시간 맞춰서 시스템을 해놓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상담사 9)

교육도 들었고 하는 면에서 저는 건가지 상담이 되게 퀄리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보거든요. (상담사 4)

저희는 워크숍을 처음에는 단발성으로 이것저것을 막 했었어요. 뭐 하고 싶냐 그래서 한 회에는 저희가 부부나 가족상담에서 외도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이 되어서 외도상담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한번 네 시간 가지고 안 되니까 다음번에도 외도 상담2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좋겠다...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 다음 번에는 이제 정서중심 치료에 대한 교수님을 초청해서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 들어서 잘 몰랐지만 그 다음번에 또 단톡방에 올라왔을 때 그거를 또 하면 어떻겠냐... 한번 들어서 알 수 있지 않고 상담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피드백해서 상담사가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교육이 아니고 그분이 또 다르게 하기 때문에. 또 듣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다시 그거를 하셨어요. 저희가 일년동안 정서중심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워크숍을 한 세 번 정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상담할 때 도움이 되고.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들은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그 건가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상담사 2)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문항을 물어봐요 어떤 교육을 바라느냐고... 상담도 해야 하지 발표도 해야 하고 그러면 힘들지요. 힘들지만 이런 것들이 상담을 놓지 않게 하는 어떤 동기는 되거든요. 굉장히 짜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담사 4)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구마다 건가들이 쪼개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좋은 교육들은 합치기도 하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구 3구를 묶어서 이쪽에는 이분이 대가야 이렇게 좀 분할을 하고... 계획을 하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되게 있어요. 똑같은 교육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구마다 같은 분이 에너지 낭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담사 6)

제가 사례회의나 슈퍼비전 받다 보면 다 도움은 되어요. 도움은 되는데 센터마다 가족이나 부부의 어떤 그런 전공을 안 하신 담당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보통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교수님을 모셔서 슈퍼비전을 받고 그 사례도 부부나 가족이 아닌 사례 회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오시는 슈퍼바이저들도 가족치료나 이런 쪽의 공부를 하신 슈퍼바이저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사 9)

권역을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기관이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무언가 대응해줄 수 있고, 좀

위기상황에 대한 케이스들은 그 안에 있는 조금 슈퍼바이저 급의 선생님들이 무언가 권역 내에서. 이게 이 건가에서 흔히 상담하면서 이야기 하는 게 일반화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 있잖아요 나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경험한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센터에서만 이런 특이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이런 다른 센터에서도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권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기관이 생기면 어떨까... (상담사 1)

(4) 높은 상담의 질을 유지하는 체계 확립

상담사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이 효과적인 여러 요인 중 하나는 높은 상담의 퀄리티라고 하였다. 상담사 대부분이 석사 이상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담경력이 수년 이상은 되는 상담사분이 대부분이다. 또한 가족상담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가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즉 가족상담을 가족체계론적 관점으로 진행하지 않고 개인상담이론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가족 상호작용을 다루기 어렵고 각 개인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버릴 수 있다. 일례로 개인상담 중심의 사설센터에서 부부상담을 받았던 내담자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부부상담을 받고 훨씬 효과가 있었다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가족상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상담의 효과성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사들은 대부분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대한 열정과 내담자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상담경력이 오래 된 상담사들이 상담사 처우가 다른 사설센터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사명감이나 열정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경력 있는 많은 상담사들이 처우 문제 등으로 인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떠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족상담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상담사들이 높은 퀄리티의 상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담사를 모집하거나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석사 이상이신 선생님들이... 선발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기 좀 뭐하지만 양대 학회의 자격증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사설 상담소도 물론 다른 사실 특화된 역량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그런 센터를 가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상담사 2)

솔직히 말했을 때 건가에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 퀄리티가 거의 다 대학원 이상이고. 뭐 외부 사설 그런데 가서 돈 내고 유료로 상담하는 거 하고 비교해서 더하면 더했지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굉장히 더 사명감까지는 아니지만 돈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고민하고 막 의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급의 그런 상담사를 만나면서 뭐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족도 높을 거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상담사 7)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유료 상담소에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주로 "약간 장사꾼 같은 느낌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전화 받아서 "너무 무미건조한 이야기를 하더라"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여러 번 듣고, 건가지는 조금 더 정 있게 대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상담사 4)

이 건가지 같은 경우는 상담사들이 열정이 되게 있고, 슈퍼비전도 저희가 받아야 하고, 보수교육이라던가 사례발표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설센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막말로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오게끔만 하면 되고. 상담의 질이 일일이 파악하지는 않았던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남들이 봤을 때 오히려... 객관적으로 상담사 역량이 평가되는 곳이 오히려 건가지다. 그런 면에서 교육도 들었고 하는 면에서. 이런 저는 건가지 상담에 되게 퀄리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보거든요. (상담사 4)

(5) 정기적 효과성 연구 및 척도의 다양화

상담사들은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관련 연구가 있을 때,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척도를 사용하였었는데, 이러한 효과성 측정을 연구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 관계, 개인적 특성 등 여러 면을 측정하였는데, 실제로 내담자가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되면서 상담에 매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에 사용하는 척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개인 특성 중심의 검사를 많이 하는데, 개인 특성을 알아보는 것에 더하여 부부 및 가족 관련 심리검사 도구들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상담 매뉴얼에 좋은 척도가 많이 있는데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척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제 욕심에는 물론 만족도조사처럼 질문하지만 현재 되어있는 상담 후, 전에 조사하는 척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내용이 조금은 더 바뀌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상담사 1)

특화사업을 실적 시스템에 집어넣을 때도 심리검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검사하는 부분이 거의 개인상담

할 때 하는 검사 내용, 도구들이 많고. 부부상담 검사지는 사실 별로 없어요. 부부만족도 검사나 인리치 검사 그런 게 거의 없고, 거의 MMPI나 개인상담 할 때 쓰는 도구들이어서 부부상담할 때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거기다가 실적을 기입할 수가 없어요. 기타로 올리거든요. 종류도 굉장히 적고, 시스템도 기입 할 수 없게. 어떤 종류를 했는지 할 수 없게 되어있고. 그런 경우 좀 있어서. 그런 특화사업에 있어서는 부부 관련된 심리검사 도구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상담사 7)

제가 처음에 00구에 갔을 때는 그게 아마 연구 목적으로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척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사후로 해서 거기에 보면 나는 우리 가족 간의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한다. 밖에 나가기 싫어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체크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안 해도 된다 이러더니 아예 없어져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후평가를 해서 제가 사전, 사후 평가를 비교해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그라미 친 거나 그저 그렇다에서 아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아 어떤 게 이분들에게 효과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만약에 척도를 하신다면 가족관계나 어떤 가족 내에서 있는 문제를 알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있는 너무 길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사 2)

(6) 회기수 및 회기 시간 관련 상담효과 중심의 융통성 필요

상담사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낸 부분 중 하나는 회기수 및 회기 시간 관련된 내용이었다. 우선 상담이 50분이 1회기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족상담은 내담자가 2인 이상이기 때문에 50분이 부족하고 90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담사가 90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센터 실무자가 허용해주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시스템 상의 옵션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핵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회기수를 연장하고 싶어하는 내담자들이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회기수에 대해 상담비를 내면 더 연장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3회기 이상 2인이 와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가족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가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전체가 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내담자들이 있는데, 그럴 때 가족회기를 가져야 된다는 규정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상담지원사업이 가족상담의 성격과 정체성을 내세우며 가족상담 효과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일단 부부상담을 하면 효과는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랄까 급한 불, 응급한 상황에서의 효과는 있는데. 회기가 사실 부부상담으로 진행하기에는 회기가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한 번 왔던 부부는 일 년 동안은 못 오고 그 다음 해에 또 올 수 있거든요... 회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자체도 가족상담은 한 회기에 90분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시간 그러니까 50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맨날 그 시간도 넘기거든요. (상담사 7)

제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10회기가 개인상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5회기를 돈을 더 내고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8회기에 5회기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10회기일 때와 8회기일 때의 어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가족상담같은 경우는 3회기 이렇게 밖에 안돼서. 이게 이분들이 정말 변화하는데. 정말. 라포형성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같은 회기 내에 끝내야기 때문에. (상담사 2)

어느 정도 유료화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 나머지 유료하면 내담자와 상담자가 그 회기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상담사 9)

특화상담이 가진 장점 중의 하나가 내담자 입장에서 좋았던 장점인 것 같은데. 일단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렵게 연결된 케이스인데 상담인데 많이 받고 싶잖아요. 회기수를. 근데 혼자 오면 6번밖에 못 받고 2명이서 오면 10번 받을 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초반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부의 이슈였을 때 갈등이 있어서 남편 없이 혼자 오셨는데. 예를 들면 2회기를 하고 나면 본인이 많이 받고 싶어서라도 남편을 반드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약간 끊어있던 관계가 그걸로 인해서라도 그걸로 연결되는 경우가 저는 상담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의 뭔가 더 많이 대우해주고 이런 처우 문제랑도 특화상담이 가진 아니면 또 건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방향성과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내담자 입장에서도 사실 가족문제를 정말 가진 내담자라면 함께 올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센터에서 약간 명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른 가족원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명목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요. (상담사 1)

(7) 전문적으로 가족상담 훈련을 받은 상담사 확대 배치

가족상담 전문성 강화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이 다른 복지관이나 사설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상담사들은 목소리를 모았다. 가족을 체계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족상담에 임하는 것이 효과성에 직결이 되고, 따라서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가족상담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에 매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2인 이상을 필수로 하는 특화사업은 특별히 이러한 차별점을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에 특화사업은 가족상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맡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1:1로 내담자를 만나온 개인상담사들은 2인 이상의 가족을 만나서 모든 구성원의 입장을 듣고 조율해 가며 상담을 진행하는 가족상담이 처음에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인상담에서 적용했던 상담의 틀을 융통성 있게 바꾸지 않는다면 가족상담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족치료 전문가가 좀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개인상담 전공자와 함께 있는 현 시점에서는 협업할 수 있는 시

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례의 경우에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족상담 관련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게 맞는 거고, 청소년 상담을 전공하거나 아동상담을 전공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죠.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없으면 절대 뽑지 않죠. 왜냐하면, 가족 전문가고 가족박사면 뭐 하겠어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없으면 채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상담을 하는 가족상담 기관에서는 가족상담사 채용이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차별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전공 배척한다고 하니까 위에 아까 계시는 그 사람을 채용하시는 분들이 어 그렇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곳은 가족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가족을 뽑아야 하는거죠. (상담사 1)

개인 상담하고 개인상담을 쭉 하시던 분들이 가족이나 부부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지금 건가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가족을 가족치료를 전문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거 하고, 개인상담을 아주 오래 하셨다고 해서 가족을 부부를 다루는 것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동료 수비나 공개 수비할 때 질문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아 저렇게 하실 수 있구나. [웃음] 가족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상담사 5)

건가가 나아지려면 그런 부분들이 더 약간 퀄리티가 높아지고 우린 진짜 전문가 집단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런 것을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는 상담사에 대해서 더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복지관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기관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라는 고민들인데. 이것은 상담의 효과성 뿐만 아니라 건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상담, 다른 선생님들 가끔 고민하시는 거 이야기를 해주셔서 들어보면, 되게 상담의 경력도 많으시고 사실 성품 자체고 온유하고 너무 좋아 보여서 내가 내담자라도 상담을 너무 받고 싶은 분들인데. 그런 상담사들이 고민하시는 바가 "나는 개인상담을 주로 이렇게 트레이닝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건가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다." (상담사 1)

거기 같은 경우는 부부 가족을 15만 원, 17만 원 이렇게 지불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하지도 않나 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족 부부상담을 하다가 쭉 하다가 비용도 부담되고 여러 가지 하시니까 어려워서 저희 건가에 기대를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막상 저랑 상담을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상담해도 아무래도 다른 관점으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효과를 엄청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 관계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너무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봐요. 그게 뭐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운 대로 그것들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나 정말 관계가 내면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서울시 가족상담은 도움도 되고. (상담사 6)

상담 잘하는 분들이라고 해도. 개인상담 오래 하신 분이 부부상담을 사례발표를 하는 것을 항상 보면 답답한 마음이 커요. 부부, 가족 쪽으로 접근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엄청 오래 회기 동안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저거를 가족 공부하고 해보신 분이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짧게 잘 끝낼 수 있는 것을 참 안타깝다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상담사 6)

건가 안에서도. 물론 가장 메인적인 것은 가족상담사가 가져가야 하겠지만, 아까의 경우처럼 아내와 남편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상담시간 안에 다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개인상담사가 있는 구성원에게 넘겨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달라고 하고. 가족 상담사가 전체적인 메인의 역할을 해서 끌고 갈 수 있으면. 개인상담사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고 가족상담사는 가족상담을 더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사 1)

(8) 가족관점의 센터 운영

상담사들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중심 상담사업에 대한 방향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앞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가족상담사업을 주된 방향으로 하는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센터장의 역할 및 방향 설정에 대한 이슈가 많이 언급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특징을 지닌 공공기관이다. 개인상담을 아예 안 다룰 수는 없겠지만, 센터의 자체적 방향성은 가족상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운영을 위해서는 센터장의 가족상담 전문성 및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는 센터장의 배경이나 관심사에 따라 센터의 가족상담 전문성 및 활성화 모습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다 보니 어떤 센터에서는 탄탄하게 가족상담사업이 자리 잡혀 있어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고, 어떤 센터에서는 가족상담이 정말 어려운 사업 중 하나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게 되면, 가족상담 전문성이 모호해지다 보니 많은 가족상담 전문가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상담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른 사설 센터로 가기 위해 경력을 쌓는 중간 과정 정도로 인식하게 되고, 경험 많은 상담사는 이직을 쉽게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센터장의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에 따라서 센터 전체의 전문성 및 정체성이 좌지우지되다 보니 중앙에서 방향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상담사들은 말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섣불리 신뢰가 가지 않는 사설센터보다 신뢰성이 더 있다는 점인데, 몇몇 센터는 가족상담에 대한 전문성 및 정체성이 약하다 보니 그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다른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건가에서 가지신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서울시 내부에서 합의를 잘하시고. 그 후에 센터장님을 먼저 잘 교육해 주시면. 왜냐하면, 직원들이 듣고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센터장님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고. 예를 들면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특화상담 같은 경우에도 2명 이상, 3회기 이상하는 것이 저희는 가족상담사들이 너무 좋다고 하지만. 어느 기관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을 교육으로 바꿔줘라. 아니면 우리 가족상담 그걸 누가하냐. 그거 다 소진 못 한다 예산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이렇게 해줘라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센터장님, 그 다음에 총 책임자, 팀장님 그 위에 누구 있으시던데 사무국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 모시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담실무자를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더 조금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가져진다면. 조금 발전할 수 있을까. 중요한 퀄리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사 1)

지난번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다른 FGI에서 이런 이야기들 하셨거든요. 여가부 분들, 누구, 서울시 관계자 분들 누구 이야기했을 때. 건가에서의 가족상담이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브랜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이만큼 하지 못하는 거. 건가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들, 행사, 지역행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중에서 건가의 상담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건가 안에서의 위치한. (상담사 1)

저는 건가지가 정체성 모호하다 생각을 하는 게 전문상담을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건가에서 정말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상담사 자격증을 따시고 일반적 사설로 가시는 게 저희 루트가 되어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담사를 양성하는 기관인지 전문 상담을 진행하자고 하는 건지 센터 자체의 좀 정체성이 명확해야 할 것 같고. (상담사 10)

그리고 기관장님에 따라서 특성을 너무 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해서 중앙에서 조절을 해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체계적으로 틀을 잡고자 하면은 상담사를 오픈하고 자기의 상담유형에 맞게 사설처럼 상담자를 선택해서 나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상담사 10)

(9) 현장 실무자들의 어려움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역시 가족상담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 가족상담 매뉴얼에 가족상담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잘 모르거나 잘 적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잦은 실무자 교체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 우선 실무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비해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해 자주 교체되고, 공공기관이다 보니 처리해야 할 행정 일도 많다고 한다. 센터에 상담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많다 보니 상담실무자들이 다른 사업을 돕느라 바쁠 때도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행정처리 중심으로 내담자와 상담사를 관리하다 보면 상담의 효과에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저도 여기서 상담을 몇 년 동안 했지만 매뉴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상담 매뉴얼을. 그러다가 다른 경험을 통해서 상담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안에 나와 있는 척도들이나 이런 게 좋은 게 너무 많이 있고. 사실 상담사들이 공부하거나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고. 제가 어떤 척도가 생각나서 급하게 적용해보려고 달라고 했을 때, 상담 실무 담당자조차도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현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가족을 사정할 수 있는 좋은 척도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고 개발되어있는 것이니까 조금 더 체계화해서 잘 정리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상담 효과성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상담사 1)

인력이 제가 알기로 다른데도 굉장히 교체가 잦아요. 뭔가 조금 사례관리 하시는 분하고 편해지고 알게 되고 그분도 시스템 알만하면 [웃음].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거기 안에서는 나름의 그게 있겠지만. 뭐 어쨌든 보수적인 것도 그분들도 굉장히 적게 받고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너무 쉽게 쉽게 나가시더라고요. 또 아주 그냥 어리고 막 젊은 분이 적응할만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얼굴 익히고 그 분이 사례관리든 사례회의하는 거 어레인지(arrange)하는 거 조금 익숙해질 만하면 금방 나가셔서 가지고 단톡방을 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되는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개선이 되면 그분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오래 머물러 계셔주지 않을까. (상담사 7)

그렇기 때문에 뭔가 권역을 약간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기관이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무언가 대응해줄 수 있고, 좀 위기상황에 대한 케이스들은 그 안에 있는 조금 슈퍼바이저 급의 선생님들. 꼭 슈퍼바이저가 아니라도 슈퍼바이저급의 선생님들이 무언가 권역 내에서. 이게 이 건가에서 흔히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일반화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 있잖아요 나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경험한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센터에서만 이런 특이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다른 센터에서도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권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기관이 생기면 어떨까. (상담사 1)

(10) 상담사 처우 및 부분적 상담유료화

현재 상담사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상담사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는 것은 경력이 많고 역량 있는 상담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남아있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명감과 열정 없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지속적으로 남아 상담을 하기 어렵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처우는 상담사를 계속 떠나게 만들며 전체적으로 상담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상담사 처우가 열악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련을 받는 곳 혹은 봉사하는 곳으로 인식될 수 있어 가족상담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이 부각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력 및 연차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어야 경력 있는 상담사들이 지속적으로 남아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상담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상담사 처우와 함께 언급되는 부분은 상담유료화에 대한 부분이다. 물론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족상담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내담자가 마음 편하게 올 수 있게 하였다는 기여가 있으나, 동시에 상담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내담자에게 무료상담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하지 않은 선에서 유료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회기를 유료화하지 않더라도 추가 회기를 유료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저희는 부부가 오든지 개인이 오든지 똑같거든요. 차등해서 상담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설 같은 경우는 부부라면 더 많이 받고 개인이 오면 조금 적게 받거든요. 그런 차별이 없으니까 차라리 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조금 붙이는 게. 수익을 내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만 원도 못 내실 것 같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오히려 상담의 효과성도 살짝 올리고 처우가 저희한테도 약간 저희가 자존심이 올라간다고 할까요. 저희야 회기당 받으니까 상관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봉사는 아닌데 사람들이 저희는 꼭 봉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상담사 4)

> 집중하시는 마음 자체는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기들이 시간 내고 마음을 써서 대기하고. 왜냐면 물론 대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의 상태와 누가 받으라고 해서 받는. 그 정도의 마음의 상태가 가볍게 가는 그 마음과. 그게 상담의 효과성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 정도에서 약간의 조금 선을 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가족상담 누구고 전공이 뭐고 지금 학위는 무슨 과정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저는 상담 중에 나이가 어리니까 일부러 초반에 설명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건가에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내담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요. 무료기관이라서 상담 자체를 낮게 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려면 부담스럽지 않은 선 안에서 약간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사 1)

> 처음에 뭐 일 년 무료. 좋아 처음에 경력 부족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격증 없으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이해하는데. 3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상담사 6)

> 건가지 찾아오시는 내담자분들이 그 상담 문턱이 낮은 것은 확실한데. 거의 무료잖아요. 처음에. 요즘에는 건가지 마다 약간 바뀌어서 6회기까지는 무료고, 한 그다음에 9회기는 만 원씩 더 내요. 건가지 마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살짝 이 부분이요. 차라리 처음부터 실비 만 원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할 때도 있거든요. 조금 쉽게 생각하시고 몸이 좀 안 좋으면 안 오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문턱이 쉽다 보니 그만큼 나가기도 쉬운 거예요. (상담사 4)

> 예를 들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공공기관들에서 상담을 진행했을 때 당신이 돈을 낼 것인가 아니면 무료로 받고 싶냐. 돈을 낼 거면 얼마까지 낼 수 있을 것 같냐 얼마가 적당하냐 질문했을 때. 사실 0원, 5,000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이야기해주셨어요. 물론 10만 원 정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실제 물론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저는 3만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고요. (상담사 1)

> 저도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 말씀에 좀 보태려고 하는데요. 저는 복지관에서도 지금 상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저희 건가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비용도 상담사에게 제공하는 비용도 건가보다 훨씬 높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체계적으로 뭐 상담영역, 치료영역, 뭐 놀이치료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훨씬 체계가 좋더라고요... 건가 상담이니까 인식이 어떠냐면 저는 한 2년 정도 되었거든요. 건가에서 상담한 거는. 그 전에 7–8년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2–3시간씩. 그런 분들은 수련도 마치셨는지 하여튼 수비도 안 받으시고 그냥 무슨 교회 봉사하듯이 쉬엄쉬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건가는 수련이나 봉사 느낌이 그래요... 비용면에서도 상담사에게 제공하는 것도 전문가에 맞게 어느 정도는 적어도 3–4만 원 정도는 좀 아무리 적어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면서도 좀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이게 봉사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영역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상담사 5)

(11) 물리적 환경 개선 필요

가족상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위해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난방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비밀보장을 기본윤리로 하는 상담현장에서 방음이 안 되는 곳도 많다고 하였다. 이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담환경을 제공하는 데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또한 상담사 및 내담자 보호를 위해 CCTV 설치가 필요하고, 누가 언제 접근 가능한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 장소의 협소함도 언급되었다. 가족상담은 2인 이상 때로는 5인이 오기도 하는데 상담실이 주로 개인상담 위주로 세팅되어 있다 보니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한 곳이 많다고 하였다.

>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다른 구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겨울에 털 양말을 2켤레 신고, 털 실내화를 신고, 발을 향해서 난로를 쬐어도 발이 너무 시리고. 그리고 유리로만 된 방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옆방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시시티비로 보는 내용들이 무언가 물론 이거는 그곳의 문제이지만 함부로 봐지고. 상담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좀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건가가 나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사 1)

> 좋은 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건가기 때문에 가족상담을 한다고 하면서도 장소가 좁더라고요. 개인상담 위주로 셋팅된 시스템. 4인 테이블과 4인 의자가 있지만 4인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6명 올 때가 있단 말이죠. 밖에서 의자 가지고 끌어와도 너무 좁은 거예요.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얼굴도 보고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 4명 테이블에 의자 껴서 앉아서 가족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데. 여기서 뭘 무

은 가족 상담을 하라는 걸까 딱 개인상담, 커플 상담하기 편한 좋은 세팅과 구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무리 무료 상담이고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해도 내담자들이 왔을 때 좀 예쁘게 최소한의 것은 꾸며주고 공간도 활용해주고 좀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내담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내담자들은 아무리 내가 낸 세금으로 무료로 온다고 해도 정말 좋은 대접을 받고 싶고 안정되고 편한 곳에서 하고 싶은데. (상담사 6)

장소도 굉장히 협소한 곳일 것이고,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건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보통은 구에서 쓰지 않는 공간, 되게 오래되어서 자기들은 버리고 가는, 근데 그렇지만 없앨 수는 없는 그런 건물에 대부분 건가를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주차할 곳도 없고 주택가 사이 어딘가에 무언가 간판을 달았어도 티도 안 나고 그런 곳들에 보통은 건가가 위치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담사 1)

(12) 다른 기관과의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전문성이 발휘되면서 상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관계상담 사례들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학회와의 연계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보수교육을 학회와 연계하여 동영상 강의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보수교육을 통해서 학회 교육시간도 인정 받으며 학회 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사들이 꾸준히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비용을 줄이면서도 상담사에게 질 좋은 그리고 가족상담에 대한 재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건가에서 내려온 지침이 치료학회나 관계학회 자격증 소지자들만 뽑을 거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규정이 생기면 그런 게 있을 거 같고요. (상담사 5)

보통 동영상 강의들이 쭉 올라와 있잖아요. 상담학회 같은 경우도. 그거를 내가 쭉 시리즈로 있으면. 그거를 들으면 보수교육이 된 거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좋은 교수님들이 강의해놓을 것을 하고... (상담사 7)

그것도 학회랑 연결해서 교육연수 시간으로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격증 있는 수련 감독자 있으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사 6)

(13) 홍보의 필요성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홍보 역시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이 다르다는 것과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은 가족상담에 전문성이 있는데 그 전문성이 홍보에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홍보의 퀄리티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홍보물을 세련되게 만들고, 분명한 홍보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서울시나 건가지에서도 가족상담을 많이 중요시하긴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미는 거에 비해서는, 홍보도 잘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반상담과 가족상담의 차이도 모르고요. 거의 몰라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저는 서울시나 건가지에서 상담을 홍보할 때 좀 가족 상담이 일반상담이랑 다르다는 것,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센터 측에서든. 서울시에서든지.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상담사 4)

홍보도 약하고 홍보도 요즘은 세련되게 하잖아요. 시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온라인 인터넷보다 인스타도 하고. 좀 세대별 다양한 변화의 따른 홍보 전략이나 이런 세련된 카피 문구부터 해서 슬로건도 있어야 하고. 제가 봤을 때 전략과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할 거면 확실하게. (상담사 6)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해도, 단지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서울시 특화사업으로 가족 자체가 오는 게 많이 드물고, 가족이 오기에는 홍보도 필요하고... (상담사 8)

제4부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Ⅰ 서울가족학교 효과성 제고방안

Ⅱ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Ⅲ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제언

제4부. 정책적 제언

서울가족학교, 가족상담지원사업 등 서울가족사업은 시민의 가족생활 향상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참여자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사업이다. 서울가족사업의 효과성을 알아본 첫 단계인 본 연구에서는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이 만족도뿐만 아니라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제4부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안하고, 효과성 향상을 위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제언하고자 한다.

PART I

서울가족학교 효과성 제고방안

1. 효과성 분석의 기반 조성
2. 비대면 교육 업그레이드
3. 교육과정 및 매뉴얼 업그레이드
4. 예비부부교실: 외연 확대로 커플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5. 서울가족학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1. 효과성 분석의 기반 조성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평가는 참여자수, 진행회기 등의 성과와 함께 만족도 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만 6년간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온 점을 토대로 볼 때, 기본적인 성과나 만족도를 충족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 효과 중심의 평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성과 달성에 그치지 않고, 교육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1) 교실별 핵심 교육목표 설정

성과 패러다임에서 효과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효과라고 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가족학교의 5개 교실별로 전체를 아우르는 교육목표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서울가족학교의 매뉴얼에 차시(교육주제)별 교육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가족학교의 각 교실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교실을 관통하는 핵심 교육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실시한 FGI에서도 각 교실의 핵심 교육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별 강사와 실무자가 강조하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효과성을 성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효과로 볼 것인지, 즉 교실별로 핵심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 교실별 논리모형 개발

더 나아가서는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교실별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논리모형(logic model)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논리모형은 사업의 투입, 산출, 단기-중기-장기 성과 및 영향의 흐름으로 구성되는 모형이다(Taylor-Powell & Henert, 2008). 여기서 단기성과는 지식, 태도, 기술 등 즉각적인 사업의 성과이고, 중기 성과는 행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변화이며, 장기 영향은 가정건강성 향상 등 역량, 상황에서의 변화를 주로 의미한다(기쁘다, 성미애, 이재림, 2020). 따라서 서울가족학교 사업의 교실별 논리모형은 각 교실이 지향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실별로 논리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가족학교 강사와 공유하며, 사업평가의 틀로 활용할 때 효과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2. 비대면 교육 업그레이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사업이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된 특수한 시기에 수행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비대면 교육이라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서울가족학교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0년 만족도조사 개방형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비대면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참여자가 많았다. 2020년 비대면 서울가족학교에는 자녀를 돌보면서,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캠핑장에서 가족과 함께, 장거리 커플이 각자의 공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면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등의 참여 가능성도 비대면 교육의 강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대면교육을 단순히 비대면으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2020년 예비부부교실과 아동기 부모교실의 만족도가 2018년과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본 연구의 정성적 효과성 평가 전반에서 비대면 교육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따라서 비대면 교육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 비대면 교육의 시간: 소요시간 재고, 활동시간 확보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서울가족학교와 관련하여, 회기별 소요시간이나 총 회기수 등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부각되었다. 만족도조사 결과 총 소요시간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개방형 응답을 살펴본 결과 회기별 소요시간이 길다는 의견과 짧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 비대면 상황에서 장시간 집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강의에 소요된 시간은 길다는 의견이었고, 예비부부교실과 같이 커플의 대화시간 등이 중요한 교실에서 활동시간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강의 위주 비대면 교육에서는 현재의 회기당 120분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기당 시간을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족간, 커플간 대화 등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강사 및 실무자 FGI에서 강조된 것과

같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실제로 연습해 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 비대면 교육의 다양성 고려: 운영유형, 사용기기, 교실별 차이

본 연구의 결과는 대면 교육이 한 가지 형태가 아닌 것처럼 비대면 교육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비대면 교육은 쌍방향 실시간, 일방향 실시간, 온라인 탑재형 등 운영방식에 따라 성격이 매우 다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쌍방향 실시간 교육이 가장 많이 실시되었으나,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에듀위드 활용 교육처럼 온라인 탑재형도 있었고, 쌍방향-일방향-탑재형 중 2가지 이상을 혼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 후 심화회기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교육 이후 전화상담이나 전화코칭을 한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방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비대면 서울가족학교 사업에서는 다양한 운영방식의 장단점 파악, 운영방식별 전략 개발과 노하우 공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울가족학교 강사와 실무자가 이러한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둘째, 비대면 교육에서 참여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정량적 효과성 분석 결과, 아동기 부모교실에 스마트폰으로 참여한 경우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참여한 경우에 비해 양육지식 수준의 향상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비부부교실은 약 64%의 참여자가 컴퓨터로 참여한 반면, 아동기 부모교실은 약 70%가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교육에 참여하였다. 강사 및 실무자 FGI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교육에 참여한 경우 강의자료나 채팅창을 보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초 · 중 · 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이후 사용기기의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서울가족학교의 효과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비대면 교육에서도 교실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2020년의 경우 대규모, 병합형이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강의 및 질의응답의 비중이 높아 비대면 교육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의 참여자 역시 교육시간 중 상호작용이나 실습에 대한 기대보다는 평소 갖고 있던 질문에 답을 얻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에 무리가 없었다. 반면, 예비부부교실은 커플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으로, 참여자들도 참여형 커플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비대면 교육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음이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서울가족학교 비대면 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5개 교실 각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3. 교육과정 및 매뉴얼 업그레이드

서울가족학교는 가족교육 사업의 성격상 교육과정(커리큘럼)과 세부 매뉴얼의 수정, 보완이 꾸준히 필요하다. 서울가족학교 개별 교실의 교육과정과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왔다. 여기서는 서울가족학교의 교육과정과 매뉴얼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필수차시 선정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차시(교육주제) 선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20년 현재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은 7개 차시 중 5차시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5차시는 현재 한국사회의 부모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3개 차시만 선택하여 운영한 2020년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는 특정 주제만을 필수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서울가족학교의 전체 회기수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매우 구체적인 주제에 국한된 필수차시를 운영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3회기만 실시하는 부모교실에서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선택할 경우, 나머지 1-2회기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기 부모교실의 경우, 과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부모가 많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이용자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특정 차시를 필수화할 경우 재이용자들은 같은 교육주제를 중복해서 수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재이용자의 유입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시 참여하더라도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추가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다양한 교육주제에 대한 요구 고려: 충분한 회기수, 심화과정, 주제순환 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방형 만족도 문항 중 개설을 희망하는 주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해당 교실의 전체 차시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본인이 참여한 교육에서는 다루지 않은 주제에 대한 요구가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현재 예비부부교실이나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에 제시된 차시(주제)가 적절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차시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운영할 경우 다른 주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교육주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당 회기수를 늘리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개방형 응답을 살펴본 결과, 많은 참여자들이 한 회기 시간은 길지 않게, 그러나 전체 회기수는 더 많이 운영되기를 희망하였다. 예비부부교실 4회기, 아동기 · 청소년기 부모교실 2–3회기로는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부모교육이나 가족생활교육 분야의 선행연구를 보면 교육의 효과성에서 적절한 양(dosage)의 교육, 즉 충분한 회기수는 필수적이다.

다른 방법은 심화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가족학교는 회기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회기를 개설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회기수가 증가하면 실적평가에서 중요한 참여자 모집이나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건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운영지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기본교육의 회기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재의 기본교육은 기존의 회기수를 유지하고 심화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 즉 기본교육을 수강한 이후 심화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참여자는 심화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법은 서울시 전역에서 다양한 차시(교육주제)를 골고루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서울가족학교의 차시별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특정 주제가 다른 주제보다 빈번하게 개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주 개설되는 주제가 더 중요하거나 요구도가 높은 주제일 수는 있겠으나, 다른 주제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재이용자의 요구를 감안할 때 반드시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자치구센터별로 차시를 순환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거나, 25개 자치구를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에서 다양한 주제를 골고루 개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의 경우에는 지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센터들이 차시를 교대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단계형,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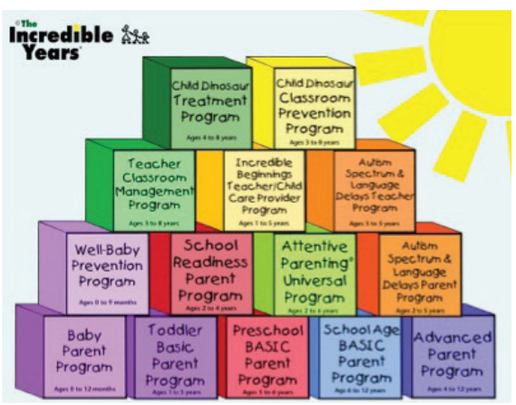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결과, 회기수가 적은 교육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교육의 깊이가 아쉽다는 의견, 실습이나 커플소통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교육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건에서는 포함하지 않은 차시(주제)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이외에도 현재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예: 예비부부교실 중 부모됨)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량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한 결과, 자녀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부모의 집단에서 부모효능감이 향상된 폭이 더 컸지만, 부모교실 이후에도 부모효능감 수준이 충분히 높지는 않았다. 예비부부교실에서는 교제기간이 짧은 남성의 경우, 교육 이후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관계자신감이 감소하는 특이한 결과도 나타났다. 즉, 기존의 짧은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집단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상과 같이 교육의 깊이와 교육주제의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형, 모듈형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예비부부교실을 예로 들면, 기존의 교육과정 중 서로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방법, 성평등 등 다양한 커플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주제는 기본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본과정에 더해지는 단계형 심화과정으로는 커플의 상호몰입 수준에 따라 커플관계 형성 이전, 안정된 관계, 결혼준비 단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모듈형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공통' 주제, '결혼' 관련 주제(커플단위 재무설계, 결혼식 준비 등), '부모됨' 관련 주제, '재혼'이나 '국제결혼' 등 특화된 주제 등 참여자의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 주제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된 단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해외의 잘 알려진 단계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슈어스타트 시스템에서 채택하고 있는

근거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The Incredible Years는 아래 〈그림 4-1〉과 같이 아동의 연령대별 기본과정(basic parent program)을 토대로 다양한 심화과정이 개발되어 있다.

<그림 4-1> The Incredible Years 프로그램 Building Blocks



출처: http://www.incredibleyears.com/about/incredible-years-series/

4) 차시별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 개편

각 교실의 차시(교육주제) 중 자주 실시되는 차시와 그렇지 않은 차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 차시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 교실 모두 상대적으로 자주 실시되는 차시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덜 실시되는 차시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패밀리셰프 3차시 '함께하는 잔칫날, 아이 친구 초대하기'는 실시된 적이 거의 없었다. 자주 실시되지 않는 차시의 경우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부족해서인지, 해당 차시에 대한 참여자들의 요구가 적은 것인지에 따라 해결방안도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강사 FGI에 따르면, 특정 주제의 경우 전문적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의 강사풀에서 적절한 강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기존 강사들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할 것인지, 해당 주제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새롭게 발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5) 참여자의 요구, 현장의 목소리 반영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과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정성적 효과성 분석에서 중요하게 도출된 주제이다. 참여자의 요구와 교육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도 수정, 보완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예비부부교실 4차시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의 경우, 재무교육를 재테크 교육으로 오인하는 참여자가 많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테크 교육을 기대한 참여자들은 재무 관련 커플소통을 강조하는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참여자의 욕구와 교육내용의 미스매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4차시 주제명을 수정하거나 예비부부교실의 홍보과정에서 참여자에게 교육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비부부교실 5차시 '성평등한 동행'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다루는 차시이지만, 현장에서는 섹슈얼리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충실성(fidelity)은 높지 않지만, 본 연구의 결과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이런 경우에도 매뉴얼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예비부부교실: 외연 확대로 커플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본 연구에서 예비부부교실은 커플이 진지하게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목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도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다. 즉, 평소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던 주제(예: 돈, 양가부모, 섹슈얼리티)에 대해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파트너와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 받거나, 서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예비부부교실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커플관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렇듯 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예비부부교실이 고유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명한 커플관계교육 전문가인 Stanley 등(2006)은 결혼, 동거 등 관계의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과정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어쩌다보니(sliding)' 그러한 관계에 빠져들어서 동거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 '고민 끝의 결정(deciding)'이었는지에 따라 관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한국적 맥락에서도 어쩌다보니 결혼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진지하게 대화하여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고민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예비부부교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예비부부교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파트너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다.

커플소통의 장이라는 예비부부교실의 핵심취지를 감안할 때 결혼의향이나 결혼계획을 떠나 친밀한 파트너관계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등에서 예비부부교육이나 결혼준비교육(premarital education)이라는 용어가 marriage and relationship education과 couple(s) relationship(s)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거쳐, 최근에는 더 포괄적인 용어인 '관계교육(relationship education)'이라는 표현으로 진화했음(Stanley et al., 2020)은 참고할 만하다.

한국사회의 최근 비혼 트렌드를 보면, 친밀성 자체에 대한 거부보다는 결혼의 가부장성에 대한 반감이나 결혼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결혼을 선택한 예비부부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교육 이외에도, '결혼이나 동거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가', '결혼을 한다면 현재의 파트너가 적절한 배우자인가', '아이를 낳을 것인가 낳지 않을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개인과 커플에게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예비부부교실은 진지한 고민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섹슈얼리티, 출산 · 피임, 재무, 친인척관계 등 평소에 이야기하기 어려운 민감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각자가 서로의 배우자로 잘 맞는지 탐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량적 효과성 분석에서, 구체적인 결혼계획이 없는 여성에게 예비부부교실 참여의 우울감소 효과가 더 컸다. 이는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파트너에 대해 탐색하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것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커플소통이나 상호탐색의 장으로서 예비부부교실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비부부교실의 외연 확대와 더불어, 결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예비부부에 집중하는 기존의 교육내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의 비혼 트렌드는 결혼여부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커플의 역동이나 개인의 심리적 복지가 달라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는 결혼 이후 재산을 공유하고 친인척 관계가 형성되는 등 결혼이 가져오는 극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결혼에 대해 탐색하는 커플이나 개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결혼을 선택한 커플에게는 현재의 예비부부교실과 같은 차별적인 콘텐츠도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비부부교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결혼 및 파트너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를 통합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국제결혼이나 국제커플관계는 예비부부교실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주제이다. 이외에도 재혼을 통한 계부모가족의 형성, 비혼 동거 등 다양한 맥락에 특화된 주제에 대한 요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갖는 것에 관심이 있거나 부모됨에 대해 고민하는 커플을 위해 예비부부교실에서 부모됨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자발적 무자녀, 난임커플 등 부모됨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녀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커플단위로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됨과 자녀양육은 한국의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됨은 모듈형 교육과정에서 선택형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 서울가족학교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본 연구의 FGI 연구결과, 실무자-강사의 소통, 실무자-참여자의 소통 등 서울가족학교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역할이 교육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가족학교 담당 실무자를 위하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은 사업설명회, 실무자간담회 정도인데, 이는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서울가족학교 강사를 대상으로는 교실별 강사교육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교육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가족학교 담당 실무자에게는 저작권 문제 때문인지 교육매뉴얼을 제공하지 않고, 강의자료 슬라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강의 슬라이드를 통해 각 교실의 취지나 지향점 등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개별 교실의 심층적인 내용을 숙지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가족학교에서 강사뿐만 아니라 실무자의 전문성이 교육효과에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각 교실에 대한 실무자의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등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전문성 강화는 처우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강사 FGI에서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의 업무과중과 이로 인한 실무자의 잦은 교체가 교육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현재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2명의 실무자가 서울가족학교 5개 교실을 담당하고 있어서 업무량이 과도한 상황이다. 업무량이 과도하고 실적이나 만족도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 실무자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실무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센터, 종사자, 참여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서울가족학교의 효과성 제고에서 기본적인 요건이다.

PART Ⅱ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1. 가족상담의 전문성 강화
2. 효과성 연구의 체계 확립: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 개발
3. 상담사 처우 개선
4. 상담의 효과성 및 내담자 중심 운영체계 구축
5. 비대면 가족상담 지원체계 구축
6. 홍보 강화

1. 가족상담의 전문성 강화

가족상담의 효과는 전문성으로부터 나온다. 의료서비스 안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 상담서비스 내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다. 가족상담은 일반 개인상담과 다르다. 2인 이상 가족내담자들을 만나 대화 및 중재해야 하는 가족상담이 1대 1로 대화하는 일반 개인상담과 같을 수 없다. 가족관계와 역동의 문제를 가족원 한 명과의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가족상담 분야에는 오랜 역사를 거쳐 효과성이 입증된 이론 및 모델, 관점, 상담기법들이 구축되어 왔다. 따라서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교육, 수련, 훈련을 받은 전문성을 갖춘 상담가가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족'을 가족구성원이 얽혀서 상호작용하는 단위로 보는 가족체계론적 관점[9]에서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타 공공기관 및 센터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는 전문적인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족상담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1) 매뉴얼의 적극적 활용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사업 및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은 가족상담 매뉴얼(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5)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상담 매뉴얼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사업 운영의 체계화 확립, 가족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가족상담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에 제작되었다. 가족상담사업 운영규정과 절차 및 방법이 구체적,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내담자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채

9) 가족체계론적 관점(family systems perspective)이란 가족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바라보는 관점이며, 가족상담 전문성과 직결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의 상호의존성, 전체성, 가족 간의 경계, 위계 등을 가정하고 가족구성원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본다. 이러한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가족상담을 진행할 때 가족관계와 역동, 가족규칙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푸는 실마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용, 역량강화, 시설 및 운영 등의 영역에서 매뉴얼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뉴얼에는 가족상담 전문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센터관리자, 상담실무자 및 상담사의 매뉴얼 숙지 및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2)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에서 가족체계론적 관점의 적용

가족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가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들은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의 체계적 운영을 매우 유용하게 생각하고 만족스러워 하였다. 그러나 가족체계론적 관점으로 진행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가족상담 분야에서 교육이나 수련을 받지 않은 슈퍼바이저가 가족상담사례를 개인상담 관점에서 해석하고 개인 중심 해법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및 가족상담사의 가족상담 목표를 향한 방향성(예: 가족의 갈등 완화, 지지체계 구축)과 슈퍼바이저의 방향성(예: 개인의 자존감)이 맞지 않아 슈퍼비전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혼동을 주게 된다. 따라서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에서 가족상담사례를 다룰 때,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실시하여 가족상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

가족상담의 전문성은 가족상담 교육, 수련, 훈련을 정식으로 받은 상담사에 의해 강화된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며, 가족상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의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 관련 재교육 및 수련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족상담사에 대한 자격 강화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상담 효과성을 높인다.

4) 가족상담 관련 학회와 연계

가족상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가족상담사의 학회 활동은 꾸준한 재교육을 통해 상담사의 역량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담사의 역량이 가족상담 효과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상담사의 학회 활동을 장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슈퍼비전, 사례회의, 보수교육, 워크숍, 세미나 등을 센터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족상담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학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슈퍼비전이나 사례회의는 관련 학회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음은 매뉴얼에도 나타나 있다.

5) 물리적 환경 개선

가족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족상담에 맞는 물리적 환경이 요구된다.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 환경은 개인상담 위주로 세팅되어 있어 가족상담을 진행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다. 가족상담을 진행하기에 공간이 비좁고 테이블이 없는 경우도 많다. 부부 및 가족상담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상담실 환경은 상담의 진행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효과성도 관련이 깊다.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라포형성을 위한 상담사와 가족 내담자 사이의 자연스러운 눈맞춤이 가능하고 편안한 대화도 가능하다. 상담실 공간의 활용은 가족상담 치료 기법(예: 놀이치료, 가족조각[10])에서도 사용되는 만큼 적절한 크기의 가족상담실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은 필수적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상담사들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의 확보는 상담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체계적인 사례선별 시스템이 부재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은 고위험군 사례가 들어오게 되고, 이는 상담사의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가족상담 매뉴얼에 상담사 안전확보를 위하여 CCTV 및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를 철저하게 지키는

10) 가족조각이란 가족체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공간을 상징적, 비유적으로 활용하는 가족치료 기법이다. 현실의 공간에 가족원들을 위치시킴으로 가족관계나 상호작용을 표현하게 하는 활동으로, 상담실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피규어 등을 활용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직접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공간이 필요하고, 피규어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크기의 테이블이 필요하다.

센터는 많지 않다(최연실 외, 2019). CCTV 및 비상벨이 구비되어 있는 상담실, 그렇지 않은 상담실이 혼재되어 있고, 많은 상담사들이 CCTV 및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혹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채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6) 관리자(센터장, 사무국장)의 역할: 가족상담의 전문성 이해를 토대로 체계적 운영

본 연구의 상담사 FGI 결과, 가족상담의 전문성 강화 체계를 갖추는 데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리자(센터장, 사무국장 등)의 방향성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상담사들에 의하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사업은 "센터장을 많이 탄다"라고 표현된다. 센터장의 가족상담사업에 대한 열정이나 방향성에 따라 운영방식과 활성화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족상담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단위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통찰이 깊은 관리자들은 가족상담사업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나, 가족상담의 전문성에 대한 입장이 다른 관리자들은 가족상담사업을 매우 어렵게 느낀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상담사들은 중앙에서 방향성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의 '가족' 중심의 상담서비스는 본질적인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가족상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리자의 역할과 가족중심 관점이 필수이다.

2. 효과성 연구의 체계 확립: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 개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은 정기적인 효과성 연구의 체계적 확립으로 유지 및 향상될 수 있다. 효과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개발된 가족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가족상담프로그램 없이 진행된 효과성 연구에서는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량적 효과성 연구가 탐색적으로 진행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가족상담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이론과 기법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만 진행될 경우,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상담효과는 공통요인 효과[11] 중심으로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가족상담사업의 효과성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부부상담: 갈등완화를 위한 정서중심부부치료 프로그램', '가족상담: 청소년 비행행동 감소와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인지행동가족치료 프로그램', '부모상담: 건강한 부모됨을 위한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대상과 다루는 주제 및 적용하는 이론과 기법이 명확한 가족상담프로그램 매뉴얼이 필요하다.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을 사전검사-사후검사를 통해 측정하여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 또한 어떤 점이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의 정기적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데이터 구축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효과성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가족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실제로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상담성과에 도움이 된다. 또한, 효과성이 확인되면 홍보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가족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근거기반 가족상담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다.

11) 공통요인(common factors)은 상담의 효과성에 있어서 특정 상담이론이나 모델과 관련 없는 상담환경과 관련된 공통된 요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상담사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therapeutic alliances), 내담자의 기대, 내담자의 경험 등이 있다.

3. 상담사 처우 개선

상담사는 내담자와 직접 만나는 채널로, 내담자가 느끼는 상담에 대한 만족도 혹은 효과성은 상담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이는 본 연구의 내담자 면접에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내담자 입장에서 상담의 효과를 생각할 때 상담사 변인을 제외하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효과성이 유지 및 향상되기 위해서는 역량있는 상담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사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가족상담사업 운영현황 〈표 3-4〉 자치구센터의 상담사 인건비에도 나타났듯이, 상담사에게 주어지는 사례비의 평균이 20,000원을 넘지 않는다.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가족상담사의 교육 수준,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받은 수련 및 훈련 기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처우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상담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는 상담의 효과를 저해한다.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상담사들이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상담에 대한 합당한 처우가 따르지 않다 보니 경력이 많은 상담사보다는 초심상담사가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슈퍼비전, 보수교육, 사례회의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사들은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을 위해 처우가 열악하여도 열정과 헌신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경력이 쌓이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도 처우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사명감과 인간적인 정으로 남아있는 상담사도 있으나, 많은 상담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떠난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악순환이 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은 상담사들이 경력을 쌓기 위한 장소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상담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종국에는 경력이 많고 좋은 상담사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에 대한 평판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방해요인이 된다. 따라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상담사 사례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일괄적으로 높이는 것도 필요하나, 동시에 경력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상담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게 되면 경험 많은 좋은 상담사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상담할 수 있고, 이러한 상담사들의 지속적, 안정적 근무를 통해 상담 효과성 높일 수 있다.

4. 상담의 효과성 및 내담자 중심 운영체계 구축

상담의 효과성을 위해서 현재의 행정 중심 시스템을 탈피하고 내담자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임에도 행정상 두 개의 사례로 나눠지게 되면 상담과정을 한 눈에 보기 어려워져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담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고위험군 사례나 사례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에 맞지 않는 고위험군 사례를 받게 되면 관리도 힘들고 효과를 볼 수도 없게 된다. 내담자 사례 중심으로 관찰이 가능하도록 행정시스템이 구축되면 상담 관리를 하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족상담지원사업의 평가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센터에서 실적 수에 대한 압박이나 타 센터와 경쟁구도로 인하여 행정처리 위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내담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에 대한 평가를 완화하여 실적 늘리기보다 내담자의 복지를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적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되면, 과도한 행정 일을 줄게 되고 상담사례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가족상담사업에서 사례 및 상담서비스 관리는 행정 일 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다. 이렇게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 내담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상담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회기수 및 회기 길이에 대한 융통성 또한 필요하다. 가족상담의 경우 2인 이상과 상담하기 때문에 한 회기 50분은 부족하다고 상담사와 내담자 모두에게 목소리를 모았다. 한 회기 90분의 옵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또한 회기수의 부족이 효과성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가족상담을 통해서 변화를 막 경험하기 시작한 가족내담자들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가족관계의 변화를 유지시키기 원한다. 이에 특정 회기수를 초과하면 상담 유료화를 통하여 상담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상담을 받고 싶어도 규정상 못 받게 되는 가족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회기수 및 회기 길이를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센터들에서 풀타임 상담사가 행정실무 중심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상담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풀타임 상담실무자 혹은 상담사가 상담은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상담은 파트타임 상담사 혹은 자원봉사 상담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내담자 면접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내담자는 센터의 풀타임 가족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더욱 안정적으로 상담이 진행된다고 느낀다. 평가체계의 완화를 통하여 행정 일을 줄이고 풀타임 상담사가 고유 업무인 상담을 할 수 있을 때,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사례의 수가 늘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로 중간 컨트롤 기관이나 가족상담 전문 슈퍼바이저를 두는 것을 제안한다. 가족상담사업의 좀 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역을 예를 들어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이 권역별 기관이나 슈퍼바이저가 고위험군 사례의 처리, 사례 적절성 관리, 연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관리 등과 관련한 대처를 담당할 수 있다. 상담사 안전 확보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더욱 필요한 역할이다. 해외 상담기관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 이러한 역할은 상담실무자 위치에 가족상담 슈퍼바이저급 인력이 채용되어 상담실무자가 담당하는 일들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실무자는 가족상담 슈퍼바이저급 인력으로 채용되지 않고, 상담사례를 맡을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 역할을 담당하는 추가적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센터 간의 연계 혹은 조율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권역별 기관 혹은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유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슈퍼바이저가 부족하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최연실 외, 2019), 가족상담 전문가를 권역별 슈퍼바이저러 채용하게 되면 가족체계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가족상담 전문 슈퍼바이저에 대한 갈증도 해소될 수 있고 상담사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비대면 가족상담 지원체계 구축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등의 비대면 가족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센터가 휴관하게 되어 대면상담이 장기간 불가능하였고 가족상담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비대면상담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비대면 가족상담의 체계적인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비대면 가족상담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개별 센터가 해결하기 힘든 부분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우선, 비대면 가족상담 운영체계를 위한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비대면상담 매뉴얼에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개인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의 구축, 비대면으로 상담동의서를 받는 방법 및 절차,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녹음 및 녹화된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체계적인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부 및 가족 대상의 비대면 상담을 위한 상담기법과 관련된 워크숍을 제공할 수 있다. 즉 가족구성원들과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는 어떻게 치료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상담윤리 교육 워크숍을 제공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문제는 대면상담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대면 가족상담 운영체계의 구축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전염병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기도 하지만,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상담의 효과 및 내담자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는 내담자 인터뷰에서도 언급된 부분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두 달 정도를 기다리고 상담을 받게 되었고, 온라인 상담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상담 신청 후 두 달 이상을 기다리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기하게 되어 내담자의 문제는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상담 운영체계가 구축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적기에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에 상담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내담자와 상담사가 일정을 정하는 데 훨씬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공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더 많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6. 홍보 강화

아무리 효과적인 가족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사들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개인상담과는 다른 가족상담의 특징과 전문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부부 및 가족문제가 있을 때 부부 및 가족상담 전문성을 가진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 내담자들이 상담받기 전에는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상담의 특징 및 전문성에 대해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세련된 홍보를 통해 가족상담 서비스를 알릴 필요가 있다.

PART III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제언

1.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 등 차별적 가족사업 강화
2. 서울가족사업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관리, 분석
3. 재이용자를 고려한 사업모형 개발
4.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가 공존하는 사업모형 개발

1.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 등 차별적 가족사업 강화

가족관점을 토대로 한 가족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서울가족학교와 가족상담지원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1) 서울가족학교의 차별성 강화

여러 공공기관에서 부모교육이나 커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별 강사의 강의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회성 교육인 경우도 많다. 반면 서울가족학교는 구조화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으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가족학교만의 교육매뉴얼과 강의자료가 개발되어 있고, 전문강사풀이 있으며 강사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가족학교와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가족교육사업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울 이외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우수한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 입증된 서울가족학교의 효과성을 토대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향후 서울가족학교 사업을 보다 진화된 형태로 추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차별성 강화

상담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많지만,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족상담이란 2인 이상의 가족이 참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상담의 고유한 이론과 방법을 활용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사업에서도 개인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상담사업은 가족상담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가족상담의 차별성을 인지하고 가족상담지원사업이라는 별도의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예산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 향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가족학교와 함께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인 가족상담지원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2. 서울가족사업 데이터의 체계적 구축, 관리, 분석

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사업 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허브의 역할은 가족사업과 관련된 풍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가족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홍보에서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구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역할이 될 수 있다.

1) 사업 운영 및 효과성 데이터 구축, 관리, 분석

서울가족학교가 2015년에 시작되었고 가족상담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실시되어 왔음에도, 효과성 평가가 2020년에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는 7문항의 만족도조사와 함께 참여자수, 건수, 회기수 등의 사업성과가 효과성을 대신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만족도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를 유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만족도와 사업효과의 상관관계는 강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업실적(참여자수, 건수 및 회기수, 만족도 등)을 취합하고 집계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가족사업의 데이터를 구축, 관리, 분석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가족사업의 데이터 구축은 크게 운영 측면과 효과성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운영 관련 데이터는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로서, 현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취합하고 있는 실적 이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취합해 온 정보는 참여자수, 회기수, 회기별 주제 등 전반적인 정보였다면, 앞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가, 탈락율은 어떠한가, 회기별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했는가, 교

육 · 상담 매뉴얼과의 일치도는 어떠한가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만족도 역시 현재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추천의향의 평균을 산출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및 사업 요인은 무엇인가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효과성 데이터 확보의 경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 효과성 평가 연구를 발주한 것이 첫 걸음이다[12]. 가족사업은 참여자의 지식, 태도, 행동 등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데이터 구축은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후 만족도조사 데이터만을 취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각 자치구에서 적절한 효과성지표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데이터인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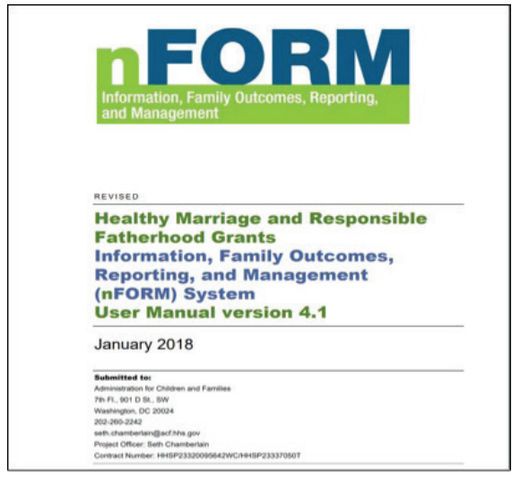
2)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 개발

서울가족사업 데이터의 구축, 관리, 분석을 위해서는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엑셀파일 형태의 템플릿을 사용하여 매달 25개 자치구센터의 실적을 취합하고 있다. 서울가족학교의 5개 교실의 자료만 취합하더라도 5개 교실 × 25개 자치구 × 12개월의 시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취합하고 관리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또한 본 연구팀이 취합된 2018, 2019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추가적인 코딩을 필요로 하는 등 분석에 불편함이 많았다. 현재 비교적 간단한 만족도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되는데, 위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운영과 효과성 측면의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하고자 한다면 엑셀파일 형태의 자료는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사업의 데이터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Healthy Marriage and Responsible Fatherhood 사업의 데이터를 구축, 관리, 분석하기 위해 nFROM(Information, Family Outcomes, Reporting and Management)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매스매티카(Mathematica) 사에서 개발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주체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입력된 데이터의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온라인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12) 과거에도 자치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살펴본 경우는 있다.

<그림 4-2> nFORM 매뉴얼 표지



출처: https://www.famlecross-site.com/nForm/Content/nFORMManual.pdf

데이터는 효과적으로 분석되고 활용되어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매우 다양한 사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건상 데이터 분석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가 적절하게 분석,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가족사업의 기획과 평가 분야에서 큰 손실이다. 자치구센터와 현장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광역센터로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데이터의 '창고(倉庫)'가 아니라 데이터의 '보고(寶庫)'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3. 재이용자를 고려한 사업모형 개발

서울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도 약 15년이 경과하였고, 서울가족학교도 6년간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서울시 가족사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본 연구의 결과,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 중 과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이 중 대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부모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이렇듯 가족사업 이용자 중 재이용자의 비율이 높다면 앞으로의 사업모형에서는 재이용자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사업을 실시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서울가족학교 참여자들은 총 회기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고, 심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실제로 심화회기를 실시한 경우 교육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기도 하였다. FGI 결과, 강사나 실무자들은 같은 교실을 2회 이상 중복수강하는 참여자가 적지 않은데, 이때 같은 교육내용을 접하게 되는 것이 교육효과의 장애요인이라고 하였다. 만족도조사의 개방형 응답 분석 결과, 서울가족학교 참여자가 추가로 받고 싶은 교육주제의 상당수는 서울가족학교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교육주제(차시)인 경우가 많았다.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본인이 참여한 교육에서는 회기수의 제한으로 다루지 않은 주제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깊이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가족상담지원사업 FGI에서는 내담자 및 상담자 모두 추가상담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상담을 더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재이용자를 고려하는 사업모형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현재의 교육을 기본교육이라고 할 때 심화교육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현재의 서울가족학교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심화교육에서는 한 가지 주제를 여러 회기에 걸쳐 보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일부 자치구센터에서 재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을 별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심화교육은 서울가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지 않다. 서울가족학교를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단계화하고, 심화교육 커리큘럼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준에서 개발하는 것이 체계적 사업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심화교육 강사 선발 및 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서울가족학교 사업에서는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차시(주제)를 고루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자주 다루어지는 차시가 있었는데, 이들 차시는 보다 기본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재이용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주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자치구센터에서 상반기에는 1, 3, 5차시를 다루고, 하반기에는 2, 4, 6차시를 다룰 수 있다. 이때 자치구센터에서 선호하지 않는 차시가 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당 차시의 교육 매뉴얼이 참여자의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매뉴얼을 개편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섭외하기 어렵다면 전문강사풀을 구축하는 등의 역할을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사업과 교육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즉 가족상담 이용자가 가족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거나, 가족교육 참여자가 상담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특성상 사설상담기관처럼 수십 회기의 상담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족상담지원사업을 통해 주 호소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면 서울가족학교 등 다른 사업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상담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가족상담의 주 호소문제가 커플관계인 경우에는 서울가족학교에 연계할 수 있는 교실의 선택지가 부족하다. 서울가족학교에 예비 · 신혼부부교실이 있지만 신혼기를 넘어선 커플이 참여할 수 있는 교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가족학교는 예비 · 신혼부부교실을 제외한 4개 교실은 모두 부모역할이나 부모자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서울가족학교에 커플교육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4.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가 공존하는 사업모형 개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기휴관으로 인해, 비대면사업을 중심으로 가족사업이 운영되었다. 서울가족학교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실시되었으며,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아예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2020년 비대면 가족사업의 운영은 비대면 가족서비스의 가능성과 편리함, 한계를 모두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도 비대면으로 실시된 서울가족학교의 정량적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정성적으로도 비대면 교육의 강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참여자, 강사, 실무자 모두 비대면 교육의 제한점 또한 강조하였다.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가족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가 공존하는 가족사업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2020년의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따라서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가 공존하는 사업모형을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면서비스와 비대면서비스가 공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두 가지 옵션을 이용자들에게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특성이나 교육특성에 따라 대면서비스가 선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비대면서비스가 선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둘째, 대면과 비대면을 창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2020년에 시도된 방식, 즉 비대면교육을 실시한 이후 대면으로 만나서 추후활동을 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반대로 대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비대면교육을 나중에 실시할 수도 있다.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대면교육을 통해 교육동기를 유발하고 라포를 형성한 후에 구체적인 강의는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기존의 대면서비스를 온라인에서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서울가족학교의 경우 2020년에는 갑작스러운 비대면교육 전환으로 기존의 대면교육 매뉴얼을 비대면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향후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의 차시를 유지하더라도 비대면교육을 위한 사업모형과 교육매뉴얼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족상담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비대면 가족상담 매뉴얼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때 대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해외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 커플교육 프로그램인 PREP은 ePREP을,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Triple P는 Triple P Online을 별도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혼 전 부모교육을 필수로 하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혼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오프라인 버전과 온라인 버전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대학교 익스텐션에서는 Parents Forever 프로그램의 비대면버전인 Parents Forever Online이 있다.

가족상담지원사업도 장기적으로는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 중에서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상담지원사업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비대면사업의 세부적인 모형개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실시 건수가 매우 적었으며, 비대면상담도 전화 등을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가족상담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예산 자체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의 선택지를 모두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대면상담과 비대면상담이 공존하는 가족상담지원사업의 모형을 기획하고자 한다면, 사업의 예산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산이 확충되어 비대면상담을 사업모형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면, 가족상담의 특수성(2인 이상 참여하는 가족체계적 관점의 상담)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지원사업은 비대면상담에 대한 탐색과 노하우 축적, 인력 확보 및 교육 등 제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5), 141-150.

김선주, 박정윤 (2013)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3), 19-37.

박경은(2015).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교육 확대 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67-175.

박수선(2013). 신혼기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건강가정지원센터 신혼기 부부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1), 85-98.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9). 2019년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9). 2019년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계획.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20). 2020 가족상담지원사업 운영안내 및 지침.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20). 2020년 서울가족학교 사업운영매뉴얼.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20). 2020년 서울가족학교 운영지원계획.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2019). 2019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실적 분석보고서. Retrieved from https://familyseoul.or.kr/node/8308

송혜림, 정영금(200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20.

이현숙(2003). 1970년대 출생 동시집단의 신혼기 부부의 결혼관과 결혼준비 실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아(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효과 분석. 현대사회와다문화, 10(2), 143-175.

이현아, 박철, 김선미(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경험과 요구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319-349.

정영금, 강기정, 박정윤, 정지영, 조성은(200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브랜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1), 83-98.

정지영, 정영금, 조성은(200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4), 93-114.

최연실, 조은숙, 박우철, 기쁘다(2019). 2019 서울가족사업 활성화 연구보고서 I: 서울지역 가족상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간등록번호 2019-기획총괄-008).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최형성, 정옥분(2001).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척도 개발. 부모교육연구, 7(1), 45-58.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5). 가족상담 매뉴얼. 여성가족부.

Barbato, A., & D'Avanzo, B. (2008). Efficacy of couple therapy as a treatment for depression: A meta-analysis. Psychiatric Quarterly, 79(2), 121-132.

Basch, C. E. (1987). Focus group interview: An underutilized research technique for improving theory and practice in health education. Health Education Quarterly, 14(4), 411-448.

Bienvenu Sr,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Family Coordinator, 19(1), 26-31.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Chamberlain, P., & Rosicky, J. G. (1995). The effectiveness of family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dolescents with conduct disorders and delinquenc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4), 441-459.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outledge.

Curtis, N. M., Ronan, K. R., & Borduin, C. M. (2004). Multisystemic treatment: a meta-analysis of outcome stud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3), 411-419.

Duncan, S. F., & Goddard, H. W. (2017). Family life edu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for effective outreach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5), 581-586.

Hendrick, S. S., Dicke, A., & Hendrick, C. (1998). The relationship assessment scal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1), 137-142.

Kazdin, A. E., & Weisz, J. R. (1998). Identifying and developing empirically supported child and adolescent treatm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1), 19-36.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L. T.,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Kessler, R. C., Andrews, G., Colpe, L. J., Hiripi, E., Mroczek, D. K., Normand, S. L.,... & Zaslavsky, A. M.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Lobban, F., Postlethwaite, A., Glentworth, D., Pinfold, V., Wainwright, L., Dunn, G.,... & Haddock, G. (2013).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of interventions reporting outcomes for relatives of people with psych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3), 372-382.

Longhurst, R. (2003).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focus groups. Key Methods in Geography, 3(2), 143-156.

McCart, M. R., Priester, P. E., Davies, W. H., & Azen, R. (2006). Differential effectiveness of behavioral parent-training an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antisocial youth: A meta-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4), 525-541.

Schumm, W. R., Paff-Bergen, L. A., Hatch, R. C., Obiorah, F. C., Copeland, J. M., Meens, L. D., & Bugaighis, M. A.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381-387.

Sexton, T., & Turner, C. W. (2010). The effectiveness of functional family therapy for youth with behavioral problems in a community practice sett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3), 339-348.

Small, S. A., Cooney, S. M., & O'Connor, C. (2009). Evidence-informed program improvement: Using principles of effectiveness to enhance the quality and impact of family-based prevention programs. Family Relations, 58, 1-13.

Sprenkle, D. H. (2002). Effectiveness research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merican Association for Marriage and Family Therapy.

Stanley, S. M., Rhoades, G. K., & Markman, H. J. (2006). Sliding versus deciding: Inertia and the premarital cohabitation effect. Family Relations, 55(4), 499-509.

Stanley, S. M., Hoyer, L., & Trathen, D. W. (1994). The Confidence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Stanley, S. M., Whitton, S. W., & Markman, H. J. (2004). Maybe I do: Interpersonal commitment and premarital or nonmarital cohabit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5(4), 496-519.

Stanley, S. M., Whitton, S. W., & Markman, H. J. (2004). Maybe I do: Interpersonal commitment and premarital or nonmarital cohabit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5(4), 496-519.

Taylor-Powell, E., & Henert, E. (2008). Developing a logic model: Teaching and training guide. Retrieved from

https://fyi.extension.wisc.edu/programdevelopment/files/2016/03/lmguidecomplete.pdf

Whisman, M. A., Johnson, D. P., Be, D., & Li, A. (2012). Couple-based interventions for depression.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3), 185-198.

부록

설문지

[부록 1] 예비부부교실 정량적 효과성 조사 설문지
1-1. 사전조사 설문지
1-2. 사후조사 설문지
1-3. 실무자 조사 설문지

[부록 2] 아동기 부모교실 정량적 효과성 조사 설문지
2-1. 사전조사 설문지
2-2. 사후조사 설문지: 대규모, 병합형
2-3. 사후조사 설문지: 참여형
2-4. 실무자 조사 설문지

[부록 3] 가족상담지원사업 정량적 효과성 조사 설문지
3-1. 내담자 사전조사 설문지
3-2. 내담자 사후조사 설문지
3-3. 상담사 조사 설문지

부록 1-1 서울가족학교 추진과정 및 추진체계

1. 귀하가 신청하신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은 어느 자치구에서 개설되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2. 귀하는 신청하신 <예비부부교실>이 개설된 자치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3. 귀하가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결혼 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② 예비 배우자의 권유에 의해 ③ 부모님,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④ 교육비가 무료라서 ⑤ 기타_____

4. 귀하가 본 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②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③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웨딩 관련)에서 정보를 얻어서 ④ 기타_____

※ 다음은 결혼 및 커플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파트너(예비 배우자)와 의논하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귀하의 응답은 파트너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5. 귀하와 파트너(예비 배우자)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성격 특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바라는 결혼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파트너의 성격 특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파트너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파트너의 성장배경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파트너의 친구관계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파트너가 바라는 결혼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파트너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우리 관계의 성평등 수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파트너의 소비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파트너의 저축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부부로서 생애주기별 재무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부부로서 우리 두 사람의 소득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파트너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파트너와 이야기할 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우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소통에 도움이 되는 나 전달법(I message)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파트너와 성(性)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성별에 따라 파트너와 내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와 파트너(예비 배우자)는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입양 포함)

	있다	없다	모르겠다
6-1. 귀하	①	②	③
6-2. 파트너	①	②	③

7. 귀하와 파트너는 다음의 내용을 얼마나 의논했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결혼 후 나의 가족, 친척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는 결혼 후 파트너의 가족, 친척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는 결혼 후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는 결혼 후 생활비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는 결혼 후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는 결혼 후 맞벌이를 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는 결혼 후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자녀를 몇 명 가질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9) (BASE: 6-1=1|3 or 6-2=1|3) 우리는 자녀를 언제 가질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BASE: 6-1=1|3 or 6-2=1|3)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는 피임방법을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파트너는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2) 나는 우리 관계에 만족한다					
3) 우리 관계는 다른 커플들과 비교했을 때 좋다					
4) 나는 파트너와 연인이 된 것을 후회한다					
5) 파트너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커플관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6) 나는 파트너를 사랑한다					

9. 귀하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관계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다					
2)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자신이 있다					
4)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다					

10. 귀하와 파트너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 험담하며 과거에 받은 상처를 들추면서 싸운다					
2) 파트너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3) 파트너는 내 말과 행동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4)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파트너는 내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5) 우리 중 한 명은 다투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11. 귀하의 지난 30일 동안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그랬다	매우 그랬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귀하 및 귀하 파트너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응답은 통계분석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3. 귀하의 출생연도는 몇 년입니까? [ ][ ][ ][ ] 년

14-1. 귀하의 올해(2020년) 생일이 지났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최종 졸업학교를 기준으로 응답; 대학교 재학, 휴학, 중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응답)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2-3년제) 졸업
③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1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무교 ② 불교 ③ 개신교(기독교) ④ 천주교 ⑤ 기타

17.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최근 30일)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① 일했음 ② 학교에 다녔음 ③ 취업준비(구직활동, 고시, 진학준비 직업훈련 등)
④ 육아/가사 ⑤ 쉬었음(일시 휴직, 휴가 포함) ⑥ 기타

18. 지난 1년(최근 12개월) 동안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이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900만원 미만
⑩ 900~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19.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①	②	③	④	⑤

20. 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예비부부교실> 이외에 유사한 주제(연애, 결혼, 가족 등)에 관한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여기서 교육이란 지역사회, 종교기관, 대학교 등에서 2시간 이상 실시된 활동 등을 의미
① 예 ② 아니오

21. 귀하 커플은 결혼하셨습니까?
① 예 (21-1번으로) ② 아니오 (22번으로)

21-1. (BASE: 21=①) 귀하 커플은 언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식과 혼인신고 중 먼저 한 것 기준)
_____년 _____월 _____ 일 ※ 응답후 25번으로 이동

22. (BASE: 21=2) 귀하 커플의 교제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까?
① 예 (22-1번으로) ② 아니오 (22-2번으로)

22-1. (BASE: 22=①) 귀하 커플이 교제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_____년
22-2. (BASE: 22=②) 귀하 커플이 교제한 지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_____개월

23. (BASE: 21=②) 귀하 커플은 평균적으로 1주일에 며칠 직접 만나십니까?
1주일에 _____일

24. 귀하는 현재 교제 중인 파트너와 결혼할 의향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1. (BASE: 24=③~⑤) 귀하 커플은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24-2번으로) ② 없다 (25번으로)

24-2. (BASE: 24-1=①) 귀하 커플은 언제 결혼하실 예정입니까? 정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략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결혼식과 혼인신고 중 먼저 할 예정인 것 기준)
_____년 _____월

25. 마지막으로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여쭙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귀하와 파트너의 교육 전-후 응답을 매칭하여 분석하기 위함으로 꼭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매칭에만 사용되며, 매칭한 이후에 즉시 폐기됩니다.

25-1.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25-2. 파트너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면 '5678'만 기입)				

부록 1-2 예비부부교실 사후조사 설문지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출생연도는 몇 년입니까? [ ][ ][ ][ ] 년

3. 귀하는 <예비부부교실> 시작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셨습니까?
   ① 예(4번으로) ② 아니오(12번으로)

4. 귀하와 파트너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여쭙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귀하와 파트너의 교육 전-후 응답을 매칭하여 분석하기 위함으로 사전조사에서 입력하신 귀하와 파트너의 전화번호 뒷 4자리를 꼭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매칭에만 사용되며, 매칭한 이후에 즉시 폐기됩니다.

4-1.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4-2. 파트너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면 '5678'만 기입)				

※ **다음은 결혼 및 커플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관한 문항입니다. 파트너(예비 배우자)와 의논하지 말고 응답하십시오. 귀하의 응답은 파트너에게 공개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5. 귀하와 파트너(예비 배우자)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성격 특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바라는 결혼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파트너의 성격 특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파트너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파트너의 성장배경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파트너의 친구관계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파트너가 바라는 결혼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파트너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우리 관계의 성평등 수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파트너의 소비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파트너의 저축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부부로서 생애주기별 재무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부부로서 우리 두 사람의 소득을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파트너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파트너와 이야기할 때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우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소통에 도움이 되는 나 전달법(I message)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파트너와 성(性)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성별에 따라 파트너와 내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귀하와 파트너(예비 배우자)는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습니까? (입양 포함)

	있다	없다	모르겠다
6-1. 귀하	①	②	③
6-2. 파트너	①	②	③

7. 귀하와 파트너는 다음의 내용을 얼마나 의논했는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는 결혼 후 나의 가족, 친척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는 결혼 후 파트너의 가족, 친척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는 결혼 후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는 결혼 후 생활비로 얼마나 지출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는 결혼 후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는 결혼 후 맞벌이를 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는 결혼 후 직업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자녀를 몇 명 가질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9) (BASE: 17-1=1|3 or 17-2=1|3) 우리는 자녀를 언제 가질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BASE: 17-1=1|3 or 17-2=1|3)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는 피임방법을 의논했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파트너는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					
2) 나는 우리 관계에 만족한다					
3) 우리 관계는 다른 커플들과 비교했을 때 좋다					
4) 나는 파트너와 연인이 된 것을 후회한다					

5) 파트너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커플관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6) 나는 파트너를 사랑한다					

9. 귀하와 파트너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관계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유지할 자신이 있다					
2)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가 함께할 미래에 자신이 있다					
4) 우리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다					

10. 귀하와 파트너의 관계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 험담하며 과거에 받은 상처를 들추면서 싸운다					
2) 파트너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3) 파트너는 내 말과 행동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4)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파트너는 내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					
5) 우리 중 한 명은 다투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11. 귀하의 지난 30일 동안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그랬다	매우 그랬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귀하가 참여하신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에 대한 문항입니다.

12. 귀하가 참여하신 <예비부부교실>은 어느 자치구에서 개설되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13. 귀하가 참여한 <예비부부교실>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① 대면(오프라인) (13-1번으로)
② 비대면(온라인) (13-2번으로)
③ 대면, 비대면 혼용 (오프라인+온라인) (13-1번으로)

13-1. (BASE 13=① or ③)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예비부부교실> 교육장소까지 오는데 교통편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도보로 이동했다면 도보시간 기입)
※ 13=①이면, 응답 후 14번으로 / 13=③이면, 응답 후 13-2번으로
① 15분 이내 ② 16-30분 ③ 31-45분 ④ 46-60분 ⑤ 60분 이상

13-2. (BASE 13=② or ③) 귀하는 어떤 기기를 사용하여 온라인(비대면) <예비부부교실>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컴퓨터 (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 (아이패드 등) ③ 스마트폰 ④ 기타

13-3. (BASE 13=② or ③)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예비 배우자)는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 <예비부부교실>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내용은 결혼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해 응답)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1) 프로그램이 운영된 요일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2) 프로그램이 운영된 시간대는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3) 프로그램의 총 소요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얼마나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0-10점)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0점)										반드시 추천하고 싶다(10점)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6. 귀하가 참여하신 <예비부부교실>은 몇 회기였습니까? 한 회기는 2시간입니다. 이틀 동안 모두 합해서 4개 주제(총 8시간)를 교육했다면 4회기입니다.

① 1회기 ② 2회기 ③ 3회기 ④ 4회기 ⑤ 5회기 ⑥ 6회기 이상

17. 다음은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귀하가 참여한 <예비부부교실>에서 회기별로 다룬 주제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로직: 7-0번에서 응답한 회기의 수만큼 제시

1회기: _____ 2회기: _____

3회기: _____ 4회기: _____

5회기: _____ 6회기: _____

①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DISC 검사)	② 행복한 커플 대화법
③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④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⑤ 성평등한 동행	⑥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

18. 이번 <예비부부교실>의 각 회기별 귀하의 참석여부를 체크해주십시오.(참여하시지 않았을 경우 불참에 체크해주십시오.)

※ 로직: 17번에서 선택한 주제에 대해서만 질문

회기	참석 여부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DISC 검사)	① O ② X
행복한 커플 대화법	① O ② X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① O ② X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① O ② X
성평등한 동행	① O ② X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	① O ② X
지금 이 순간	① O ② X

19. 귀하는 이번 <예비부부교실>에 사정상 늦게(10분 이상)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 (BASE 19=①) 귀하가 이번 <예비부부교실>에 사정상 늦게(10분 이상) 참여한 교육 주제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①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DISC 검사)	② 행복한 커플 대화법
③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④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⑤ 성평등한 동행	⑥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

21. 귀하는 이번 <예비부부교실>에서 사정상 교육이 종료되기 전에 일찍(10분 이상)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BASE 21=①) 귀하가 이번 <예비부부교실>에 사정상 교육이 종료되기 전에 일찍(10분 이상) 도떠나신 교육 주제에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①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DISC 검사)	② 행복한 커플 대화법
③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④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⑤ 성평등한 동행	⑥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

23. 다음 회기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로직: 18번 참석한 주제에 대해서만 질문

주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DISC 검사)	①	②	③	④	⑤
행복한 커플 대화법	①	②	③	④	⑤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①	②	③	④	⑤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①	②	③	④	⑤
성평등한 동행	①	②	③	④	⑤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	①	②	③	④	⑤
지금 이 순간					

24.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예비부부교실>의 회기별 강사만족도입니다. 각 회기마다 강사 만족도를 체크해주십시오.

※ 로직: 18번 참석한 주제에 대해서만 질문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1)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강의내용 전달에 있어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적절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5. <예비부부교실>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적어주십시오. ※ **로직: 선택응답**

26. 현재 진행하는 <예비부부교실>의 교육내용 외에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 **로직: 선택응답**

27. <예비부부교실>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 **로직: 선택응답**

※ (BASE 3=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모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기프티콘(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28. 기프티콘을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없이 숫자만 기입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기프티콘 전송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기프티콘 전송 후 폐기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기입은 선택사항입니다.

_____

부록 1-3 예비부부교실 실무자 조사 설문지

※ **이 설문지는 모바일 기기보다는 컴퓨터에서 응답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 효과성 연구에 협조해 주신 센터에서 <예비부부교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어떤 자치구의 응답인지 삭제한 상태에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됩니다.

1. 귀하는 어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2. 사전-사후검사에 협조해 주신 이번 <예비부부교실>의 마지막 회기가 종료된 날(사후검사 실시일)은 며칠입니까? 2020년 _____월 _____일

3. 이번 <예비부부교실>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① 대면 (오프라인) (4번으로)
② 비대면 (온라인) (3-1번으로)
③ 대면, 비대면 혼용 (오프라인+온라인) (3-1번으로)

3-1. (BASE 3=② or ③) 비대면(온라인) <예비부부교실>은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사용한 방식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실시간 상호작용형 (강사와 참여 커플이 모두 비디오 또는 오디오로 실시간 참여하여 상호작용)
② 라이브 중계형 (라이브 방송처럼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참여자는 채팅창 등으로만 참여)
③ 사전 녹화형 (미리 제작한 영상을 참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청)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이번 <예비부부교실>은 몇 회기로 구성되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_____회기

5. 이번 <예비부부교실>에서는 심화회기를 운영하셨습니까?
① 예 (-> 5-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6번으로 이동)

5-1. (BASE 5=①) 이번 <예비부부교실>에서 운영한 심화회기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6. 이번 <예비부부교실>의 각 회기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습니까? 다음의 가능한 주제들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기타'란 예비부부교실 매뉴얼 교육 외에 심화회기로 진행한 교육주제를 의미합니다.)

※ 로직: 4번에서 응답한 숫자만큼 회기수 제시. 한 주제를 두 회기에 나누어서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한 주제를 2회 이상 선택하는 것 허용

6-1. 1회기: _____ 6-2. 2회기: _____

6-3. 3회기: _____ 6-4. 4회기: _____

6-5. 5회기: _____

①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DISC 검사)	② 행복한 커플 대화법
③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④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⑤ 성평등한 동행	⑥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
⑦ (BASE 5=①) 기타	

7. (BASE 3=③) 이번 <예비부부교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주제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DISC 검사)	② 행복한 커플 대화법
③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④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⑤ 성평등한 동행	⑥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
⑦ (BASE 5=①) 기타	

8. 이번 <예비부부교실>에서 '지금 이 순간'을 실시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9. 다음은 차시별 교육내용 및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제시된 보기의 교육내용이나 활동 이외에, 강사 또는 센터 재량으로 추가한 교육내용 및 활동이 있다면 [기타]를 선택하신 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9-1. (BASE 6=①) **'서로의 차이 이해하기'**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DISC 검사 및 유형 설명
- ◻ 서울-부산 활동
- ◻ 유형별 커플/부부관계(잘 지내는 방법, 주의할 점)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2. (BASE 6=②) **'행복한 커플 대화법'**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행복한 커플의 강점요소
- ◻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Gottman의 4가지)
- ◻ 동영상을 활용한 의사소통 사례 분석
- ◻ 건강한 의사소통 요건(감정/욕구 표현, 경청, 나전달법)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3. (BASE 6=③) **'결혼의 의미와 결혼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결혼의 정의 이야기 나누기
-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요건(현실인식능력, 독립심, 사랑의 삼각형,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 ◻ 결혼체크리스트(원가족, 건강상태 체크, 자녀/가사)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4. (BASE 6=④) **'우리 결혼 설계하기와 재무관리'**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우리 결혼 설계하기(작은 결혼식 등 결혼 트렌드)
- ◻ 재무대화의 중요성
- ◻ 생애주기별 재무계획 세우기
- ◻ 월급으로 한달 사는 시스템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5. (BASE 6=⑤) **'성평등한 동행'**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성 고정관념, 성역할에 대한 인식 진단
- ◻ 성(sexuality)에 대한 커플의 정의 나누기
- ◻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 ◻ 성평등한 동행을 위한 팁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6. (BASE 6=⑥) **'너와 나의 인생곡선, 이제 하나로'**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예비배우자 생애 이해의 중요성
- ◻ 각자의 인생곡선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 ◻ 가족관계 점검 체크리스트(원가족과의 관계, 가사분담)
- ◻ 우리 가족 이야기책 만들기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10. 이번 <예비부부교실>에서 참여자 모집을 위해 사용한 홍보매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치구 센터 홈페이지	② 지역신문, 지역 TV 등 언론
③ 인터넷 카페(웨딩 관련)	④ 인터넷 카페(지역 관련)
⑤ 자치구 센터 SNS	⑥ 자치구 센터회원 대상 문자
⑦ 지역 내 유관기관에 홍보요청	⑧ 지역 내 게시판(아파트, 대로변, 지하철 등)
⑨ 기타(_____)	

11. 이번 <예비부부교실> 프로그램 홍보를 시작한 후 참여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몇 주가 소요되었습니까?

① 1주 ② 2주 ③ 3주 ④ 4주 ⑤ 5주 ⑥ 6주 ⑦ 7주 ⑧ 8주

12. 이번 <예비부부교실> 프로그램 시작 이전에 신청자들에게 사전연락(안내문자, 전화 등)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이번 <예비부부교실> 1주차 종료 후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락(문자, 전화 등)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이번 <예비부부교육>에서는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전에 예치금을 받고 수료 후 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이번 <예비부부교육>에서는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료증 외에 수료선물을 증정하였습니까? (참석자 전원에게 증정한 선물은 수료선물로 보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16. 이번 <예비부부교육>에서 지각, 일찍 나간 참여자는 회기별로 몇 명이었습니까?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시면 대략적으로라도 응답해 주십시오.(지각 또는 일찍 나간 참여자가 없는 경우 0을 입력해주십시오.)

※ 로직: 4번에서 응답한 숫자만큼의 회기를 제시

	15-1. 총 참여인원 (지각, 일찍 나간 사람 포함)	15-2. 지각 인원수 (10분 이상)	15-3. 일찍 나간 인원수 (10분 이상)
1회기		( )명	( )명
2회기		( )명	( )명
3회기		( )명	( )명
4회기		( )명	( )명
5회기		( )명	( )명
지금 이 순간		( )명	( )명

17. 이번 <예비부부교실>의 참여자를 모집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적어 주십시오.※ **로직: 선택응답**

18. 이번 <예비부부교실>의 강사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 다음은 회기별 강사만족도입니다. 기존 만족도조사와 동일하게 회기별로 질문드리니, 한 분의 강사님이 여러 회기를 담당하신 경우에도 회기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19. '1회기' 강사님에 대해 다음 각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송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강의 시작시간(지각 여부)을 엄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강의운영 및 진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실무자와 충분히 논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전에 논의된 사항을 강의 운영 및 진행 시 충분히 실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의 시작 전, 센터소개를 적절히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강의내용 전달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해당 강사를 섭외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 로직: 이하 '1회기' 강사님과 같은 방식으로 4번에서 응답한 회기수만큼 질문 반복

20. 이번 <예비부부교실>의 효과성이나 만족도와 관련하여 말씀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로직: 선택응답

21. (BASE 3=② or ③) 이번 <예비부부교실>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향후 센터의 비대면 교육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2. <서울가족학교> 담당자로서 귀하가 하시는 일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3. 마지막으로, 연구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스타벅스 기프티콘(13,000원 상당)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아동기 부모교실>과는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입력은 선택입니다. 기프티콘을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기프티콘 전송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기프티콘 전송 후 폐기됩니다.

_____

부록 2-1 아동기 부모교실 사전조사 설문지

1. 귀하가 신청하신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은 어느 자치구에서 개설되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2. 귀하가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② 배우자 및 가족의 권유에 의해 ③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의 권유에 의해
④ 교육비가 무료라서 ⑤ 기타

3. 귀하가 본 교육을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소개로 ② 신문기사, 보도자료 등을 통해
③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에서 정보를 얻고 ④ 기타

※ 다음은 귀하의 자녀와 부모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4. 귀하의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입양, 재혼 등으로 인한 자녀 포함) ____명 **[1~10명 가능]**

5. 귀하의 자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출생연도	성별	교육정도	
첫째				
둘째				
셋째				

[4번에서 응답한 자녀 수 만큼 제시, 아래 5-1부터 5-4에 응답하면 위의 표가 채워짐]

5-1. 귀하의 [첫째 자녀]는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 년

5-2. 귀하의 [첫째 자녀]는 현재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현대 다니고 있지 않다면 어디까지 다녔습니다?)
① 미취학 (5-3번으로) ② 초등학교 (5-3번으로) ③ 중학교 (6번으로)
④ 고등학교 (6번으로) ⑤ 대학교 이상 (6번으로)

5-3. **[5-2=① or ②]** 귀하의 [첫째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5-4. **[5-2=②]** 귀하의 [첫째 자녀]는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6. 귀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녀와의 소통 ② 자녀의 학습 ③ 자녀의 생활습관 ④ 자녀의 친구관계
⑤ 자녀의 정서문제(예: 자존감) ⑥ 자녀 성교육 ⑦ 자녀의 디지털기기 사용
⑧ 기타( ) ⑨ 없음 **['없음' 선택 시 다른 보기 선택 불가]**

7. 귀하는 현재 모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함 ② 대체로 불만족함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8. 다음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요즘은 자녀 양육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8)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역할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을 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6개월 동안 귀하의 '아동기 자녀'(0세-초등학교 6학년)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⓪	①	②
2)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⓪	①	②
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담하며 눈물이 고인다	⓪	①	②
4) 낯선 상황에서는 불안해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안 떨어지려고 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⓪	①	②
5)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⓪	①	②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⓪	①	②
7)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⓪	①	②
8)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좋아한다	⓪	①	②
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⓪	①	②
10)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⓪	①	②
11) 자주 불같이 화를 낸다	⓪	①	②
12)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한다	⓪	①	②
13)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⓪	①	②
14)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⓪	①	②
15)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물건을 훔친다	⓪	①	②
16)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⓪	①	②
17) 언제나 안절부절 못하고 꼼지락 거린다	⓪	①	②
18)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산만하다	⓪	①	②
19)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⓪	①	②
20)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⓪	①	②

11. 귀하의 자녀양육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모로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성장기 경험이 나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가 자라면서 나의 부모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의 장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를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고 수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와의 효과적인 소통에 도움이 되는 나 전달법(I message)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스마트 기기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스마트 기기 사용을 지도하는	①	②	③	④	⑤

방법을 알고 있다					
17) 나는 부모로서 나의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 수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에게 성교육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아이가 성적 괴롭힘(실제상황 및 사이버공간)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1-10점)

① 매우 불행했음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행복했음

13. 귀하 가족의 건강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0점)

※ 가족의 건강성 : 가족생활이 원만하고 위기에 잘 대처하며 가족원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하는 상태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건강함

14. 귀하의 지난 30일 동안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그랬다	매우 그랬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귀하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응답은 통계분석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16. 귀하의 출생연도는 몇 년입니까? [ ][ ][ ][ ] 년

16-1. 귀하의 올해(2020년) 생일이 지났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7. 귀하의 교육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졸업을 기준으로 응답; 대학교 재학, 휴학, 중퇴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응답)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2-3년제) 졸업
③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18. 귀하의 가정은 다문화가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9. 귀하의 가정은 한부모가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1. 귀하는 지난 한 달 동안(최근 30일)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① 일했음 ② 학교에 다녔음 ③ 일시 휴직/휴가
④ 취업준비(구직활동, 고시, 진학준비, 직업훈련 등) ⑤ 육아/가사 ⑥ 기타

20-2. [19=②] 귀하의 배우자는 지난 한 달 동안(최근 30일)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① 일했음 ② 학교에 다녔음 ③ 일시 휴직/휴가
④ 취업준비(구직활동, 고시, 진학준비, 직업훈련 등) ⑤ 육아/가사 ⑥ 기타

21. 지난 1년(최근 12개월) 동안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이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900만원 미만
⑩ 900~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22. 귀댁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	중하	중	중상	상
①	②	③	④	⑤

23. 귀하는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 이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4. [23=①] 귀하는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 이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다른 '**부모교육**'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5. 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의 기관(지역사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마지막으로,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여쭙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귀하와 파트너의 교육 전-후 응답을 매칭하여 분석하기 위함으로 꼭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매칭에만 사용되며, 매칭한 이후에 즉시 폐기됩니다.

26.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네 자리 [ ][ ][ ][ ]
(010-1234-5678이라면 '5678'만 기입)

부록 2-2 아동기 부모교실 사후조사 설문지: 대규모, 병합형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출생연도는 몇 년입니까? [ ][ ][ ][ ] 년

3. 귀하는 <아동기 부모교실> 시작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셨습니까?
① 예 (4번으로) ② 아니오 (12번으로)

4. 교육 전-후의 응답을 매칭하여 통계분석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여쭙겠습니다. 사전조사에서 입력하신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꼭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매칭에만 사용되며, 매칭한 이후에 즉시 폐기됩니다.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 ][ ][ ][ ]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면 '5678'만 기입)

※ 다음은 귀하의 자녀와 부모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귀하는 현재 모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함 ② 대체로 불만족함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6. 다음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요즘은 자녀 양육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8)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역할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을 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의 자녀양육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모로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성장기 경험이 나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가 자라면서 나의 부모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의 장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를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고 수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와의 효과적인 소통에 도움이 되는 나 전달법(I message)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스마트 기기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스마트 기기 사용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부모로서 나의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 수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에게 성교육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아이가 성적 괴롭힘(실제상황 및 사이버공간)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1-10점)

① 매우 불행했음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행복했음

10. 귀하의 가족의 건강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0점)

※ 가족의 건강성 : 가족생활이 원만하고 위기에 잘 대처하며 가족원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하는 상태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건강함

11. 귀하의 지난 30일 동안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귀하가 참여하신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가 참여하신 <아동기 부모교실>은 어느 자치구에서 개설되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13. 귀하가 참여한 <아동기 부모교실>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① 대면(오프라인) (13-1번으로)
② 비대면(온라인) (13-2번으로)
③ 대면, 비대면 혼용 (오프라인+온라인) (13-1번으로)

13-1. (BASE 13=① or ③)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아동기 부모교실> 교육장소까지 오는데 교통편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도보로 이동했다면 도보시간 기입)

※ 13=①이면, 응답 후 14번으로 / 13=③이면, 응답 후 13-2번으로

① 15분 이내 ② 16-30분 ③ 31-45분 ④ 46-60분 ⑤ 60분 이상

13-2. (BASE 13=② or ③) 귀하는 어떤 기기를 사용하여 비대면(온라인)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컴퓨터 (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 (아이패드 등) ③ 스마트폰 ④ 기타

14.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해 응답)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1) 프로그램이 운영된 요일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2) 프로그램이 운영된 시간대는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3) 프로그램의 총 소요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얼마나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0-10점)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0점)										반드시 추천하고 싶다(10점)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6. 귀하가 참여하신 <아동기 부모교실>은 몇 회기였습니까? (한 회기는 2시간입니다. 하루에 2개 주제(총 4시간)를 교육했다면 2회기입니다.)

① 1회기 ② 2회기 ③ 3회기 ④ 4회기 ⑤ 5회기 ⑥ 6회기 이상

17. 다음은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중 귀하가 참여한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다룬 주제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16-0번에서 응답한 회기의 수만큼 제시]

1회기: _____ 2회기: _____

3회기: _____ 4회기: _____

⓪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②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③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④ 맞춤형 학습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18. 귀하는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 몇 회기 참석하셨습니까?(모두 선택) **[17번에서 선택한 주제만 제시]**

회기	참석 여부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① O ② X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① O ② X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① O ② X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① O ② X
맞춤형 학습	① O ② X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① O ② X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① O ② X
우리 가족 이야기	① O ② X
기타	① O ② X

19. 귀하는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 사정상 늦게 참여(10분 이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21번으로)

20. (BASE 19=①) 귀하가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 사정상 늦게 참여(10분 이상)한 교육 주제를 선택해 주십시오.(모두 선택)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⓪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대화법	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②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③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④ 맞춤형 학습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21. 귀하는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사정상 교육종료시간보다 일찍(10분 이상)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BASE 21=①) 귀하가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사정상 교육 종료시간보다 일찍(10분 이상)나가신 교육 주제를 선택해 주십시오.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⓪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대화법	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②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③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④ 맞춤형 학습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23. 각 회기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주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①	②	③	④	⑤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①	②	③	④	⑤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①	②	③	④	⑤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①	②	③	④	⑤
맞춤형 학습	①	②	③	④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 이야기	①	②	③	④	⑤
기타 **[7번에서 응답한 내용 제시]**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아동기 부모교실>의 회기별 강사만족도입니다. 각 회기의 교육마다 강사만족도를 체크해주십시오.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1)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강의내용 전달에 있어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적절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5. <아동기 부모교실>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적어주십시오. **[로직: 선택응답]**

26. 현재 진행하는 <아동기 부모교실>의 교육내용 외에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로직: 선택응답]**

27. <아동기 부모교실>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로직: 선택응답]**

※ (BASE 3=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모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기프티콘(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사후조사만 응답한 경우에는 14번에서 설문이 종료됨]

28. **[선택응답]** 기프티콘을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없이 숫자만 기입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기프티콘 전송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기프티콘 전송 후 폐기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기입은 선택사항입니다. _____

부록 2-3 아동기 부모교실 사후조사 설문지: 참여형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출생연도는 몇 년입니까? [ ][ ][ ][ ] 년

3. 귀하는 <아동기 부모교실> 시작 전에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셨습니까?
① 예 (4번으로) ② 아니오 (12번으로)

4. 귀하의 교육 전-후의 응답을 매칭하여 통계분석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여쭙겠습니다. 사전조사에서 입력하신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매칭에만 사용되며, 매칭한 이후에 즉시 폐기됩니다. [사후조사만 응답한 경우에는 14번에서 설문이 종료됨]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 ][ ][ ][ ]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면 '5678'만 기입)

※ 다음은 귀하의 자녀와 부모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5. 귀하는 현재 모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함 ② 대체로 불만족함 ③ 보통임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6. 다음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현재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요즘은 자녀양육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8)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역할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를 잘 지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을 해왔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귀하의 자녀양육에 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로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모로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성장기 경험이 나의 부모역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이가 자라면서 나의 부모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이의 장점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의 타고난 기질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아이를 일관성 있게 양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아이의 감정을 읽고 수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이와의 효과적인 소통에 도움이 되는 나 전달법(I message)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아이의 자율성을 키우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학습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스마트 기기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이의 특성에 맞게 스마트 기기 사용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부모로서 나의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 수준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아이에게 성교육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디지털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아이가 성적 괴롭힘(실제상황 및 사이버공간)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1-10점)

① 매우 불행했음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행복했음

10. 귀하의 가족의 건강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0점)

※ 가족의 건강성 : 가족생활이 원만하고 위기에 잘 대처하며 가족원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하는 상태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건강함

11. 귀하의 지난 30일 동안의 상태와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대체로 그랬다	항상 그랬다
1)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지난 30일 동안,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귀하가 참여하신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귀하가 참여하신 <아동기 부모교실>은 어느 자치구에서 개설되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13. 귀하가 참여한 <아동기 부모교실>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① 대면(오프라인) (4-1번으로)
② 비대면(온라인) (4-2번으로)
③ 대면, 비대면 혼용 (오프라인+온라인) (4-1번으로)

13-1. (BASE 13=① or ③)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대면으로 진행된 <아동기 부모교실> 교육장소까지 오는데 교통편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도보로 이동했다면 도보시간 기입)

※ 13=①이면, 응답 후 14번으로 / 13=③이면, 응답 후 13-2번으로

① 15분 이내 ② 16-30분 ③ 31-45분 ④ 46-60분 ⑤ 60분 이상

13-2. (BASE 13=② or ③) 귀하는 어떤 기기를 사용하여 비대면(온라인) <아동기 부모교실>에 참여하였습니까?

① 컴퓨터 (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 (아이패드 등) ③ 스마트폰 ④ 기타

14.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프로그램 내용은 실제적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 강사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프로그램 진행환경은 만족스러웠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해 응답)	①	②	③	④	⑤
4) 프로그램 진행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1) 프로그램이 운영된 요일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2) 프로그램이 운영된 시간대는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3) 프로그램의 총 소요시간은 참여하기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프로그램 진행과정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회가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사람들에게 본 프로그램 이용을 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얼마나 추천해주고 싶습니까?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다(0점)										반드시 추천하고 싶다(10점)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6. 귀하가 참여하신 <아동기 부모교실>은 몇 회기였습니까? (한 회기는 2시간입니다. 하루에 2개 주제(총 4시간)를 교육했다면 2회기입니다.)

① 1회기 ② 2회기 ③ 3회기 ④ 4회기 ⑤ 5회기 ⑥ 6회기 이상

17. 다음은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중 귀하가 참여한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다룬 주제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7-0번에서 응답한 회기의 수만큼 제시]

1회기: _____ 2회기: _____

3회기: _____ 4회기: _____

①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②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③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④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18. 귀하는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 몇 회기 참석하셨습니까?(모두 선택) **[17번에서 선택한 주제만 제시]**

회기	참석 여부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① O ② X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① O ② X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① O ② X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① O ② X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① O ② X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① O ② X
우리 가족 이야기	① O ② X
기타	① O ② X

19. 귀하는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 사정상 늦게 참여(10분 이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 (BASE 19=①) 귀하가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 사정상 늦게 참여(10분 이상)한 교육 주제를 선택해 주십시오.(모두 선택)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①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②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③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④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21. 귀하는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사정상 교육종료시간보다 일찍(10분 이상)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2. (BASE 21=①) 귀하가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사정상 교육 종료시간보다 일찍(10분 이상)나가신 교육 주제를 선택해 주십시오.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①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②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③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④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23. 각 회기는 귀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주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었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①	②	③	④	⑤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①	②	③	④	⑤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①	②	③	④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①	②	③	④	⑤
우리 가족 이야기	①	②	③	④	⑤
기타 **[7번에서 응답한 내용 제시]**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은 귀하가 참여하신 <아동기 부모교실>의 회기별 강사만족도입니다. 각 회기의 교육마다 강사만족도를 체크해주십시오. **[18번에서 참석한 주제만 제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1)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강의내용 전달에 있어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적절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이 강사의 다른 강의에 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5. <아동기 부모교실>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적어주십시오. **[로직: 선택응답]**

26. 현재 진행하는 <아동기 부모교실>의 교육내용 외에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로직: 선택응답]**

27. <아동기 부모교실>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로직: 선택응답]**

※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 모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기프티콘(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사후조사만 응답한 경우에는 27번에서 설문이 종료됨]

28. **[선택응답]** 기프티콘을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없이 숫자만 기입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기프티콘 전송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기프티콘 전송 후 폐기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기입은 선택사항입니다. _____

부록 2-4 아동기 부모교실 실무자 조사 설문지

※ 이 설문지는 모바일 기기보다는 컴퓨터에서 응답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효과성 연구에 협조해 주신 센터에서 <아동기 부모교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어떤 자치구의 응답인지 삭제된 상태로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달됩니다.

1. 귀하는 어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2. 사전-사후검사에 협조해 주신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마지막 회기가 종료된 날(사후검사 실시일)은 며칠입니까? 2020년 _____월 _____일

3.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까?
① 대면 (오프라인) (4번으로)
② 비대면 (온라인) (3-1번으로)
③ 대면, 비대면 혼용 (오프라인+온라인) (3-1번으로)

3-1. (BASE 3=② or ③) 이번 비대면(온라인) <아동기 부모교실>은 어떻게 운영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사용하셨을 경우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① 실시간 상호작용형 (강사와 참여 부모 모두 비디오 또는 오디오로 실시간 참여하여 상호작용)
② 라이브 중계형 (라이브 방송처럼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참여부모는 채팅창 등으로만 참여)
③ 사전 녹화형 (미리 제작한 영상을 참여부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청)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은 몇 회기로 구성되었습니까? _____회기

5.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강사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6.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대규모 ② 병합형 ③ 참여형

※ [6=①] 대규모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각 회기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습니까? 다음의 가능한 주제들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매뉴얼의 교육 주제 외 다른 교육을 추가로 함께 진행하셨을 경우 '기타'를 선택해주십시오.)

[4번에서 응답한 숫자만큼 회기수 제시]

7-1. 1회기: _____ 7-2. 2회기: _____

7-3. 3회기: _____ 7-4. 4회기: _____

8. (BASE 3=③)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제들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⓪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②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③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④ 맞춤형 학습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9. 차시별 교육내용 및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제시된 보기의 교육내용이나 활동 이외에, 강사 또는 센터 재량으로 추가한 교육내용 및 활동이 있다면 [기타]를 선택하신 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9-0. (BASE 7=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ㅁ 아동기 발달과업
- ㅁ 바람직한 부모역할-훈육과 잘못된 훈육
- ㅁ 효과적인 훈육의 기술
- ㅁ 효과적인 대화(잘 듣기, 감정 읽기, 질문하기, 나 전달법 등)
- ㅁ 칭찬의 기술
- ㅁ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ㅁ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1. (BASE 7=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ㅁ 아동기 발달과업
- ㅁ 바람직한 부모역할-훈육과 잘못된 훈육
- ㅁ 효과적인 훈육의 기술
- ㅁ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ㅁ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2. (BASE 7=②)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ㅁ 효과적인 대화(잘 듣기, 감정 읽기, 질문하기, 나 전달법 등)
- ㅁ 칭찬의 기술
- ㅁ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ㅁ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3. (BASE 7=③)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ㅁ 자존감의 의미, 아동의 자존감 형성
- ㅁ 부모의 자존감과 자녀의 자존감의 관계
- ㅁ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공감, 이해, 수용, 자율성 지지 등)
- ㅁ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ㅁ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4. (BASE 7=④) '맞춤형 학습'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ㅁ 적절한 학습환경의 중요성
- 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모의 관여행동
- ㅁ 학습유형 분류 및 검사
- ㅁ 학습 고민 해결을 위한 전략
- ㅁ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ㅁ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5. (BASE 7=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ㅁ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
- ㅁ 부모가 알아야 하는 초등학생의 성(性)
- ㅁ 성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제외)
- 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 ㅁ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ㅁ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6. (BASE 7=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ㅁ 디지털 기기 의존 실태
- ㅁ 디지털 기기와 유아동의 뇌 변화
- ㅁ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지도 방법
- ㅁ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ㅁ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7. (BASE 7=⑦) '우리 가족 이야기'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ㅁ 가족의 공유시간, 공유활동의 중요성
- ㅁ 우리 가족 동물가족화(동물가족화로 우리 가족 표현하기)
- ㅁ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선물 찾아 꾸미기 → 받은 선물에 고마움 표현하기)
- ㅁ 미래 우리 가족(이야기책 제목 정하고 표지 만들기)
- ㅁ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ㅁ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10-1번으로 이동]

※ [6=②] 병합형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각 회기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습니까? 다음의 가능한 주제들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매뉴얼의 교육 주제 외 다른 교육을 추가로 함께 진행하셨을 경우 '기타'를 선택해주십시오.)

[4번에서 응답한 숫자만큼 회기수 제시. 한 주제를 두 회기에 나누어서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한 주제를 2회 이상 선택하는 것 허용]

7-1. 1회기: _____ 7-2. 2회기: _____

7-3. 3회기: _____ 7-4. 4회기: _____

8. (BASE 3=③)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제들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⓪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②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③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④ 맞춤형 학습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9. 차시별 교육내용 및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제시된 보기의 교육내용이나 활동 이외에, 강사 또는 센터 재량으로 추가한 교육내용 및 활동이 있다면 [기타]를 선택하신 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9-0. (BASE 7=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및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아동기 발달과업
- ◻ 바람직한 부모역할-훈육과 잘못된 훈육
- ◻ 효과적인 훈육의 기술
- ◻ 참여형 활동: 이 수업에서 원하는 것 적어보기
- ◻ 참여형 활동: 부모로서의 나 이해하기
- ◻ 참여형 활동: 내 아이 특성 이해하기 - 출생순위별 그룹활동
- ◻ 참여형 활동: 아이의 일탈행동 이해하기
- ◻ 비효과적인 대화
- ◻ 효과적인 대화(잘 듣기, 감정읽기, 질문하기, 나 전달법 등)
- ◻ 칭찬의 기술
- ◻ 참여형 활동: 나도 괜찮은 아이가 되고 싶어요
- ◻ 참여형 활동: 잘 듣기/안 듣기 대화실습
- ◻ 참여형 활동: 자신의 사례에서 아이와 부모 자신의 감정찾기
- ◻ 참여형 활동: 공감 소통연습 5단계, 역할놀이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1. (BASE 7=①) **'좋은 부모 되기: 현명한 훈육법'**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아동기 발달과업
- ◻ 바람직한 부모역할-훈육과 잘못된 훈육
- ◻ 효과적인 훈육의 기술
- ◻ 참여형 활동: 이 수업에서 원하는 것 적어보기
- ◻ 참여형 활동: 부모로서의 나 이해하기
- ◻ 참여형 활동: 내 아이 특성 이해하기 - 출생순위별 그룹활동
- ◻ 참여형 활동: 아이의 일탈행동 이해하기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2. (BASE 7=②) **'자녀와 소통하는 대화비법'**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비효과적인 대화
- ◻ 효과적인 대화(잘 듣기, 감정읽기, 질문하기, 나전달법 등)
- ◻ 칭찬의 기술
- ◻ 참여형 활동 : 나도 괜찮은 아이가 되고 싶어요
- ◻ 참여형 활동 : 잘 듣기 / 안 듣기 대화 실습
- ◻ 참여형 활동 : 자신의 사례에서 아이와 부모 자신의 감정 찾기
- ◻ 참여형 활동 : 공감소통연습 5단계, 역할놀이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3. (BASE 7=③)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자존감의 의미, 아동의 자존감 형성
- ◻ 부모의 자존감과 자녀의 자존감의 관계
- ◻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공감, 이해, 수용, 자율성 지지 등)
- ◻ 참여형 활동 : 역발상 게임
- ◻ 참여형 활동 : 생활양식 유형 알아보기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병합형: 4-6차시는 참여형 활동 없이 대규모형과 동일함]

9-4. (BASE 7=④) **'맞춤형 학습'**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적절한 학습환경의 중요성
- ◻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모의 관여행동
- ◻ 학습유형 분류 및 검사
- ◻ 학습 고민 해결을 위한 꿀팁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5. (BASE 7=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
- □ 부모가 알아야 하는 초등학생의 성(性)
- □ 성폭력 교육 (디지털 성폭력 제외)
-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6. (BASE 7=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디지털 기기 의존 실태
- □ 디지털 기기와 유아동의 뇌 변화
- □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지도 방법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7. (BASE 7=⑦) ‘우리 가족 이야기’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가족의 공유시간, 공유활동의 중요성
- □ 우리 가족 동물가족화(동물가족화로 우리 가족 표현하기)
- □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선물 찾아 꾸미기 → 받은 선물에 고마움 표현하기)
- □ 미래 우리 가족(이야기책 제목 정하고 표지 만들기)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10-1번으로 이동]

※ [6=③]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입니다.

7.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각 회기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습니까? 다음의 가능한 주제들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서울가족학교 <아동기 부모교실> 매뉴얼의 교육 주제 외 다른 교육을 추가로 함께 진행하셨을 경우 '기타'를 선택해주십시오.)

[4번에서 응답한 숫자만큼 회기수 제시. 한 주제를 두 회기에 나누어서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한 주제를 2회 이상 선택하는 것 허용]

7-1. 1회기: _____ 7-2. 2회기: _____

7-3. 3회기: _____ 7-4. 4회기: _____

①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②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③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④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심화: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8. (BASE 3=③)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육 주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제들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①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②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③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④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⑦ 심화: 우리 가족 이야기	⑧ 기타 (구체적으로:)

9. 차시별 교육내용 및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제시된 보기의 교육내용이나 활동 이외에, 강사 또는 센터 재량으로 추가한 교육내용 및 활동이 있다면 [기타]를 선택하신 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9-1. (BASE 7=①) ‘나와 내 자녀 바로 알기’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가계도 그려보기
- □ 현재 내 가족 돌아보기
- □ 내 아이 특성 이해하기
- □ 칭찬과 격려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2. (BASE 7=②) ‘부모의 생활양식과 자녀와의 관계’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되고 싶은 동물 선택 활동
- □ 나의 부모 유형 공유
- □ 나도 괜찮은 아이가 되고 싶어요 활동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3. (BASE 7=③)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좋은 대화: 공감적 의사소통
- □ 경청의 3요소
- □ 가족회의, 가족신문
- □ 감정공감하는 소통연습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4. (BASE 7=④) ‘행복하게 자란 내 아이가 만드는 미래’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아이의 일탈행동 이해하기
- □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 □ 내 아이 강점 찾아보기
- □ 강점 살리는 진로 탐색 방법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참여형의 경우에도 5-6차시는 대규모/병합형과 동일함]

9-5. (BASE 7=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
- □ 부모가 알아야 하는 초등학생의 성(性)
- □ 성폭력 예방교육 (디지털 성폭력 제외)
- □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6. (BASE 7=⑥) '자녀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디지털 기기 의존 실태
- □ 디지털 기기와 유아동의 뇌 변화
- □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지도 방법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9-7. (BASE 7=⑦) '우리 가족 이야기' 차시에서 다룬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가족의 공유시간, 공유활동의 중요성
- □ 우리 가족 동물가족화(동물가족화로 우리 가족 표현하기)
- □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선물 찾아 꾸미기 → 받은 선물에 고마움 표현하기)
- □ 미래 우리 가족(이야기책 제목 정하고 표지 만들기)
- □ [기타: 강의내용] (구체적으로:)
- □ [기타: 활동] (구체적으로:)

[10-1번으로 이동]

※ 다음은 강사별 질문입니다.

10-1.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을 담당하신 강사님에 대해 다음 각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 부분에는 7-1번 응답을 끌어와서 제시]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강의계획서를 사전에 송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 강의 시작시간(지각 여부)을 엄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강의운영 및 진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실무자와 충분히 논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사전에 논의된 사항을 강의 운영 및 진행 시 충분히 실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강의 시작 전, 센터소개를 적절히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강사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강사의 표현 및 태도는 강의내용 전달에 적절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강사는 흥미유발기법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해당 강사를 섭외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반복: 10-1번과 같은 방식으로 회기를 바꾸어서 7번에서 응답한 회기의 수만큼 질문 반복]

11.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은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되었습니까?

① 연계하지 않았음 ②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연계 ③ 초등학교와 연계
④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교육복지센터, 드림스타트 등) ⑤ 기타(구체적으로:)

12.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참여자 모집을 위해 사용한 홍보매체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치구 센터 홈페이지 ② 지역신문, 지역 TV 등 언론
③ 인터넷 카페(지역 맘카페 등) ④ 자치구 센터 SNS
⑤ 자치구 센터회원 대상 문자 ⑥ 지역 내 유관기관에 홍보요청
⑦ 지역 내 게시판(아파트, 대로변, 지하철 등) ⑧ 기타(_____)

13.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 프로그램 홍보를 시작한 후 참여자 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몇 주가 소요되었습니까?

① 1주 ② 2주 ③ 3주 ④ 4주 ⑤ 5주 ⑥ 6주 ⑦ 7주 ⑧ 8주 이상

14.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 프로그램 시작 이전에 신청자들에게 사전연락(안내문자, 전화 등)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 1주차 종료 후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락(문자, 전화 등)을 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6.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는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수료증 외에 수료선물을 증정하였습니까? (참석자 전원에게 증정한 선물은 수료선물로 보지 않음)

① 예 ② 아니오

17. [BASE 3=① or ③]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참여자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 허용되었습니까?

① 가능했다 (17-1번으로) ② 불가능했다 (18번으로)

17-1. [BASE 17=①]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는 자녀를 동반한 참여자를 위해 교육시간 중에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① 예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줌) (17-2번으로)

② 아니오 (참여자가 자녀를 데리고 교육에 참여) (18번으로)

17-2. [BASE 17-1=①] 자녀돌봄 서비스를 위해 어떤 인력을 활용하였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원봉사자 ② 센터 아이돌보미 ③ 센터 직원 ④ 센터 실습생 ⑤ 기타( )

17-3. [BASE 17-1=①] 교육시간 동안 어떤 공간에서 자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까?

① 공동육아나눔터 ② 이외 센터 내 공간(강의실, 회의실 등) ③ 기타( )

18.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에서 지각 또는 일찍 나간 참여자는 회기별로 몇 명이었습니까?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시면 대략적으로라도 응답해 주십시오.(지각 또는 일찍 나간 참여자가 없을 경우 0을 입력해주십시오.)

[4번에서 응답한 회기수만큼 제시]

	18-1. 총 인원수 (지각, 일찍 나간 사람 포함)	18-2. 지각 인원수 (10분 이상)	18-3. 일찍 나간 인원수 (10분 이상)
1회기	( )명	( )명	( )명
2회기	( )명	( )명	( )명
3회기	( )명	( )명	( )명
4회기	( )명	( )명	( )명
5회기	( )명	( )명	( )명

19.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참여자를 모집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적어 주십시오.

[선택응답]

20.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의 효과성이나 만족도와 관련하여 말씀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선택응답]

21. (BASE 3=② or ③) 이번 <아동기 부모교실>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향후 센터의 비대면 교육에 참고할 만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2. <아동기 부모교실> 담당자로서 귀하가 하시는 일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현재 하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3. 마지막으로, 연구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스타벅스 기프티콘(13,000원 상당)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기프티콘을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없이 숫자만 기입해 주십시오. (<예비부부교실>과는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입력은 선택입니다.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는 기프티콘 전송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기프티콘 전송 후 폐기됩니다.

부록 3-1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사전조사 설문지

I. 다음은 귀하의 부부관계 및 심리상태에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내용을 읽고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남편(아내)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내용을 읽고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 험담하며 과거에 받은 상처를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는 내 말과 행동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배우자는 내 편을 안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다음 내용을 읽고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자가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배우자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기분 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옳다고 믿는 것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배우자는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화 중 배우자의 목소리 톤이 귀에 거슬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진실된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배우자는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문제를 의논해야 할 때 배우자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 망설여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비밀스러운 일을 누구보다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배우자에게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배우자가 나로 인해 화가 나면 나에게 일부러 마음 상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우울할 때 배우자는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배우자가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 내용을 읽고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귀하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별거에 대해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상담과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1. 귀하가 상담을 받으시려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느 구에 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2. 귀하가 상담을 받으려는 주요 문제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보통 ② 조금 심각하다 ③ 매우 심각하다 ④ 잘 모르겠다

3. 귀하가 상담에 찾아오시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① 스스로 결정함 ② 배우자 권유 ③ 주변 권유 ④ 다른 기관에서 권유 ⑤ 기타( )

4. 상담을 받고 난 후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① 변화가 없을 것 같다 ② 약간 좋은 상태가 될 것 같다
③ 매우 좋은 상태가 될 것 같다 ④ 잘 모르겠다

5. 귀하가 상담에 찾아오시게 된 배우자와의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일상생활(습관) 차이갈등 ② 의사소통 문제 ③ 성격차이 ④ 가치관 갈등
⑤ 종교갈등 ⑥ 별거 ⑦ 재혼 ⑧ 배우자 외도 ⑨ 본인 외도 ⑩ 배우자 의심
⑪ 배우자폭력 ⑫ 중독 ⑬ 가출/행방불명 ⑭ 법률문제 ⑮ 경제문제 ⑯ 부부성생활
⑰ 출산/낙태/난임/입양 ⑱ 기타( )

III. 인적사항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통계분석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여성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을 적어 주십시오. 만 _____세

3. 귀하는 현재 배우자와 몇 년에 결혼하셨습니까? _____년

4.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음(4-1로) ② 없음
4-1. 귀하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전혼자녀가 있다면 포함)
아들____명, 딸____명

5. 지난 1년(최근 12개월) 동안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 이후)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900만원 미만
⑩ 900~1,000만원 미만 ⑪ 1,000만원 이상

IV. 마지막으로,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부인과 남편의 상담 전-후 응답을 매칭하여 통계분석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여쭙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매칭에만 사용되며, 매칭한 이후에는 즉시 폐기됩니다.

1.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2. 파트너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면 '5678'만 기입)				

부록 3-2 가족상담지원사업 내담자 사후조사 설문지

I. 다음은 귀하의 부부관계 및 심리상태에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귀하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내용을 읽고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현재**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아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남편(아내)과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다음 내용을 읽고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비난, 험담하며 과거에 받은 상처를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는 내 말과 행동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배우자는 내 편을 안 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귀하는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다음 내용을 읽고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는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배우자가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배우자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때 기분 상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옳다고 믿는 것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배우자는 서로의 개인적인 문제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대화 중 배우자의 목소리 톤이 귀에 거슬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진실된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배우자는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떤 문제를 의논해야 할 때 배우자가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봐 두려워 망설여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비밀스러운 일을 누구보다 먼저 배우자에게 털어놓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배우자에게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배우자가 나로 인해 화가 나면 나에게 일부러 마음 상하는 말을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의욕이 상실되었거나 우울할 때 배우자는 나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배우자가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 반대의견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 내용을 읽고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생각하는 **현재**의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는 귀하의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는 이혼이나 별거를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또는 별거에 대해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 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상담과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1. 귀하가 상담을 받으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느 구에 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2. 귀하가 참여한 상담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습니까?
① 비대면(온라인)
② 대면(오프라인)
③ 대면, 비대면 혼용(오프라인+온라인)

3. 귀하가 이번에 받으신 상담이 종결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2020년 _____월 ____일

4. 귀하가 상담을 받으신 문제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담을 받기 전보다 나아졌다
② 상담을 받기 전보다 약간 나아졌다
③ 상담을 받기 전과 비슷하다
④ 상담을 받기 전보다 약간 나빠졌다
⑤ 상담을 받기 전보다 나빠졌다

5. 상담 기간 동안 귀하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4-1 문항으로)
②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4-1 문항으로)
③ 변화가 없다
④ 약간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⑤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5-1. 상담 후 귀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모두 고르십시오)
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③ 전보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자신감이 생겼다
④ 나와 배우자에 대해 전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상담을 통해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6. 귀하는 이번에 받으신 상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6. 상담을 받은 후의 소감을 간단히 기입해 주십시오.

IV. 마지막으로,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부인과 남편의 상담 전-후 응답을 매칭하여 통계 분석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를 여쭙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는 매칭에만 사용되며, 매칭한 이후에는 즉시 폐기됩니다.

1.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2. 파트너의 휴대전화번호 뒷 4자리				
(전화번호가 010-1234-5678이라면 '5678'만 기입)				

IV.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기프티콘(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기프티콘을 받으실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기프티콘 전송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기프티콘 전송 후 폐기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기입은 선택이지만, 적어주시지 않을 경우 죄송하지만 기프티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_____

부록 3-3 가족상담지원사업 상담사 조사 설문지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참여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하신 부부상담 사례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각 상담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 이미 답하신 적이 있어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례를 상담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느 구에 있습니까?
   ① 강남구 ② 강동구 ③ 강북구 ④ 강서구 ⑤ 관악구 ⑥ 광진구 ⑦ 구로구 ⑧ 금천구
   ⑨ 노원구 ⑩ 도봉구 ⑪ 동대문구 ⑫ 동작구 ⑬ 마포구 ⑭ 서대문구 ⑮ 서초구
   ⑯ 성동구 ⑰ 성북구 ⑱ 송파구 ⑲ 양천구 ⑳ 영등포구 ㉑ 용산구 ㉒ 은평구
   ㉓ 종로구 ㉔ 중구 ㉕ 중랑구

2. 본 사례의 상담이 종결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2020년 _____월 ____일

3. 본 상담사례는 총 몇 회기였습니까? _____회기

3-1. 부부가 모두 참여한 회기는 총 몇 회기였습니까? _____회기

4. 귀하는 상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면(여러 학회에서 1급, 2급 모두 있는 경우) 1급 전문가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격증 없음 ② 2급 자격증(4-2로) ③ 1급 전문가 자격증(4-1로)

4-1. 귀하가 상담 관련 전문가 자격증(1급)을 가지고 계신 상태라면, 어느 학회 자격증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증
   ② 한국가족관계학회 자격증
   ③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④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⑤ 기타

4-2. 귀하가 상담 관련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상태라면, 어느 학회 자격증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증
   ② 한국가족관계학회 자격증
   ③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④ 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증
   ⑤ 기타

5. 귀하는 본 사례를 상담하면서 슈퍼비전을 몇 회 받으셨습니까?
   ① 0회
   ② 0회(전문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슈퍼비전 필요 없음)
   ③ 1회(5-1로 넘어감)
   ④ 2회(5-1로 넘어감)
   ⑤ 3회(5-1로 넘어감)
   ⑥ 4회 이상(5-1로 넘어감)

5-1. 본 사례를 상담하면서 슈퍼비전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② 도움되지 않았다 ③ 도움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6. 귀하가 주로 활동하는 상담 관련 학회는 어디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한국가족치료학회
   ② 한국가족관계학회
   ③ 한국상담학회
   ④ 한국상담심리학회
   ⑤ 기타

7. 상담사의 상담업무 관련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생활과학계열(아동가족학, 가족/가정복지학, 가정관리학, 아동(복지)학 등)
   ② 사회복지학
   ③ 심리학
   ④ 교육학
   ⑤ 상담학계열
   ⑥ 기타:

8. 귀하의 상담 관련 최종학위는 무엇입니까?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9. 귀하는 상담사로 활동한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____년 ____개월

10. 귀하는 지금까지 부부 및 가족상담(2인 이상)을 총 몇 사례 상담하셨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 상담 포함) 총 약 _____사례

11. 귀하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한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____년 ____개월

12. 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 및 가족상담(2인 이상)을 총 몇 사례 상담하셨습니까?

총 약 _____사례

13. 귀하가 주로 사용하는 상담이론/모델은 무엇입니까? (2가지 이상 응답 가능)

14. 귀하가 본 사례를 상담하면서 주로 사용한 상담이론/모델은 무엇입니까?
(2가지 이상 응답 가능)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프티콘(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기프티콘 전송 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기프티콘 전송 후 폐기됩니다. 휴대전화 번호 기입은 선택이지만, 적어주시지 않을 경우 죄송하지만 기프티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020 서울가족사업 활성화 연구보고서 Ⅱ

서울가족사업 효과성 연구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처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획 · 편집	기획총괄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전 화	02)318-8167
팩 스	02)318-0228
홈페이지	http://familyseoul.or.kr/
인 쇄 처	오픈커뮤니케이션 02)511-1556

본 자료집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복제를 금지합니다.

2020 서울가족사업
효과성 연구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